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 학위논문

프린키파투스에 대한
타키투스의 서술 연구:
로마 역사서술 전통을 중심으로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서양고전학 전공

김 기 훈

프린키파투스에 대한
타키투스의 서술 연구:
로마 역사서술 전통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덕 수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서양고전학 전공
김 기 훈

김기훈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6월

위 원 장 강 상 진 (인)

부위원장 김 덕 수 (인)

위 원 김 창 성 (인)

위 원 안 재 원 (인)

위 원 차 전 환 (인)

국문초록

『연대기』(*Annales*)는 타키투스의 저술 전체에서 기획과 구도 안에서 특이한 위치에 있다. 저술 순서상으로는 마지막 작품이지만 그것이 다루고 있는 역사적 시간 면에서는 『역사』(*Historiae*)의 전편(前篇, prequel) 서사로 채워진 작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키투스의 역사서 전체가 다루고 있는 14-96년을 그 시간 계열에 따라 읽게 되면 『연대기』 제1-6권이 맨 앞에 위치한다. 본고에서는 이 저술 순서와 구도를 염두에 두고, 『연대기』 서문 그리고 제1권 초반에서 티베리우스 치세를 서술하기 이전 아우구스투스에 대해 타키투스가 논의한 바에 주목해 그가 초기 제정사를 저술하게 된 의도와 의의를 해명하고자 한다. 요컨대, 대내외적인 ‘로마의 평화’(Pax Romana)를 다시 새로이 맞게 된 시절, 정치적 자유(libertas)가 프린키파투스(principatus)라는 독특한 통치 체제 이전처럼 보장될 수 없는 시대에 타키투스는 연설가-정치가로서가 아닌 필설가-역사가로서 현실정치에 대해 모색했다. 이는 기원전 1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조야한 것으로 평가 받던 로마의 역사 서술이 정치사로서 그리고 수사학적 완성도를 갖추으로써 상당한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가 체화한 수사학 교육과 로마의 역사서술 전통은, 과거의 시대사 서술을 통해 “우리 시대”(aetas nostra)에 끊임없이 경종을 울리고자 한 그의 필치를 낳았다.

타키투스의 문필활동의 첫 산물 『아그리콜라』(*Agricola*)는 그 자신의 장인(丈人)에 대한 추모와 송덕의 뜻으로 저술된 전기(傳記)인 동시에, 도미티아누스 치세의 학정을 견디고 살아남은 타키투스 본인의 삶에 대한 변명(apologia pro vita sua)을 담고 있는 저술이다. 이 작품 서문에서 타키투스가 프린키파투스와 자유

(principatus ac libertas)를 두고 “오래전부터 화합할 수 없었던 것들”(3.1: res olim dissociabiles)이라고 일컬은 대목에는 1세기 말 저술 당시의 시대상과 타키투스의 역설적인 감정이 묻어나는데, 새 시대에 대한 기대와 희망 못지않게 특유의 염세적인 인간관이 주목된다. 『아그리콜라』와 『역사』에서 표명한 바 있는 동시대 사 저술 계획이 이후 사실상 철회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본고에서는 타키투스가 동시대사가 아닌 『연대기』 저술로 선회하게 된 과정을, 1세기 중엽에 태어나 플라비우스 황가 치세에 정치가로서 살아온 그의 생애와 그가 남긴 문헌 내의 단서들을 토대로 분석했다. 그리고 그가 애초의 저술 계획과는 달리 정치 현실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일정 정도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서술이라는 표현 수단과 지적 전통 덕분이었음을 논증하고자 했다.

단적으로, 타키투스에게 『연대기』 저술은 역사서술 양식과 시대적 중요성 면에서 전략적인 대안이었다. 2세기 초 타키투스에게 필요했던 혹은 주어지지 않았던 표현의 자유(libertas/παρρησία)에 대한 의식은 『연설가들에 대한 대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대화편의 등장인물 마테르누스가 현실 정치의 대안으로 극작으로 전회하게 되었던 타키투스 또한 자신이 살아가고 있던 동시대사 대신 과거사 서술로 선회했다. 상대적으로 더 멀리 떨어진 과거에 대한 역사서술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타키투스에게 필요했던 그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었다. 그가 더 오랜 과거로 돌아가 옛날 일을 다루는 옛 방식의 연대기적 서술 양식을 택했던 것은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 더 유리했다. 『연대기』는 옛 시대의 것을 옛 시대의 자유에 따라 말할 수 있게 한 표현 수단이자 매체였다. 특히, 공화정기의 자유가 굴종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일인 통치 권력의 ‘세습’ 문제가 불거진 아우구스투스 서

거 직후의 시대사는 프린키파투스라는 통치 체제의 균열상을 시사할 수 있는 적절한 소재였다. 본고는, 『연대기』의 구성과 서술 양식이, 특히 그 초반부에서 프린키파투스라는 체제의 불안정과 함께 공명하는 양상을 주목해 그 주요한 특징과 의미를 분석했다.

역사서술이 부여한, 비유컨대 ‘안전거리’ 바깥에서 타키투스는 프린키파투스가 태생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었던 병폐와 폐단을 찾아 거슬러 올라갔다. 『연대기』 제1-6권 기록된 프린킵스(princeps) 티베리우스는 제국 로마의 이름난 폭군들의 예형(豫型)처럼 해석되고는 하지만, 타키투스의 본질적인 통찰은 프린키파투스라는 ‘혼합’ 정체가 본질적으로 반(反) 자유적이며 일인 통치자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서술했다는 것 그리고 티베리우스 치세 동안 점차 일인 지배 체제로 가시화되는 프린키파투스의 역사를 꿰뚫어 보았다는 데 있다. 프린키파투스가 안고 있던 구조적 불안정성, 아우구스투스 체제의 불완전함이 『연대기』에서 드러난다. 이미 “오래전부터 화합할 수 없었던 프린키파투스와 정치적 자유”를 네르바-트라야누스의 프린킵스 체제 역시 전제로 하고 있었다. 『연대기』의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회복된 공화정’ 이후 새로이 구축(構築)된 체제를 무려 23년 동안 잘 지켜냈지만, 공화정의 유산과 일인 통치자 사이의 이 가장(假裝)의 협치 체제가 전제 군주정으로 변이해 가는 것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그런 까닭에 훗날 『연대기』에서의 티베리우스는 그 이후 실제로 나쁜 군주가 들어설 수 있는 예시로서, 또한 2세기 초 새로 들어선 프린킵스 지배 체제가 잘못 나아가게 되면 답습하게 될 반면교사의 인물인 셈이다.

타키투스가 기록으로 남긴 『연대기』와 『역사』 이후의 시대는, 그의 우려와는 달리 이른바 오현제 시대(96-180)로 이어졌다. 타키투스가 역사서술이라는 복화술(複話術)을 통해, 아우구스투스

의 죽음 이후 1세기 말까지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들은 “나쁜 프린킵스가 좋은 프린킵스를 구축(驅逐)”했던 제정 로마 초기의 정치사를 필설(筆設)로 기록한 저술이다. “타키투스주의”(Tacitism)라고 칭해지는, 16세기 이래 타키투스와 그의 역사서 수용사에서 유수의 정치 사상가들이 『연대기』 초반의 서술에 주목했던 이유는, 법제화되기 이전의 프린킵스 통치와 권력의 실상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4년 아우구스투스의 서거 이후(ab excessu divi Augusti)부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연대기』는, 프린킵스라는 아우구스투스 체제 이후의 불완전한 공모와 결탁으로 유지되던 ‘부서진 세계’(broken world)의 역사를 담은 정치사(πραγματική ιστορία) 저술로 통치 체제의 변천과 함께 서술 양식의 변화 또한 예시하는 역사서이다.

주요어 : 타키투스, 『연대기』, 프린킵스, 로마 제국,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 역사서술, 타키투스주의

학 번 : 2012-30032

목 차

I . 서론	1
II . 타키투스의 저작과 고대 로마의 역사서술 전통	12
1. 타키투스의 생애와 초기 저작	12
2. 역사서술로의 전회와 『연대기』 저술	31
III . 『연대기』의 초기 프린키파투스 서술 분석	52
1. 『연대기』 서문의 특이성과 그 함의	52
2. ‘프린키파투스의 시초에 대한 서술’	66
IV . 『연대기』에서 티베리우스 치세 서술의 의미	109
1. 타키투스의 티베리우스 치세 서술	109
2. 초기 제정사 서술로서 『연대기』가 지니는 가치	129
V . 결론	160
참고문헌	164
Abstract	185

I. 서론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1826)은 자신의 대통령 임기 말 어느 겨울날 손녀의 공부 계획과 독서 목록에 대해 화답한 짤막한 답장에서 당대의 저술가가 쓴 키케로 전기와 함께 고대 로마의 어느 역사가에 대해 “the first writer in the world”라는 극찬을 덧붙이며 그의 역사서 탐독을 권했다.¹⁾ 같은 해 바이마르에서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를 만난 자리에서 나폴레옹(Napoléon Bonaparte, 1769-1821)은, 17세기 이래 그 문체 때문에 “prince des ténèbres”라 일컬어지던 이 역사가의 문체를 두고 거세게 불만을 표했다고 전한다.²⁾ 그러나 그가 고대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P.] Cornelius Tacitus, 56?-118?)에 대해 단지 그 문장 표현 때문에 거부감을 표한 것은 아니다. 근대 영국의 정치사에서 왕당파(Tory)로 분류되는 보수파도 또한 타키투스의 역사서가 일인 군주와 그 체제에 대해 참혹한 역사를 부각시켰다는 이유로 꺼려했다.³⁾ 이처럼 공화주의자들의 입장에서 타키투스는 거대 제국 로마의 전제 군주정, 그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선례로서 호의적으로 읽힌 반면, 군주정 지지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적대자로 간주되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로 절대군주정이 개가를 올리던 17세기 이래 그 체제의 기득권자들에게 타키투스는 그 역사적 선례로 참조되었다. 공화정 시대 이후 로마 제정 초의 역사 기록은, 일인 통치자의 정치적 수

1) 「토머스 제퍼슨이 1808년 12월 8일 앤 캐리 랜돌프 뱅크헤드에게 보낸 편지」(From Thomas Jefferson to Anne Cary Randolph Bankhead, 8 December 1808): “... Tacitus I consider as the first writer in the world without a single exception. his book is a compound of history & morality of which we have no other example. ...” 참조. cf. Ronald Mellor. *Tacitus*. New York: Routledge, 1993, 1-2, 101. 이 편지의 원문은, <Founders Online: National Archives> (<https://founders.archives.gov/documents/Jefferson/99-01-02-9252>, 최종접속 2019년 6월 19일) 참조. 제퍼슨이 타키투스의 애독자였다는 점은, 이하 본고 IV장 1절에서의 논의를 참조.

2) cf. Mellor (1993) 126, 158.

3) cf. Mellor (1993) 162.

완과 권력 강화의 기제 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회되고 그 함의가 적극적으로 해석되고는 했다.⁴⁾ 마키아벨리의 저술들이 금서(禁書)가 된 이래로⁵⁾ 그의 현실 정치적 감각과 정치 이론에 동조하는 이들은, “타키투스라는 가면 아래 마키아벨리를, 티베리우스라는 인물 아래 마키아벨리의 군주를 감추고자”⁶⁾ 했다. 이처럼 국가나 통치자의 절대 권력을 정당화하거나 반대로 거부하고자 하는 16-19세기 정치 사상가들은⁷⁾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의 근거나 방증으로 로마 제국의 역사 그리고 그 초기 황제들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 역사가 타키투스의 문헌들을 활용했다.

오늘날에도 정치사, 서양고대사 그리고 서양고전학에 있어서 로마 제정 초와 타키투스 연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제정기 로마 연구 분야에서 아우구스투스, 네로 황제 시대의 경우 이들의 치세를 개괄적으로 종합 연구한 선행 연구들이 국내 학계 후속 연구자들에게 긴요한 참고자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⁸⁾ 그 외 로마 공화정 시대, 제정기에 대한 연구들도 학위논문이나 각종 학술활동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학계에 소개되고 있는 형편이다. 티베리우스 황제(Tiberius Iulius Caesar Augustus, 재위 14-37) 시대에 대한 연구 역시도 국내 학계에 점차 축적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⁹⁾ 그럼에도 이 황제의 치세 전반을 다룬 개괄적인 연구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에 그의 시대를 다룬 고전 문헌사료들을 분석하는 것은 로마 제정사 연구에 소기의 성과가 될 것이다.

최근 들어 타키투스의 주요 작품들이 속속 우리말로 번역되어 출간되고 있고 연구논문들 역시 근래 들어 양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¹⁰⁾ 국내

4) cf. Mellor (1993) 138-140.

5) 이에 대해서는 본고 IV장 1절 참조.

6) Benedetto Croce의 이 표현은 Mellor (1993) 140의 재인용이다..

7) 통상, 전자를 Tacitismo nero(Black Tacitist), 후자를 Tacitismo rosso(Red Tacitist)로 칭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고 IV장 1절을 참조.

8) 김덕수, 『아우구스투스의 원수정』, 서울: 도서출판 길, 2013과 안희돈, 『네로황제 연구』, 서울: 다락방, 2004 참조.

9) 안희돈, 「티베리우스 황제 집권 초기 왕조 지배 이념 강조의 정치적 배경」, 『역사교육』 108 (2008): 159-185, 김상엽,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 프린키파투스의 성격」, 『서양고대사연구』 36 (2013): 183-207 등 참조.

10) 김경현, 「Tacitus의 저술에서 자유(libertas)의 이념」, 『서양고대사연구』 15 (2004): 103-135, 고경주, 「위인 아그리콜라와 폭군 도미티아누스」, 『서

외에서 타키투스 연구는 비교적 각광 받고 있는 편이다.¹¹⁾ 구체적으로 타키투스의 역사서술(historiography) 연구가 더욱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연대기』(*Annales*) 첫 여섯 권에 대해서 영어권 학자들이 50년 가까운 세월에 걸쳐 이어온 연구주석 작업이 얼마 전 출간된 제4권 주석을 통해 완성되었다.¹²⁾ 이것은 그 사이 반 세기가량 축적되어 온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학술 성과들은, 이른바 「레이던 사본」(*codex Leidensis*, BPL 16 B)에 대한 사정(査定)이 일단락된¹³⁾ 이후에 나온 비판 편집본(*editio critica*)들에 기반한 것들로서 타키투스 연구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들이다.¹⁴⁾

그러나 국내의 타키투스 연구는, 이 역사가가 다루고 있는 시대사, 역

양고전학연구』 53 (2014): 167-197, 고경주, 「타키투스(Tacitus)의 『대화편』(*Dialogus de Oratoribus*)」, 『서양고대사연구』 42 (2015): 107-144. 손태창,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타키투스의 서술」, 『지중해지역연구』 19-4 (2017): 47-71. 고경주, 「공화정에서 제정으로의 체제 전환에 대한 타키투스(Tacitus)의 인식」, 『서양사론』 136 (2018): 9-34 등.

11) 1954년부터 2003년까지 타키투스 연구사는 Herbert W. Benario가 거의 매 10년을 주기로 발표한 일련의 논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2) cf. A. J. Woodman. ed. *The Annals of Tacitus: Book 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13) 「메디치 사본」(*codex Mediceus*)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여겨져 주목을 받지 못했던 「레이던 사본」은 20세기 중엽에 이르러 C. W. Mendell을 비롯한 타키투스 연구자들에게 재조명되었다. Koestermann은 「레이던 사본」을 「메디치 사본」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해 자신의 비판 편집본(1960/61)에 반영하였으나 후에 그 입장을 철회했다(1965). 그러나 이러한 입장 변화가 그 이후 출간된 편집본에는 미반영되어 그의 편집본이나 주석본을 이용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점에 주의가 요구된다. 반면, 「레이던 사본」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적인 대표적인 학자는 F. R. D. Goodyear였다. cf. R. J. Tarrant, "Tacitus." *Texts and Transmission. A Survey of the Latin Classics*. eds. by Leighton D. Reynolds and N. G. Wils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406-409, 특히 409 참조.

14) cf. Manfred Landfester. ed. *Brill's New Pauly: Supplements I-2, Dictionary of Greek and Latin Authors and Texts*. Leiden: E. J. Brill, 2009, 604-608에서 현재 권장하는 편집본은 『역사』의 경우 Wellesley의 1989년 편집본, 『연대기』는 Heubner 편집본(1978/1994 개정판)이다. 그러나 Wellesley의 11-16권 편집본(1986), Borzsák의 1-6권 편집본(1992)이 비판장치(*apparatus criticus*)를 재정비한 것으로 문헌연구나 학술적인 면에서 Heubner의 것을 대체하는 것을 평가된다.

사적 사건과 인물 등에 중점을 둔 연구들과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필사본 연구 및 문헌 편집 성과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근 우리말로 번역 출간된 『연대기』¹⁵⁾와 『역사』(*Historiae*)¹⁶⁾ 모두 문헌학적 연구 성과를 반영하거나 근거로 하지 못한 형편이다.¹⁷⁾ 반면에, 『아그리콜라』(*Agricola*)와 『연설가들에 대한 대화』(*Dialogus de oratoribus*)는 아직 우리말로 온전히 옮겨진 적이 없는데, 최근 들어 학계에 소개된 이 작품들에 대한 연구논문들¹⁸⁾ 역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그런 점에서 타키투스 역사서에 대한 서양고대사 및 고전학 학계에 문헌학적 토대에 기초한 연구가 요긴해 보인다. 타키투스의 『연대기』 및 그 외 고전사료와 문헌들에 대한 논구는 이와 같은 학계 실정에 다소간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양 고대 역사서술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 역시 최근 들어 증가

-
- 15) 박광순의 번역본(2005)은 1896년 Henry Furneaux의 주석과 1907년 Charles D. Fisher의 편집본을 대본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참고하고 인용한 『연대기』 비판 편집본의 서지사항은 이하와 같다. István Borzsák. ed. *Cornelii Taciti libri qui supersunt, Tom. I, P. 1: Annales libri I-VI*. Stuttgart: B. G. Teubner, 1992. Kenneth Wellesley. ed. *Cornelii Taciti libri qui supersunt, Tom. I, P. 2: Annales libri XI-XVI*. Leipzig: B. G. Teubner, 1986.
- 16) 김경현, 차전환의 번역본(2011)의 기본 대본은 1911년 Fisher의 편집본인데, 20세기 초 Fisher의 편집본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이지만 그가 1916년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중 전사한 뒤 *Oxford Classical Texts* 편제로는 개정판이 출간되고 있지 않다.
- 17) 차전환, 「역사학 고전 다시읽기: 로마 제정 초기 타키투스의 역사서술」, 『서양사론』 110 (2011): 352-377, 특히 356-365에도 『연대기』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Goodyear의 주석에 대한 언급 외에 참고한 비판 편집본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 18) 『아그리콜라』에 대해서는, 고경주, 「위인 아그리콜라와 폭군 도미티아누스」, 『서양고전학연구』 53 (2014): 167-197 참조. 『연설가들에 대한 대화』에 대해서는, 고경주, 「타키투스(Tacitus)의 『대화편』(*Dialogus de Oratoribus*) - 웅변술 쇠퇴론 속에 담긴 제정 전기 한 엘리트의 과거와 당대 인식」, 『서양고대사연구』 42 (2015): 107-144, 특히 109-110와 각주 3), 고경주, 「로마 제정 초기의 웅변술 쇠퇴 담론」, 『서양고대사연구』 46 (2016): 137-174 참조. 본고에서 참조한 타키투스의 소 작품(*opera minora*) 비판 편집본은, R. M. Ogilvie and Michael Winterbottom. eds. *Tacitus: Opera Minor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5이다.

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역사서술의 기원에 대한 연구, 그리스, 로마의 주요 역사가들에 대한 연구, 역사서술과 수사학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 등 다방면에서 양적 성장을 이루고는 있지만,¹⁹⁾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구체적인 역사서나 역사서술의 실례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본고는 우선, 제정 초기 역사를 기록하는 중요한 사료인 동시에 1세기 초 고대 로마의 역사서술 실례를 보여주는 타키투스의 『연대기』 저술 배경과 구도를 제1-6권의 주요 대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이는 주로 ‘티베리우스’ 황제와 그의 치세에 대한 타키투스의 ‘역사서술’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따라서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를 비롯해 초기 프린키퍼투스(원수정[元首政], principatus)에 대한 타키투스의 서술과 평가, 입장 등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므로, 그 외 특정한 역사적 사건, 그 시대와 관련된 인물 개개인에 대한 한결 구체적인 실증적인 분석 등의 영역은 후속연구의 몫이 될 것이다. 가령, 로마 공화정을 상징하는 인물로 암시된 게르마니쿠스, 제정기 스토아주의 정치가들의 죽음, 현실정치 막후의 실세 귀족들의 정치사 등 이 소재들을 담고 있는 역사서들의 성격, 해당 역사가들의 위상과 태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다면 관련 연구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제정 초기의 역사가 타키투스에게서, 역사와 정치, 수사학과 역사서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융화되고 활용되었는지가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해명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타키투스의 역사서술 연구는 그가 남긴 문헌사료와 역사 기록에 대해서 중요한 해석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타키투스의 역사서술의 특징과 의미를, 또한 그의 생애와 역사서술로의 전회까지의 행보를 우선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 치세를 서술한 타키투스의 『연대기』 제1-6권의 구조와 성격을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19) 김경현, 「헤로도토스를 위한 변명」, 『서양고전학연구』 24 (2005): 265-302와 「루키아노스의 <역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고대의 역사서술과 수사학」, 『서양고대사연구』 19 (2006): 231-289, 「그리스 역사(서술)의 기원」, 『서양고전학연구』 25 (2006): 29-58 등 주로 고대 그리스 사학사와 관련된 연구논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타키투스의 『연대기』 첫 여섯 권은, 14년 아우구스투스 사후부터 티베리우스의 통치기 전체를 다루고 있다. 오늘날까지 합의되고 있는 타키투스의 문헌 전승 과정을 신뢰한다면, 총 6권이 한 묶음이 되는 그의 역사 기록의 첫 시대는 『연대기』 제6권 말미 티베리우스의 죽음과 함께 가름된다. 비록 제5권의 상당 부분이 소실되어서 관련된 시기(29년의 일부에서부터 31년의 상당 부분)는 다른 문헌 전거들을 통해 보정해야 하지만, 다른 황제들에 대한 타키투스의 기록에 비하면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된 서술 단위라고 평할 수 있다. 그리고 『연대기』 제1-6권은, 타키투스가 애초에 네르바-트라야누스 치세, 즉 2세기 초 그 자신이 살아 가고 있던 동시대사를 서술 대상으로 삼고자 했던 계획²⁰⁾이 사실상 철회되고²¹⁾ 나온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답하고자 하는 바는, 타키투스가 역사서술을 결심한 이래 일차적인 목표였던 『역사』 저술을 마친 후, 오현제 시대(96-180)라 일컬어지는 ‘로마의 평화’(Pax Romana) 시대였음에도 왜 계획했던 당대사를 다루지 않고 그보다 오래전 시절의 역사를 기록해야 했느냐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 우선 본고 II장은, 주로 플라비우스 황가 치세에서 정치 경력을 쌓고, 도미티아누스 치세에서 폭정을 겪고 살아남게 된 타키투스의 생애, 역사서술로 전회하게 되기까지의 과정과 배경을 고찰하고, 타키투스의 저술활동의 의미를 고대 역사서술, 특히 로마 역사서술 전통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원전 1세기 공화정 말기에 맞게 된 로마의 역사서술 양식의 새로운 국면, 여타 글쓰기 대안과 비교해 역사서술이 지니는 이점과 어려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타키투스가 역사서술을 정치 현안에 참여하는 대안으로 삼게 된 계기와 이유가 논의될 것이다. 프

20) cf. 『역사』 1.1.4: “여생이 충분하다면, 자료가 더 풍부하고 덜 위험한 시대인 신격 네르바의 원수정과 트라야누스의 치세는 노후에나 쓰려 한다.”(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역사』의 우리말 번역은, 김경현, 차전환 (2011)에서 인용)

21) cf. 『연대기』 3.24.3: “sed aliorum exitus simul cetera illius aetatis memorabo si effectis in quae tetendi plures ad curas vitam produxero”(하지만 다른 이들의 최후와 그 시대[sc.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여타 다른 것들은 함께, 만일 내가 다른 바들이 완성되고 나서 더 많은 것들에 몰두할 정도로 내가 더 오랜 삶을 살게 되면, 기록할 것이다).

린키파투스 성립 후 부침을 겪기는 했지만 한 세기가량 사실상 일인 지배 체제를 통해 운영되어 온 로마 제국은, 2세기 소위 오현제 시대를 맞으면서 다시 한 번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한다. 이 시대가 시작되던 무렵에 역사서술을 본격적으로 결심한 타키투스의 선택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녔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역사서술이 정치활동으로서 어떠한 효용을 지니는지 검토함으로써 타키투스 역사서 해석에 대한 단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요컨대, 정치사를 다루는 글쓰기이기는 하되 현재와는 멀리 떨어진 시대와 사건을 기술함으로써 유사한 정치 현안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역사서술이며, 이와 같은 예증 혹은 반증의 글쓰기는 고전 수사학 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에 더해 역사서술에 요구되는 불편부당함은, 실제 집필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일종의 안전장치 구실을 한다. 다시 말해,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판단하고 말하기 위해서는 상반되는 양쪽에서 공히 생각하고 말할(in utramque partem dicere)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전기(傳記), 지지(地志), 시대사를 담고 있는 대화편 저술 이후 타키투스가 매진했던 역사서술은 이와 같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매체였고, 또한 정치적 견해 표명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었다.

본고 III장에서는, 통상적인 해석에 따르면 애초의 계획과는 달리 소위 “아우구스투스 서거 이후”(ab excessu divi Augusti)를 타키투스가 역사서술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의 이유를 규명한다. 요컨대, 타키투스의 초기작에서 감지되는 새 시대(status novus)에 대한 ‘불안한’ 기대감²²⁾의 산물이 다름 아닌 『연대기』였다. 또한, 도미티아누스의 폭정과 죽음으로 끝맺었을 것으로 보이는 『역사』에 이르기까지 거듭된 “프린킵스의 잔혹함”(saevitia principis), 그 전편(前篇, prequel)으로서 『연대기』 첫 여섯 권은 기획되었다. 특히 『연대기』 서문에서 제시된 서술 기조와 제1권 초반은 전체 티베리우스 치세의 근원 내지는 근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무엇보다도 주목이 되는 대목은, 『연대기』의 형식적 특

22) 『아그리콜라』 3.1과 『역사』 1.1.4 참조.

성과 서술 양식이 부각되고 타키투스의 역사서술 대상의 선택 의도를 짐작케 할 단서가 되는 제1권 1-14장이다. 아우구스투스 사후 티베리우스가 권력 승계 절차를 거치는 중에 노정되는 프린킵스(princeps) 체제, 즉 프린킵아투스(principatus)의 불안정성을 읽을 수 있는, 『연대기』의 첫머리는, 타키투스가 동시대사가 아닌 오히려 더 오래된 옛 시절(antiquum/ἀρχαῖον)²³⁾을 서술 대상으로 삼게 한 동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말하자면, 새로운 지도자들이 권좌에 올라 이전과는 다른 평화와 안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었을지라도, 타키투스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던 체제 자체가 성립하고 연착륙하게 되는 그 시초 가까이까지 거슬러 올라가, 비유컨대 ‘프린킵아투스의 시초에 대한 서술’(ἀρχαίολογία/archaeology)²⁴⁾을 시도한 셈이다. 그런 점에서 타키투스는 몸소 살아오고 겪어내야 했던 “나쁜 프린킵스들”²⁵⁾을 배태해 온 프린킵아투스의 역사를 최대한 거슬러 올라가 그 폐단과 병폐가 시작된 시초(ἀρχή)를 자신의 역사서술 전체의 시점(始點)으로 삼았다.

타키투스가 『연대기』에서 기술한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황가 치세는, 『역사』의 “평화 속에서도 공포가 만연했던 시절”(ipsa etiam pace saevum)²⁶⁾로 끝맺게 된다. 그런 점에서 타키투스의 역사서술은 표면적으로는 조종(弔鐘)처럼 음울한 울림을 준다. 하지만 『연대기』 제1-6권의 구성과 서술 양식을 염두에 두고 티베리우스 치세 서술을 읽게 되면, 타키투스가 독자에게 비유컨대 경종(警鐘)을 울리고자 한 바는 사실상 태생적으로 일인 지배 체제나 다름없는 프린킵스 체제(principatus)가 ‘과거의 자유’와는 공존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²⁷⁾ 그리고 그것은 아우구투스의 죽음 이후의 과도기와 티베리우스의 집권 초기부터 드러나게 된다.

23) 『연설가들에 대한 대화』 16.4 이하에서 화자 아페르는 다른 대화 상대들, 특히 마테르누스가 옛 시절(17.1: antiqua tempora)로 간주하는 오래전 과거가 불과 100년 전의 시대도 아니라는 식의 논지를 펼친다.

24) 투퀴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1.1.2 - 1.21.2 참조.

25) cf. 『아그리콜라』 42.4: “posse etiam sub malis principibus viros esse”.

26) 『역사』 1.2.1 참조.

27) cf. John Percival. “Tacitus and the Principate.” *Greece & Rome* 27, no. 2 (1980): 119-133.

비록 아우구스투스와 그가 수립한 프린키파투스라는 체제 자체를 상당 분량을 들여 직접적인 서술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연대기』 저술 중에(3.24.3) 타키투스가 은근히 내비친 의향에 비추어 보건대 티베리우스 치세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연대기』 역시도 잠정적인 것으로, 그가 보다 근본적으로 추적해보고 싶었던 것은 프린키파투스의 이를테면 제일원인(prima causa)이었던 아우구스투스와 그의 시대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바람과 계획은 착수조차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1세기 여러 차례 전제정치 형태로 변질된 모습을 보여준 프린키투스 지배 체제의 병폐 원흉은 티베리우스 개인이라는 인상을 준다. 특히, 『연대기』 제6권 51장은 티베리우스의 생애와 치세에 대한 일종의 요약이자 목차 형태로 간주되면서 이 첫 여섯 권의 역사가 온전히 티베리우스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읽히기 쉽다. 그런 점에서 소위 “티베리우스 황제 서술”(Tiberian narrative)이라는 표현은 『연대기』 제1-6권의 성격을 한편으로 잘 규정해준다. 같은 맥락에서 타키투스가 시도한 ‘프린키파투스의 시초에 대한 서술’은 불완전한 듯하고 프린키투스 지배 체제 ‘자체’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읽기가 쉽지는 않다. 이러한 평가가 타당하다면, 그와 같은 한계는 타키투스가 동시대사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한 어려움과 일맥상통할 것이다. 아우구스투스를 역사서술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 역시도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타키투스가 ‘표면적으로’ 14년을 기점으로 삼되, ‘연대기적’ 서술 방식을 채택해 이 두 번째 역사서 『연대기』를 집필했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타키투스의 서술 전략은, 이 역사서의 서문 그리고 이어서 14년 서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까지의 해당 본문을 정치하게 읽을 경우 양상이 달라진다. 표면적인 서술 양식과 그 실질적인 대상과 내용 간의 이 불일치 내지는 부조화는 타키투스가 프린키투스 체제로 인해 초래된 초기 양상을 기술하는 데에 부합했다. 『연대기』 제1권의 ‘프린키파투스의 시초에 대한 서술’에 대한 분석은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혀줄 것이다.

과거 공화정 시대에 유력한 연대표기 방식인 동시에 역사서술 양식으

로 발전하기도 한 ‘연대기적’ 서술을 아우구스투스 사후 티베리우스 체제 기술에서도 타키투스는 여전히 사용한다. 겉보기에는 아우구스투스가 선언했고 자부했던, ‘회복된 공화정’이 적어도 역사서술 체계 내에서도 지속된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현존하는 『역사』나 『연대기』 제11권 이후의 양상을 보면, 이 연대기적 서술 방식이 퇴색되거나 무의미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점은 『연대기』 제1-6권에서도 관측되고, 이 서술 형식 역시 타키투스가 의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여전히 과거 공화정의 유산, 정치적 자유 등이 보장되는 듯한 체제를 표방하면서도 프린키퍼투스가 일인 지배 체제로 경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이는 37년 3월 16일 티베리우스의 사망으로 마무리되는 『연대기』 제6권의 마지막 장(章)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타키투스 연구자들의 이목을 끌어난 이 51장의 해석 역시도 티베리우스 치세 및 타키투스의 『연대기』 구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 IV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에 덧붙여 르네상스 이후 타키투스의 『연대기』 수용사를 검토함으로써, 『연대기』 첫 여섯 권과 티베리우스 치세 서술이 갖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연대기』의 서술 양식과 구성 분석 이후 타키투스의 역사서술 기획과 그 정치적 의도에 비추어 『연대기』가 초기 제정사 문헌자료로서 지니는 가치에 대한 타당한 해석을 도출하고자 한다. 요컨대, 프린키퍼스 체제가 잘못 걸었던 길, 가지 않았어야 할 길을 타키투스의 역사서술은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연대기』 제1-6권에서 다루어진 티베리우스 황제 서술은 네르바-트라야누스 치세, 나아가 하드리아누스 통치 초반에 이르는 새 체제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중화시키는 안티테제로 읽힌다. 일면 비극적이고 암울해 보이는 타키투스의 역사서술이 가진 힘은 역설적이게도, 역사상 오현제 시대의 평화로운 체제를 만들어가던 2세기의 통치자와 지배 계층에게도 시사한 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역사’라는 글쓰기 양식, 실용 가치가 가진 예증(παράδειγμα)으로서의 힘은, 훌륭한 역사서술이 과거의 훌륭한 연설가에게 가져다주었던 명예와 영광 못지않게 타키투스가 역사서술로 전회하게 한 그리고 『연대기』를

집필하게 한 동기였다.

II. 타키투스의 저작과 고대 로마의 역사서술 전통

1. 타키투스의 생애와 초기 저작

소(少) 플리니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서기 79년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 당시 플리니우스 본인의 나이는 18세였다.²⁸⁾ 그보다는 타키투스가 연상이었을 것이고 또한 여타 기록에 근거해 관직 경력(*cursus honorum*)을 감안해 역산해 보면, 타키투스는 서기 55년 전후에 출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²⁹⁾ 출생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많지 않지만, 벨기카 갈리아의 황제 대리인(*procurator*)이었던 코르넬리우스 타키투스³⁰⁾라는 인물과의 관련성을 근거로 속주 갈리아 출신이라고 추정하는 이들도 있다. Ronald Syme의 경우, 이 인물이 역사가 타키투스의 부친일 것이라고 확신하지만,³¹⁾ 그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타키투스가 갈리아 나르보넨시스(*Gallia Narbonensis*) 근방 출신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오늘날 학계의 통설로 굳어져 있다.³²⁾

28) 소(少) 플리니우스, 『서한집』 (*Epistulae*) 6.20.5: “agebam enim duodevicensimum annum”. 이하, 라틴어 원문은, Roger Mynors. ed. *C. Plini Caecili Secundi Epistularum libri dece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참조.

29) cf. Ronald Syme. *Tacitus*. (2 vo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63.

30) 노(老) 플리니우스, 『자연사』 (*Naturalis Historia*) 7.76: “ipsi non pridem vidimus eadem ferme omnia praeter pubertatem in filio Corneli Taciti, equitis Romani Belgicae Galliae rationes procurantis. ἑκτραπέλους Graeci vocant eos; in Latio non habent nomen”. 라틴어 원문은, Karl Mayhoff. ed. *C. Plini Secundi Naturalis Historiae libri XXXVII*. (6 vols.) Leipzig: B. G. Teubner, 1875-1906 참조.

31) cf. Syme (1958) 613.

32) cf. Syme (1958) 619ff; Borzsák (1992) xi; Anthony R. Birley. “The Life and Death of Cornelius Tacitus.” *Historia: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타키투스의 성명, 생몰연도와 관련해서는 2000년 Anthony Birley가 Géza Alföldy의 비문 연구³³⁾를 토대로 몇 가지 새로운 점과 난점들을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필사본이나 다른 사료에 각기 달리 기록되어 전승되어 온 푸블리우스(P.) 혹은 가이우스(C.)라는 개인명(praenomen)에 대해서는 새로이 발굴된 비문으로도 선뜻 결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재에도 여전히 그의 이름은 ‘코르넬리우스 타키투스’라고 칭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코르넬리우스라는 씨족명(nomen)과 타키투스라는 가문명(nomen gentilicum) 혹은 별칭(cognomen) 외에 “CA-”로 시작하는 명칭이 고유명사로 덧붙여질 여지를 보여준, 아마도 역사가 타키투스에 대한 장례 비문 자료로 보이는 새로운 비문 증거로 인해 향후의 고고학적 발굴 결과가 이 역사가의 생애에 관해 밝혀줄 미상(未詳)의 영역이 분명 있을 것이다.³⁴⁾

그 외에 타키투스에 관한 신상 정보는, 자신의 저술 속에서 저자 자신의 목소리로(in persona propria) 재귀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대목들 외에 그와 각별한 교분을 나누었던 소(少) 플리니우스의 『서한집』에 직간접적으로 기록된 것들에서 단편적으로나마 수습할 수 있다. 타키투스가 보내온 편지나 회신이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그럼에도 현존하는 플리니우스의 편지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수신인이 타키투스라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했으리라는 것을 방증한다. 그런 까닭에 이에 해당하는 편지들만을 세밀하게 분석하며 해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지만, 이하에서는 눈에 띄는 대목들만을 선별해 타키투스의 생애나 저술 활동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플리니우스의 『서한집』에서 타키투스와 관련된 편지들은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하, 약호 표기는 각각 “권(券).서(書).절(節)”을 뜻한다). 우선, 수신자가 타키투스(ad Tacitum)인 편지가 총 11편(1.6,

42, no. 2 (2000): 233-234.

33) Birley (2000) 230, n. 1; *CIL* VI 41106(=AE 1995, 92). cf. Géza Alföldy, “Bricht der Schweigsame sein Schweigen?”, *Mitteilungen des Deutschen Archäologischen Instituts, Römische Abteilung* 102 (1995): 252-268.

34) Birley (2000) 231-234, 246-247.

1.20, 4.13, 6.9, 6.16, 6.20, 7.20, 7.33, 8.7, 9.10, 9.14)이고, 다른 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타키투스에 대해(de Tacito) 언급하고 있는 것이 총 4편 정도이다(2.1, 2.11, 4.15, 9.23). 후자에 해당하는 사례들 중에서, 제2권 1서는 플리니우스가 97년에 보코니우스 로마누스(Voconius Romanus)에게 보낸 편지로 6절의 “a consule Cornelio Tacito”라는 표현은, 타키투스가 97년 하반기 보컬 콘술 중의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³⁵⁾ 그리고 아마도 베르기니우스 루푸스(Verginius Rufus)라는 인물의 장례 연설을 타키투스가 맡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2권 11서는 아리아누스 마투루스(Arrianus Maturus)라는 인물이 수신자인데, 100년 1월 중순에 있었던 마리우스 프리스쿠스(Marius Priscus)의 반환법 위반 재판에서 플리니우스와 타키투스가 속주 아프리카 주민들을 트라야누스 황제 앞에서 변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타키투스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는 대목은 이하와 같다.

마리우스 프리스쿠스는 그가 총독으로서 관리했던 아프리카인들이 고발하자, 변호를 생략하고 심판인들을 요청했습니다. 나와 코르넬리우스 타키투스는 속주민들을 변론하도록 명받았고...³⁶⁾

코르넬리우스 타키투스는 아주 유창하게 그리고 그의 연설에 담겨있는 빼어난 점인 바, 위엄 있게(σεμνῶς) 답변했습니다.³⁷⁾

콘술 지명자 코르누투스 테르툴루스는 견해표명(sententia) 끝자락에, 나와 타키투스가 면밀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공동 변호를 수행했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³⁸⁾

35) cf. A. N. Sherwin-White. *The Letters of Pliny: a Historical and Social Commentary*. London: Clarendon Press, 1966, 144; Syme (1958) 129ff.

36) 『서한집』 2.11.2: “Marius Priscus accusantibus Afris quibus pro consule praefuit, omitta defensione iudices petiit. Ego et Cornelius Tacitus, adesse provincialibus iussi, ...”

37) 『서한집』 2.11.17: “Respondit Cornelius Tacitus eloquentissime et, quod eximium orationi eius inest, σεμνῶς”.

38) 『서한집』 2.11.19: “Cornutus Tertullus consul designatus, vir egregius

한편, 제4권 15서에서는 플리니우스가 자신이 각별히 아끼는 아시니우스 루푸스(Asinius Rufus)라는 인물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가 타키투스와 친분 있는 사이라는 점을 들어 공동의 유대감을 강조한다. 끝으로, 막시무스라는 인물에게 보낸 제9권 23서는 플리니우스와 타키투스의 문명(文名)에 대한 흥미로운 일화를 담고 있다.

§2. 원로원으로부터 빈번히 나는 내가 특히 바랐을 법한 종류의 그런 소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는 최근에 코르넬리우스 타키투스의 이야기에서 들었던 것보다 큰 즐거움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얘기를 들려주기를, 자신과 함께 최근 대경기장 축제 때 어느 로마 기사가 동석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다양하고 학식 넘치는 얘기들을 나누고 나서 물었습니다. ‘이탈리아 분이십니까, 아니면 속주 출신이십니까?’ 본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알아보시는군요. 그리고 물론 학식으로부터겠지요.’ §3. 여기에 대해 그 사람이 ‘타키투스이십니까, 아니면 플리니우스이십니까?’ 나는 이 점이 내게 얼마나 즐거운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의 이름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마치 언문(言文)의 대명사이라도 한 듯이 언문에 부여되고 있다는 점 말입니다. 사실 우리 두 사람 역시,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무명인데, 이 학식으로 인해 알려진 터이기 때문입니다.³⁹⁾

et pro veritate firmissimus, censuit septingenta milia quae acceperat Marius aerario inferenda, Mario urbe Italiaque interdicendum, Marciano hoc amplius Africa. In fine sententiae adiecit, quod ego et Tacitus iniuncta advocacy diligenter et fortiter functi essemus...”

- 39) 『서한집』 9.23.2-3: “[2.] frequenter e senatu famam qualem maxime optaveram rettuli: numquam tamen maiorem cepi voluptatem, quam nuper ex sermone Corneli Taciti. Narrabat sedisse secum circensibus proximis equitem Romanum. Hunc post varios eruditosque sermones requisisse: ‘Italicus es an provincialis?’ Se respondisse: ‘Nosti me, et quidem ex studiis.’ [3.] Ad hoc illum: ‘Tacitus es an Plinius?’ Expressere non possum, quam sit iucundum mihi quod nomina nostra quasi litterarum propria, non hominum, litteris redduntur, quod uterque nostrum his etiam e studiis notus, quibus aliter ignotus est”.

인용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바는, 타키투스와 플리니우스가 ‘학식’(studia)⁴⁰⁾ 면에서 상당한 명성을 누렸다는 점이다. 물론, 몇 마디 나눈 대화를 통해 자신의 대화 상대자를 추측한 이 무명의 로마 기사 역시도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이 두 사람의 명성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덧붙여, 앞의 편지보다 다소 앞선 106-107년경에 타키투스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한 편지(제7권 20서)에서는 타키투스에 대한 플리니우스의 동경 그리고 은근한 경쟁의식을 읽을 수 있다. 이 편지에서 암시되고 있는 대로라면, 타키투스가 이미 연설뿐만 아니라 저술을 통해서도 꽤나 인정받았던 것 같다. 그리고 타키투스가 보낸 책을 플리니우스가 읽고, 일종의 교정사항을 덧붙였다는 언급을 감안하면, 이 편지는 출간을 코앞에 둔 저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듯한데, A. N. Sherwin-White는 그 저술이 『연설가들에 대한 대화』나 『역사』일 것으로 추정한다.⁴¹⁾

§1. 형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면밀하게, 어떤 것들을 고쳐야 하고 어떤 것들을 지워야 하는지 내 생각을 덧붙여 썼습니다. ... §3. 연배, 지위에 있어서 거의 대등한 두 사람이, 언문(言文)에 있어서 전혀 이름이 없지도 않은 이들로서 (사실 나는 형에 대해서는 역시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곧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학식을 아껴왔다는 것은 드물고 두드러진 일일 것입니다. §4. 물론 나는 젊은 시절, 형이 이미 명성이나 영광에 있어서 꽃을 피우고 있었을 때, 형을 따르고 싶어 했고, 또한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형에 버금가는 이가 되고 싶었고 또 그리 여겨지고 싶어 했습니다.⁴²⁾

40) 원문은 “nosti me et quidem ex studiis”인데, Sherwin-White에 따르면, 플리니우스는 studia를 주로 법정연설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하는데, 관련 전거는 『서한집』 4.16.1, 5.2.2, 5.11.3 등이다(Sherwin-White 1966, 506).

41) cf. Sherwin-White (1966) 426-427.

42) 『서한집』 7.20.1, 3-4: “[1.] Librum tuum legi et, quam diligentissime potui, adnotavi quae commutanda, quae eximenda arbitrarer. ... [3.] Erit rarum et insigne, duos homines aetate dignitate propemodum aequales, non nullius in litteris nominis — cogor enim de te quoque parcius dicere,

이처럼 플리니우스는 타키투스로부터 출간 직전의 글이나 원고를 건네 받아 읽고서 교정해 주는 역할을 맡았던 것 같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⁴³⁾ 이처럼 저술 활동을 공유하고 교차 검증해 줄 만큼 둘 사이는 돈독했는데, 이러한 우정은 두 사람이 그 친분을 공유하고 있는 한 지인이 유산을 남길 경우 그 유산은 동등하게 절반씩 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스스럼없었던 것 같다.⁴⁴⁾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절친한 관계는, 타키투스가 본격적으로 역사서술에 투신하고 나서 한결 구체적으로 빛을 발하게 된다. 이보다 조금 더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 타키투스가 이처럼 연설이나 문필 활동을 통해 명성을 얻게 되기까지는 정치가로서의 경험과 수완 그리고 언변이 밑거름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타키투스가 자신의 생애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남기고 있는 대목은 그리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그가 남긴 문헌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타키투스의 문헌 중 상당 부분이 ‘역사서’이기 때문이다. 고전고대의 역사서는 여타의 글쓰기 장르와는 달리 저자 자신에 대해서는 좀처럼 본문에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이는 비교적 초기부터 관행으로 굳혀진 것으로 보이는데, 헤로도토스나 투퀴디데스의 역사서 서문들에서는 통상적으로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름과 함께 덧붙여 소개하는 부명(父名)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서부터 관찰되는 현상이다.

할리카르네소스의 헤로도토스는 그의 탐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힌

quia de me simul dico -, alterum alterius studia fovisse. [4.] Equidem adolescentulus, cum iam tu fama gloriaque floreris, te sequi, tibi 'longo sed proximus intervallo' et esse et haberi concupiscebam”.

43) 『서한집』 8.7 참조. 이 편지에서는, 제7권 20서에서 플리니우스가 자신이 타키투스에게 ‘버금가는 이’라고 말한 것과는 달리, 타키투스의 부탁대로 학생의 글을 검토하는 선생으로서 책을 읽겠다고 소감을 전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타키투스에게는 자신의 글을 읽어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한결 더 홀가분하게 오직 ‘선생’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재담을 덧붙이며 편지를 끝맺는다.

44) 『서한집』 7.20.6 참조.

다. 이는 인간들이 이런 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잊히지 않도록 하고, 또 헬라스인들과 이방인(異邦人)들이 보여 준 위대하고 놀라운 행적들과 특히 그들이 서로 전쟁을 벌인 원인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헤로도토스, 『역사』 서문: 김봉철 (2016)에서 인용)

아테나이인 투퀴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인들과 아테나이인들 사이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역사를 기록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그는 이 전쟁이 과거의 어떤 전쟁보다 기록해둘 가치가 있는 큰 전쟁이 되리라 믿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런 믿음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 양 진영은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최강의 상태에서 전쟁을 시작했고, 나머지 다른 헬라스인들도 더러는 당장 더러는 조금 망설임이 가 어느 한쪽에 가담하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다.

(투퀴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1.1: 천병희 (2011)에서 인용)

이 최초의 역사가들은 자신들의 이름과 출신지를 표기함으로써 역사서의 허두를 뗐지만, 정치적 성향이나 친연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신의 가문이나 조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이와 같은 일종의 거리두기는, 역사서술의 전통이 거듭 이어지면서 그리고 문헌 출판의 양상이 바뀌게 되면서 더욱 관행으로 굳어져서 고대 로마 역사가들의 문헌에서는 본문 내에서 저자 자신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실마리는 거의 사라진다.⁴⁵⁾ 또 하나, 위의 사례들에서 주목되는 바는 헤로도토스나 투퀴디데스 두 사람 공히 자신들을 3인칭 저자로 객체화 내지는 객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들 서문 외에 역사서 본문 내에서는 역사가가 자신을 1인칭으로 지칭하거나 1인칭 동사를 통해 서술자와 저자를 동일시하는 대목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자면 고전 고대의 역사서술은, 비교적 서사에 침투하지 않는 3인칭 서술자가 전체 서사를 이끌어나간다. 이런 서술 특징을 앞에서 언급한 ‘거리두기’라는 개념 하에 또한 포섭할 수 있다.

45) 김기훈, 「살루스티우스의 『카틸리나 전쟁』 서문에 드러난 準정치활동으로서의 역사서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6-20 참조.

타키투스의 역사서 역시도 이와 같은 전통의 연장선에 있기에, 시종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 서술 대상을 대체로 3인칭 동사를 통해 이끌어 간다. 특히, 특정인이나 정파에 대한 호오나 당파심을 배제하는 것, 즉 불편부당성을 역사서술의 미덕이자 의무로 간주했던 전통을 상기하면⁴⁶⁾ 역사서 내에서 역사가의 구체적인 정체나 경력 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어도 훌륭한 역사서술을 기도하는 역사가라면 회피해야 할 내용이었다. 그런 점 때문에,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의 타키투스에 대해서 오늘날 재구성할 수 있는 것들은, 앞에서 살펴본 폴리니우스의 기록, 그리고 타키투스가 자신의 문헌에 직간접적으로 남긴 자신에 대한 흔적 그리고 문헌 외 자료 등이다. 그 중에서 타키투스의 초기 생애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문헌은, 『연설가들에 대한 대화』의 일부이다. 그마저도, 이 문헌이 대화편의 형식으로 저술되어 있고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 내에서는 타키투스가 단순히 청자 이상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대화편의 배경이 되는 바를 설명하는 대화편 서문에서만 일부 타키투스의 젊은 시절에 대한 정보를 간추릴 수 있다. 『연설가들에 대한 대화』의 저술 연대 추정 문제는, 학자들 간에 저작 자체의 진위 여부와 함께 해석이 분분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타키투스가 2세기 첫 10년 전반부에 저술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⁴⁷⁾ 이러한 가정이 맞다면, 그 저술 연대에 대해서는 비교적 합의되고 있는 『아그리콜라』와 『게르마니아』 저술 이후, 『역사』 저술 도중이거나 이전에 타키투스가 이 대화편을 출판했거나, 적어도 피헌정자 파비우스 유스투스(Fabius Iustus)⁴⁸⁾에게 보냈을 것이다. 이 대화편 서두에서 타키투스는 파비우스 유스투스가 거듭해서 물어 온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이 저술에 착수한 것을 밝힌다(『연설가들에 대한 대화』 1.1-2). 그에 따르면 파비

46) cf. John Marincola. *Authority & Tradition in Ancient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58-174.

47) cf. Roland Mayer. ed. *Tacitus: Dialogus de oratorib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22-27.

48) 『연설가들에 대한 대화』 1.1 참조. 이 인물은 서기 102년 보컬 콘술 중한 사람으로 이후에도 속주 총독 등으로 정치활동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cf. Mayer (2001) *ad loc.*

우스 유스투스가 연설가(orator)들과 언변(eloquentia)의 위상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자주 물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짧은 서문 내에서 이전 시대(priora saecula)와 우리 시대(nostra aetas)에 대한 극명한 대비가 관찰된다는 점이다. 이 차이 혹은 간극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암묵적으로 전제된 문제의식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타키투스는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당대의 재능(ingenia)이나 판단/취향(iudicia)에 대한 입장을 제기하기보다는 자신이 젊은 시절에 들었던(1.2: iuvenis admodum audiui) 동일한 주제에 대한 논의(sermo)를 전하겠다고 답한다. 『연설가들에 대한 대화』 가운데 대화의 역사적 배경으로 짐작되는 실마리가 되는 표현에 비추어 보건대, 아마도 타키투스가 “젊은 시절”이라고 언급한 때는 베스파시아누스 치세 6년째 되는 해(17.3: sexta iam felicitis principatus statio), 그러니까 75년 전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된 연대 지표는 타키투스의 『역사』 서문에서도 확인된다.

dignitatem nostram a Vespasiano inchoatam, a Tito auctam, a Domitiano longius provectam non abnuerim: sed incorruptam fidem professis neque amore quisquam et sine odio dicendus est.

나는 베스파시아누스 덕분에 공직을 시작해서, 티투스 때 승진하고, 도미티아누스 때 더 고위직에 올랐음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불편부당의 신념을 공언한 자들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든 친애의 감정이나 증오심을 버리고 말해야 한다.

(『역사』 1.1.3)49)

이를 토대로 추측건대, 타키투스는 플라비우스 황가 치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비교적 무난하게 관직 경력에 따라 고위 정무관직에까지 순조롭게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타키투스가 자신의 첫 역사서 서문에서 자신의 이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바로 이어지는 문장

49)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역사』의 우리말 번역은 김경현, 차전환 (2011)에서 인용한 것이다. 대조하기 위해 참조한 라틴어 원문은, Kenneth Wellesley. ed. *Cornelii Taciti libri qui supersunt, Tom. II, P. 1: Historiarum libri*. Leipzig: B. G. Teubner, 1989의 것이다.

에서 불편부당성(*incorrupta fides*)을 공언한 이들은 그 역사서술의 대상이 되는 그 누구든 호오의 감정 없이 기술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표현은, 이후 다루게 될 시대가 역사가 자신이 살아온,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시절이기에, 일종의 ‘자진납세’와도 같은 표명을 통해 서술 대상과의 거리두기를 피하고 있는 대목으로 새길 수 있다. 이처럼 타키투스가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직명이나 시기를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시사하고는 있기에, 오늘날 타키투스 연구자들은 그의 정치 경력에 대해서 여타 사료와의 비교를 통해 어느 정도의 재구성을 피할 수 있다. 대표적인 또 하나의 실마리는 『연대기』 제11권의 한 대목으로, 타키투스는 47년 클라우디우스가 시행한 세기제(世紀祭)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종의 결가지 여담(*digressio*)의 형태로 자신의 신상에 대한 약간의 단서를 남기고 있다.

같은 콘술들이 임기에 있을 적에 세기제(*ludi saeculares*)가 로마 창건 이후 800년째 되는 해에, 아우구스투스가 개최했었던 때에서 64년째 되는 해에 펼쳐졌다. 두 프린킵스 각각의 셈법에 대해서 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일들에 대해 내가 저술했던 그 책들에 충분히 기술되어 있다. 실상, 그도 역시 세기제를 개최했고, 이것에 나는 한결 열심히 참여했는데, 15인 위원 사제직을 맡고 있었고 또한 그 때 법무관으로서 말이다. 그것을 나는 자랑삼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5인 위원 사제단에게 고래로 그 임무가 주어졌고, 또한 정무관들이 특히 의식들에 관한 의무사항들을 이행하곤 했기 때문이다.

(『연대기』 11.11.1)

역시나 이 인용문에서도 타키투스가 자신의 경력에 대한 언급이 서술 대상에 대한 호오, 역사가의 편향성으로 읽히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 기사가 가리키는 도미티아누스 치세의 세기제 거행 연도는 88년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타키투스는 당해 법무관이자 15인 사제직(*sacerdotium quindecimvirale*)을 수행했다고 하는데, 이 점에 비추어 보자면 도미티아누스 치세에서도 정치활동의 영역에 있어서는 비유컨대 순항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같고, 앞에서 언급했던 97년의 보컬 콘술직 역시도 도미티아누스가 시해되던 96년에 이미 내정, 지명되었던 것에 견주어 보면 플라비우스 황가의 치세 때 타키투스에게는 일신상에 직접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다. 상당 부분이 소실되어 그 본격적인 치세 전반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 남아 있는 『역사』나 『연설가들에 대한 대화』에서 암시하고 있는 베스파시아누스 치세 초반 역시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했고, 훗날 도미티아누스 치세가 “프린킵스의 잔혹함”으로 인해 술한 죽음을 초래했다는 타키투스의 육성을 상기한다면, 그 자신의 정치적 처신이 결과적으로 그의 생존과 증언을 가능케 했던 것으로 보인다.

quid, si per quindecim annos, grande mortalis aevi spatium, multi fortuitis casibus, promptissimus quisque saevitia principis interciderunt, pauci et, ut <sic> dixerim, non modo aliorum sed etiam nostri superstites sumus, exemptis e media vita tot annis, quibus iuvenes ad senectutem, senes prope ad ipsos exactae aetatis terminos per silentium venimus?

가사자의 생애에서 긴 기간인 15년 동안에, 많은 이들이 우연한 사건들로 인해, 가장 적극적인 이들 저마다는 프린킵스의 잔혹함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면, 반면에 몇 안 되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다른 이들보다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보다도 오래 살아남은 이들이라면, 우리가 청년으로서 노년에, 노인으로서 살아낸 삶의 바로 끝 경계에 침묵을 거쳐 이르게 된 그 만큼의 햇수를 인생의 한 가운데에서 빼앗긴 채 그러하다면, 어떠한가?⁵⁰⁾

(『아그리콜라』 3.2)

그럼에도 타키투스는 자신이 겪고 살아남은 그 15년, 프린킵스의 가혹함 (saevitia principis)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그 고난의 시

50) 이 수사의문문 “quid si ...?”에서 Woodman은 주절 quid 이후에 동사를 보완해서 읽어야 한다고 분석하며, “what <can be done> if ...?”로 이 구문에 대한 번역을 제안하고 있다. cf. A. J. Woodman with C. S. Kraus. ed. *Tacitus: Agricol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ad loc.*

절을 묵종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한 가책을 느끼는 듯하다. 더욱이 1인칭 복수형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도 오래 살아남은 이들”(nostri superstites sumus)이라며 역설적적으로 표현⁵¹⁾한 것은 불우했던 과거사에 대한 회한이 강하게 묻어나는 상징적 수사이다. 이 문장에서 “pauci... sumus”로 표현된 1인칭 주어⁵²⁾는, 고전기 산문에서 흔히 사용되는 겸양/장엄의 복수(pluralis modestiae/maiestatis)가 아니라 저자 타키투스를 포함한 “우리 시대”(aetas nostra)에 살아남은 이들을 함축한다.⁵³⁾ 더욱이 타키투스가 『아그리콜라』 서문과 말미에서 거듭 표명하고 있듯이, 이 전기(傳記)가 역사서술만큼 ‘공적’ 성격을 덜 지니는 만큼 저자 자신의 감회나 생각이 한결 직설적으로 표현될 그리고 해석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아그리콜라』에서 타키투스의 생애나 정치 경력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정보가 몇 가지 더 수습되는데, 그것은 이 작품이 타키투스 자신의 장인 아그리콜라에 대한 추모와 송덕을 위해 저술된 일정 정도 사적 성격의 문건이

51)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구문이지만 바로 앞에서 조심스런 단서 “ut sic dixerim”(말하자면/소위)을 붙이고 있듯이, 우리 자신보다도 오래 살아남았다는 표현은, 달리 말해 과거 우리 자신의 일부가 죽었다는 문학적 표현으로 읽힌다. cf. s.v. “superstes” in *Oxford Latin Dictionary*(이하, OLD로 약칭) 3b: “(w. dat. of person, event, etc., outlived; sim. w. gen.) remaining alive after the death of another, surviving”. 타키투스의 경우 이 형용사를 여격이나 속격 모두 혼용하는 편이다.

52) 또 하나 로마 역사가들이 nos나 nostri 계열의 1인칭 대명사/형용사를 사용하는 가장 흔한 사례는 로마와 외적 간의 전쟁에 대한 기사에서이다. 살루스티우스나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타키투스에게서 『연대기』나 『역사』에서 외전(外戰)을 서술할 때 빈번히 사용된다. 예외적으로 리비우스의 경우에는 ‘아군’을 뜻하는 nos/nostri의 용례를 찾아보기 힘든 반면, 『내전기』에서의 카이사르를 비롯해 친 카이사르 전쟁사가들(『아프리카 전기』를 제외한 『알렉산드리아 전기』, 『히스파니아 전기』의 저자들)은 내전 당시 카이사르 지지 세력을 지칭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게 예외적이라고 평가된다. cf. Marincola (2004) Appendix V.

53) cf. Woodman with Kraus (2015) *ad loc.* Woodman도 “nostri superstites sumus”에서 은유적인 차원에서는 superstites sumus와 nostri(objectivus genetivus) 두 개로, 전자는 살아남은 ‘우리’ 후자는 죽은 ‘우리’로 나뉘지만, 사실상 동일한 1인칭 복수[대명사]라고 지적하며 “a few of us are survivors and (if I may speak like this) not only of others but even/also of ourselves”로 번역하고 있다. 현대어 번역들도 대체로 이와 같은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 번역하고 있다.

기에 가능하다. 아그리콜라가 보컬 콘술이던 76년에 그의 딸과 약혼했다는 언급(9.6), 93년 아그리콜라가 도미티아누스의 학정 하에 사망하게 된 때에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게 그보다 4년 전부터 아내와 함께 외지에 있던 사정 때문이었다(45.4-5)는 언급 등은 타키투스의 신상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단서이다. 93년에 타키투스가 로마에 부재했다는 기록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아마도 88년 법무관직 임기가 끝나고 속주 총독 임무를 맡아 임지로 떠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타키투스의 출생지가 북부 갈리아가 아닌 갈리아 나르보넨시스였다면, 동향 출신의 아그리콜라와의 친분이나 인척 관계 역시도 보다 개연성 있게 설명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그리콜라가 이 갈리아 나르보넨시스의 포룸 율리이(Forum Iulii) 출신으로 그곳에서 상당한 교육의 수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아그리콜라』 4장의 기록을 염두에 둔다면, 타키투스 역시도 이 수사학 교육의 중심지와 무관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아그리콜라』의 저술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을 참조하면, 타키투스가 이 첫 번째 저술을 내놓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얼마간 재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nunc demum redit animus; et quamquam primo statim beatissimi
saeculi ortu Nerva Caesar res olim dissociabiles miscuerit,
principatum ac libertatem, augeatque cotidie felicitatem temporum
Nerva Traianus,

지금 결국 의식이 돌아온다. 그러면서도, 비록 행복하기 그지없는 시절
의 첫 시작에서부터 즉각 네르바 카이사르께서 오래전부터 화합할 수
없었던 것들, 프린키퍼투스와 자유를 한데 엮어 놓았을지라도, 또한 네
르바 트라야누스께서 시절의 호기를 날마다 키워놓고 있을지라도,

(『아그리콜라』 3.1a)

nam sicut ei <non licuit> durare in hanc beatissimi saeculi lucem
ac principem Traianum videre

실상, 그에게는 가장 복된 시기의 이 빛에 이르기까지 버텨내는 것, 프
린키퍼스 트라야누스를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지라도,

(『아그리콜라』 44.5)

네르바를 카이사르로, 트라야누스를 네르바의 양자로 기술하고 있는 앞의 서문 3장 1절과는 달리, 44장 5절에서는 트라야누스를 프린켑스라고 지칭하는 것에 비추어 『아그리콜라』가 97년 가을에서 98년 트라야누스 즉위 사이에 저술되었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추정한다. 이처럼 별도의 추가적인 퇴고 없이 출간, 통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아그리콜라』에 더 이상의 가필이나 교정이 필요 없었던 것은, 이 작품이 역사가 아닌 전기이기에 타키투스의 표현처럼 ‘양해’될 수 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⁵⁴⁾

hic interim liber honori Agricolaе socieri mei destinatus, professione pietatis aut laudatus erit aut excusatus.

그러는 사이에 이 책이 의도된 바는 나의 장인 아그리콜라의 명예를 위한 것으로, 효심(pietas)의 고백으로 인해 찬사 받거나 양해를 얻게 될 것이다.

(『아그리콜라』 3.3b)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hic interim liber”인데 이를 통해 『아그리콜라』가 일종의 신호탄임을 읽을 수 있다. 묵종으로써 도미티아누스의 잔혹한 치세를 견뎌낸 생존자로서, 그 15년의 세월을 인생에서 들어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문했던 타키투스가 자신의 문필 활동 시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조적으로 다짐하는 것은 한층 더 인상적이다.

non tamen pigebit vel incondita ac rudi voce memoriam prioris servitutis ac testimonium praesentium bonorum composuisse.

그럼에도 부끄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특히 다듬어지지 않고 투박하기

54) 통상적으로 전기(傳記)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아그리콜라』는 역사서나 지지(地誌) 등 여타 글쓰기 양식으로도 분류될 수 있는 복합적인 특징을 가진 저술로 평가되기도 한다. cf. Charles W. Fornara. *The Nature of History in Ancient Greece and Rom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186 n. 18.

까지 한 목소리로 이전의 굴종에 대한 기억과 현재의 좋은 것들에 대한 증언을 글로 써내는 일은 말이다.

(『아그리콜라』 3.3a)

이 인용문에서 “memoriam prioris servitutis”가 가리키는 바는 당장에는 『아그리콜라』 이후에 집필될 『역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에 말하자면, 이 대목은 타키투스가 본격적인 저술 활동에 대해서 계획 혹은 선언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사서술 대상에 대해서 타키투스는, 앞에서 일부분 인용된 바 있는 『역사』 서문에서 다시 한 번 유사하게 표명한다.

1. initium mihi operis Servius Galba iterum Titus Vinius consules erunt. ... 4. quod si vita suppetit, principatum divi Nervae et imperium Traiani, uberiolem securioremque materiam, senectuti seposui, rara temporum felicitate, ubi sentire quae velis et quae sentias dicere licet.

§1. 나는 이 역사책을 세르비우스 갈바가 두 번째 집정관으로, 티투스 비니우스와 함께 취임한 해부터 시작한다. ... §4. 여생이 충분하다면, 자료가 더 풍부하고 덜 위험한 시대인 신격 네르바의 원수정과 트라야누스의 치세는 노후에나 쓰려 한다. 그것은 실로 원하는 바를 느끼고, 느끼는 것을 말할 수 있었던 드물게 복된 시절이었다.

(『역사』 1.1.1, 4)

이 두 초기 저술에서, 특히 그 서문에서 타키투스가 약속한 것처럼 보이는 새 황제들, 네르바-트라야누스의 치세 서술은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이 대목과 『연대기』 제3권에서 24장에서 아우구스투스 치세에 대해 시간이 허락한다면 저술하겠다고 한 대목⁵⁵⁾을 포함해 두 차례 타키투스의 약속

55) 『연대기』 3.24.3 참조. “하지만 다른 이들의 최후와 그 시대[sc.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여타 다른 것들은 함께, 만일 내가 다른 바들이 완성되고 나서 더 많은 것들에 몰두할 정도로 내가 더 오랜 삶을 살게 되면, 기록할 것이다.” 또한, 본고 6쪽과 각주 21) 참조.

이 이행되지 못하거나 착수조차 되지 못했다고 대체로 연구자들은 평한다.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타키투스가 동시대사를 다루기에 부담스러워진 배경과 관련해 트라야누스 혹은 하드리아누스 치세 초기의 정세가 그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기에 후속작의 서술 대상을 그보다 먼 과거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말하자면, 『아그리콜라』와 『역사』 서문에서 감지되는, 네르바-트라야누스 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역사』 서술 도중에 상당 부분 퇴색되게 한 계기가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애초의 발언과는 달리, 후속 역사서가 『역사』가 끝맺는 이후의 동시대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해석은 설득력을 얻는다. 또한, 타키투스가 『연대기』에서 시간을 더욱 거슬러 올라가게 된 계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나 단서를 남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추정을 하게 되는 것 역시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타키투스가 최근의 ‘동시대사’에 대해서 다룰 계획이 단순히 외적인 제약 때문에 수정 내지는 철회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연대기』는 『역사』 저술 이후에 유기적인 체제로 구상된 역사서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저술 순서상 후속작인 『연대기』는 약 한 세기가량의 프린키프스 통치 체제 전체 서술을 완결할 수 있는 전편(前篇, prequel)으로 구성되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언을 타키투스가 남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대기』 첫 여섯 권에서 서술되는 로마 제정 초기 역사는, 프린키프스 통치 체제, 즉 프린키퍼투스에 대한 일종의 고고학(archaeology)⁵⁶⁾적 기술, ‘프린키퍼투스의 시초에 대한 서술’로 해석

56) 투퀴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1.1.2 - 1.21.2 참조. 투퀴디데스가 본격적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서술하기에 앞서 오래전(2.1: πάλαι) 헬라스의 역사부터 되짚어 내려가는 이 대목은 통상 투퀴디데스의 역사서술 분석에서 “고고학”(archaeology)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런데 이 표현은 오늘날 분과학의 명칭과 혼동되어서는 아니 되며, 고고학(考古學)이라는 번역어가 담고 있는 의미, archaeology의 어원 ἀρχαιολογία의 의미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옛날 것(ἀρχαῖον)에 대한 탐구나 설명인 셈인데, 이는 또한 어원적으로 ἀρχή에 닿아 있다는 점 역시 주목된다. 참고로, *Oxford English Dictionary*에서도 표제어 “archaeology”의 첫 번째 뜻으로 “ancient history generally; systematic description or study of antiquities”를 제시하고 있다. cf. Arnaldo Momigliano. “Ancient History and the Antiquarian.”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s* 13, no. 3/4 (1950): 285-315, esp. 286-289.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키투스가 초기 저술에서 『연대기』로 선회하게 된 과정은, 우선 그가 처해 있던 1세기 초반의 정세 격변이나 특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의 영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역사서술의 내적 속성, 다시 말해 시간적 선후 관계를 축으로 하는 인과관계의 탐구라는 점 역시도 그 동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타키투스가 초기 저술 당시부터 포착되는 새 프린킵스 체제에 대한 불안한 기대감과 회의감에서 기인한 계획 수정의 산물이 『연대기』 저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연구자들에 의해 자주 인용되기는 하지만 주로 앞부분만 발췌되는 경향이 있는 『아그리콜라』 3장 1절 전문(全文)을 읽어 내려가면, 내전과 독재, 폭정의 시대를 경험하고 살아남은 이 노회한 정치가-역사가의 인간관에 대해 감지할 수 있는 바가 적지 않다.

... natura tamen infirmitatis humanae tardiora sunt remedia quam mala; et ut corpora nostra lente augescunt, cito extinguuntur, sic ingenia studiaque oppresseris facilius quam revocaveris: subit quippe etiam ipsius inertiae dulcedo, et invisa primo desidia postremo amatur.

지금 결국 의식이 돌아왔다. 그러면서도, 비록 행복하기 그지없는 시절의 첫 시작에서부터 즉각 네르바 카이사르께서 오래전부터 화합할 수 없었던 것들, 프린킵스투스와 자유를 한데 엮어 놓았을지라도, 또한 네르바 트라야누스께서 시절의 호기를 날마다 키워놓고 있을지라도, 또한 공공의 안전이 희망과 서원을, 뿐만 아니라 시절이 서원 자체에 대한 확신과 확고함을 북돋웠을지라도, 그럼에도 인간의 나약함이라는 자연 본성 때문에 질병보다 치료책은 한결 더디다. 말하자면, 우리의 신체가 천천히 성장하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끝을 맺듯이, 꼭 그렇게 [당신은] 재능과 열정을 회복하기보다는 억눌러 놓기가 쉬운 법이다. 실인즉, 무기력함 자체의 달콤함이 엄습해 들고, 또한 처음에는 미움 받던 권태가 결국에는 사랑받기 때문이다.

(『아그리콜라』 3.1)

앞에서도 인용한 바 있는 3장 1절의 전반부는 양보-종속절(quamquam,..)

임에도 불구하고, 대개는 『아그리콜라』 저술 시점에 대한 전거나 네르바-트라야누스 치세 초반에 대한 타키투스의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하는 표현으로 자주 회자된다. 그런데 상당한 길이로 이어진 이 문장에서 보다 선명하게 읽히는 것은 인간본성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견해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신체”(corpora nostra)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단순히 저자만을 혹은 로마인이나 당대인만을 함축하는 ‘우리’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 전체(genus humanum)를 포함하는 1인칭 복수형으로 읽힌다. 또한, 2인칭 단수형으로 표현되고 있는 부정(不定)형 가능-접속법 문형 역시도 구체적인 역사성을 제거한 일종의 격언(aphorism)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이처럼 당대에 맞게 된 새 프린킵스 체제에 대해서 확신하거나 단언하지 않았던 타키투스가 『역사』를 집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술 초기의 일말의 기대감과 달리 실제로 지난날의 병폐를 바로 잡을 ‘치료책’이 더디게 오는 것을 목도했을지도 모른다. 트라야누스 치세였을 것으로 보이는 그 시점에, 아마도 노년에 저술하고자 미뤄 두었던 당대사 서술보다는 더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서술 제약에서 한결 벗어나기 위해 한층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고자 했을 것이다. 더욱이, 타키투스가 아시아 속주 총독이었다고, 뮐라사(Mylasa) 시에서 발견된 비문 하나가 그의 속주 아시아 총독직에 대해 암시하고 있는데, 대체로 112년 이후로 추정되는 그의 임기 중에는⁵⁷⁾ 동시대사에 대한 서술이 더욱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연대기』 저술 연대를 추산할 수 있는 최후 시점(terminus post quem)인 116년⁵⁸⁾ 이후에 그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현실 정치에 몸담고 있었을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정녕 바라는 바를 생각할 수도 생각한 바를 말할 수도 있었던 그런 드문 복된 시절”에 대해 저술하고자 노년으로 미루어 두었던 계획은 『연대기』 집필 이후에 실현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로마의 평화(Pax Romana)가 최전성기를 맞은 시절이라는 평가를 받아 온 2세기 소위 오현제

57) cf. Syme (1958) 665ff.

58) cf. 『연대기』 2.61.2: “claustra olim Romani imperii, quod nunc rubrum ad mare patescit”. 트라야누스 황제가 116년에 로마 제국의 영토를 홍해까지 확장시킨 반면, 하드리아누스가 제위에 오른 이후에는 이 경계선에서 물러났다는 것을 토대로 대체로 『연대기』 제2권이나 적어도 첫 몇 권은 116년이나 그 이후 하드리아누스 치세 초에 저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절에 대해 타키투스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보다 먼 과거를 되짚어 보는
『연대기』에 과묵혀버렸던 것인지도 모른다.

2. 역사서술로의 전회와 『연대기』 저술

20세기 중후반 들어 서양 고대사나 및 서양고전학 연구에서는 역사서술과 수사학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탐구와 그에 따른 연구 성과들이 나오게 되었고, 이는 보수적인 역사학 전공자들이나 실증주의 노선에 선 역사학자들과 크고 작은 논쟁을 낳기도 했다. 이와는 달리, 이른바 포스트모던 시대의 새로운 경향의 역사학자들은 형식주의 비평, 구조주의적 문학이론 나아가 서사학⁵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역사학에도 적용하여 역사연구의 새 장을 여는 데 일조했다.⁶⁰⁾ 이러한 추세는 최근 들어 고전 문헌이나 고대사 사료 연구에도 실험적으로, 시험적으로 적용되어 일부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대체로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역사 혹은 역사기록을 앞에 두고 ‘무엇’(quid) 보다는 ‘어떻게’(quomodo)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성립한다. 물론, 역사학자는 일차적으로 실제로 일어난—혹은 일어났다고 전해져오는— 어떤 일이나 사건에 주목한다. 그런 점에서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훌륭한 역사가는 과거가 “실제로 어떠했는지”(wie es eigentlich gewesen)에 대해 밝혀야 하는 책무를 지고 문헌사료를 펼쳐들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사정은 녹록하지 않고, 더욱이 그가 연구대상으로 삼은 시대가 지금-여기에서 멀어질수록 어려움은 배가된다. 기록술이 발달하면서 과거를 규명하는 데 활용할 자료가 늘어난다고 해서 사정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랬듯이, 말을 통해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기록하는 데에는 전달자(messenger), 서술자(narrator)의 관점에 따라 혹은 매체(media)에 따라서도 그 내용(message)이 다르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⁶¹⁾ 무엇

59) cf. Irene J. F. de Jong, *Narratology and Classics: A Practical Guid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특히, 1부 1장과 2부 7장 참조.

60) cf. 허승일, 『다시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과 김기봉, 『히스토리아, 쿠오바디스』, 파주: 서해문집, 2016. 또한, 헤이든 화이트(Haydn White)의 ‘메타역사’(metahistory)로서의 역사서술에 대한 논의는, 안병직, 「픽션으로서의 역사 - 헤이든 화이트의 역사론」, 『인문논총』 51, (2004): 35-75 참조.

61) 일부 대중 언론 매체의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보도, 혹은 문학에서는 널리

을 읽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읽느냐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이 대목에서이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 쓰기, 역사서 저술, 역사서술(historiography) 연구와 직결된다. 1800년대 이래 2000년까지 영어권 국가에서 사용된 어휘들의 용례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자료를 참고해 보면, “historiography”라는 단어가 1920년대와 비교해 2000년대에는 전체 어휘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⁶²⁾ 이러한 지표 역시 최근의 연구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역사[서술]의 대상(소재, materia)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고전 수사학 이론에서는 역사를 실제 있었던 일을 그 대상으로 하는 진술/서술(narratio)로 구분했다.⁶³⁾ 흥미로운 것은, 개연성(probabilitas)을 종차로 하여 역사와 구분되는 진술의 종류가 설화(fabula)와 허구(虛構, argumentum)라는 점이다. 이 중 전자는 주로 비극의 이야기를, 후자는 희극의 이야기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역사는 이들과 달리 실제 사실(verum)을 서술하는 이야기 방식이다. 이 유서 깊은 정신은, 소위 이오니아 계몽(Ionian Enlightenment)시대 지리학과 역사학의 시조라 일컬어지는 헤카타이오스(Ἡκαταῖος, 기원전 560-480년경)⁶⁴⁾

알려진 이른바 “라쇼몽 효과”(Rashomon Effect) 등에 대해서도 상기할 만하다.

62) <Google Books Ngram Viewer> (<https://books.google.com/ngrams>) 2019년 5월 6일자, 검색 데이터에 따르면, historiography의 전체 출판물 가운데 비중은 1920년에 0.0000227304%, 2000년에 0.0003179164%의 수치로 분석된다. 일상어라기보다는 전문, 학술용어로서 사용되는 이 어휘는 20세기 중반 이후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역사학에서 역사서술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한 그것이 실제 출판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63) cf. 키케로, 『작상에 대하여』(*De Inventione*) 1.27-30; 퀸틸리아누스, 『연설가 교육』(*Institutio Oratoria*) 2.4.1-2; 『헤렌니우스에게 바친 수사학』(*Rhetorica ad Herennium*) 1.13. 이 세 개의 진술 유형은 고전 그리스어로 각각 μῦθος, ἱστορία, πλᾶσμα에 상응한다. 참고로, argumentum이라는 용어가 논증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맥락이나 argumentatio라는 개념과 혼선을 빚지 않아야 한다(Guy Achard. ed. & tr. *Cicéron: De l'Invention*. Paris: Les Belles Lettres, 1994, n. 76).

64) cf. Robert L. Fowler. ed. *Early Greek Mythography, Vol. 1: Text and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110-146; *Vol. 2: Comment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658-681. 또한, 윤진, 「헤카타이오스(Hekataios)와 헤로도토스(Herodotos)」, 『대구사학』 75

에서 시작된다. 단편으로 전해지는 그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인들이 전하는 이야기들이 잡다하고 미덥지 못한 것에 비해 그 자신은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글로 남겼다.⁶⁵⁾ 신화(mythos)를 서사 대상으로 삼는 시가(詩歌)로부터 떨어져 나온 역사서술은 헤로도토스와 투퀴디데스에 이르러 만개했고 이 두 사람은 사학사에서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직업이나 장르로서의 역사는 역설적이게도 철학이나 시문학처럼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승되는 역사 관련 문헌들 사이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계수 관계의 외견상 불연속성은 수사학의 역사에 주목한다면 해소할 만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전문적인 사관(史官)을 두거나, 그러한 직책이 세습되기도 했던 고대 중국의 역사서술 전통과는 달리, 서양 고대의 역사가들은 대체로 정치가 출신이거나 정치가 양성을 위한 수사학 교육의 혜택을 입은 지식인들이었다. 리비우스 같은 몇몇 예외적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문자 그대로의 전업 역사가는 전무했던 셈이다. 반면, 역사를 그 학술영역에 포괄하여 전수해 온 것은 수사학이었다. 그럼에도 역사서술의 구체적인 방법론 자체가 수사학 이론 체계 내에서 정립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⁶⁶⁾ 그

(2004): 265-291 참조.

65) cf. *FGrH* 1 F1: “τάδε γράφω, ὥς μοι δοκεῖ ἀληθεῖα εἶναι· οἱ γὰρ Ἑλλήνων λόγοι πολλοὶ τε καὶ γελοῖοι, ὥς ἐμοὶ φαίνονται εἶσιν.” 인용은, Felix Jacoby. ed. *Die Fragmente der griechischen Historiker* Vol. 1. Leiden: E. J. Brill, 1995에서 발췌한 것이다.

66) cf. 키케로, 『연설가에 대하여』 (*De Oratore*) 2.62: “neque eam (sc. historiam) reperio usquam separatim instructam rhetorum praeceptis; sita sunt enim ante oculos”(그리고 그것[sc. 역사]이 어디에서도 별도로 수사학자들의 지침들에 맞춰 짜인 것을 나는 찾아내지 못하고 있네. 사실 그것들은 눈앞에 있으니까 말이네).

서기 2세기의 작품, 루키아노스의 『어떻게 역사를 쓸 것인가』 (Πῶς δεῖ ἱστορίαν συγγράφειν)은 고전, 고대 유일한 역사서술 방법론에 대한 저술로 평가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를 체계적 이론서라고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실증주의적 역사서술의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고자 하는 이들은 루키아노스-투퀴디데스에서 그 단서를 찾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경현, 「루키아노스의 <역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2006): 231-289 참조.

러나 역사는 수사학 혹은 연설가 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인다.⁶⁷⁾ 역사의 가치 혹은 역사 공부의 효용은, 키케로의 저 유명한 문구에 압축되어 있다.

historia vero testis temporum, lux veritatis, vita memoriae, magistra vitae, nuntia vetustatis, qua voce alia, nisi oratoris, immortalitati commendatur?

그런데 시대의 증인이요, 진실의 빛이요, 기억의 생명이요, 삶의 스승이요, 유구함의 전령인 역사가 연설가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어떤 목소리로써 불멸에 맡겨지겠는가?

(키케로, 『연설가에 대하여』 2.36)

여기에 더해, 키케로는 『연설가에 대하여』에서 기원전 2세기 말에서 다음 세기 초에 이르는 무렵 당대 최고의 연설가로 명성을 드높인 안토니우스의 입을 통해 로마 역사서술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는데,⁶⁸⁾ 요약하자면 조야하고 무미건조했던 로마 역사서술에는 세련된 수사학적 장식(ornamenta)이 더해져야 하며 제대로 된 역사서술의 완성(exaedificatio)은 연설가에게 속하는 직무(munus)⁶⁹⁾라는 것이다. 키케로 자신 역시 여러 차례 역사서 저술을 권유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이것을 현실 정치라는 과업(negotium) 이후로 미룬 바 있다.⁷⁰⁾ 그러나 키케로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여기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다.

이처럼 연설가/정치가가 말아야 할 역사서술에 대한 언급⁷¹⁾은, 시대를

67) 퀸틸리아누스, 『연설가 교육』 2.4.2; 10.1.31-35, 101-104; 12.4.1-2 참조.

68) 키케로, 『연설가에 대하여』 2.50-64 참조.

69) 『법률론』(*De Legibus*) 제1권 8절에서 역사서술에 대해 “opus ... oratorium maxime”라고 표현한 대목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70) 퀸틸리아누스, 『연설가 교육』 12.11.1-7 참조. 퀸틸리아누스는 연설가의 시민으로서의 의무(officium)가 은퇴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관련된 활동들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데, 법률 자문, 연설술 관련 저서 집필과 함께 거론되는 것이 역사기록(monumenta rerum)이다. 다소 도식적으로 해석하자면, 정부/과업(negotium)을 마친 연설가가 시간이 허락하는 동안(otium)에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역사서술(res gestas scribere)이라는 것이다.

71) cf. 조 굴디, 데이비드 아미티지, 『역사학 선언』, 안두환 옮김, 서울: 한울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또 다른 역사가에게서 찾을 수 있다. 기원전 2세기 중엽, 그러니까 키케로나 연설가 안토니우스보다 앞선 시대의 역사가 폴뤼비오스는 지중해 전역의 패권을 차지한 제국 로마의 역사를 서술하는 첫 머리에 자신의 역사서가 특정 지역의 역사가 아닌 전체사 혹은 보편사(τὰ καθόλου γράφειν)라는 점을 강조했다, πραγματική ιστορία⁷²⁾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역사서술의 특징을 덧붙여 규정한다. 폴뤼비오스가 사용한 πραγματικός라는 표현은 로마에서는 주로 라틴어로 음차되거나⁷³⁾ 주로 negotialis나 negotium과 관련된 말로 번역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⁷⁴⁾ 수사학 이론에서 전문용어로 사용되던 사례를 제외하면, 고대 로마에서 이 단어에 가장 적합한 번역어는 respublica의 형용사형이었을 것 같다.⁷⁵⁾ 왜냐하면 negotialis나 negotium에 해당하는 영역이 다른 아닌 국가사 내지는 국정(res publica)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역사서가 특

아카데미, 2018, 48. 역사학의 정치적 성격과 역사학자의 정치적 책무를 강조하는 저자들은 고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가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앞서 인용한 키케로의 『연설가에 대하여』 제2권 36절을 제시한다(인용한 번역본 각주 17에서 “11.36”으로 표기된 것은 “II.36”의 오타인 것으로 보인다).

72) 폴뤼비오스, 『역사』 (Ἱστορίαι) 1.2.8 참조. Walbank(*A Historical Commentary on Polybius*. Vol. 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7)는 이 대목에 대해서 ‘political history’라고 간단히 주석하고 있다. 반면에, 김경현(「pragmatike historia와 tyche - 폴리비오스의 역사이론과 서술의 실제」, 『한국사학사학보』 20 (2009): 109-147과 「역사학 고전 다시읽기: 폴리비오스의 『역사』 - “세계사”와 “국사적 역사”」, 『서양사론』 108 (2011): 232-252)은 이를 ‘국사(國事)적 역사’로 옮기면서 이러한 종류의 역사서술의 선구자로 폴뤼비오스를 지목한다. 이와 함께, 김창성, 「폴리비오스의 발전관과 혼합정체 국가들」, 『서양고대사연구』 26 (2010): 225-250도 참조.

73) OLD에서 제시하는 표제어 하부 항목은 2개로 간략한데, 시인 아키우스의 저술 제목을 전하는 겔리우스의 기록, 「아티쿠스에게 보낸 편지」(2.20.1)에서 키케로가 사용한 한 대목 외에는 모두 ‘법률자문가’를 가리키는 말로 분류하고 있다. 본고 119쪽과 각주 210) 참조.

74) cf. *ThLL*, 10.2.1120.15-10.2.1122.20. 특히, 1b는 수사학 저술들 중에서의 용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좁은 뜻으로는 인물이 아닌 사태와 관련된 성격규정 쟁점에 적용되는 용어로, 보다 넓은 뜻으로는 ἥθος 내지는 ἡθικὴ와 관련된 인간사를 지칭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후자의 사례로는, 퀸틸리아누스, 『연설가 교육』 2.21.3; 3.7.1-2 참조.

75) 조금 더 후대 라틴어로는 “historia realis”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정 종족이나 지역의 족보나 계통에 대한 기록이 아닌 국가사와 주요 정치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차별성을 두고자 한 폴뤼비오스의 주장은 일차적으로 역사서의 소재 내지는 대상에 관한 것이다.⁷⁶⁾ 그 점에서 πραγματική ιστορία는 국가사나 현실 정치에 해박한 정치가를 일차적으로 주 수요층으로 삼는 셈이다. 폴뤼비오스를 전후하여 로마의 정치가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로 자신들이 직접 역사서를 집필하는 경우가 많았다.⁷⁷⁾ 그리고 로마의 역사서술이 주요 내용으로 삼았던 것도 전쟁과 평시(domus militiaeque)에 기록할 만한 일들과 업적(res gestae)이었다.

이와 함께, 공화정기 로마의 역사서술이 지적 유산의 전통 하에 그 위상과 양식에 있어서 커다란 전기를 맞은 것은 기원전 1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였다. 이 시기 고대 로마의 역사가나 역사서술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는 전거는 주로 키케로의 수사학 관련 문헌들로부터인데,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수사학/연설술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교재 성격의 저술들 외에 일련의 대화편에서 키케로는 당대의 역사서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한다.⁷⁸⁾ 그가 제기한 비판이 주로 겨냥하는 바는, 앞에서 논의한 역사서술의 대상이 아니라 서술 양식과 역사가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다. 가령, 대화편 『법률론』 초반(제1권 5-9절)과 『연설가에 대하여』(제2권 51-54절), 『브루투스』에서 산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화정기 로마 역사가들이나 그들이 남긴 문헌들에 비판은 일관되게 그 서술 양식의 무미건조함과 읽을거리로서의 흥미 부족 등에 관한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역사서술이 무엇(quid)을 대상으로 하느냐보다는 어떻게(quo modo) 그 대상을 서술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리고 키케로의 역사서술에 대한 비판과 제언은, 공화정 말기 그리고 제정 초의 두 역사가 살루스티우스와 리비우스를 통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실현된

76) 김경현 (2011) 238.

77) 공화정 중후기 로마의 역사서술 전통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Timothy J. Cornell. ed. *The Fragments of the Roman Historia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참조.

78) 이에 대해서는 김기훈, 「로마공화정 말기의 역사서술과 수사학」, 『서양고전학연구』 55-1 (2016): 137-175, 특히 142-155 참조.

다. 두 역사가 공히, 키케로가 바랐던 표현 면에서 상당히 개선된 역사서술의 모범을 남긴 셈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양식의 역사서술을 낳은 셈이다. 1세기 말 수사학자 퀸틸리아누스의 기록에서도 이 두 역사가의 서술 양식상의 차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⁷⁹⁾ 그에 따르면, 살루스티우스는 투퀴디데스에, 리비우스는 헤로도토스에 비견될 만큼 로마 역사서술의 수준을 상당히 끌어올린 역사서들을 남겼고 수사학을 공부하려는 이들에게는 훌륭한 읽을거리인 동시에 모방할 만한 표본으로 제시된다. 퀸틸리아누스는, 그럼에도 초심자에게는 리비우스를, 그보다 진일보한 경험과 학식을 쌓은 이에게 살루스티우스를 읽고 본받을 것을 권한다.

ego optimos quidem et statim et semper, sed tamen eorum candidissimum quemque et maxime expositum uelim, ut Livium a pueris magis quam Sallustium (et hic historiae maior est auctor, ad quem tamen intellegendum iam profectu opus sit).

나로서는 물론 즉각 그리고 항상 가장 훌륭한 이들을 [sc. 초심자들이 읽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그들 중에서 가장 수수하고 가장 명백한 그런 이를 [읽기를] 바라니, 가령 리비우스는 어린 시절부터 살루스티우스보다 더 그럴 만하다(사실 후자가 역사에 있어서는 더 위대한 작가이지만, 그럼에도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진일보가 필요하다).

(『연설가 교육』 2.5.19)

구체적으로 퀸틸리아누스가 언급하지는 않지만, 역사서술의 대상과 내용, 역사가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살루스티우스가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면서 자신이 새로운 직무로 삼아 전향했던 역사서술에 부여했던 의미를 상기하면,⁸⁰⁾ 그에게서 고대 로마의 역사서술 전통이 투퀴디데스, 폴뤼비오스를 축으로 하는 *πραγματικὴ ἱστορία* 계통에 잇닿아 있을 것이다.

79) 퀸틸리아누스, 『연설가 교육』 10.1.32, 101-102과 안재원, 「로마의 “역사(historia)” 활용 방식에 대하여」, 『역사교육』 149 (2019): 1-27 참조.

80) 김기훈 (2012) 24-25 참조.

pulchrum est bene facere rei publicae, etiam bene dicere haud absurdum est; vel pace vel bello clarum fieri licet; et qui fecere, et qui facta aliorum scripsere, multi laudantur. 2. Ac mihi quidem, tametsi haudquaquam par gloria sequitur scriptorem et auctorem rerum, tamen in primis arduum videtur res gestas scribere:

국가를 위한 훌륭한 행위는 뛰어난 일이며, 훌륭한 연설 역시도 못지 않은 일이다. 평시건 전시건 명망 있는 이가 될 수 있다. 몸소 행한 이들과 또한 타인의 행적을 기록한 이들 다수가 칭송받는다. 그리고 내게는 실로, 역사의 행위자와 기록자에게 동등한 영광이 따르지는 않더라도, 그럼에도 특히 역사서술이 험난한 것으로 보인다.

(살루스티우스, 『카틸리나 전쟁』[*Bellum Catilinae*] 3.1-2)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공화정 말기에 이르러 키케로는 로마의 역사서술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그것이 연설가의 몫임을 강조한 바 있는데, 그와는 달리 키케로가 『브루투스』나 여러 저술들을 통해 공화정 말기 연설가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한탄하는 것이 주목된다.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언하고 정책을 제안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등 정치연설의 자유가 제약되는 기원전 50년대부터 시작된 삼두정의 야합과 내전, 독재의 시대를 거치면서 연설가-정치가의 활동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키케로 본인은 기원전 43년 제2차 삼두정 결성 이후 살생부 명단에 오른 최초의 인물들 중 하나가 되어 살해될 만큼 최후에 이르기까지 정치연설가로서의 소임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가 안토니우스를 규탄하면서 남긴 일련의 연설과 출판물이 사실상 그의 자유와 목숨까지 앗아갔다는 점에서⁸¹⁾ 이제 시대는 더 이상 과거의 연설가처럼 거리낌 없이 발언할 수 있는 자유(παρρησία), 나아가

81) 키케로가 기원전 43년 제2차 삼두정 결성 직후 범의박탈(proscriptio) 명단에 올라 살해되고 시신이 훼손되는 치욕을 겪게 된 것이, 일련의 『반(反) 필리포스: 안토니우스 규탄 연설』(*Orationes Philippicae*)로 인해서였다면 정치 보복에 의한 설화(舌禍)였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김덕수, 「‘소통’의 장에서 ‘규탄’의 장이 된 로마원로원」, 『서양고대사연구』 52 (2018): 41-73 참조.

인신의 자유마저도 보장해주지는 않게 되었다. 그 동기는 다소 다를지도 모르지만,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환멸을 표하며 역사서술로 전향한 살루스티우스에게서도 감지되는 시대상이다.⁸²⁾ 혼란한 정세와 정국, 그리고 말과 실체가 어긋나는 현실에 대한 환멸은 살루스티우스의 역사서에서 자주 발견되는 특징으로, 이에 대해서는 투퀴디데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두 역사가가 공유하게 되는 바는 또한, 그들이 전직 정치가들이었으며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역사서술로 전회하게 되었다는 배경에 있다. 저술 규모나 범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이 두 역사가는 비교적 자신들과 가까운 동시대사를 그 대상으로 삼아 역사서를 남겼다. 그리고 이들의 역사서는, 앞에서 폴뤼비오스에 대해 논의하면서 지적했듯이 정치사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요컨대, 투퀴디데스와 살루스티우스의 경우, 역사서술의 주체나 내용 모두 현실정치(negotium/πρᾶγμα)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로 인해 이들의 역사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수밖에 없으며, 바로 그 점에서 역사서술은 정치활동의 일환이다.⁸³⁾ 근현대의 실증주의 노선에 있는 역사학이 그 비조를 고대 역사서술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오히려 이들은 일종의 반례로 제시될 수 있을

82) 『카틸리나 전쟁』 3.3-4.1 참조.

83) *LSJ(A Greek-English Lexicon. eds. by Liddel & Scott, Jones, McKenzie)*의 표제어 πολυπράγμων 1항에서는 이 표현이 소크라테스를 비난할 때 쓰인 사례를 제시한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이와 함께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은 ἀπράγμων인데, 이 단어는 페리클레스의 유명한 전몰자 추도 연설 중에 아테네인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강조할 때 쓰인 바 있다.

cf. 투퀴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2.40.2: “이곳에서 정치가들은 가사(家事)도 돌보고 공적인 업무도 처리하며, 주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정치에 무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테나이인들만이 특이하게도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지들을 비정치가가 아니라 무용지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정책을 직접 비준하거나 토의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과 행동을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지 않고, 결과를 따져보기도 전에 필요한 행동부터 취하는 것을 최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천병희 옮김, 고양: 도서출판 숲, 2011에서 인용한 것이다) 참고로, ἀπράγμων을 우리말로 달리 옮긴 사례들은 “초연한”(페리클레스, 「장례식 추도연설」, 장시는 옮김[『그리스의 위대한 연설』, 서울: 민음사, 2015에 수록]), “얕전한”(양승태, 『리시아스와 안티스테네스』,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214 각주 3)) 등이 있다.

지도 모른다. 이는, 키케로가 역사서술을 정치가/연설가의 직무 중 하나로 간주하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살루스티우스가 자신의 역사서술을 정치활동에 준하는 것으로 정당화한 대목 등을 통해서 뒷받침된다.

로마 공화정 말기에서 감지되는 ‘historia pragmatica’ 전통은 제정 초기의 수사학 교육 현장, 정치가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했을 듯하다. 특히, 제정기 모의연설(declamatio) 교육은 가상의 상황에 대한 것인 동시에, 바꾸어 말하기, 역할극 등을 통해서 다른 관점에서의 이야기하기, 서술을 가르치면서 광장(forum)이 사라진 정치-교육 환경을 상당 부분 보완하는 기능을 했다.⁸⁴⁾ 이 수사학 교육에서 피교육자는 연설가-정치가로서 통치자에게 알맞은 조언을 해야 하거나, 사안과 사리를 판단해 특정한 상황 속의 피고인을 변론하거나 고발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그리고 이처럼 모의연설 교육 과정 중에 설정된 특정한 상황이나 인물, 혹은 익히 알려진 신화-역사상의 인물 유형들은 간접 체험을 통해, 훗날 실제 법정이나 원로원, 궁정에서 맞게 될 상황을 대비하게끔 했다.

이러한 제정기 수사학 교육의 흔적들은 노(老) 세네카와 퀸틸리아누스 등 1세기 수사학 교육에 이바지했던 이들의 문헌들에서 읽을 수 있으며, 1세기 중엽에 태어나 정계에 입문해 정규적인 과정을 속속 거치면서 플라비우스 황가 치세 동안 상당한 인정을 받았던 타키투스 역시도 이 수사학 교육의 혜택을 충분히 누렸을 것이다. 훗날 타키투스가 전회하게 되는 로마의 역사서술 역시도 수사학의 지배적인 영향 하에서 성숙해 왔다. 이 전통은, 투퀴디데스, 이소크라테스⁸⁵⁾에게서 시작해 헬레니즘 시대

84) cf. Joy Connolly. *The State of Speech: Rhetoric and Political Thought in Ancient Rom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안재원, 「고대 로마의 이상적 연설가(orator perfectus)론」, 『서양고전학연구』 20 (2003): 119-140, 안희돈, 「퀸틸리아누스의 교육사상의 정치적 함의: 이상적 연설가像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95 (2005): 217-242, 김덕수, 「퀸틸리아누스의 교육사상의 역사적 의의: 『연설가교육론』(*Institutio Oratoria*) 1권 1~3장을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14-2 (2012): 1-31 등 참조.

85) 이소크라테스가 직접적으로 역사서술 이론을 정립하거나 역사가들을 양성한 것은 아니지만, 역사나 역사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에포로스나 테오폴로스 같은 역사가들이 그의 제자로 알려진 전승이 우연은 아닐 것이다. cf. John Marincola. “Rethinking Isocrates and Historiography.” in *Between Thucydides and Polybius: The Golden Age*

역사서술 그리고 공화정 말기 키케로의 역사서술론까지 이어진다. 기원전 1세기 중후반 키케로 당대에 이르기까지 로마의 역사서술이 표현이나 문체 면에서 조야하다는 평가 이후 그 대안으로 키케로가 제시한 것은 수사학적 서사(narratio ornata)⁸⁶⁾였다.

그런 점에서 한결 세련되고 완성도 높은 역사서술을 가능케 한 것은 수사학 교육을 능히 받은 이, 달리 말해 연설가(orator)이다.⁸⁷⁾ 그리고 실제로 서양고대의 교육체계 내에서 역사 혹은 역사서술 교육은 수사학이 포괄하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역사서술은 ‘historia oratoria’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역사서술은 수사학 교육을 받은 이가 언변 능력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이기도 했고, 정치가-연설가(auctor-orator)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서 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다만, 역사서술은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 특히 정치사를 다루되 불편부당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정치적 색채를 지워야만 했다. 그런 점이 한편으로 연설가에게는, 광장과 민회에서 자신 혹은 자신이 변론하는 쪽의 입장을 설득하고자 할 때의 표현의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하도록 하지만, 역사가 다루는 대상이 당장의 눈앞의 현실과는 동떨어지거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반대로 일정 정도 자유를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역사가에게는 과거의 사료를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선별하는 안목과 경험이 요구되고, 개별 사안과 인물들을 시간 순서에 따르되 그 인과 관계를 해명하고 개연성 있게 서술하는 역량 또한 요구된다. 그런 까닭에, 키케로의 이상적 연설가론에서

of Greek Historiography. ed. by Giovanni Parmeggiani. Washington: Center for Hellenic Studies, 2014, 39-61. 또한, 이소크라테스, 「시민대축전에 부쳐」(Πανηγυρικός), 김현 옮김, 9-10(『그리스의 위대한 연설』에 수록) 참조.

86) 이 용어에 대해서는, 김기훈 (2016) 146-150, 특히 각주 28), 29) 참조.

87) 그렇다면 이상적인 역사가는, 이상적인 정치가이자 인간상인 “vir bonus dicendi peritus”이기도 할 것이다. 이 표현은 노(老) 카토의 것으로 보이는데, 퀸틸리아누스는 『연설가 교육』 제12권에서 이 개념으로부터 시작해 자신의 수사학 교육 학술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Institutio Oratoria*라는 제목에서 oratoria 역시 단지 ‘수사학’이나 ‘연설술’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정치가/연설가’를 지칭하는 형용사로 읽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역사서술 역시, 내용과 표현 면에서 대내외 정치에 있어서 정부 감각을 두루 갖추고 사태에 맞는 표현 능력을 갖춘 연설가의 몫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제정기 수사학 교육에도 이어졌다.

한편, 타키투스의 대화편 『연설가들에 대한 대화』의 역사성을 신뢰할 수 있다면, 과거 공화정기 말에 키케로가 그러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타키투스 역시도 당대의 저명한 연설가-정치가들과의 교류 내지는 자문을 통해 현실 정치 전반에 대해 비교적 근거리에서 추체험(Nacherleben)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더욱이 비교적 그 전체적 성격이 열렸을 것으로 보이는 플라비우스 황가 치세 전반에도, 『연설가들에 대한 대화』의 등장인물들이 논쟁하고 있듯이,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다면 타키투스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실감하고 또한 인식하고 있었던 중요한 정치적 현안은 “프린키퍼투스과 자유”(principatus ac libertas)였을 것이다. 한편, 대화편 『노 카토』, 『라일리우스』가 ‘노년’이나 ‘우정’이라는 부제를 갖듯이, 혹은 『카르미데스』, 『라케스』, 『에우튀프론』, 『뤼시스』 등의 대화편들이 각각 ‘절제’, ‘용기’, ‘경건’, ‘친애’ 등의 주요 주제어를 다룬 작품들이라고 칭해지곤 하듯이, 『연설가들에 대한 대화』에는 ‘달변’ 혹은 ‘언변’(eloquentia)⁸⁸⁾이라는 핵심어를 이른바 별칭(cognomen)으로 더해도 될 듯하다. 사실, 이 대화편의 등장인물들이 공유하고 있는 전제는 ‘언변’의 역할이 이전 시대와는 달라졌다는 점이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옛 시절과는 정치와 체제가 달라졌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대화편의 쟁점은, 이 현상관찰에 근거해서 연설가⁸⁹⁾의 위상이 등장인물들에 따라 각기 달리 평가되는 데 있다. 주요 등장인물들이 마테르누스라는 인물의 집을 방문해서 논쟁하게 되는 계기는 그가 며칠 전 『카토』라는 역사극(fabula praetexta)을 낭독함으로써 일으킨 정치적 파장 때문

88) “eloq-”를 어간으로 갖는 단어는 이 대화편에서 총 68회 사용된다. 타키투스의 여타 작품과 견주어 보자면 전체 사용 횟수 대비 약 67%가 이 소품에 집중되어 있다.

89) “orator”와 “oratorius” 계열의 어휘는 타키투스 전작에서 84차례 사용되는데 그중 70회가 『연설가들에 대한 대화』에 집중되어 있다. 참고로 『역사』, 『아그리콜라』, 『게르마니아』에서는 이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이었다. 과거 로마의 공화정을 지키고자 했던 인물로서, 공화정기의 자유를 상징하는 카토에 대한 마테르누스의 극적 묘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그 시대에 카토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은 시문학을 노래한 것으로도 정치적 공세를 피하기 어려웠으리라는 점이 주목된다. 일인 통치자 개인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라기보다는, 과거와는 달리 고소고발을 일삼는 전문적인 밀고인들(delatores)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테르누스의 친구들은 그에게 시작(詩作) 활동을 삼갈 것을 권한다. 그러나 연설가의 위상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이유로, 마테르누스는 극작가라는 새로운 활동에 몰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말하자면, 정치가 마테르누스의 시문학으로 전회가 발단이 되어, 이 대화편은 과거와 등장인물들의 “우리 시대”의 대비, 달라진 시대 환경에 따른 연설가의 역할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진다. 일견 플라톤의 다수 대화편들처럼 ‘아포리아’로 마감되는 『연설가들에 대한 대화』는 이처럼 시대 변화에 따른 연설가-달변의 가치에 대한 토론이라는 점에서 1세기 수사학-연설 쇠퇴론 논의에 닿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논쟁의 출발이 된 마테르누스의 시작(詩作)에 대한 암묵적인 검열 분위기는 70년대 중반 베스파시아누스 체제 이후의 시대상에 대해 주목하게 한다. 대화편 자체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고 있지만, 마테르누스가 정치활동의 대안으로 여긴 시문학 역시도 그 시절 결코 안전한 표현 수단이 되지는 않았던 것처럼 그려진다.

사실, 연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시문학은 그것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서술 양식이라는 점에서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역사가 그러했는지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가령, 정확히 그 주된 원인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문인들의 소위 자기검열은, 아우구스투스 시절 서정시에서 유행한 문 밖으로 “쫓겨난 연인”(exclusus amator)⁹⁰⁾이라는 시적 주제와 모종의 연관이 있는 듯하

90) cf. Michael S. Cummings, “Observations on the Development and Code of Pre-elegiac Paraklausithuron.” Ph.D. Dissertation. Ottawa: Ottawa University, 1997. παρακλαυσίθυρον은 exclusus amator에 상응하는 주제어이다.

다. 물론 이것을 두고서, 정치활동의 폭이 좁아지거나 소위 정치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통로가 가로막힌 시대상을 반영하는 문학적 변주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또한 아우구스투스 시절에 언론의 연설의 자유(libertas dicendi)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제한된 사례를 쉽사리 제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련의 서정시인들에게서 이와 같은 풍의 연애시를 자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다만 문학 자체 내의 일시적 유행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듯하다. 이것이 당시 시대상을 어느 정도로 투영한 것인지, 이와 같은 모티프로써 개개의 시인들의, 혹은 그들을 후원한 정치-권세가(political influencer)들의 의중이 어떠했었는지에 대해서 타당한 해석을 내놓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관련된 개별 작품들을 분석하고 그 역사적 배경 또한 추적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 치세에서 마이케나스와 메살라, 양 진영의 문인들이 상당 부분 자신들의 후원자들의 정치적 경향이나 의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쫓겨난 연인”, 문턱 바깥에서 서성이는 연인의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랑 이야기는, 문학적으로는 그 영향사 측면에서 기원이 오래된 소재의 일환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 혹은 당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문학적 수사와 상징으로 해석될 여지를 지닌 문필 활동의 산물이기도 하다. 만일, 후자의 해석을 더 지지할 수 있다면, 광장(forum)에서 연설의 자유가 위축된 이래로 문필 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게 된 것이 다른 아닌 아우구스투스의 치세, 소위 팍스 아우구스타(Pax Augusta)⁹¹⁾ 시대였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적인 일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서정을 노래하는 문인에게도 시적 자유(licentia poetica)가 넘어서지 않아야 할 일종의 경계와 문턱(limen)이 있었다는 식으로 말이다.

ipse pater patriae—quid enim est civilis illo?—

91) 아우구스투스에 의한 로마의 평화 체제(Pax Augusta)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는, Kim, Weol-Hoi and Kim, Kihoon. “Pax Romana and Pax Sinica: Some Historical Aspects.” *Horizons* 7, no. 2 (2016) 161-178, 특히 163-166, 169-170 참조.

sustinet in nostro carmine saepe[nempe; Hall] legi;

nec prohibere potest, quia res est publica Caesar,

et de communi pars quoque nostra bono est.

다름 아닌 국부께서는—사실 그보다 더 시민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저의 시가(詩歌) 안에서 자주 읽히게 되는 것을 용납하시며,

또한 금하실 수가 없습니다. 카이사르는 공공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의 선에 대해서는 저의 몫 또한 있습니다.

(오비디우스, 『비애』 (*Tristia*) 4.4a.13-16)⁹²⁾

마테르누스 혹은 타키투스가 시작(詩作)이나 저술을 결심하게 된 시점에 의식해야 했던 일종의 자기검열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짐작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위에서 인용한 오비디우스의 시구처럼 국가 자체가 일인 통치자와 동일시된 시점을 아우구스투스 치세로 소급할 수 있다면, 문필 활동 역시도 연설만큼이나 그 입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좁혀졌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연설가들에 대한 대화』나 『아그리콜라』의 경우를 비추어 보건대 타키투스가 지속적으로 의식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술한 이들의 죽음을 초래한 통치자 프린켑스의 압제(*saevitia principis*) 속에서 연설가-정치가로서 살아온 그 시절에 대해서, 과감히 침묵을 깨뜨리는 것⁹³⁾이었다.⁹⁴⁾

dedimus profecto grande patientiae documentum; et sicut vetus aetas vidit quid ultimum in libertate esset, ita nos quid in servitute, adempto per inquisitiones etiam loquendi audiendique commercio. memoriam quoque ipsam cum voce perdissemus, si tam in nostra potestate esset oblivisci quam tacere.

92) cf. John Barrie Hall. ed. *P. Ovidi Nasonis Tristia*. Stuttgart: De Gruyter, 1995.

93) cf. 살루스티우스, 『카틸리나 전쟁』 1.1: “omnis homines qui sese student praestare ceteris animalibus summa ope niti decet ne vitam silentio transeant veluti pecora, quae natura prona atque ventri oboedientia finxit”.

94) cf. 『아그리콜라』 3.2: “senes prope ad ipsos exactae aetatis terminos per silentium venimus”.

우리는 틀림없이 복종에 대한 대단한 증거를 남겼다. 그리고 옛 시절이 자유에 있어서 극단이 어떤 것인지 보았듯이, 그렇게 우리는 굴종에 있어서 극단을 보았다. 정탐을 통해 말하고 듣는 교류 관계까지도 빼앗기고 나서는 말이다. 목소리와 함께 기억 자체 역시도 우리는 잃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만일 침묵하는 것만큼 잊는 것이 우리 능력에 달려 있다면 말이다.

(『아그리콜라』 2.3)

그런 점에서 『아그리콜라』를 비롯해 그의 저술 전반은 일종의 전체 정에서 살아남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apologia pro vita sua*)이자, 자신이 결국 생존자로서 버텨내온 그 시절에 대한 증언이다. 대화편 내에서 마테르누스가 결국 확신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대안 시문학이 아닌, 역사서술을 타키투스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미티아누스 사후에 새롭게 맞게 된 통치 체제 덕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우선 『아그리콜라』와 첫 역사서에 서술한 도미티아누스 시대까지의 역사(69-96년)에 대해서는, 이 시해된 황제에 대해 원로원이 의결한 기록말살형(*damnatio memoriae*)이 안전장치 역할을 했을 것이다.⁹⁵⁾ 이 가까운 과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가 공식적으로 일정 정도 보장된 터였기에, 이 시대를 있게 한 근원을 찾고자 한 시도(*ἀρχαιολογία/archaeology*)는 한결 부담이 덜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타키투스가 자신이 살아온 시대상, 가까운 과거에 대해 직설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대목으로 『아그리콜라』의 서문 그리고 마지막 몇 장(章)을 그 단서로 제시할 수 있다. 상당히 격한 감정이 표출되어 있는 이 저술에 대해 타키투스는 자신의 장인에 대한 추모와 효심(*pietas*)의 표현으로 양해될 수 있으리라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은 전기

95) cf. 수에토니우스, 「도미티아누스」 23: “contra senatus adeo laetatus est, ut repleta certatim curia non temperaret, quin mortuum contumeliosissimo atque acerbissimo adclamationum genere laceraret, scalas etiam inferri clipeosque et imagines eius coram detrahi et ibidem solo affligi iuberet, novissime eradendos ubique titulos abolendamque omnes memoriam decerneret.”

(傳記) 혹은 장례 추도연설(laudatio funebris)이 가지는 속성 덕분인데, 서술 대상이 되는 인물과 그의 품행과 관련된 언사에 있어서 평가나 감회를 표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도미티아누스 치하에서 장인을 잃은 타키투스 본인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이 황제 재위 15년에 걸친 기간의 폭정과 박해의 기억이 지속적으로 그의 역사서술 필치에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가령, saevitia 혹은 saev- 계열의 어휘는 타키투스의 역사서 전반에 걸쳐 적이나 전투, 운명 등 ‘우리’와 대적하게 되는 타자들에게 적용되는 경우 외에 로마 제국의 수장, 즉 프린킵스-황제의 잔혹한 성정과 품행을 지칭하는 경우에도 자주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최초로 사용된 사례는 『아그리콜라』에서 도미티아누스 시대를 가리킬 때였다.

따라서 저술 시기 순으로 살펴보자면 『아그리콜라』에서 자신의 장인까지도 희생시킨 일인 통치자 도미티아누스의 ‘잔혹함’이 가장 먼저 그려지고, 『연설가들에 대한 대화』에서는 네로의 폭정 이후 새 황가가 들어섰음에도 여전히 그 폭정이 남긴 징후가 감지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역사』는 그보다 몇 년의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그 잔혹한 프린킵스의 지배 체제가 무너지고 제국 내에 그것으로 인해 초래된 내전의 시대가 그려져 있다. 아마 이 역사서의 마지막 대목은 타키투스가 애초에 역사서 저술을 결심하게 된 그 즈음에 이르렀을 것이다. 요컨대, 『역사』는 『아그리콜라』에서 거의 울분을 토하다시피 한 그 순간과 닿는 시기를 다루면서 끝맺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아그리콜라』는 『역사』의 일부분인 셈이고, 역사가가 다 하지 못한 그 시대에 대한 평가인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 『역사』에서 그와 같은 개인의 울분 내지는 의분이 표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통치 전권을 쥔 지배자에게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를 추모하며 쓴 ‘전기’가 아닌 “친애의 감정이나 증오심을 버리고”⁹⁶⁾ 불편부당함을 대원칙으로 삼는 역사서이기 때문이다.

96) cf. 『역사』 1.1.3: “sed incorruptam fidem professis neque amore quisquam et sine odio dicendus est”.

결과적으로 이러한 서술 원칙이 도미티아누스 시대 서술에서 얼마나 확고하게 지켜졌을지는 『역사』의 현존하는 부분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타키투스는 자신이 저술하고 있던 시점과 가까워질수록 보다 더 의식적으로 반(反) 도미티아누스적인 감정이나 평가에 대해서 어조를 녹이려 했을 듯하다. 이러한 경향은, 만일 『역사』 서술 도중에 『연대기』 저술에 대해서 구상했다면 더욱 짙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타키투스는, 애초의 계획과는 달리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당시 정세(pragmata)를 통해 의식하게 된 후, 표현의 차원에서도 한층 더 치밀한 서술 전략을 강구해야만 했을 것이다. 어떠한 계기가 타키투스로 하여금 보다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추동한 것인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술가(auctor) 타키투스에게 더욱더 필요했던 것은 혹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은 다름 아닌 표현의 자유(libertas/παρρησία)였다는 점을 『연대기』의 구성과 서술 양식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더 멀리 떨어진 과거에 대한 역사서술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타키투스에게 필요했던 그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⁹⁷⁾ 그것은 타키투스가 『연대기』로 선회하게 한 유력한 동기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연대기’라는 역사서술이 고대 로마인들에게 보다 과거의 역사를 저술하는 데 적합한 하위 양식으로 인식되었던 점도 타키투스로 하여금 후속작의 서술 대상을 한층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한 동기가 되었을 듯하다.

97) cf. 『연설가들에 대한 대화』 27.3: “‘Perge’ inquit Maternus ‘et cum de antiquis loquaris, utere antiqua libertate, <a> qua uel magis degenerauimus quam ab eloquentia”(“계속해 주게나,” 마테르누스가 말했다. “그리고 자네가 옛 사람들에 관해 말할 적에는 옛 시절의 자유로움을 누리게, 우리는 특히나 연설보다는 그것으로부터 추락해 버렸지만 말이네”). Wirszubski는 그의 고전적인 연구서에서, 타키투스의 역사서에 그려진 공화정적 자유의 쇠락과 위축에 대해 논하면서, 타키투스에게 자유는 공화정기의 ‘위엄과 지위’(dignitas)를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한 권리(right)가 아니라, 개인의 위신을 실추하지 않게 버티게 하는 용기(courage)를 뜻하는 것이라고 냉정한 결론을 내린다. cf. Chaim Wirszubski. *Libertas as a Political Idea at Rome during the Late Republic and Early Princip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0, 160-167. 그의 해석을 수긍하자면, 타키투스에게 역사서술은 ‘용기로서의 자유’를 발휘하는 수단이었던 셈이다.

De generibus historiae: 1. Genus historiae triplex est. Ephemeris namque appellatur unius diei gestio. Hoc apud nos diarium vocatur. Nam quod Latini diurnum, Graeci ephemerida dicunt. 2 Kalendaria appellantur, quae in menses singulos digeruntur. Annales sunt res singulorum annorum. 3. Quaequae enim digna memoriae domi militiaeque, mari ac terrae per annos in commentariis acta sunt, ab anniversariis gestis annales nominaverunt. 4. Historia autem multorum annorum vel temporum est, cuius diligentia annui commentarii in libris delati sunt. Inter historiam autem et annales hoc interest, quod historia est eorum temporum quae vidimus, annales vero sunt eorum annorum quos aetas nostra non novit. Unde Sallustius ex historia, Livius, Eusebius et Hieronymus ex annalibus et historia constant. 5. Item inter historiam et argumentum et fabulam interesse. Nam historiae sunt res verae quae factae sunt; argumenta sunt quae etsi facta non sunt, fieri tamen possunt; fabulae vero sunt quae nec factae sunt nec fieri possunt, quia contra naturam sunt.

44. 역사의 종류에 대하여. §1. 역사의 종류는 셋이다. 사실 하루에 일어난 것은, ἐφημερίς라고 칭해진다. 이것은 우리네에게서는 일지(日誌, diarium)이라고 불린다. 사실 라틴어를 쓰는 이들이 일(日)과 관련된 것(diurnum)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라이키아인들은 ἐφημερίς라고 일컫기 때문이다. §2. 개개의 달에 관련된 것들은, 월(月)과 관련된 것들(kalendaria)이라고 칭해진다. 개개의 해에 일어난 일들은 연(年)과 관련된 것들이다. §3. 사실, 평시에 그리고 전시에, 바다와 물에서 기록할 만한 것들 각각은 해마다 기록물 속에서 다루어졌고, 해마다 일어난 것들(anniversaria gesta)로부터 그들은 연대기(annales)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4. 반면에 역사(historia)는 많은 해 혹은 오랜 시간에 관한 것으로, 그것의 면밀함으로 인해 해마다의 기록물들이 책에 담겨졌다. 그런데 역사와 연대기는 이런 점에서 다르다. 즉, 역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간에 대한 역사서인 반면, 연대기는 우리 시대(aetas nostra)는 알지 못하는 시간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살루스티우스는 역사

로, 리비우스, 에우세비오스, 히에로니무스는 연대기와 역사로 구성된 다. §5. 마찬가지로 역사와 허구와 설화는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난다. 역사는 일어났던 실제 일들이고, 허구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반면에 설화는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인데, 자연본성에 반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시도루스, 『어원론』 1.44)⁹⁸⁾

세비야의 주교 이시도루스는 이처럼 역사의 하위 서술 양식들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동시대사 서술을 historia로, 그보다 더 오랜 과거의 역사서술을 annales로 구분하는 것이 주목된다. 그 점에서 annales는 ἀρχαιολογία(archaeology)와 유사해 보이지만, 역사서술 양식을 체계적으로 다루고는 있어도 이것이 7세기의 문헌이라는 점에서 타키투스의 소신과 결심에 대한 직접적인 전거는 될 수 없다. 그런데 인용문 44장 4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대기와 역사 사이의 차이점은, 2세기 후반의 저술가 겔리우스(Aulus Gellius)의 『아티카의 밤들』(*Noctes Atticae*)⁹⁹⁾ 제5권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그가 소개하는 역사와 연대기의 차이에 대한 한 설명은, 셴프로니우스 아셀리오¹⁰⁰⁾의 저작에서 인용한 것으로 그에 따르면 역사는 역사가 본인이 현장에 있었던 일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연대기와 다르다.¹⁰¹⁾ ἱστορία라는 말의 어원과 관련해 베리우스 플라쿠스(Verrius Flaccus)의 설명(quod historia Graece significet rerum cognitionem praesentium)¹⁰²⁾을 부연하는 대목도 이와 상통한다. 이상의 논의를 참고하여, 연대기(annales) 서술 형식의 구체적인 특징과 타키투스의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는 이하 III장 2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타키투스 본인이 자신의 저작을 “연대기”라

98) cf. W. M. Lindsay. ed. *Isidori Hispalensis Episcopi Etymologiarum sive Originum Libri XX*. (2 vo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11.

99) cf. J. C. Rolfe. ed. & tr. *Gellius: Attic Nights*. (3 vol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27.

100) 이 역사가와 연대기 형식에 대해서는 본고 III장 2절 참조.

101) 『아티카의 밤들』 5.18.1: “... earum tamen proprie rerum sit ‘historia’, quibus rebus gerendis interfuerit is, qui narret.”

102) 『아티카의 밤들』 5.18.2.

고 지칭했다는 점이다. 또한 그 서문에서 『역사』에서만큼 자기 자신의 정치경력과 신상을 드러내 보이며 그것이 저술 기조와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자기변명을 늘어놓지 않았기에, 그가 더 오랜 과거로 돌아가 옛날 일을 다루는 옛 방식의 역사저술을 택했던 것은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한 전략이라고 평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타키투스의 『연대기』는 옛 시대의 것을 옛 시대의 자유에 따라¹⁰³⁾ 말할 수 있게 한 표현 수단이자 매체였고, 웅색해진 공화정기의 자유가 굴종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일인 통치 권력의 ‘세습’ 문제가 불거진 아우구스투스 서거 이후의 시대는 프린키파투스라는 통치 체제의 균열상을 시사할 수 있는 적절한 소재가 되어 주었다. 이하에서는 『연대기』 저술 의의와 프린키파투스에 대한 타키투스의 입장을 읽을 수 있는 서문과 중요 대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03) cf. 『연설가들에 대한 대화』 27.3: “cum de antiquis loquaris, utere antiqua libertate”

Ⅲ. 『연대기』의 초기 프린키퍼투스 서술 분석

1. 『연대기』 서문의 특이성과 그 함의

타키투스의 저술들 중에서 가장 짧은 분량에 반(反)수사학적이라는 평을 받는¹⁰⁴⁾ 『연대기』 제1권의 서문은 이 역사서 전체에 대한 첫머리이기도 한데, 『역사』와 비교해서도 그렇고 리비우스나 살루스티우스의 역사서 서문들과도 비교해 대조적으로 상당히 축약적이고 간명해 보인다.¹⁰⁵⁾ 그럼에도 행간을 읽다 보면 이 두 역사가에 대해서는 물론, 선행하는 고대 역사서술 전통에 대한 타키투스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연대기』 서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urbem Romam a principio reges habuere”라는 첫 문장인데, 번역이나 묵독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문장만 놓고 본다면 타키투스의 『연대기』는 서사시처럼 읽힐 요량이다. 그로 인해 연구자들의 주목을 끈 대목이기는 하지만, 이것 이상으로 운율이 활용된 대목이 없기에 타키투스가 어떠한 의도로 이 첫 문장을 운문 형태로 만든 것인지 그 의도에 대해 확정지을 만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그런 까닭에 이렇게—아마도—서사시의 육각음보¹⁰⁶⁾로 『연대기』의 허두를 뿜 것을 우선 부지불식간에 우연히 나온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고대 로마에서 전통적인 문법-수사학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암송과 연습 속에서 익히게 된 작시술이 무의식중에 발현된 결과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104) cf. Tore Janson. *Latin Prose Prefaces: Studies In Literary Conventions*. Stockholm: Almqvist & Wiksell, 1964. 71-72.

105) 살루스티우스의 역사서를 비롯해 고대 주요 역사서들의 서문 구성의 특징에 대한 논의는, 김기훈 (2012) 16-30과 Donald C. Earl. “Prologue-form in Ancient Historiography.” *Aufstieg und Niedergang der römischen Welt I* 2. Berlin: De Gruyter (1972): 842-856 참조.

106) “Urbem Romam a principio reges habuere”의 운율을 분석하면, — — —vv — — —vv —x 형태이다.

그러나 고전고대 저술들의 구술성, 역사서술이라는 글쓰기 장르의 위상 등을 고려한다면, 또한 특히 방대한 분량의 역사서 앞에 놓일 서문 작성 시에 한결 더 철저한 검토를 거쳐야 했을 법한 정황을 감안한다면, 첫 문장의 서사시 운율을 우연의 산물로 간주하는 것은 안일한 해석일 듯하다.

반대로, 타키투스가 의도적으로 육각음보 운율(dactylicus hexameter)로 자신의 역사서 후속작을 시작하고자 했다면, 그것이 불러일으킬 만한 효과나 목적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 의미는 차치하고 운율의 속성상 이것이 전통적으로 서사시에서 주로 쓰인 것과 관련해 타키투스가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를 혹은 겨냥했을지도 모를 두 가지 서사시는 엔니우스의 『연대기』(*Annales*)와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Aeneis*)가 유력해 보인다. 후자의 경우,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아우구스투스의 바람에 대한 결실로서 율리우스 가문의 유서 깊은 연원과 역사적 소명을 서사시에 담아내고 있다. 가령, 작품 초반에서 최고 주재(主宰)신 유피테르는, 장차 로마인의 조상이 될 아이네아스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며¹⁰⁷⁾ 베누스의 근심을 덜어주려 한다.

his ego nec metas rerum nec tempora pono;

imperium sine fine dedi. ...

이들(sc. 로마인들)에게 시공(時空)의 한계를 정해주지 않을 것인즉,

나는 그들에게 무한 권력을 주었다. ...

(『아이네이스』 제1권 278-279행)¹⁰⁸⁾

이와 더불어 참조할 만한 대목들은 일종의 예변(豫辯, prolepsis)의 서사로 이루어진 『아이네이스』 제6권에서의 아이네아스의 하계(下界) 여행, 앙키세스의 예언¹⁰⁹⁾ 그리고 제8권에서 아이네아스의 방패 묘사¹¹⁰⁾

107)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 제1권 257-296행 참조.

108) cf. Gian Biagio Conte. ed. *P. Vergilius Maro: Aeneis*. Berlin: De Gruyter, 2005. 이하, 『아이네이스』의 우리말 번역은 천병희 번역본(『아이네이스』, 고양: 도서출판 숲, 2007)에 따랐다.

109) 『아이네이스』 제6권 756-886행 참조. cf. Bruce Loudon. “Retrospective

등이다. 이미 일어난 역사 혹은 그것들이 쌓여 이루어진 ‘지금-여기’가 서사시 속 떠나면 신화의 세계에서, 적어도 신적인 예언과 예견 속에서 이미 선취(先取)된 방식으로 『아이네이스』는 신화와 역사를 잇고, 문학과 현실을 절묘하게 혼용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국 로마의 성공은, 까마득히 먼 조상들이 내린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다.

tu regere imperio populos, Romane, memento
(hae tibi erunt artes) pacique imponere morem,
parcere subiectis et debellare superbos.

로마인이여, 너는 명심하라. (이것이 네 예술이 될 것이다.)
권위로써 여러 민족들을 다스리고, 평화를 관습화하고, 패배한
자들에게는 관대하고, 교만한 자들은 전쟁으로 분쇄하도록 하라.

(『아이네이스』 제6권 851-853행)

그리고 그런 점에서 『아이네이스』가, 혹은 시인이 노래한 ‘무구와 사내’, 즉 신화 속 전쟁과 영웅이 헤쳐나간 길과 이루어낸 업적은 그 후로 오랜 시간이 지나 ‘지금-여기’에서 술한 전쟁과 혼란 끝에 평화를 이룩해낸 후손의 예형(豫型)인 셈이다. 그러나 아이네아스는 먼 미래의 일에 대한 것을 모른 채 당면한 전쟁을 위해 무구를 들게 된 로마인 선조이다.

miratur rerumque ignarus imagine gaudet
attollens umero famamque et fata nepotum.

아이네아스는 그것들을 보고 감탄했고, 그것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뻐하며 자손들의 명성과 운명을 들어올려 어깨에
맺었다.

Prophecy" and "the Vision" in "Aeneid" 6 and the Book of Reve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Classical Tradition* 16, no. 1 (2009): 1-18. Louden은 『아이네이스』 제6권의 사후(事後) 문학적 예언 방식이 「요한묵시록」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10) 『아이네이스』 제8권 626-728행 참조. 또한, 안재원, 「아이네아스의 방패에 나타난 세계상(imago mundi)」, 『서양사연구』 48 (2013): 1-44 참조.

다소 단순화한 해석일지도 모르지만, 『아이네이스』와 로마의 역사 사이의 관계를 헤아려 보자면 이 영웅 서사시가 일정 정도 역사성을 띠고 있기에, 그것도 아우구스투스가 ‘회복한’ 공화정과 평화로운 시대에 당고 있기에 바로 그에 후속하는 시대를, 즉 아우구스투스 사후(死後)를 다루게 될 ‘역사가’ 타키투스가 의식적으로 이 로마 건국 서사시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다고 새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무구와 사내를 노래한다”(arma virumque cano)¹¹¹⁾로 역사가 아닌 신화의 세계부터 시작한 것과는 달리, 타키투스는 자신의 역사서 첫 머리를 “도시 로마”(urbem Romam)라는 표현으로 열고 있다는 점이 대조적이다. 육감음보로 시작한 첫 문장은 그리고 딱 거기까지만이었고, 실제로 타키투스가 직접적으로 역사서술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우구스투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년에 대해서 짧게, 그리고 나서 티베리우스의 프린키퍼투스과 나머지 것들”(pauca de Augusto et extrema tradere, mox Tiberii principatum et cetera)이었다. 그런 점에서 타키투스가 단지 단 한 문장만, 그것도 도시 로마가 창건된 이래 약 두 세기 반가량의 ‘신화’적 역사까지를 서사시 운율로 기술했다는 것은 신화와 역사를 구분하겠다는 자의식의 반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는 아주 유서 깊은 역사서술의 제일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상당히 충실했다.¹¹²⁾

타키투스가 의식했을 법한 다른 서사시인으로 엔니우스를 앞에서 거론한 바 있는데, 단편으로 남아 있는 그의 서사시 『연대기』 역시도 로마 창건 전후의 신화시대부터 기원전 2세기 초까지의 역사를 육각음보 운율로 노래했다고 전한다. 만일 타키투스가 엔니우스를 특별히 의식했다면, 신화와 역사, 시작(詩作)과 역사서술을 구분하겠다는 취지 면에서는 앞에

111) 천병희 (2007) 번역본은 “무기들과 한 전사를 나는 노래하노라”로 옮기고 있다.

112) 역사서술의 진실성 내지는 역사서술의 대상으로서의 ‘사실’에 대해서는, 키케로, 『연설가에 대하여』 2.62와 김기훈 (2012) 25-26, 김기훈 (2016) 145-146 참조.

서 논의한 베르길리우스의 경우와 유사한 동기가 작동했을 듯하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하는 것은, 타키투스가 자신의 역사서를, 특히 『연대기』를 “*annales*”라고 지칭한 대목이다. 오늘날 통상, “연대기(年代記)”, “편년사(編年史)”,¹¹³⁾ *Annals* 등으로 번역되는 타키투스의 『연대기』는, 전승되어 온 필사본에 따르면, “*ab excessu divi Augusti*”라는 제목이 부기되어 전해 온다. 그러던 것이 르네상스 시대 이후 타키투스 문헌이 재발굴되어 인쇄본 형태로 출간되면서 14년부터 68년까지 티베리우스 이래 네로 황제까지의 시대사를 담고 있는 역사서가 제1-6권, 11-16권의 편제로 『연대기』(*Annales*)라는 제목 하에 출간되어 오늘날에도 관례적으로는 그와 같은 명칭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타키투스 본인이 자신의 역사서 각각에 어떠한 제목을 붙였는지는 단언할 수 없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연대기』 내에서 타키투스가 자신의 저술에 대해 “우리의 연대기”(『연대기』 4.32.1: *annales nostros*)라고 지칭하는 대목이 제목에 대한 가장 근사한 단서가 되고 있다. 이 역사가가 자신의 저술을 서술 형식에 근거해 적어도 ‘연대기’적이라고 의식하고 있었다면, 역시나 그의 의식 속에 친근하게 떠올랐을 대표적인 작품이 아마도 엔니우스의 동명의 서사시였을 것임이 유력해 보인다.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아이네이스』는 베르길리우스의 바람대로 그의 사후에 소각되지 않고 출간되어 로마인들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 점차 엔니우스의 서사시를 대체해 문법-수사학 교육에서도 적극 활용된 터였다. 따라서 『아이네이스』가 담고 있는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업적과 평화, 영광에 대해서는 빗겨가면서도, 로마 공화정기의 연대기 전통과는 어느 정도 닿아 있는 엔니우스를 타키투스의 『연대기』 첫 문장이 상기시키고 있다면, 이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연대기적 역사서술 전통에 대한 일종의 경의(hommage)의 표현인 동시에, 신화시대를 다루는 서사시의 소재(*arma virumque*)가 아닌 도시 로마의 ‘역사’를 서술 대상으로 삼겠다는 욕감음보 희문(戲文, *παρῳδί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¹¹⁴⁾ 그런데 타키투스

113) 한국과 일본에서는 주로 “연대기”로, 중국에서는 “편년사”로 불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14) 이와 같은 강한 자의식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역사서술의 중심 소재인 대

의 『연대기』는 도시 로마의 창건 이후 오랜 시간을 지나, 일찍이 오래 전부터 화합할 수 없었던 두 가지(『아그리콜라』 3.1: res olim dissociabiles), 즉 프린키퍼투스¹¹⁵⁾와 자유(principatus ac libertas)의 역사 그 첫 국면부터를 다룬다. 그 출발점은, 로마에 프린키퍼스와 평화(princeps et pax)의 시대를 열었던 아우구스투스의 서거(excessus) 이후이다. 첫 문장 이후 바로 서사시 운율은 중단되지만, 곧 이어 등장하는 표현 “libertatem et consulatum L. Brutus instituit”은 공화정기의 역사를 서사시로 노래한 엔니우스의 『연대기』에 닿는 듯한 인상을 준다.¹¹⁵⁾ 그러나 타키투스는 단 몇 문장만으로 수백 년에 걸친 공화정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기술하며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이른다.

dictaturae ad tempus sumebantur, neque decemviralis potestas ultra biennium, neque tribunorum militum consulare ius diu valuit. non Cinnae, non Sullae longa dominatio, et Pompei Crassique potentia cito in Caesarem, Lepidi atque Antonii arma in Augustum cessere, 때에 따라서 독재관직이 취해지곤 했으며, 10인 위원의 권한은 2년을 넘기지 않았고, 군관들¹¹⁶⁾의 콘술급 전권이 오래 유효하지는 않았다. 킨나나 술라의 지배 체제는 길지도 않았고,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의 권세는 급격하게 카이사르에게, 레피두스와 안토니우스의 무장은 아우구스투스에게 넘어갔으니,

(『연대기』 1.1.1)

기원전 509년 루키우스 브루투스가 왕정을 무너뜨림으로써 공화정을

외 전쟁, 각종 정쟁, 로마 사회 내부의 사회 문제로 인한 갈등과 조정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타키투스가 다루고자 하는 시대에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는 자조적인 태도도 주목할 만하다(『연대기』 4.32 이하, 본고 75쪽 참조).

115) cf. Janson (1964) 72. 이 첫 문장이 엔니우스에게서 그대로 인용해 온 것이라고 주장한 Vilhelm Lundström(“Nya Enniusfragment.” *Eranos* 15 (1915): 1-24)에 대해 Janson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116) 기원전 444-367년 사이에 존재했다고 전하는 관직 “tribunus militum consulari potestate”에 대해서는, 허승일, 『증보 로마공화정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3-23 참조.

수립한 것을, 타키투스는 “자유와 콘술직”이라는 환유(換喻)로 표현했다. 그리고 이후 설치되었던 주요 비상설 관직의 명칭들 역시 특정 인물과 사건을 언급하는 대신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타키투스는 순식간에 기원전 1세기 초부터 이어진 내전과 당파 갈등을 익히 알려진 고유명사들을 통해 기술해서 최종적으로 단 한 사람의 이름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관계대명사절에서 부연 설명될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인물은 공화정의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이이다. 그에 대해 타키투스는 이렇게 덧붙인다.

qui cuncta discordiis civilibus fessa nomine principis sub imperium accepit.

그는 시민들 간의 불화로 지쳐버린 모든 것을, 프린켑스라는 이름으로 대권 아래 받아들여 두었다.

(『연대기』 1.1.1)

이 문장에서 일단락되는 『연대기』 서문의 전반부는, 특정되지 않은 시점인 “최초에”(a principio)를 전통적으로 간주되는 기원전 753년이라고 간주할 경우, 악티움 해전에 이르기까지¹¹⁷⁾ 780년 남짓한 시대를 타키투스는 단 세 개의 정형동사로 표현된 문장들로 압축해 서술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열거된 이름난 인사들(viri)과 그들의 권세와 무기(arma)가 수렴하게 되는 곳은 다름 아닌 아우구스투스이다. 장구한 로마 공화정과 자유의 역사가 『연대기』 서문 초반에 몇 줄 되지 않는 기록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리비우스의 역사서로 환산하면 제2권부터 제133권에 해당하는 시대사 서술인 셈이다. 타키투스가 리비우스의 역사서술을 어느 정도로 의식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서문에서 이 극도로 간략한 공화정사 기록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urbem Romam”이라는 표현이 또한 암시하는 것이 리비우스의 역사서 제목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

117) cf. 『역사』 1.1.1: “postquam bellatum apud Actium atque omnem potentiam ad unum conferri pacis interfuit”.

면, 타키투스의 『연대기』 첫 문장과 무엇보다도 가장 유사한 전거는 살루스티우스인 듯하다.

urbem Romam, sicuti ego accepi, condidere atque habuere initio
Troiani
내가 알고 있듯이, 도시 로마를 창건했고 처음에 가졌던 것은 트로이아
인들이다.

(『카틸리나 전쟁』 6.1)

인용문에서 살루스티우스가 트로이아인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타키투스는 왕들(reges)이라고 바꿔 쓴 것 외에는 표현과 의미가 대체로 흡사하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것은, 살루스티우스가 이 상고사를 『카틸리나 전쟁』에서 서술하고 있는 맥락이다. 『카틸리나 전쟁』 5장 9절부터 13장 4절까지는, 바로 직전 대목에서 살루스티우스가 자신의 역사서의 중심인물 카틸리나에 대한 서술을 마치고 난 후 본서사를 이탈하는 여담(digressio) 형식으로 로마 창건 이래 이 문제의 인물이 나오기까지의 쇠락을 간략하게 서술하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살루스티우스는,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로마의 경쟁자였던 카르타고가 패망하게 되는 기원전 146년을 쇠락의 분수령으로 지목한다.¹¹⁸⁾ 일단 『연대기』 서문만으로는 타키투스가 어떠한 의도로 이와 같은 전거들을 상기시키려 했는지 추측하기 어렵지만, 일정 정도 수사학 교육을 통해 역사서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던 로마인 독자라면 이러한 암시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일면 단순해 보이는 짧은 서술이지만 앞에서 짚어 본 여러 간(間)문헌적(contextual) 성격으로 인해 주목되는 것이 『연대기』 서문의

118) cf. 『카틸리나 전쟁』 10.1: “sed ubi labore atque iustitia res publica crevit, reges magni bello domiti, nationes ferae et populi ingentes vi subacti, Carthago, aemula imperi Romani, ab stirpe interiit, cuncta maria terraeque patebant, saevire fortuna ac miscere omnia coepit”. 또한 살루스티우스의 『역사』(Historiae) 단편 1.10M: “At discordia et avaritia atque ambitio et cetera secundis rebus oriri sueta mala post Carthaginis excidium maxime aucta sunt.”

특징 중 하나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역사』의 서문과는 달리 저자-서술자를 1인칭으로 표현하는 것이 『연대기』에서는 상당히 늦춰진다는 점이다.

『역사』의 경우 서문 두 번째 단어로 사용된 “mihi”는 마찬가지로 『연대기』에서도 최초로 발견되는 1인칭 표현이다. 서문 후반부 맨 마지막 문장에서, 서술 대상을 밝히고 또한 역사가 자신이 불편부당성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표명하는 대목, 단 두 군데에서 간략하게 1인칭 표현이 사용된다는 점이 『연대기』의 특징인데, 반면 『역사』 서문에서는 mihi가 두 차례, 1인칭 복수 형용사 nostr-가 한 번, 그리고 1인칭 단수형 동사가 두 번 사용되었다. 설불리 단순화하기에는 논거가 더 필요해 보이지만, 리비우스가 자신의 역사서 서문 초반에서부터 그 자신이 저술하고자 하는 역사를 집필하고 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될지 조바심 내는 대목¹¹⁹⁾과 견주어 보면, 타키투스 역시 자신의 첫 역사서 저술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연대기』 서문에서는 그러한 심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 드러난다. 반면에, 타키투스가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를 살루스티우스의 경우, 상당히 독특한 서문 구성으로써 역사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상당히 지연시키는 서술 전략을 택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비인칭적 표현, 다시 말해 3인칭 서술 형식을 가급적 흐트러트리 지 않는 것 역시도 의도된 바라면, 타키투스가 서문 구성에 상당히 고심했다는 점 역시도 읽을 수 있다.

이어지는 『연대기』 서문 후반부는, 통상 역사가들이 서문에서 선행 역사가들과의 차별성에 대해 언급하고, 전통적인 역사서술의 원칙을 표명함으로써 자신의 역사서술 원칙을 확인하고 그 서술 대상에 대해 밝히는 것에 상응한다. 우선, 타키투스는 아우구스투스 이래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서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비판은 동시에 타키투스 자신의 역사서술에 대한 정당화를 함축한다. 특히, 아우구스투스 체제 성립 이후의 역사서술에 대해서 타키투

119) 리비우스, 『로마사』(*Ab urbe condita*), 서문 1.1: “facturusne operae pretium sim si a primordio urbis res populi Romani perscripserim, nec satis scio nec, si sciam, dicere ausim ...”

투스는 대체로 일관되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역사』 서문에서도 이미 표명된 바 있다. 프린켑스 통치 체제에서 편향적인 입장에 근거하여 서술된 역사가나 역사서에 대한 비판은 『연대기』 서문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다시 한 번 제기된다. 사실, 이런 비판 기조는 타키투스에게만 고유한 것은 아니며, 키케로가 역사서술의 법칙들(*leges historiae*)로 제시한 것 중 불편부당성에 입각한 서술에 해당되는 것이다.¹²⁰⁾

nam post conditam urbem octingentos et viginti prioris aevi annos multi auctores rettulerunt, dum res populi Romani memorabantur pari eloquentia ac libertate: postquam bellatum apud Actium atque omnem potentiam ad unum conferri pacis interfuit, magna illa ingenia cessere; simul veritas pluribus modis infracta, primum inscitia rei publicae ut alienae, mox libidine adsentandi aut rursus odio adversus dominantis: ita neutris cura posteritatis inter infensos vel obnoxios. §2. sed ambitionem scriptoris facile averseris, obtrectatio et livor pronis auribus accipiuntur; quippe adulationi foedum crimen servitutis, malignitati falsa species libertatis inest

사실 도시가 창건된 후 820년의 앞선 시대를 많은 저술가들(auctores)이 로마인들의 역사가 기록되는 한 대등한 언변과 자유로써 다루었다. 악티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더욱이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평화에 중대한 일이 된 이래, 저 위대했던 재사들은 뒤로 굴복했다. 그와 함께 진실은 여러 방식으로 깨어져 버렸는데, 처음에는 남의 일인 양 정치사(res publica)에 관한 무지에 의해, 그 다음으로 아첨하고자 하는 욕구나, 그와 반대로 지배하는 이들에 대한 증오에 의해

120) cf. 키케로, 『연설가에 대하여』 2.62: “Nam quis nescit primam esse historiae legem, ne quid falsi dicere audeat? Deinde ne quid veri non audeat? Ne quae suspicio gratiae sit in scribendo? Ne quae simultatis?” 또한, 살루스티우스가 『카틸리나 전쟁』 (3.2)에서 역사서술의 어려움들에 대해 설명한 대목 중 두 번째 항목 참조: “dehinc, quia plerique, quae delicta reprehenderis, malivolentia et invidia dicta putant; ubi de magna virtute atque gloria bonorum memores, quae sibi quisque facilia factu putat, aequo animo accipit, supra ea veluti ficta pro falsis ducit.”

그러했다. 그렇게 적의를 품는 이들에게서든 복종하는 이들에게서든 그 어느 편에도 후세에 대한 염려는 없었다. §2. 그런데 [당신은] 저자 (scriptor)가 비위를 맞추려 하는 것을 쉽사리 거절할 수 있을 테지만, 비방과 질시는 기울어진 귀에 쉽게 받아들여진다. 사실, 아침에는 굴종이라는 추한 비난이, 악의에는 자유라는 허상이 자리 잡고 있으니 말이다.

(『역사』 1.1.1-2: 필자의 번역)¹²¹⁾

sed veteris populi Romani prospera vel adversa claris scriptoribus memorata sunt, temporibusque Augusti dicendis non defuere decora ingenia, donec gliscente adulatione deterrentur: Tiberii Gaique et Claudii ac Neronis res florentibus ipsis ob metum falsae, postquam occiderant, recentibus odiis compositae sunt.

그런데 옛 시절 로마 인민의 성세나 역경은 저명한 저술가들에 의해 기록되었고, 아우구스투스의 시절을 말로 표현하는 데에서도 적절한 재사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아침이 커져감에 따라 그들도 억제되고야 말았다. 티베리우스와 가이우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와 네로 대의 일들은 본인들이 한창 살아 있는 동안에는 두려움 때문에 날조되었고, 그들이 죽고 나서는 갖 생겨난 증오로써 지어졌다.

(『연대기』 1.1.2)

다소 표현이 다르기는 하지만, 편향된 역사서술로 인해 실제 있었던

121) 이 대목을 국역본은 이하와 같이 옮기고 있는데, “quippe adulationi foedum crimen servitutis, malignitati falsa species libertatis inest”라는 문장이 번역에서는 읽히지 않는 듯하다. “로마 시 창건 이래 오늘날까지 820년의 세월을 술한 역사가들이 다루어왔다. 로마 공화정기를 기술할 때,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웅변조였고 또 거리낌이 없었다. 그러나 악티움 해전으로 내전이 끝나고 평화가 중시된 나머지 1인의 수중에 권력이 집중된 뒤에는, 그처럼 재능 있는 작가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역사 기술의 신빙성이 훼손되었다. 처음에는 국정을 마치 남의 일처럼 여겨 그에 관해 무지해졌기 때문이지만, 오래지 않아 아침하기를 갈망하거나 거꾸로 지배자를 증오하게 된 것이 원인이었다. 그 결과 불타는 반항심 때문이든 아니면 비굴함 때문이든 후세의 귀감이 되도록 역사를 쓰는 배려가 사라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세에 영합하는 역사가에게는 즉각 등을 돌리지만, 중상과 질투에는 쉽게 귀를 기울이는 법이다.”

일이 날조되거나 진상이 훼손되는 사례들에 대해 일관되게 타키투스는 지적하고 있다. 그에 대비되는 것은 옛 시절 로마 인민의 역사는 훌륭한 저술가들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연대기』 서문에서는 겉보기에 누락된 표현이지만, 타키투스가 아우구스투스 이전 역사가들의 역사서술의 덕목으로 『역사』 서문에서 제시했던 것은 유창한 언변과 자유(1.1.1: eloquentia ac libertas)이다. 그러나 사실, 『연대기』 서문 서두에서 공화정을 대신하여 쓴 두 단어 자유와 콘술직(libertas et consulatus)이 여기에 상응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동일시하기는 어렵지만, 콘술직이 공화정기와 다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게 된 아우구스투스 이후 프린켑스 통치 체제에서는 자유로운 언변 역시도 변질되어 통치자에 대한 두려움, 아첨 그리고 증오로 인해 역사서술 역시도 편향되었다는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무엇보다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역사를 쓰는 것이다. 『연대기』 서문의 끝자락에서도 이와 같은 태도는 아주 분명하게 천명된다.

inde consilium mihi pauca de Augusto et extrema tradere, mox Tiberii principatum et cetera, sine ira et studio, quorum causas procul habeo.

그리하여 나의 계획은 아우구스투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년에 대해서 짧게, 그 후 티베리우스의 프린키파투스와 나머지 것들을 분노도 당파심도 없이 전하는 것인데, 그것들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나로서는 멀리 두고 있다.

(『연대기』 1.1.3)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서문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처음 1인칭으로 자신에 대해 기입해 넣는 타키투스는 이하에서 다루게 될, 즉 역사서술의 대상과 서술 태도에 대해 밝힌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앞 문장에서는 티베리우스와 가이우스, 클라우디우스와 네로의 치세를 개개의 역사서술 단위로 제시하면서 이들의 통치기를 다룬 역사서 전반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과는 달리, 서문 막바지에 이르러 『연대기』

전체에 대한 이를테면 큰 목차를 제시하는 대목에서는 타키투스 자신의 저술 대상에 아우구스투스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까닭에 흔히, 『연대기』 첫 여섯 권이 대개는 티베리우스의 통치기를, 아마도 제 7-12권이 가이우스 이래 클라우디우스의 치세를, 끝으로 마지막 여섯 권 정도가 네로의 통치기를 서술하는 데 할애되어 있다는 일반적인 구분이 『연대기』 서문 끝 대목에서는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타키투스가 이 문장에서 의식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짧게나마 아우구스투스 치세에 대해서 그리고 티베리우스에 대해 기술한 후 여타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 다루겠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티베리우스의 집권 후 체제가 시작되기 직전,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서거 이후를 『연대기』의 기점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그런 점에서 『연대기』는 그 서술 시점부터 전통적인 ‘연대기’ 서술과는 차이를 보인다. 오히려 타키투스의 『역사』가 작품 서두에서부터 서기 69년 이래의 일을 다루겠다는 선언과 함께 시작되기에, 『연대기』는 서술 초반부터 ‘연대기’적 형식에서의 탈선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서문 도입부에서 주된 서술 대상 이전에 왕정 이래 프린키퍼투스에 이르기까지를 순식간에 다룬 로마 약사(略史)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대기』 초반에서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짤막한’ 서술 계획을 밝힌 타키투스의 숨은 의도가 주목된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투퀴디데스가 자신이 다루고자 한 ‘전쟁사’의 기원을 보다 거슬러 올라가 추적해 본서사의 초석으로 삼았듯이, 그리고 살루스티우스가 ‘카틸리나의 음모’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그에 이르기까지 로마의 쇠락사를 먼저 제시함으로써 일종의 사건의 연유에 대한 해명을 담은 ‘고고학’(archaeology)적 작업에 먼저 돌입했듯이, 타키투스의 아우구스투스 치세에 대한 논의 역시 비슷한 성격을 띤다. 물론, 표면적으로 그것이 티베리우스의 통치기에 시간상으로는 근접한 원인이기에 서술에 포함되는 것이 개연적이기는 하다. 하지만 『역사』에서 시작되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한층 더 긴 시간의 서술 첫 자락에서 다루어지는 아우구스투스는, 직접적인 서술 대상이 아니라 이후 논의될 프린키프스 체제의 계승자

들에 대한 서술을 예비하여 『연대기』 내에는 그것의 연원까지는 온전히 드러내지는 않고 언젠가는 발굴해내야 할 더 오랜 역사의 표면처럼 제시되어 있다.

2. ‘프린키파투스의 시초에 대한 서술’

타키투스가 『연대기』 1장 3절에서 밝힌 서술 계획에 따르면, 『연대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즉, 아우구스투스에 관한 서술, 티베리우스의 프린키프스 통치기 그리고 여타 나머지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 기록이다. 맨 마지막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앞서 1장 2절에서 고유명사들로 제시되고 있듯이 티베리우스 치세 이후 가이우스, 클라우디우스 그리고 네로 치세에 일어난 일들이다. 실제로 『연대기』에서 이를 세분하는 관례에 따르면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아우구스투스에 대하여: 제1권 2장-4장 1절
- 2) 그의 말년에 대하여: 제1권 4장 2절-5장
- 3) 티베리우스 치세: 제1권 6장-제6권 51장
- 4) 여타 나머지 사안들: 제7권 이하

그런데 위의 “*pauca de Augusto et extrema*”라는 표현에서 *et*를 대등-병렬 접속사가 아닌 앞의 항목에 대한 보완 설명을 이끄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간주해 새기게 되면, “아우구스투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그 말년에 대해서 짧게”로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짧게”라는 표현이 통상적인 구조 분석과는 달리 4장이나 5장까지만을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다. 이는 이하에서 살펴보게 될 것처럼, 『연대기』가 14년을 연대지표로 드러내는 시점과 티베리우스가 아우구스투스 체제를 온전히 계승하여 통치권을 장악하게 되는 서술이 상당히 지연된다는 점에서 그 경계가 더 모호해진다. 그런 점에서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타키투스의 서술은, 예상 외로 짧지 않고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을 담고 있다.

『연대기』 제1권 2장 이하에서 타키투스가 서술하고 있는 내용들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인물 자체나 그의 생애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우구스투스 체제가 성립하게 되기까지의 주요 역사적 사건들과 체제 유지를 위해 그가 곁에 두었던 인물들, 후계자 선정 문제, 리비아의 영향력

등이 서술되어 있다. 특히, 2장 1절에서 “postquam”이 이끄는 종속절은 기원전 42년 필리피 전투의 승리로 사실상 공화정을 수호하는 무장 세력이 남지 않게 된 이래 섹스투스 폼페이우스, 레피두스, 안토니우스 등 차례로 경쟁자들이 사라지게 되는 시점까지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물들을 제거함으로써 기원전 40년대 초부터 연이어 계속된 로마의 내전 사태를 종식시키고 사실상 유일한 정치-군사 지도자(dux)로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사실상 지배하게 된 상황을 2-3장에 걸쳐 타키투스는 서술하고 있다. 아우구스투스가 삼두(triumvir)라는 비정상적인 명칭을 내려놓고 콘술직과 호민관 권한(tribunicium ius) 등 공화정의 제도를 이용했다는 점, 피폐해진 평민과 병사들에 대한 후사(厚謝), 내전으로 인해 급감한 귀족들의 수, 혼란스런 내전의 위험보다는 안전한 지위를 원하던 세대와 속주의 여론도 아우구스투스가 지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유리한 여건들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아우구스투스 집권 체제는, 그가 자신의 권력을 보조하고 승계할 후계자를 거둬들여 지명하고 실패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¹²²⁾ 제1권 3장에서 이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이내 그 죽음에 대해 기록되는 마르켈루스, 아그리파, 가이우스와 루키우스 카이사르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드루수스 등의 이름이 2장 초반의 인물들이 그러했듯이 제거되고 나서, 네로(Nero)라는 이름을 가진 이, 즉 티베리우스만이 유일하게 아우구스투스의 권력을 승계할 만한 인물로 제시된다. 그리고 상황은 내전 이후 아우구스투스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듯이, 모든 것이 이 티베리우스 네로에게로 향하게(3.3: illuc cuncta vergere) 되었다. 그는 정식으로 입양되어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자 통치권을 함께 하는 이인 동시에 아우구스투스와 마찬가지로 호민관 권한을 공유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권력 승계에 필요한 과정은, 그의 모친 리비아의 공공연한 영향력 덕분이었다고 타키투스는 전한다.¹²³⁾ 아울러, 티베리우스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지도 모를 아그리파 포스투무스의 유폐

122) 김덕수, 「아우구스투스의 프린키퍼투스 체제에서 후계자 문제」, 『서양고대사연구』 20 (2007): 113-145 참조.

123) 『연대기』 1.3.4: “... non obscuris, ut antea, matris artibus, sed palam hortatu”.

를 아우구스투스가 명하게 된 것 역시도 그녀로 인한 것으로, 티베리우스가 아우구스투스 체제의 중추에서 밀려나지 않고 오히려 ‘불가피한’ 계승자가 되기까지 리비아의 막후 영향력이 상당했음을 타키투스는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른 아우구스투스 치세의 마지막은 북서부 전선에서 게르마니아인들에 대한 것 외에 별다른 전쟁의 움직임은 없었으며, 그마저도 9년 바루스가 당한 참사(clades Variana)에 대한 치욕을 씻기 위한 것일 뿐 제국의 영토를 확장시키거나 전쟁의 보상에 걸맞은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맞게 된 당시 로마의 평화를 타키투스는 덧붙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7. domi res tranquillae, eadem magistratuum vocabula; iuniores post Actiacam victoriam, etiam senes plerique inter bella civium nati: quotus quisque reliquus qui rem publicam vidisset?

4.1. Igitur verso civitatis statu nihil usquam prisci et integri moris: omnes exuta aequalitate iussa principis aspectare, nulla in praesens formidine, dum Augustus aetate validus seque et domum et pacem sustentavit.

§7. 국내에서는 상황이 평온했고, 정무관들에 대한 [예전과] 명칭들은 똑같았다. 보다 젊은 층에 드는 이들은 악티움에서의 승리 후에, 심지어 상당수의 노인들도 여러 차례 시민들 간에 벌어진 전쟁 통에 태어났다. 공화정을 보고서 살아남은 이들의 수는 얼마나 되었는가?

4. §1. 그리하여 국가 체제가 바뀌고 나서는 오래전 온전한 관습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았다. 모든 이들이, 대등함을 박탈당하고 나서는 프린켄스의 명령만 지켜보고 있었다. 당장에 대해서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아우구스투스가 한창 때 나이로 건강해서 자신은 물론이요 집안과 평화를 지탱했던 한 말이다.

(『연대기』 1.3.7-1.4.1)

자신의 권력과 입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공화정의 제도와 유산을 정치적으로 활용했고, 또한 사실상 일인 지배 권력 구도를 승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전철을 밟고자 했던 아우구스투스의 통치기에 대해서

타키투스는 평화로운 시대였다고, 공화정 시대와 마찬가지로 정무관들의 명칭도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화정을 겪어서 과거의 유산과 당면한 현실이 얼마나 상응하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이의 수가 많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수사의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읽을 수 있듯이, 사실상 국가 체제가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바뀌었고 이 신 체제의 평화는 아우구스투스가 특별한 권력을 누리면서 만들어 낸 그 지도력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그의 부재 시, 아우구스투스 사후(死後)의 문제는 그가 노령으로 접어들면서 불확실성을 점차 높여가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타키투스는, 아우구스투스의 기력이 쇠잔해지고 최후가 가까워짐에 따라 커져갔던 불안이 여러 갈래의 풍문과 여론으로 나타난 것처럼 서술한다.

“pauci”, “plures”, “alii”, “pars” 등 다양한 변형 표현(variatio)을 구사하며 당시 풍문을 간접화법으로 전하고 있는 4장 2-5절은 서술자 타키투스가 직접 사태를 진술하는 대신 익명의 발언자들을 통해 아우구스투스 사후의 정국에 대한 불안, 권력 승계 물망에 오른 아그리파 포스투무스와 티베리우스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전하고 있다. 전자에 대해 기록된 간략한 악평에 덧붙여 티베리우스에 관해 보고된 풍문은 주목할 만한데, 이것이 이후 『연대기』 첫 여섯 권에서 다루어질 티베리우스 치세에 대한 예상의 형식을 지니고 있기에 서술 형식에 있어서는, 일종의 예변(prolepsis)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Tiberium Neronem maturum annis, spectatum bello, sed vetere atque insita Claudiae familiae superbia, multaque indicia saevitiae, quamquam premantur, erumpere. 4. hunc et prima ab infantia eductum in domo regnatrice; congestos iuveni consulatus, triumphos; ne iis quidem annis, quibus Rhodi specie secessus exul egerit, aliud quid quam iram et simulationem et secretas lubidines meditatum. 5. accedere matrem muliebri inpotentia: serviendum feminae duobusque insuper adolescentibus, qui rem publicam interim premant, quandoque distrahant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티베리우스 네로는, 연배에서는 성숙하고, 전쟁에서 돋보였지만, 클라우디우스 가문의 오래되고 뿌리 깊은 오만을 타고 난 이로서, 비록 억눌러지고는 있을지라도, 잔혹함에 대한 많은 표시들을 내뿜고 있다는 것이다. §4. 그는 더욱이 갓난아이 시절 이래 왕과 같은 집안에서 길러졌다고, 청년이었을 때 그에게 여러 차례 콘술직, 여러 차례 개선식이 쌓아올려졌다고 말이다. 그가 은둔을 명목으로 로도스에서 유배자로 지냈던 그 시절조차도 그는 다른 아닌 분노와 가장(假裝)과 은밀한 욕정들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5. 거기에 더해지는 것은 여인의 변덕스러움을 지닌 그 어머니라고. [그들은] 여자에게 복종해야 하고, 더욱이 당분간 국가를 억누르고 있지만 언젠가 떼어놓게 될 두 청년들에게도 복종해야 한다고 말이다.

(『연대기』 1.4.3-5)

이와 같은 풍문이 지배적인 터에, 아우구스투스의 건강은 악화되어 갔고, 타키투스의 보고에 따르면 그렇게 된 것을 두고 리비아의 악행(scelus)을 의심하던 이들이 있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의 생애 마지막 시기를 다루고 있는 『연대기』 제1권 4-5장은, 그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다는 진술과 리비아의 다급한 편지를 받고 티베리우스가 일뤼리쿰에 이를 즈음에 급히 아우구스투스가 죽음을 맞은 놀라(Nola)로 소환되었다는 보고 외에는 대부분이 소문과 풍문의 형식으로 기술되거나 단정 짓기 어렵다는 식의 서술이 주를 이룬다. 심지어는, 티베리우스가 놀라에 도착했을 때 아우구스투스가 살아 있었는지조차 타키투스는 확실치 않다고 전한다. 이처럼 서술 자체의 불확실성은, 아우구스투스의 죽음을 전후로 리비아가 철저히 통제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기인한 듯하다. 그녀에 의해 삼엄한 경비가 취해지고 권력 승계 과정에 필요로 했던 것들이 갖추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아우구스투스가 서거했다는 것과 티베리우스의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 동시에 하나의 소식으로 전해지게 되었다(1.5.4: simul excessisse Augustum et rerum potiri Neronem fama eadem tulit).

흥미로운 것은, 『연대기』 서문에서 출발해 이 대목까지 세밀하게 읽어오는 과정에서 통상 이 저술이 취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 때문에 또

한 『연대기』라는 제목으로 일컬어지는 서술 형식의 특징이 아직까지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연대기적 서술은 도시 로마를 중심으로 한 내정(內政), 외부 이민족들과의 전쟁, 군사(軍事)를 중심으로 한 외교(外交), 그리고 다시 한 해의 끝자락에 가까워져 내정을 다루는 순서로 구성된다.¹²⁴⁾ “res internae-res externae-res internae”의 순서의 기록이 관례인데 이와 같은 도식적인 서술은, 1년 단위의 사건을 로마 국내 정치와 대외 관계를 구분하되 한 해의 마무리는 다시금 시간 순서에 따라 로마의 국내 사정과 관련된 중대사를 기록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또한 역사서술 연구자들은, 공화정기 로마의 대사제(pontifex maximus)들이 연대별로 일어난 사건들의 목록을 기록한 일종의 서판(tabula)을 ‘연대기’라는 서술 형식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간주한다. 이런 형식의 ‘연대기’는, 해마다 콘술 성명을 연대표기 기준으로 삼아, 해당 연도의 정무관 선출, 제례, 법률 제정, 전쟁, 특별한 자연현상 등에 대한 아주 간략한 정보만을 항목이나 목록의 형태로 기록한 반면 의미 있는 문장 단위 형태의 서술을 갖추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로마 고유의 기록물은 내용면에서는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한 보고를 담고 있기에 역사 기록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사건과 인물, 현상 간의 인과 관계나 영향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키케로가 『연설가에 대하여』에서 등장인물 안토니우스를 통해 그리스인들의 전통과 비교해 조야한 수준이라고 기원전 1세기 초 로마의 역사서술을 비판했던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erat enim historia nihil aliud nisi annalium confectio, cuius rei memoriaeque publicae retinendae causa ab initio rerum Romanarum usque ad P. Mucium pontificem maximum res omnis singulorum annorum mandabat litteris pontifex maximus efferebatque in album et proponebat tabulam domi, potestas ut esset populo cognoscendi: ii qui etiam nunc annales maximi nominantur.

124) cf. Marincola (2004) 17-18.

왜냐하면 역사란 것이 연대기를 모아놓은 것(annalium confectio)에 다름 아니었으니까. 말이네. 그 일을 위해 그리고 공동의 기억을 보존할 요량으로 로마의 역사 초기에서부터 대사제 푸블리우스 무키우스에 이르기까지, 해마다의 모든 일들 각각을 대사제가 글로 남기게 했고 백판(album)에 옮겨서는 그 서판을 관저에 내걸곤 했네. 인민에게 알 기회를 주고자 말이네. 지금도 『대(大) 연대기』라 불리는 것들이 그것들이네.

(키케로, 『연설가에 대하여』 2.52)

인용문 끝자락에 키케로도 언급하고 있는 소위, 『대(大) 연대기』(*Annales Maximi*)의 경우 기원전 2세기 초 무키우스 스카이볼라에 의해 80권으로 편찬되어 출간되었다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었는데, 후대의 역사가들이 역사서술의 참고자료로 활용했음직한 이 문헌이 실제로는 아우구스투스 치세에 호고주의적 저술가가 편집한 것이라는 입장을 B. W. Frier가 제기한 바 있고, 그의 해석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¹²⁵⁾ Frier가 단순 연보(tabula/chronicle)라고 칭하는 이 대사제의 연대기 전통과는 달리, 그가 더욱 주목하고 있는 상당히 발전된 양식의 연대기적 역사서술 전통이 있다. 그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한 연대기적 구성을 기본으로 서사(narratio)에 있어서 상당히 발전된 형식을 갖추기 시작해 일종의 로마의 지역사(local history)로 기원전 210년경 파비우스 픽토르(Q. Fabius Pictor)¹²⁶⁾에 의해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annales Graeci*¹²⁷⁾가 로마 역사서술 전통의 큰 축이 되었다. 로마인들에 대한 그리스 역사서술에 대한 대응으로 기획된 이 그리스어로 저술된 역사서는 비록 단편으

125) cf. Bruce Woodward Frier, *Libri Annales Pontificum Maximorum: The Origins of the Annalistic Tradition*.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9 (2nd ed.), xv-xix, 179-200; Marincola (2004) 26 n. 124.

126) cf. "Fabius." I 35. in *Brill's New Pauly*; Arnaldo Momigliano, "Fabius Pictor and the Origins of National History", *The Classical Foundations of Modern Historiograph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80-108; Marincola (2004) 26-27.

127) cf. Frier (1999) 237ff.

로만 전해져서 온전한 재구성이 힘들지만 로마 창건 이래 기원전 3세기 초 제2차 대(對) 카르타고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로마인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으로 추정된다. 키케로를 비롯해 고대 로마인들이 *annales*라는 용어를 통해 이와 같은 연대기 서사 양식뿐만 아니라 대사제가 작성한 지엽적인 연보 그리고 역사(*historia*)까지도 지칭했기 때문에 후대의 연구자들이 이해에 혼선을 빚을 수 있지만,¹²⁸⁾ Frier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원전 2-1세기에 걸쳐 16명의 연대기 서사 형식의 역사가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기원전 1세기 마지막 공화정기 연대기 저술가로 다름 아닌 리비우스를 그는 지목한다.¹²⁹⁾ 또한 파비우스 픽토르 이래로 이들 연대기 역사가들은 도시 로마의 창건 혹은 로마의 시초를 서술 대상으로 삼아, 리비우스를 끝으로 사실상 공화정의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에 대한 일련의 기록을 남김으로써 그 전통과 명맥이 끊어지기는 했지만, 한결 세련된 서사 양식을 갖추었으므로 기존의 단순 기록물인 대사제의 연보-연대기를 대체해 왔다. 이처럼 서사 양식의 발전 속에서 로마의 역사가들은, 연대기 역사가들처럼 로마의 건국 시초에서부터 서술을 시작해 당대에 이르는 긴 전통을 따라 내려오는 단일한 로마의 역사를 서술하기도 했고, 이와는 달리 당면한 정치 현안, 즉 중요한 전쟁이나 군사 활동과 관련된 일, 내정 혹은 민정과 관련되어 그 중요성에 주목해 인과 관계를 파헤치고 선별하여 서술하는 역사서술을 택하기도 했다. 예컨대, 주로 군사(軍事)와 관련해 로마 자국의 입장에 편향되고 무미건조한 서술 경향을 보이는 연대기 역사가들에 반대했던 켐프로니우스 아셀리오(*Sempronius Asellio*)의 경우에는 폴뤼비오스의 정치사(*pragmatic history*) 서술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 정치 현안과 그것과 관련된 인과 관계를 해명하는 데 자신의 역사서를 할애했으며,¹³⁰⁾ 그와 비슷하게 공화정 말기의 역사가들, 특히 살루스티우스 역시도 같은 노선에서 연대기적 서술 양식을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¹³¹⁾

128) 가령, 본고 III장 2절에서 인용된 겔리우스나 이시도루스의 *annales* 개념 이해와 비교해야만 한다.

129) cf. Frier (1999) 200-203; Marincola (2004) 27 n. 131.

130) cf. Frier (1999) 218-220; Marincola (2004) 138, 236.

이런 점에 비추어 보건대, 2세기 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아마도 당대에는 낡은 서술 형식이었을지도 모를 이 연대기 형식의 역사서술을 채택한 것이 주목된다.¹³²⁾ 물론, 『연대기』가 앞에서 논의한 공화정기의 로마사 서술 전통을 의식하여 채택된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그리 단서가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연대기』 서문에서 기존의 역사서술 전통에 대한 타키투스의 암시를 적극적으로 읽어내는 것이 타당하다면 전체적인 서술 형식의 채택에서도 숨은 의도 내지는 전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¹³³⁾ 사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연대기』의 원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타키투스가 자신의 이 역사서를 “연대기”라고 칭하는 대목에서 그 자의식을 읽을 수 있게끔 한다.

pleraque eorum, quae rettuli quaeque referam, parva forsitan et levia memoratu videri non nescius sum, sed nemo annales nostros cum scriptura eorum contenderit, qui veteres populi Romani res composuere. ingentia illi bella, expugnationes urbium, fusos captosque reges, aut si quando ad interna praeverterent, discordias consulum adversum tribunos, agrarias frumentariasque leges, plebis et optimatum certamina libero egressu memorabant: 2. nobis in arto et inglorius labor, immota quippe aut modice lacescita pax, maestae urbis res et princeps proferendi imperi incuriosus erat. non tamen sine usu fuerit introspicere illa primo aspectu levia, ex quibus

131) cf. Christopher B. Krebs. “The Buried Tradition of Programmatic Titulature among Republican Historians: Polybius’ *Πραγματεία*, Asellio’s *Res Gestae*, and Sisenna’s Redefinition of *Historia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136, no. 3 (2015): 503-524; Fornara (1983) 67-76.

132) cf. Syme (1958) 266-270.

133) ‘연대기적’ 서술 양식에 주목해 타키투스의 『연대기』 첫 여섯 권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Ginsburg는 타키투스가 한편으로 연대기적 서술을 채택한 것이 그 역사가 과거 공화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연대기적 서술이 불완전하고 점차 퇴색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은 타키투스에게 티베리우스 치세가 공화정의 연속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cf. Judith Ginsburg. *Tradition and Theme in the Annals of Tacitu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96-100.

magnarum saepe rerum motus oriuntur.

내가 보고해 왔고 또한 보고하게 될 것들 대부분이 아마도 언급하기에 사소하고 하찮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나는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 누구도 우리(sc. 나)의 연대기를 로마 인민의 옛 일들을 집필했던 이들의 저술과 견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거대한 전쟁들을, 도시들에 대한 공격을, 패주하고 포획된 왕들을, 혹은 내부의 사태로 관심을 돌리게 되는 경우라면, 호민관들에 대한 콘술들의 불화를, 농지와 곡물과 관련된 법률들을, 평민과 귀족들의 분쟁들을, 거리낌 없는 여담을 통해 언급하곤 했다. §2. 우리(sc. 나)에게 수고는 제한된 영역에 놓여 있고 영예롭지도 않다. 사실 평화란 것은 흔들림 없거나 약간의 훼손만 겪었고, 도시의 상황은 서글프고 프린캡스는 제국을 전진시키는 데에는 무관심했다. 그럼에도 처음 보기에는 하찮지만, 그것들에게서 종종 대단한 일들의 움직임이 생겨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소용없지는 않을 것이다.

(『연대기』 4.32.1-2)

『연대기』의 제2 서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제4권 32-33장은 분량 상으로는 첫 여섯 권의 절반을 지나 티베리우스 치세의 후반기로 접어드는 24년의 일을 보고하는 중에 28장부터 31장까지 거듭해서 기록된 존엄 훼손-대역죄(crimen laesae maiestatis) 관련 고발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쓴 대목이다. 타키투스는 자신의 저술에 대해 “*annales*”라고 지칭하며 옛 시절의 것들과 비할 바 없으리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가 이전 시대의 역사서술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들은 대체로 아우구스투스 이전 공화정기에 있었던 일들을 가리킨다. 반면에 타키투스에 따르면 그의 『연대기』는 이와 같은 중요하고 큰 규모의 사건들이 아닌 협소하고 영예롭지도 못한 소재들로 채워져 있는데, 그는 그 원인을 큰 전쟁 없이 평화가 지속되는 시대상, 그에 반해 도시 로마 내부에서 벌어지는 서글픈 [고발] 사건들의 연속에서 찾는다. 그런데 이 점은 32장 직전에 거듭해서 열거된 고발 사건들 외에는 『연대기』 서문과 뒤이어 아우구스투스 치세에 대해 서술하던 평화로운 시절의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

이어지는 33장에서 타키투스는 옛 시절과 본인이 다루는 시대의 차이를 부연 설명하는데 그 요지는, 국가 정체가 시대가 지남에 따라 변하여 온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국가 로마가 일인 지배가 아닌 다른 체제일 수 없게 바뀌었기에(4.33.1: *converso statu neque alia re Romana quam si unus imperitet*),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서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별력(*prudentia*)을 갖춘 몇 안 되는 이들이 보다 저급하고 해로운 것들로부터 명예롭고 유익한 것들을 분간해내고 또한 타인의 경험으로부터 가르침을 얻기 때문에, 타키투스는 자신이 앞서의 것들을 서술한 것이 이로울 것이기는 하지만 즐거움을 안겨주지는 않을 것임을 덧붙인다.¹³⁴⁾ 이유는 옛 역사가들의 기록에서 읽을 수 있는 이국적이고 다채로운 소재나 독자들의 기분을 환기시킬 만한 일들은 없이, 비슷하고도 지겨움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을 연이어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타키투스는 설명한다.¹³⁵⁾ 또한 옛 역사가들에게는 비방하는 이도 드물었고, 예컨대 로마인이건 카르타고인이건 그 어느 쪽의 전선(戰線)을 더 낫다고 치켜세운다 한들 중요한 일이 아닐 정도였지만, 티베리우스의 시대와 관련해서는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타키투스는 강조한다.

4. tum, quod antiquis scriptoribus rarus obtrectator, neque refert cuiusquam Punicas Romanasve acies laetius extuleris: at multorum qui Tiberio regente poenam vel infamias subiere, posteri manent, utque familiae ipsae iam extinctae sint, reperies, qui ob

134) cf. 투퀴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1.22.4: “내가 기술한 역사에는 설화(說話)가 없어서 듣기에는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사에 관해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언젠가는 비슷한 형태로 반복될 미래사에 관해 명확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내 역사 기술을 유용하게 여길 것이며,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 책은 대중의 취미에 영합하여 일회용 들을 거리로 쓴 것이 아니라 영구장서용으로 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말 번역은, 천병희 [2011]에서 인용한 것이다)

135) 『연대기』 4.33.3: “nos saeva iussa, continuas accusationes, fallaces amicitias, perniciem innocentium et easdem exitii causas coniungimus, obvia rerum similitudine et satietate”.

similitudinem morum aliena malefacta sibi obiectari putent. etiam gloria ac virtus infensos habet, ut nimis ex propinquo diversa arguens. sed ad inceptum redeo.

그 다음으로, 옛 저술가들에게는 비판자가 드물기도 했고, 또한 [당신이] 카르타고인들의 부대든 로마인들의 부대든 어느 것을 더 즐겁게 추켜세우든지 그것이 그 누구에게도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에 티베리우스가 통치하던 시절 형벌이나 치욕을 견뎌냈던 많은 이들의 후손들이 살아남아 있고, 또한 이미 그 가문들 자체가 소멸될 정도가 되었을지라도, [당신은] 품행의 유사함 때문에 타인의 악행들이 자신들에게 비난거리가 된다고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영광과 덕조차도 적대자들을 두고 있으니,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서 정반대의 것들을 비난하면서 말이다. 허나 [나는] 시작했던 대목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연대기』 4.33.4)

타키투스는 자신의 것과 과거 공화정기의 역사서술을 비교하면서, 역사서술의 소재와 대상 그리고 그 효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자의식에도 불구하고 타키투스가 과거의 역사서술 양식을 그 내용 면에서 적용되지 않는 프린킵스 통치 체제 서술에 적용하고 있는 점이 이채로운데, 앞에서 살펴본 『연대기』 제1권 초반부 아우구스투스의 죽음 서술에 이르는 대목에서는 구체적으로 연대기적 특징이라고 특정할 만한 요소가 눈에 띄지 않았다. 『연대기』 전체에서 가장 먼저 그것이 다루는 시대의 연대를 식별할 수 있는 대목은 제1권 7장에 이르러서이다.

Sex. Pompeius et Sex. Appuleius consules primi in verba Tiberii Caesaris iuravere, apudque eos Seius Strabo et C. Turranius, ille praetoriarum cohortium praefectus, hic annonae; mox senatus milesque et populus. 3. nam Tiberius cuncta per consules incipiebat, tamquam vetere re publica et ambiguus imperandi.

§2. 섹스투스 폼페이우스와 섹스투스 아풀레이우스는 콘술들로서 맨 먼

저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고, 그들 앞에서 세이우스 스트라보와 가이우스 투라니우스가, 전자는 근위대장으로서, 후자는 곡물 공급 담당관으로서 뒤따랐다. 곧 원로원과 군인 그리고 인민이 뒤이었다. §3. 사실, 티베리우스는 모든 것을 콘술들을 통해 시작하고 있었는데, 마치 옛 공화정에서처럼 그리고 통치하기를 망설이는 듯이 말이다.

(『연대기』 1.7.3)

흔히 당해 콘술들의 성명을 자립 탈격 구문으로 표현해 연대지표를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 연대기적 서술 방식인데 그와 달리 타키투스는 14년을 가리키는 당해 콘술들의 이름을 다른 방식으로 기입해 넣고 있다. 아우구스투스의 서거 이후 티베리우스가 로마에 입성한 뒤의 상황을 서술하는 인용문은, 티베리우스가 마치 옛 국가 체제에서 치세를 시작하고자 했다는 식의 서술을 통해 사실상 말과 실상이 뒤트린 양상을 타키투스 역시 엿물린 표현을 통해 보여준다. 실제로 옛 공화정 체제였다면, 2인 콘술이 특정한 어느 한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거나 충성서약을 하려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타키투스가 아우구스투스 체제를 기술하면서 보고하고 있듯이 사실상(de facto) 국가 체제는 이미 프린켑스 일인이 권력 구조의 정점에 선 위계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비록 이 새로운 체제의 지배자가 최후를 맞게 되기 전에 이미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분위기가 제국 로마에 감돌기는 했지만, 티베리우스의 권력 승계 작업이 막후에서 완료된 후에는 아마도 티베리우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 성원이 이 새 통치자의 권력에 대해 실제로 승인했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타키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것을 겉으로나마 부인하고자 했던 것은 티베리우스 단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이 첫 번째 연대지표는 공화정기의 관례와는 달리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후 티베리우스의 행보는 말과 실제, 표현과 의미 사이의 괴리를 표출하고 있는데, 거부하고 사양하면서도 받아들이는 한편, 허락하고 용인하는 듯하지만 속뜻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대응 방식으로 원로원과의 긴장 관계를 집권 초반부터 티베리우스는 이어나간다.¹³⁶⁾

어떤 면에서 이는, 앞에서 티베리우스의 제위 승계에 대해 떠돌던 풍문 속에서 그의 위선적인 행태에 대한 언급을 상기하면 그의 개인적 품행 혹은 습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길 만도 하지만, 다른 해석의 가능성도 있다.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불완전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14년을 지표로 삼아 공식적으로 티베리우스의 통치에 대해 서술하기 시작하는 것은 제1권 7장부터라고 여겨지기 쉽지만, 타키투스가 또 다른 표현으로 새 시대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은 6장에서이다. 연대, 날짜 등 그 무엇도 특정되지 않은 채, “새 프룬키파투스의 첫 번째 소행은 포스투무스 아그리파의 살해였다”(1.6.1: *primum facinus novi principatus fuit Potumi Agrippae caedes*)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6장은 정황상, 바로 앞선 장에서 리비아가 당시 필요로 했던 것들이 갖추어지기까지 상황을 통제하면서 아우구스투스의 죽음과 티베리우스의 권력 승계에 대해 함구하던 시절에 일어난 일 에 대한 기술이다. 아우구스투스 생전에 유폐된 것으로 언급된 아그리파 포스투무스는 티베리우스가 제위에 오르기 위해서 혹은 오르고 나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인물이었기에 아마도 아우구스투스 사후 그의 서거 소식이 공식적으로 알려지기 이전에 살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타키투스는 이 제거 과정을 총괄 지시한 최종 심급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 티베리우스는 원로원에서 이 일에 대해 당장에는 입을 열지 않고, 후에 그것이 아우구스투스가 생전에 미리 지시한 일인 것처럼 처신했다 (*simulabat*).

이와 같은 기술 후에, 타키투스는 아우구스투스의 성정에 비추어 보건대 혈육에 대해 그가 그러한 잔혹한 판단을 내릴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고, 티베리우스와 리비아가 공모해서 서둘러 취한 조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의 인물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는 비밀리에 진행된 일의 가담자였고, 아그리파 포스투무스를 감시하고 있던 장교에게 칙서를 보냈던 인물이라고 타키투스는 기록한다. 아우구스투스의 최측근 인사이기도 했던 이 인물이 리비아에게 프

136) 『연대기』 1.7.3-7 참조.

린캅스 체제 유지의 비결(秘訣)에 대해 간언하는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Sallustius Crispus particeps secretorum (is ad tribunum miserat codicillos) ... monuit Liviam ne arcana domus, ne consilia amicorum, ministeria militum vulgarentur, neve Tiberius vim principatus resolveret cuncta ad senatum vocando: eam condicionem esse imperandi, ut non aliter ratio constet, quam si uni reddatur.

은밀한 일의 가담자였던 살루스티우스 크리스푸스는(그가 장교에게 칙서를 보냈었는데) ... 리비아에게 집안의 비밀도, 친구들의 자문도, 병사들의 복무[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지지 않도록 하고, 티베리우스가 원로원 앞에서 만사를 환기시킴으로써 프린키파투스의 힘을 약하게 만들지 말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단 한 사람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셈이 맞아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통치의 조건이라고 말이다.

(『연대기』 1.6.3)

타키투스의 보고를 읽으면, 살루스티우스라는 이름의 이 인물이 티베리우스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이루어진 아그리파 포스투무스 살해의 배후 조정자 내지는 실무자인 듯 암시된다. 사전 모의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 사건에 대해 그가 티베리우스로부터 문책 당할 것이 두려워 미리 리비아에게 이와 같이 조언했다는 것이 타키투스의 기록이다. 정황상 티베리우스는 적어도 이 사건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만큼은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살루스티우스의 신속한 결행과 티베리우스의 짐짓 가장하는 습벽은,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권력 승계 과정에서 한결 긴장감을 낳는 서사로 읽힌다. 그러나 당장에는 두 사람 사이에 큰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살루스티우스는 티베리우스 치세 초반 측근-막후에서 정국 운용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다 점차 정치 현안에서 물러나 천수를 다했던 것으로 후에 타키투스는 기록한다.¹³⁷⁾

137) 아우구스투스에게 관면되어 마이케나스에 버금가는 권력을 누렸다가 티베리우스에게도 중용되었다는 등 살루스티우스의 생애 전반에 대한 타키투스의 조사(弔詞)는 『연대기』 3.30에서 읽을 수 있다. 역사가 살루스티우스의 종

상기 인용문에서 살루스티우스가 피력한 로마 제국의 통치 조건은, 황가 내의 은밀한 사안들, 프린켑스 측근 자문단의 사정, 제국 전체의 군사 현황 등의 정보가 소수에 의해서만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 모든 안건을 원로원에 회부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 끝으로 결정권은 단 한 사람 일인 통치자인 프린켑스에게만 귀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후 리비아 외에는 이 2대에 걸친 프린켑스 핵심 측근으로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 거의 없다는 점¹³⁸⁾을 감안하면, 살루스티우스의 발언을 통해 타키투스가 기술하고 있는 프린키파투스의 조건은 권력 중추의 독점과 원로원에 전적으로 위임하려하지는 말 것, 제국 전체의 통치 일원화에 있는 것이다. 아우구스투스의 프린키파투스가 성립하고 성공적으로 유지되어 그 권력이 후계자에게 이양되는 데에 일조한 그의 최측근 인사가 새 프린켑스가 집권하기 시작할 무렵에 지난 통치 체제의 비결에 대해 밝히고 있는 이 대목에서 특이한 것은, 그가 이에 대해 들려주는 이가 티베리우스가 아닌 리비아라는 점이다. 이미 『연대기』 초반 아우구스투스의 치세 말기에 대해 서술하면서 점차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것처럼 그려진 리비아가 프린켑스 체제의 유지 비결에 대해 일차적으로 듣게 된다는 것은, 이 새 프린키파투스가 프린켑스 단독의 온전한 권력 독점 체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살루스티우스가 실제로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전달해야 했던 것은 원칙적으로 새 일인 통치자 티베리우스였을 텐데, 아우구스투스 사후 권력 승계 과정을 배후에서 제어하고 감독했던 것은 리비아인 듯한 인상을 준다. 그리고 새 지배 체제에 후환이 될 만한 요소를 결과적으로 미연에 제거한 이 “새 프린키파투스의 첫 번째 소행”은

손이자 양자이기도 했던 이 인물(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옥타비아누스 간의 관계와 같다)은 마이케나스처럼 정무관직에 오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시인 호라티우스를 비롯한 일군의 시인들을 후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한다. “Sallustius.” II 2. in *Brill's New Pauly* 참조. 그러나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이나 카시우스 디오의 해당 기사에는 이 인물에 대한 언급이 없다.

138) 아우구스투스가 죽기 얼마 전에 권력 승계 후보군으로 거론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연대기』 1.13 참조. 이들 가운데 천수를 누린 것은 단 한 사람 마르쿠스 레피두스였다고 타키투스는 기록하고 있다. 타키투스의 역사서 중에 보기 드물게 찬사의 대상이 되는 이 인물의 대한 평은 『연대기』 4.20.2 이하(본고 95쪽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력 수뇌부 내 상호 간에서도 온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혹은 그 내부에서도 극소수만이 관련 정보를 공유한 채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은밀하게 추진된 측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티베리우스를 비롯한 프린킵스 지배 체제 외부자들에게는 이 과정이 석연찮아 보였을 것이고 티베리우스 권력 승계 절차에 대해 좋지 못한 여운을 남겼다.¹³⁹⁾

살루스티우스 외에는 더 이상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있지만, 이를테면 프린킵스의 최측근 자문단(*consilium*)이 이처럼 아우구스투스 사후 ‘프린킵스투스의 통치 비결’에 따라 티베리우스에게로 권력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결행한 구체적인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타키투스의 서술 순서에 따르면 아우구스투스의 죽음 그리고 티베리우스의 승계 소식이 전해진 로마에서는 콘술, 원로원 의원, 기사 등 상류 지배계층이 모두 예속(*servitium*) 상태로 빠져들었다(1.7.1).¹⁴⁰⁾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콘술들을 필두로 티베리우스에 대한 충성 맹세가 이어졌지만, 그가 취한 초기의 조치는 군대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종일관 신중한 면모를 보였고 아우구스투스의 장례와 관련된 사안들을 원로원에 의뢰하고 결정하겠다고 다만 ‘호민관 권한’을 통해 원로원 회의를 소집하며 “대단히 신중히”(permodesto) 표현했다. 그러나 근위대나 각급 군단에 대한 후속 조치들은 군사 지도자로서의¹⁴¹⁾ 단호한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타키투스는 기록하고 있는데, 티베리우스가 이처럼 공식적인 활동을 준비하며 통해 보여준 모습이 그가 아우구스투스 부부에 의해 후임 프린킵스 자리에 슬며시 기어들어 온 것(*inrepisse*)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선출된(1.7.7: *vocatus electusque a re publica*)

139) cf. 『연대기』 2.40.3: “Tiberio quo modo Agrippa factus esset respondisse fertur ‘quo modo tu Caesar’”.

140) 아우구스투스 서거 이후 티베리우스의 권력 승계 과정의 통제적인 분위기를 2011년 12월 북한의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일의 통치권 세습 때의 모습을 비교한 Alison Rosenblitt의 논의는 흥미롭다. cf. Alison Rosenblitt. “Rome and North Korea: Totalitarian Questions.” *Greece & Rome* 59, no. 2 (2012): 202-213.

141) cf. 『연대기』 1.7.5: “signum ... ut imperator dederat”, “litteras ad exercitus tamquam adepto principatu misit”.

것처럼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점이 부연 설명된다. 그런데 티베리우스가 소집한 첫 원로원 회의에 대해 기록하기 전에, 타키투스는 ‘사전에’ 다음과 같은 점을 비인칭 구문으로 덧붙이고 있다.

postea cognitum est ad introspiciendas etiam procerum voluntates inductam dubitationem; nam verba vultus in crimen detorquens recondebat.

후에 알려지게 된 바는, 그가 유력인사들의 의중을 살피기 위해 망설이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사실, 그는 [그들의] 말과 표정을 비난거리로 왜곡해 기억해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대기』 1.7.7)

이와 같은 태도는 티베리우스가 소집한 원로원 회의¹⁴²⁾에서도 지속되었다. 원로원 회의 첫날(1.8.1: primo senatus die) 그는 아우구스투스의 장례에 대한 조치들 외에는 그 무엇도 안건으로 논의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고, 아우구스투스의 유언장을 공개해 그 유지에 따라 유산 상속에 대한 사안을 처리하고 모친 리비아를 율리우스 가문에 입적했다. 이후 인민과 병사들에게 남긴 아우구스투스의 유증 재산 처분도 이루어졌다. 이후, 아우구스투스의 장례 절차와 규모 등을 논의하면서 티베리우스는 원로원 의원들이 제안한 바들을 “오만한 절제로”(1.8.5: adroganti moderatione) 거부했다. 그리고 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장례 때 일어난 소요 사태를 상기시키면서 아우구스투스의 장례를 병사들을 경호대처럼 배치시켜 마르스의 평원(Campus Martis)¹⁴³⁾에서 거행했는데, 오랫동안 권력을 차지하고 나서 국정과 관련된 자원을 상속인들을 위해 마련해 놓고 천수를 누린 국가 원수의 장례가 병력을 동원해 엄수된 이 풍경을 비웃는 이들이 있었다고 타키투스는 전한다. 이처럼 아우구스투스 사후

142) 대체로 14년 9월 1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에 따르면, 아우구스투스의 사망 날짜가 8월 19일로 전해지므로 열흘 남짓한 시간 동안 티베리우스 체제 구축에 필요한 조치들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43) 통상적인 표현은 Campus Martius이지만 이 표현의 사례처럼 타키투스는 변형(variatio)을 즐겨 사용한다.

권력 이양과 장례와 매장에 이르기까지 그의 생전에 어떠한 계획과 지시가 사전에 주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티베리우스가 보여준 일련의 대처는 꺾보기에는 절제를 갖추려 했다. 하지만 적어도 타키투스의 서술에서는 그것이 과도하거나 오만한 것처럼 읽힌다. 그리고 이미 주목한 바 있듯이, 자신의 의중은 읽히지 않되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했던 티베리우스의 진의는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단순히 정략적인 것인지 아니면 티베리우스 개인의 습성인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아우구스투스의 죽음 이후 사실상(*de facto*) 권력 승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적법하게(*de iure*) 로마의 통치자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처신은 타당했던 셈이다. 일인 통치 권력의 세습은 왕정 시대를 제외하면 유례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타키투스의 서술 역시도 아직은 티베리우스의 입지가 확고하지 못한 상황을 보여준다. 혹은 티베리우스의 대처가 말 그대로 지나치게 신중했던 것인지도 모르지만, 군 병력을 통해 통제된 아우구스투스의 장례는 무사히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로원은 9월 17일 아우구스투스의 신격화를 의결함으로써(1.10.8) 공식적으로 이 초대 프린킵스에 대한 사후 절차를 마친 것으로 타키투스는 서술한다. 그리고 비로소 제1권 11장부터 티베리우스가 서술의 주요 대상으로 부각된다.¹⁴⁴⁾ 그런데 타키투스는 원로원에서 논의될 그의 권력 승계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아우구스투스가 서거한 날이 첫 콘술 선출일과 같았다(각각 14년과 기원전 43년 8월 19일)는 점이나 그의 선친 옥타비우스와 똑같은 집 침실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등 허황된 것들에 놀라워하던 이들이 나누던 후일담(1.9.1-2) 외에 현명한 이들 사이에서(*apud prudentes*) 오가던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상당한 분량으로 기술한다(1.9.3-1.10.7).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 이 대목은 아우구스투스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와 해석이 먼저 소개된다(1.9.3-5). 아우구스투스가 내전 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친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대한

144) cf. 『연대기』 1.11.1: “versae inde ad Tiberium preces”.

효심(piestas erga parentem)과 국가 공동체가 당시 처해 있던 불가피함(necessitudo rei publicae) 때문이었다는 것이 요지인데, 이러한 명분하에 아우구스투스가 제2차 삼두정 체제를 종식하고 불화에 빠져 있던 조국에 치유책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아우구스투스 체제를 예찬하는 이 역명의 집단은, 이 치유책이 다른 아닌 한 사람에 의해 국가가 통치되는 것이었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그리고 과거의 왕정이나 독재관직과는 다른 프린킵스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바로 섰다는 점이 덧붙여진다. 이 프린킵스 통치 체제가 제국의 너른 영토와 질서, 평화(quietes)를 최소한의 폭력만으로 가져왔다는 점이 이들이 아우구스투스 체제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로 제시된다.

“반대되는 말도 나돌고 있었다”(dicebatur contra)는 비인칭 문형으로 시작하는 10장은 일종의 대립 연설(ἀντιλογικὴ 혹은 διισοὶ λόγοι)의 형태¹⁴⁵⁾로 제기된 단락으로, 앞에서 제기된 아우구스투스와 그의 체제에 대한 정당화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신랄한 반론으로 읽힌다. 우선, 앞에서 논의된 선친에 대한 경건한 마음가짐과 국가가 처해 있던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 다만 허울 좋은 명분(obtentus)에 지나지 않았으며,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야욕으로 인해(cupidinde dominandi) 군대는 매수되고, 폼페이우스 파에 대한 호의는 가장되었으므로(simulata gratia) 기원전 43년 이래 아우구스투스가 본격적으로 로마 정계에 진출한 이후의 모든 상황이 기만과 야합에 의한 것이었다는 평이 잇따른다. 제2차 삼두정 이

145) διάλεξις라고도 불리는, 서로 상반되는 논지를 가지는 대립 연설 혹은 이중 논변(διισοὶ λόγοι)의 표현 양식과 동명의 대표적인 고전기 문헌에 대해서는, 이윤철, 「《이중 논변》 ; 궤론주의의 원형적 가능성」, 『철학논총』 96 (2019): 365-406, 특히 403 참조: “《이중 논변》이 논의 안에서 상대성 및 경험주의적 논변에 적극적으로 기대면서도 논리적 혹은 귀류논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진리에 호소하는 논조를 활용하면서 같은 강도의 서로 상반된 입론들을 병행시켜 (그 결과 상대주의 입론도 거부하며) 그 사이에서 특정의 확언을 피한 채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John Kirby. “Greek Rhetoric.” in *Encyclopedia of Rhetoric and Composition: Communication from Ancient Times to the Information Age*. ed. by Theresa Enos. New York: Taylor & Francis, 1996와 June Allison. “Thesis and Antithesis.” in *Encyclopedia of Rhetoric*. ed. by Thomas O. Slo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참조.

래 계속된 정국 혼란 속에서 유혈 사태가 이어지고, 아우구스투스와 리비아의 결합 역시도 부정한 관계로 묘사되고 끝내 이 여인이 집안에서 모진 계모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등 타키투스가 다시금 익명으로 전하는 아우구스투스 체제에 대한 비판은, 앞에서 소개된 찬사를 철회하는 듯한 인상을 줄 만큼 한결 구체적이고 매섭게 이어진다. 끝으로, 그가 신들처럼 숭배되기를 바랄 정도였다는 점, 그리고 티베리우스를 국가 공동체에 대한 걱정에서가 아니라 자신보다 못한 이 모자란 그릇과의 비교로 인해 아우구스투스 본인이 후에 얻게 될 영광에 대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티베리우스를 후계자로 점지했다고 타키투스는 간접화법을 통해 덧붙이고 있다.

ne Tiberium quidem caritate aut rei publicae cura successorem adscitum, sed, quoniam adrogantiam saevitiamque eius introspexerit, comparatione deterrima sibi gloriam quaesivisse. etenim Augustus paucis ante annis, cum Tiberio tribuniciam potestatem a patribus rursum postularet, quamquam honora oratione quaedam de habitu cultuque et institutis eius iecerat, quae velut excusando exprobraret.

티베리우스조차도 애정이나 국가에 대한 염려로 인해 후계자로 입양된 것이 아니었다고, 아우구스투스가 티베리우스의 오만과 잔혹함을 살펴 보았기 때문에, 최악의 인물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위한 영광을 구했던 것이라고 말이다. 실인즉, 아우구스투스는 몇 년 전에, 티베리우스를 위해 원로원 의원들에게 재차 호민관 권한을 요청했을 때, 비록 기품 있는 연설로써이기는 했지만 그의 행태와 생활방식 그리고 습속에 대해 마치 양해를 구함으로써 나무라듯이 몇 가지 점들을 성토했었기 때문이다.

(『연대기』 1.10.7)

이어서 아우구스투스의 매장 절차가 관습에 따라 완수되고 그의 신격화를 원로원이 의결했다는 타키투스의 보고가 덧붙여진다. 그리고 티베리우스가 원로원 회의의 중심에 서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한편으로는 타키투스가 서문에서 아우구스투스에 대해 “짧게”(pauca) 그것도 그의 말

년에 대해서만 그러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상당히 연장되고 티베리우스의 공식적인 치세의 개시 역시도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곧 이어 기술되는 티베리우스의 제위 사양(recusatio imperii) 기사(1.11-12)는, 타키투스의 서술 순서를 감안하면 아우구스투스 사후 적어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여타의 문헌 전승에서도 뚜렷하게 시점을 확인할 지표가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림에도 대체로 그의 제위 승계가 늦춰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⁴⁶⁾ 수에토니우스나 카시우스 디오 모두 아우구스투스 사후 티베리우스가 무장 세력을 대동하고 다닌 사실에 주목해 사실상 티베리우스의 권력 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서술하면서, 그가 제위를 거듭 사양하면서 다소 지체하게 된 것에 대해 건강과 노령 혹은 본성상 타고난 경향 때문임을 먼저 지적한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티베리우스가 당시 정세에, 특히 게르마니아에서 감지되던 일련의 소요 사태에 대해 품고 있던 두려움을 주된 원인으로 서술하고 있다. 반면에, 타키투스가 『연대기』 제1권 11-1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티베리우스의 제위 사양 기사에는 티베리우스가 제위 수락 이후 게르마니쿠스에게 군 통수권을 부여할 것과 그에게 아우구스투스 서거로 인한 슬픔을 달랠 사절 파견을 요청하는 것이 추후에 덧붙여지는 것(1.14.3) 외에는 게르마니아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 게르마니쿠스가 군대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것을 티베리우스가 두려워하여 사전에 속주 주둔군에 미리 서한을 보낸 것으로 타키투스 역시도 기록하고는 있지만(1.7.5), 그 시점은 첫 원로원 회의 이전으로 아마도 군권과 관련해서는 티베리우스에 의해 신속한 조치가 취해졌던 것으로 보이며 제위 수락 이후에 이 사전 조치를 공식화하고 승인 받았던 것으로 기술된다.

이와 함께, 앞에서 지적했듯이 아그리파 포스트무스 제거를 비롯해 실제로는 신속하게 권력 승계를 위한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티베리우스의 프린키파투스 수락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이 지연된 시간이 당시 원로원에게는 상당한 불

146) 수에토니우스, 「티베리우스」 24-25, 카시우스 디오(Cassius Dio), 『로마사』 (Ρωμαϊκὴ Ἱστορία) 57.2.4-3.1 참조

안감과 불확실성을 안겨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에토니우스는 이 지연에 대해서 다소 신랄하게 서술하고 있는데,¹⁴⁷⁾ 티베리우스가 프린키파투스를 거부하고 있던 모습을 수에토니우스가 “소극(笑劇)”(mimus)에 빗대는 것이 특히 주목된다.¹⁴⁸⁾

principatum, quamvis neque occupare confestim neque agere dubitasset, et statione militum, hoc est vi et specie dominationis assumpta, diu tamen recusavit, impudentissimo mimo.

프린키파투스를, 그는 비록 즉각 차지하는 것이나 운영하는 것을 망설이지는 않았지만, 병사들의 경비대, 다시 말해 무력을, 그리고 전제정의 모습을 취한 상태로도, 그럼에도 오랫동안 뻔뻔스럽게 그지없는 소극(笑劇)으로써 거부했다.

(수에토니우스, 「티베리우스」 24.1)

타키투스 역시도 아우구스투스의 장례 절차 논의에 앞서 티베리우스가 취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겉보기에는 절도 있을지라도 과도한 것이었음을 시사한 바 있는데, 이처럼 티베리우스의 제위 수락이 늦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단순히 그의 위선(僞善)이나 두려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평면적인 해석에 머무는 것이다. 물론, 이후 타키투스가 『연대기』 초반에서 뚜렷이 티베리우스와 대비시키는 인물이 게르마니쿠스라는 점에서, 후자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티베리우스의 견제와 의혹이 그의 치세 초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요인 중 하나였음은 자명해 보인다.¹⁴⁹⁾ 그러나 결과적으로, 『연대기』 첫 여섯 권을 통틀어 티베리우스는 게르마니아

147) 또한, 카시우스 디오, 『로마사』 57.2.3-4 참조.

148) cf. 수에토니우스, 「아우구스투스」 99.1: “mimum vitae commode transegit.”

149) 결과적으로 『연대기』에서 게르마니쿠스에 대한 티베리우스의 정치적 관리와 통제는 성공한 셈이다. 이 두 인물의 관계가 혈연이나 정치적 위상에 있어서 복잡적이었으리라는 해석은 타당해 보인다. 안희돈 (2008): 159-185, 특히 179-183 참조. 하지만 티베리우스의 정치적 가장(假裝)을 감안하면, “왕조 지배 이념”이란 것을 강조하고자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어 보인다.

를 비롯한 주요 전선과 외교에 있어서 비교적 잘 통제된 군사 정책을 펼쳤고, 상당히 긴 분량으로 서술된 ‘게르마니아 전쟁’도 『연대기』 제2권 26장에서 게르마니쿠스의 로마로의 소환을 끝으로 일단락되어 사실상 제국 내외의 군사적 위협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게르마니쿠스가 사망하는 19년까지 그에 대한 티베리우스의 견제와 관련된 음모 사건 등이 타키투스를 비롯한 여러 문헌 전승들이 주목하는 주된 서술 대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아우구스투스 사후 게르마니쿠스가 게르마니아에서 갖고 있었던 군사적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¹⁵⁰⁾ 그런 까닭에 14년 티베리우스 집권 초기에 판노니아(1.16 이하)와 게르마니아(1.31 이하) 북부 전선에서 발발한 일련의 소요 사태들은, 굳이 티베리우스가 직접 방문하거나 관장하지 않더라도 쉽사리 진화되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적어도 권력 승계 이후에 상당 기간 결코 로마를 떠나지 않았다는 점이다.¹⁵¹⁾ 그러면서도 티베리우스가 집권 초기 관심을 기울였던 영역은 로마 내부의 정치, 특히 원로원과의 관계 설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타키투스의 『연대기』 제1권의 첫 번째 해 ‘내정’(res internae)과 관련된 서술로, 티베리우스가 자신의 프린켑스 지위에 대해 거듭 사양하면서 원로원의 반응을 살피고 또한 아우구스투스의 정치적 유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정책의 방향을 암시하는 대목(1.14.4: se non excessurum)까지이다. 타키투스에 따르면, 아우구스투스의 장례 절차와 신격화 의결이 완료된 후 티베리우스에 대한 간청이 가속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1.11.1). 이는 그가 첫 원로원 회의에서 아우구스투스 장례 문제 외에는 여타 안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금했던 것을 상기시키는데, 이제는 비로소 티베리우스 역시도 자신의 입지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게 된다.

150) 『연대기』 제1권에서 판노니아 주둔 군단의 소요 사태를 비교적 수월하게 통제했던 드루수스와는 달리, 게르마니쿠스는 상당한 어려움 끝에 그것도 티베리우스의 칙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게르마니아 군단병들의 불만을 잠재웠다(1.36.3 이하).

151) 『연대기』 1.47과 수에토니우스, 「티베리우스」 38 참조.

... et ille varie disserebat de magnitudine imperii, sua modestia. solam divi Augusti mentem tantae molis capacem: se in partem curarum ab illo vocatum experiendo didicisse, quam arduum, quam subiectum fortunae regendi cuncta onus. proinde in civitate tot inlustribus viris subnixa non ad unum omnia deferrent: plures facilius munia rei publicae sociatis laboribus exsecuturos.

... 그리고 그는 제국의 크기와 자신의 겸손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했다. 신군 아우구스투스의 정신만이 그토록 큰 규모의 것을 감당할 만하다고, 자신은 관리업무 일부를 위해 그에 의해 부름 받아,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짐이란 것이 얼마나 험난한지, 운에 얼마나 달려있는 것인지를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따라서 나라 안에 그토록 훌륭한 인물들에게 기대어 지탱되고 있는 것들 전부를 한 사람에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다 많은 이들이 노고를 함께함으로써 국가사를 위한 직무를 보다 수월하게 해낼 것이라고 말이다.

(『연대기』 1.11.1)

이와 같은 티베리우스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일인 통치에 대한 부담을 표하면서 다수에 의한 공동 통치의 가능성을 내비치는 듯하지만, 아우구스투스 사후 그때까지의 과도기를 사실상 통치해 온 이가 그 통치권을 실제로 내려놓고자 하는 것이 과연 진의인지는 파악하기 힘들다. 타키투스 역시 바로 이어지는 대목에서 티베리우스가 행한 이러한 종류의 연설에는 단적으로 믿을 만한 요소보다는 위엄이 더 많았다고 기록하며, 티베리우스의 연설이 다른 때에는 더 모호하고 불분명했지만 속내를 깊이 더 감추고자 했던 그때에는 그 표현이 더욱 불확실하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이고 있다(1.11.2).

at patres, quibus unus metus, si intellegere viderentur, in questus lacrimas vota effundi; ad deos, ad effigiem Augusti, ad genua ipsius manus tendere, cum proferri libellum recitarique iussit.

한편 원로원 의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보일까 하는 단 한 가지 두려움만 갖고 있었기에 탄식, 눈물, 서원을 그칠 줄 모른다. 신들에게,

아우구스투스의 모상(摸象)에, 티베리우스의 무릎에 손을 그들은 뻗치는데, 그때 그는 소책자를 내와 낭독하라고 명했다.

(『연대기』 1.11.3)

이 장면에서 원로원 의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 실제로 그들이 티베리우스의 진의를 이해하고 있어서였는지, 혹은 그렇지 않음에도 겉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고자 해서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원로원으로 하여금 선뜻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한 점에서 티베리우스의 연설은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어수선했던 속에서 티베리우스가 낭독하도록 한 것은 아우구스투스의 유언이 담긴 문서로 보이는데, 타키투스의 보고에 따르면 여기에는 국가 재원과 세금, 인구 통계와 병력, 속주와 종주국 등 제국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아우구스투스가 자필로 기록했다고 전하는 이 문서에는 제국의 경계를 확장하지 말라는 조언(1.11.4: *consilium coercendi intra terminos imperii*)도 담겨 있었는데, 이 대외정책이 두려움 때문인지 시기심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타키투스는 보고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것은, 앞에서 이미 논의한 것처럼, 살루스티우스가 통치의 조건이라고 밝힌 것들(1.6.3)과 티베리우스의 제위 사양 장면이 상당 부분 배치된다는 점이다. 다른 문헌 전승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대목으로 인해, 최초의 프린킵스 교체기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타키투스의 『연대기』 초반부 해석은 복잡해 보인다. 단적으로, 티베리우스는 원로원 앞에서 아우구스투스 치세의 대내외적인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어쩌면 프립킵스 체제의 힘(*vis principatus*)을, 오직 한 사람에게만 정보가 집중되고 결정권이 주어져야 할 통치의 조건을 약화시켜 버린 셈이다. 훗날, 26년이래 티베리우스가 로마를 완전히 떠나면서 정무 전반을 직접 다루게 되지는 않게 된 것이나, 23년 친아들 드루수스의 사망 이후 원로원에 슬픔을 표하면서 국정 전반을 맡게 된 것을 되돌려 주겠다고 통치권을 위임하겠다는 등의 발언¹⁵²⁾을 토대로, 티베리우스에게는 애초에 권력에 대

152) 『연대기』 4.9.1: “ad vana et totiens inrisa revolutus, de reddenda re publica utque consules seu quis alius regimen susciperent, vero quoque et

한 의지가 없었거나 모자랐음을 이 권력 승계 과정에서 엿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아가, 군사(軍事)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아우구스투스 치하에서 빼어난 활약을 보여 온 티베리우스가 국내 정치나 민정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원로원과 정무관들의 인정을 받아야 했거나 나아가 협조를 구하고자 했고, 이러한 의도가 일차적으로 제위 사양으로 표출되었다는 식의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 적어도 타키투스의 서술 내에서는, 아우구스투스 체제가 유지되어 온 비결과 통치 조건이 티베리우스의 입을 통해 원로원에 공개되는 것으로 읽힌다. 그럼에도 그러는 중에 원로원은 티베리우스로 하여금 제위를 사양하지 못하도록 낮은 자세로 탄원했다고 타키투스는 기록하고 있는데(1.12.1), 티베리우스가 사양과 포기의 뜻을 거듭 표명 할수록 원로원은 그에 비례해 더욱 그의 제위 승계에 대해서 더욱 권하고 간청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카시우스 디오 역시, 티베리우스가 사실상 제국 전체의 일을 관장하면서도, 말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처음에 제위를 포기하겠다는 티베리우스의 발언이 점차 공동 통치자 요청, 통치 범위의 분배 요청 등으로 바뀌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καὶ ὡς οὐκ ἔχοντι δοθῆναι ἐσηγήσατο, τὸν τε χλευασμὸν αὐτοῦ συνῆκε, καὶ ἔφη καὶ ὅτι “οἱ στρατιῶται οὐκ ἐμοὶ ἀλλὰ δημόσιοι εἰσι.” ταῦτά τε οὖν οὕτως ἔπρασσε, καὶ τὰ τῆς ἀρχῆς ἔργα πάντα διοικῶν ἡρνεῖτο 4. μηδὲν αὐτῆς δεῖσθαι. καὶ τὸ μὲν πρῶτον καὶ πᾶσαν αὐτὴν διὰ τε τὴν ἡλικίαν ἔξ γὰρ καὶ πεντήκοντα ἔτη ἐγεχόνει καὶ δι’ ἀμβλυωπίαν ἡλεῖστον γὰρ τοῦ σκοπούς βλέπων ἐλάχιστα τῆς ἡμέρας ἐώρα ἐξίστασθαι ἔλεγεν· ἔπειτα δὲ κοινωνοὺς τὲ τινας καὶ συνάρχοντας, οὔτι γὰρ καὶ πάντων καθάπαξ ὥσπερ ἐν ὀλιγαρχίᾳ, ἀλλ’ ἐς τρία μέρη νέμων αὐτήν, ἥτει, καὶ τὸ μὲν αὐτὸς ἔχειν ἡξίου, τῶν δὲ ἐτέρων ἄλλοις παρεχώρει.

그리고 어떤 이가 머리를 써서, 그가 흡사 가지고 있지 않은 듯이 그에게 경호대를 부여하자고 입안했을 때, 그의 반어(反語)를 알아들었고

honesto fidem dempsit”.

또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병사들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인민의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을 그렇게 그는 행했고, 대권(ἀρχή)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실제로는 관리하면서도 그것에 관련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4. 그리고 우선 그것(sc. 대권) 전체가 연령 때문에(사실 그의 나이 56세였다) 그리고 시력감퇴 때문에(사실 그는 어두울 때에는 아주 잘 보면서도 낮에는 거의 보지 못했다) [자신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이들을 동료로 그리고 공동 통치자로서, 마치 과두정에서처럼 전적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세 부분으로 그것(sc. 대권)을 나누면서 요청했고, 그 자신이 하나를 가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겼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이들에게 제공하려 했다.

(카시우스 디오, 『로마사』 57.2.3-4)

『연대기』의 티베리우스 역시 원로원이 자신에게 맡기는 범위 내에서 통치권의 일부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하는데, 수에토니우스의 비유에 따르면 “소극(笑劇)”이라 할 만한 이 풍경은 몇몇 원로원 의원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우선, 아시니우스 갈루스(Asinius Gallus)라는 인물이 티베리우스에게 국정의 어떤 몫이 맡겨지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황이 달라진다. 타키투스는 그의 질문이 예기치 못한 것이라 티베리우스가 잠시 당황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데, 잠시 후 그는 제위에 대해 전적으로 사양의 뜻을 표한 이가 특정한 것을 선택하고 거절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와 같은 답변과 표정에서 티베리우스가 언짢아한 것을 알아차린 갈루스는, 자신이 질문한 취지는 나눌 수 없는 제권을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티베리우스로 하여금 국가의 몸체가 하나이고 나아가 한 사람의 정신으로써 통치되어야 함(1.12.4: *unum esse rei publicae corpus atque unius animo regendum*)을 인정하게끔 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한다. 갈루스는 덧붙여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찬사는 물론, 티베리우스가 전장에서 거둔 승리와, 수년에 걸쳐 토가(toga) 차림으로 훌륭히 해낸 것들에 대해서 상기시켰다. 말하자면, 아우구스투스 체제와 티베리우스의 과거 업적과 역량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찬성의 뜻을 표한 셈인데, 『연대

기』 내에서 이 두 통치자가 나란히 언급되고 권력 세습을 구체적으로 승인하는 듯한 표현은 이 대목이 거의 최초 지점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에 앞에서 언급했듯이, 티베리우스가 사실상 제위 사양을 통해서 의도했던 것은 당장의 정치적 위험이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자신의 능력과 입지에 대해 원로원이 자발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에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갈루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티베리우스는 노기를 거두지 못했는데, 과거 티베리우스가 반강제로 이혼해야 했던 전처 빽사니아와 재혼한 인물이 다름 아닌 갈루스였다는 개인적 원한과 그의 부친 아시니우스 폴리오(Asinius Pollio)의 거침없는 대담함(ferocia)을 물려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타키투스는 티베리우스의 해묵은 원한에 대해 덧붙여 기록하고 있다(1.12.4).

아시니우스 갈루스 외에 티베리우스의 제위 수락 유예 과정 중에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인물들이 또한 13-14장에서도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13장에서는 다른 문헌 전거에는 기록되지 않은 아우구스투스가 죽기 직전에 남긴 이야기(supremi sermones)를 타키투스가 전하고 있다. 요컨대, 능력과 의지에 따라 장차 프린켑스의 자리를 채울 만한 후보군에 대해서 아우구스투스가 인물평을 남겼다는 것인데, 능력과는 별개로 제위에 뜻을 가졌을 것으로 아우구스투스가 지목했던 이들은 모두 훗날 티베리우스에 의해 제거되었다고 타키투스는 기록하고 있다. 아시니우스 갈루스 역시 여기에 포함되며, 그와 유사한 취지의 발언으로 티베리우스를 언짢게 한 루키우스 아룬티우스(L. Arruntius) 그리고 훗날 게르마니쿠스를 독살한 의혹을 산 그나이우스 피소(Cn. Piso)가 장차 티베리우스 치세에 희생될 인물들이다. 아우구스투스가 평가한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티베리우스의 치하에서 무사히 천수를 누린 인물은 마르쿠스 레피두스(M. Lepidus)뿐이었다. 그럴 만한 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프린키퍼투스에 대해 마다하는 인물이라고(1.13.3) 아우구스투스가 평한 이 인물에 대해, 타키투스는 24년의 한 고발 사건과 관련된 대목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hunc ego Lepidum temporibus illis gravem et sapientem virum fuisse comperior: nam pleraque ab saevis adulationibus aliorum in melius flexit, neque tamen temperamenti egebat, cum aequabili auctoritate et gratia apud Tiberium viguerit. 3. unde dubitare cogor, fato et sorte nascendi, ut cetera, ita principum inclinatio in hos, offensio in illos, an sit aliquid in nostris consiliis liceatque inter abruptam contumaciam et deforme obsequium pergere iter ambitione ac periculis vacuum.

... 이 레피두스가 그 시절 위엄 있고 현명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알고 있다. 실상, 그는 다른 이들의 잔혹한 아침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좋은 쪽으로 바꿔 놓았지만, 그럼에도 절제가 모자라지 않았으니, 티베리우스에게서 한결 같은 권위와 호의를 누리며 지내고 있었기에 말이다. §3. 그로 인해 나는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여타 다른 것들에서처럼 그렇게 프린킵스들의 어떤 이들에 대한 편향이, 다른 어떤 이들에 대한 언짢음이 운명이나 태어난 운수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의도 속에 어떤 것이 달려 있어서 그리고 깎아지른 완고함과 흉측한 복종 사이로, 야심이나 위협이 없는 길을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는 것인지 말이다.

(『연대기』 4.20.2)

이 마르쿠스 레피두스는, 타키투스의 역사서술에서는 손에 꼽을 만큼 거리낌 없는 찬사를 받는 인물로서 티베리우스 치세 후반기까지 살아남아 천수를 누렸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6.27.4).¹⁵³⁾ 일뤼리쿰을 향해 떠나 있던 티베리우스가 『연대기』 제1권 13장에서 언급된 아우구스투스 생

153) Syme은 레피두스가 타키투스가 예찬한 자신의 장인 아그리콜라의 원형처럼 『연대기』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cf. Ronald Syme. “Marcus Lepidus, *Capax Imperii*.” *The Journal of Roman Studies* 45, no. 1, 2 (1955): 22-33. 또한, 『연대기』 제1-6권에서 “amoral servility and dangerous defiance”라는 양극단의 사이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로 레피두스를 거론하면서, 극작가 벤 존슨이 『세야누스』를 통해 모색했던 것과 그와 같은 중도의 길이였다고 비평한 시도도 눈에 띈다. cf. Peter Gibbard. “Ben Jonson’s *Sejanus* and the Middle Way of *Annals* 1-6.”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00-1900* 56, no. 2 (2016): 307-325. 벤 존슨과 『세야누스』에 대해서는, 본고 IV장 1절 참조.

전의 거의 마지막 대화 현장에 있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여기서 오고간 대화 내용은 리비아 혹은 그의 측근들을 통해 티베리우스에게도 공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권력 쟁취의 시도 여부와는 별개로, 물망에 오를 법했던 이 인물들은 레피두스를 제외하고는 티베리우스의 계획 하에 이후 다양한 혐의를 받고 단죄되었다고 타키투스는 전한다. 티베리우스가 공식적으로 대권을 수락하고 일인 지배자로서 아우구스투스 사후의 로마 정국을 온전히 장악하기 전에 여타 원로원 의원들과는 달리 전적인 그리고 일방적인 굴종의 자세가 아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기록된 이들은 대체로 티베리우스의 눈 밖에 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원로원 의원들의 간청과 굴종의 태도에 지쳐 점차 티베리우스의 제위 사양과 거부의 뜻을 꺾으면서 티베리우스의 입지가 공고해졌고, 그에 따라 그를 중심으로 새 프린켑스 체제가 성립하는 듯한 인상을 타키투스의 서술에서 감지할 수 있는데, 제위 승계가 일단락되면서 티베리우스는 모친 리비아에 대한 과도한 아첨을 단호히 배척하고, 게르마니쿠스에게 필요한 군 통수권과 사절단 파견을 요청하면서도, 콘술 지명자였던 자신의 아들 드루수스에게는 더 이상의 직권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끝으로, 원로원이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전해져온 법무관 후보자의 수 12명을 늘려달라고(*ut augeret*)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티베리우스는 그 자신이 과도하게 선을 넘지 않으리라고(*se non excessurum*) 맹세를 통해 고집했다고 타키투스는 기록한다(1.14.4).

Ellen O’Gorman¹⁵⁴)은 “*ab excessu divi Augusti*”라는 제목으로 전해져온 『연대기』가 통상 아우구스투스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지 않다는 인식에 주목해, 타키투스가 실제로 그에 대해서 서술하지 않았는지를 검토하면서 앞서 본고에서 살펴본 대목에서 특이성을 추출해 내고자 했다. 아우구스투스 사후에 타키투스가 직접적인 평가는 삼가하면서도 그의 서거(*excessus*)와 부재로 인해 초래된 일련의 사태를 체제 자체의 비정상 상태(*excessus*)로 기술하고 있다고 O’Gorman은 분석한다. 그런

154) cf. Ellen O’Gorman. “On Not Writing about Augustus: Tacitus’ “Annals” Book I.” *Materiali e discussioni per l’analisi dei testi classici* 35 (1995): 91-114.

맥락에서 그녀는 “ab excessu Augusti”라는 표현에서 “from Augustus’ death/excess-transgression”를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¹⁵⁵⁾ 티베리우스가 권력 승계 과정에서 떠안아야 했던 것은 아우구스투스의 집안과 그의 체제 및 평화인 동시에 아우구스투스 자체였다(1.4.1: Augustus seque et domum et pacem sustentavit)는 점을 또한 O’Gorman은 강조한다. 따라서 프린키파투스 승계자로서 더 가중한 짐을 티베리우스가 떠맡게 되었기에, 이 프린킵스 권력 세습은 체제 자체의 존속뿐만 아니라 이 최초의 통치자, 마치 서사시의 영웅과도 같은 프린키파투스 창건자¹⁵⁶⁾가 생전에 해낸 역할까지도 적절히 이어 받아 수행해야 했다. 아우구스투스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은, 공화정을 사실상 종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공화정의 명분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수립한 균형 잡힌 모습의 일인 통치 체제의 유지에 있었다. 이렇게, 『연대기』 초반에 기술된 아우구스투스는 이후 후임 프린킵스-황제들이 참조해야 할 혹은 대응해야 할 프린키파투스의 최초 선례로서, 티베리우스는 그에 대한 공모(collusion)로써 자신이 아우구스투스가 설정한 한계와 범위를 넘어서지 않으리라고(se non excessurum) 일종의 자신의 통치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¹⁵⁷⁾ 아마도 그와 같은 태도에 이르기까지, 티베리우스가 권력 승계에 있어서 보여준 망설임과 지연은 전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정치적 가장(假裝)’ 혹은 ‘가장의 정치’¹⁵⁸⁾는, 아우구스투스 체제가 유지되는 수단이었고, 그의 사후 초래된 정치적 혼란 속에서 티베리우스가 원로원에게서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 역시도 그와 같은 정국의 복원이었을 것이다. 아우구스투스 체제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서는 이 새 통치자를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식으로 인정하거나, 혹은 승인하는 듯한 원로원의 자연스러운 지지가 필요했을 것이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티베리우스는 제위를 사양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 과거 아우구스투스처

155) cf. O’Gorman (1995) 113.

156) cf. O’Gorman (1995) 108-109.

157) cf. O’Gorman (1995) 113.

158) cf. Roger Boesche. “The Politics of Pretence: Tacitus and the Political Theory of Despotism.”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8, no. 2 (1987): 189-210.

럼 인정받기를 기다렸다. 기실, 티베리우스가 보여준 이 일종의 가장 ([dis]simulatio)은 그의 품행 혹은 천성의 악덕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주정이었음에도 여전히 공화정의 이름과 유산과 공존하는 듯이 표방했던 프린키파투스 권력을 승계하는 이에게도, 또한 그 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이에게도 필요한 정치적 태도였던 셈이다. 군주정으로서의 로마 제정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¹⁵⁹⁾ 아우구스투스 체제를 일종의 완성되고 완결된 통치체제로 규정한 후대의 역사가는 그가 서거한 직후 로마의 여론을 이렇게 서술했다.

διὰ τε οὖν ταῦτα, καὶ ὅτι τὴν μοναρχίαν τῇ δημοκρατίᾳ μίξας τὸ τε ἐλευθέρων σφισιν ἐτήρησε καὶ τὸ κόσμιον τὸ τε ἀσφαλὲς προσπαρεσκεύασεν, ὥστ' ἔξω μὲν τοῦ δημοκρατικοῦ θράσους ἔξω δὲ καὶ τῶν τυραννικῶν ὕβρεων ὄντας ἐν τε ἐλευθερίᾳ σὺφρονι καὶ ἐν μοναρχίᾳ ἀδεεῖ ζῆν, βασιλευμένους τε ἄνευ δουλείας καὶ δημοκρατούμενους ἄνευ διχοστασίας, δεινῶς αὐτὸν ἐπόθουν.

그리하여 그와 같은 것들(sc. 아우구스투스의 장례에 따른 조치들) 때 문만이 아니라, 그가 군주정을 공화정에 섞어놓음으로써 그들에게 자유와 질서 그리고 안전을 마련해주었기 때문이었는데, 그들이 공화정의 무분별과 참주정의 오만으로부터 벗어난 채 적절한 자유와 두려움 없는 군주정 하에서 굴종 없이 복종하고 또한 불화 없이 공화정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유로도 그를 몹시도 그들은 그리워 했다.

(카시우스 디오, 『로마사』 56.43.4)¹⁶⁰⁾

159) cf. 카시우스 디오, 『로마사』 53.19.1(기원전 27년 기사): “ἡ μὲν οὖν πολιτεία οὕτω τότε πρὸς τε τὸ βέλτιον καὶ πρὸς τὸ σωτηριωδέστερον μετεκοσμήθη· καὶ γὰρ πού καὶ παντάπασιν ἀδύνατον ἦν δημοκρατούμενους αὐτοὺς σωθῆναι.”(그리하여 국가 체제는 그때 더 나은 쪽으로 그리고 더 안전한 쪽으로 바뀌었다. 사실상 그들이 공화정을 누리면서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160) 인용한 대목에서 δημοκρατία 및 관련 동족어(cognates) 번역은, 이하의 자료들에 근거해 “공화정”을 뜻하는 말로 새기고 옮겼다. 1-2세기 그리스 저술가들, 특히 카시우스 디오와 아피아노스가 δημοκρατία 계열의 어휘를 사용할 때에는 “[libera] res publica” 혹은 “republican government”를

그리고 이 역사가는, 이 최초의 프린킵스를 승계해 최고 권력자가 된 이에 대해 그의 치세를 다루기 전부터 아우구스투스 사후의 로마의 여론이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와는 전혀 다른 통치자였던 셈이다.

ταῦτα δὲ ἠπίσταντο μὲν καὶ ζῶντος αὐτοῦ, ἐπὶ πλεῖον δ' ὁμῶς μεταλλάξαντος ἔγνωσαν· καὶ γὰρ φιλεῖ πως τὸ ἀνθρώπειον οὐχ οὕτω τι εὐπαθοῦν τῆς εὐδαιμονίας αἰσθάνεσθαι ὥς δυστυχῆσαν ποθεῖν αὐτήν. ὅπερ που καὶ τότε περὶ τὸν Αὔγουστον συνέβη· τοῦ γὰρ Τιβερίου μετ' αὐτὸν οὐχ ὁμοίου πειραθέντες ἐκεῖνον ἐζητούν. 그가 살아 있을 때에도 그들은 그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서거한 이후 그들은 보다 더 알게 되었다. 사실, 행복한 것을 누리고 있는 인간적인 특성은, 불행을 겪고서 그것(sc. 행복)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실감하지는 못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바가 그때 아우구스투스에 관해서도 사실 맞아 떨어졌다. 사실, 그를 뒤이은 티베리우스가 비슷한 이가 아니란 것을 그들은 알게 되면서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경우 *res publica*를 *res populi*로 이해해 *δημοκρατία*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았나 추정된다. cf. s.v. “*δημοκρατία*” in Hugh J. Mason. *Greek Terms for Roman Institutions: A Lexicon and Analysis*. Toronto: Hakkert, 1974; G. J. D. Aalders. “Cassius Dio and the Greek World.” *Mnemosyne* 39 (1986): 282–304; J. W. Rich. ed. *Cassius Dio: The Augustan Settlement* (Roman History 53.1–55.9). Warminster: Aris & Phillips, 1990, 13; Christopher William Burden-Strevens. “Cassius Dio’s Speeches and the Collapse of the Roman Republic.” Ph.D. Dissertation. Glasgow: University of Glasgow, 2015, 26 n. 67; M.-L. Freyburger-Galland. *Aspects du vocabulaire politique et institutionnel de Dion Cassius*. Paris: De Boccard, 1997. Peter Michael Swan(*The Augustan Succession: An Historical Commentary on Cassius Dio’s Roman History Books 55–56 (9 B.C.–A.D. 1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은 해당 대목 주석에서, 상기 인용문의 초반에 대해 “for these reasons and because, by blending monarchy with Republic, he preserved their freedom for them and brought them order and security as well, ...”라는 번역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Earnest Cary의 *Loeb Classical Library* 번역(1914–1927)에 근거한 현대어 번역이나 인용은 상기 연구 성과들이 반영되지 않아 대체로 축자적인 말로 옮겨지고 있다.

그를 그리워하곤 했기 때문이다.

(카시우스 디오, 『로마사』 56.45.1)

물론, 타키투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티베리우스의 치세를, 특히 그 후반기에 대해서는 폭정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리고 대체로 티베리우스가 집권 초기, 특히 여러 사가들이 강조하고 있듯이 19년 게르마니쿠스가 죽기 전까지는 티베리우스가 비교적 선정을 펼쳤던 것으로 보인다. 카시우스 디오 역시도 20년 이래 티베리우스를 견제할 만한 정치 세력이 사라지고 나서는 그의 행보가 악화 일로로 치달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 이전 시기에는 티베리우스의 통치에 대해 “공화적”(δημοτικός)이라고 기술한 대목을 군데군데 찾아볼 수 있다.¹⁶¹⁾ 그러나 20년 기사 이래로는 티베리우스의 통치기는 전제정으로, 앞에서 카시우스 디오가 예찬한 바 있는 공화정과 공존하는 군주정의 모습과는 다른 면모로 기술되는 경향이 있다. 그가 분석한 것처럼 이것은, 티베리우스로 하여금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그의 행동과 통치에 견제장치가 되었던 인물이 사라졌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티베리우스가 아우구스투스의 권력을 승계하면서 선언했던 것, 즉 이미 군주정과 공화정의 온전치 못한 결탁으로 외관상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만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유지되어 온 프린킵스 지배 체제의 한계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넘어서고야 만 현상으로도 읽을 수 있다. 카시우스 디오에게 이상적으로 보였고 또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실현된 것으로 기록된 이 ‘혼합’ 정체로서의 프린킵아투스¹⁶²⁾는, 그러나 타키투스의 시각에서는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그 한계를 노출하고야 말았고 티베리우스 체제를 맞으면서 점차 일인 지배 체제로 변질되어 간다. 결과적으로 로마 제국의 영토를 넓히지 말라던 아우구스투스의 유훈에 따라 대외 정책에서 있어서는 훌륭한 현상 유지(status quo) 정책으로

161) 예컨대, 카시우스 디오, 『로마사』 57.8.3, 9.1, 15.9 참조.

162) 『연대기』 4.33.1-2 참조. 타키투스는 혼합 정체가 이상적인 데 반해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논평한다. 그리고 로마 공화정이 바뀐 이래 일인 통치 외에는 국가가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치세를 마감하기는 했지만, 원로원과의 관계, 도시 로마 내부의 정치에 있어서 티베리우스의 프린킵스 지배 체제는 상당한 부작용을 표출하고야 말았다. 그것은, 『연대기』 초반 타키투스의 서술에서 읽을 수 있듯이, 아우구스투스의 프린킵아투스¹⁶³가 군주정과 공화정 사이의 불완전한 결합이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최초로 프린킵스라 불린 이와 그의 원로원은 그 과도기 동안 훌륭히 역할을 수행해냈지만, 그의 사후 전제군주정(dominatio)이 아닌 프린킵스 체제(principatus)라 불린 정치체제는 권력자와 원로원으로 하여금 모종의 ‘가장(假裝)의 정치’를 요구하게 했다. 그리고 과도한 지배로 인한 폭정, 그에 복종하거나 항거하면서 과도해지는 원로원의 대응으로 인해 이 암묵적인 정치 역할극이 깨지게 되면, 체제 내부에 위기가 찾아오곤 했다. 그런 점에서 『연대기』 초반의 이른바 ‘프린킵아투스의 시초에 대한 서술’(archaeology)은, 이미 타키투스가 진단한 바 있듯이, 이미 오래전부터 화합할 수 없었던(res olim dissociabiles) 군주정과 공화정이 균열되는 시점을 가리켜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프린킵아투스와 자유, 그 둘을 성공적으로 조화시켰던 것은 훌륭한 프린킵스, 아우구스투스뿐이었다. 『연대기』를 비롯해 도미티아누스 치세에 이르는 1세기 프린킵아투스의 역사를 기록한 타키투스의 역사서는, 이 두 기표(記表)와 기의(記意)의 오랜 괴리로 인해 ‘부서진 세계’(broken world)를 담고 있다.

그러나 타키투스는 카시우스 디오와는 달리 아우구스투스 서거 이후 티베리우스의 치세를 일시에 변질되거나 타락한 시기로 기술하지는 않았다. 앞에서 분석한 이른바 ‘프린킵아투스의 시초에 대한 서술’ 이후 새 프린킵스 티베리우스의 통치는, 『연대기』 내에서 연대기적 서술 형식과 마찬가지로 그 불완전한 면모를 수면 아래로 감추며 적어도 겉보기에는 정상 궤도에 오른 것처럼 보인다. 이는 티베리우스가 치세 내내 의도했던 혹은 보여주었던 가장(假裝)의 정치¹⁶³가 권력 승계 이후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이 점은 『연대기』 제4권 초반에서

163) cf. 『연대기』 6.50.1: “iam Tiberium corpus, iam vires, nondum dissimulatio deserebat”.

타키투스가 티베리우스의 치세에 대해 일종의 분수령처럼 평가하는 23년까지의 서술¹⁶⁴⁾에서 비교적 잘 드러난다. 예컨대, 집권 첫 해인 14년 게르마니아 주둔 군단들 내의 소요 사태에 대해 티베리우스가 대처한 바를 기록한 이하의 대목(『연대기』 1.47.1-3)에서 이 새 프린킵스의 통치 방식의 한 면모가 잘 드러난다.

immotum adversus eos sermones fixumque Tiberio fuit non omittere caput rerum neque se remque publicam in casum dare. multa quippe et diversaangebant ... 3. ceterum ut iam iamque iturus legit comites, conquisivit impedimenta, adornavit navis: mox hiemem aut negotia varie causatus primo prudentis, dein vulgum, diutissime provincias fefellit.

§1. 그 얘기들에 맞서 티베리우스에게, 국가 수도를 떠나지 않는 것, 자신과 국가를 요행에 맡기지 않는 것은 변함없이 확고한 일이었다. 사실, 많고 다양한 것들이 골치를 썩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 §3. 그런데 사실, 그는 언제고 곧 떠날 요량으로, 동료들을 골라두었고, 행랑을 꾸려두었고, 배들을 갖춰놓았다. 다음으로 겨울 혹은 바쁜 업무를 이리저리 핑계 삼으면서 그는 우선 분별 있는 이들을, 그리고 나서는 군중을, 가장 오랫동안 속주들을 속였다.

후대 요강(要綱)이나 적요(摘要)의 형태의 역사서들¹⁶⁵⁾이 티베리우스 치세의 대외 정책 중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기록하면서 또한 비난거리로 삼기도 하는¹⁶⁶⁾ 17년의 카파도키아 속주 편입 기사 역시도 한편으로는 기망으로써 아르켈라오스 왕을 로마로 소환해 그를 제거하는 티베리우스의 무자비한 면모를 보여주지만, 달리 보자면 이는 티베리우스의 외교 내지는 대외 정책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이처럼 티베리우스는 통치 초반에 수도 로마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제국 내외의 문제

164) cf. 『연대기』 4.6.1: “Tiberio mutati in deterius principatus initium ille annus attulit”.

165) 『연대기』 2.42 참조.

166) 이 역사서들에 대해서는 본고 IV장 2절 참조.

를 대체로 효과적으로 다루고 처리했다. 이 점은, 프린키퍼투스 권력의 승계 내정자이자 자신의 양자였던 게르마니쿠스에 대한 티베리우스의 대처와 관리에서도 확인된다. 게르마니쿠스는 19년 제국 동부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기까지, 아우구스투스 치세 말년에 티베리우스가 그러했듯이 권력의 2인자로서 주요 전선과 속주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실제로 게르마니쿠스라는 인물이 표방한 정치적 색채나 입장이 어떠했는지는 한결 세밀한 문헌사료 분석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타키투스는 『연대기』 초반에서 직접적인 평가보다는 당시 로마 대중의 여론이나 풍문 등의 형식으로 기록해 이 인물이 공화정의 유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티베리우스 통치기 전반부(14-22년)를 다룬 『연대기』 첫 세권을 닫으며, 소(少) 카토의 조카이자 마르쿠스 브루투스의 누이였던 유니아라는 여인의 죽음과 장례를 서술한 대목(3.76)은 사실상 공화정에 대한 기억마저도 끝자락에 이른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게르마니쿠스의 죽음 이후의 정국과 여론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1. et Iunia sexagesimo quarto post Philippensem aciem anno supremum diem explevit, Catone avunculo genita, C. Cassii uxor, M. Bruti soror. testamentum eius multo apud vulgum rumore fuit, quia in magnis opibus cum ferme cunctos proceres cum honore nominavisset Caesarem omisit. 2. quod civiliter acceptum neque prohibuit quo minus laudatione pro rostris ceterisque sollemnibus funus cohonestaretur. viginti clarissimarum familiarum imagines antelatae sunt, Manlii, Quinctii aliaque eiusdem nobilitatis nomina. sed praefulgebant Cassius atque Brutus eo ipso quod effigies eorum non visebantur.

§1. 그리고 유니아가 필리피 전투 64년 되는 해에 유명을 달리했는데, 카토를 백부로 하여 태어났고, 가이우스 카이사르의 아내이자, 마르쿠스 브루투스의 누이인 인물이었다. 그녀의 유언장은 군중 사이에서 많은 풍문에 싸이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막대한 재물을 두고서, 거의 모든 유력인사들을 영예롭게 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사르는 생략했기 때문이다. §2. 그 점은 시민다운 태도로 받아들여졌고, 연단 앞에서

의 송덕 찬사와 여타 다른 의식들을 통해 장례식이 영예롭게 되는 것을 그는 금지하지 않았다. 스무 개의 아주 유명한 가문들의 조상(彫像)들이 앞서서 운반되었고, 마닐리우스 가문, 퀸크티우스 가문 그리고 여타 같은 귀족에 속하는 이름들이 있었지만, 카시우스와 브루투스가 단연 돋보이고 있었는데, 그들의 조각상이 눈에 띄지 않았기에 바로 그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티베리우스 치세 후반기는, 적어도 타키투스의 서술 내에서는 정치적 맞수처럼 그려진 게르마니쿠스의 죽음 이후 급속도로 달라졌다.¹⁶⁷⁾ 타키투스는 게르마니쿠스의 죽음을 티베리우스가 배후 조정한 것처럼 기술하고는 있지만, 『연대기』 전반에 걸쳐 통치자 티베리우스는 게르마니쿠스를 비롯해 훗날 세야누스에 이르기까지 거둬들여 자신의 통치를 보조해줄 협력자(adiutor)나 동료(socius)를 두고자 했다. 그 성품과 관련해 티베리우스가 세야누스 제거 이후 보여준 행보로 인해 폭군/참주의 예형이라는 평가가 고착화되었지만,¹⁶⁸⁾ 타키투스의 역사서술 전반을 살펴보면 티베리우스의 행보가 일관되게 참주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그 점에서 읽을 수 있다. 또한, 티베리우스 치세 전반을 게르마니쿠스, 드루수스 사후 그러니까 19/23년을 분기점으로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타키투스를 비롯해 고대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앞에서 살펴본 군대나 속주 관리, 재정 정책 등 행정면에서 티베리우스의 통치기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점¹⁶⁹⁾ 역시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티베리우스 통치기는 『연대기』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암울하게 기술되

167) cf. 카시우스 디오, 『로마사』 57.13.6: “ταῦθ' οὕτω πάντα μέχρι γε καὶ ὁ Γερμανικὸς ἔζη ἐποίει· μετὰ γὰρ τοῦτο συχνὰ αὐτῶν μετέβαλεν”.

168) cf. 윌러 뉴웰, 『폭군 이야기: 시대를 움직인 뒤틀린 정의』, 우진하 옮김, 서울: 예문아카이브, 2017, 12-14. 이 책에서 ‘폭군 이야기’는 티베리우스에게서 시작하는데, 황제라는 지위를 아우구스투스가 만들고 티베리우스가 공고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기도 한다.

169) cf. H. H. Scullard. *From the Gracchi to Nero: A History of Rome 133 BC to AD 68*. New York: Routledge, 2010, 230-236. 또한, 프리츠 하이켈하임, 『로마사』 김덕수 옮김, 고양: 현대지성사, 1999, 629-630, 로버트 스테이시, 주디스 코핀, 『새로운 서양 문명의 역사 상(上): 문명의 기원에서 종교개혁까지』 박상익 옮김, 서울: 소나무, 2014, 275-277 참조.

고 특히, 26년 로마를 떠난 이래 모친 리비아와 소원해지면서 세야누스와의 결탁을 공고히 하거나 권력을 위임하고자 한 측면은 결국에 세야누스의 음모와 그의 제거 이후에 말 그대로 압제와 공포의 양상을 더욱 짙게 보여주었다.¹⁷⁰⁾ 원로원에 권력을 일부 위임하기도 하고 조력자를 통해 통치하고자 했던 티베리우스의 통치 초반기를 기술하면서 “그 당시에도 죽어가고는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의 흔적은 남아 있었다”(1.74.5: *manebant etiam tum vestigia morientis libertatis*) 평했던 타키투스는, 프린키퍼투스가 사실상 일인 지배 체제라고 인정한 이래(4.33) 티베리우스 치세의 끝자락에 이르러 이 프린키퍼스의 심리 상태에 대해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원용해¹⁷¹⁾ 이렇게 평가했다(6.6).

insigne visum est earum Caesaris litterarum initium; nam his verbis exorsus est: 'quid scribam vobis, patres conscripti, aut quo modo scribam aut quid omnino non scribam hoc tempore, di me deaeque peius perdant quam perire me cotidie sentio, si scio.' adeo facinora atque flagitia sua ipsi quoque in supplicium verterant. 2. neque frustra praestantissimus sapientiae firmare solitus est, si recludantur tyrannorum mentes, posse aspici laniatus et ictus, quando ut corpora verberibus, ita saevitia, libidine, malis consultis animus dilaceretur. quippe Tiberium non fortuna, non solitudines protegebant quin tormenta pectoris suasque ipse poenas fateretur.

§1. 인상적인 것은 카이사르의 그 편지의 도입부였는데, 실상 이러한 말들로 그는 시작했기 때문이다. “무엇을 여러분께 써야할지, 원로원 의원 여러분! 혹은 어떻게 써야할지, 혹은 무엇을 이 시점에 전적으로 쓰지 않아야 할지 내가 알고 있다면, 신들께서 나를 그리고 여신들께서 더 좋지 않게 파멸시키시기를. 나 자신 매일 죽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행과 추행이 바로 그 본인에게 처벌로 바뀌었었다. §2. 그리고 철학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이가 공연

170) cf. 『연대기』 5.3.1: “ceterum ex eo praerupta iam et urgens dominatio”.

171) cf. A. J. Woodman. ed. *The Annals of Tacitus: Books 5 and 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ad loc.* 또한, 플라톤의 『고르기아스』 524e에서 논의된 참주/폭군의 심상도 참조.

히 확신하곤 했던 것은 아니었다. 즉, 폭군들의 정신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찢기고 맞은 것들이 들여다봐질 수 있다고, 마치 몸이 매질에 그러하듯이, 사나움, 정욕, 못된 생각들로 인해 정신이 찢기게 될 때에 말이다. 사실, 티베리우스를, 유복함도 고립생활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었으니, 가슴속 고통과 자신의 형벌을 본인이 직접 실토하지 않게 할 정도로는 말이다.

위기를 타개해 나가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거대 제국 로마에 통치 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했다는 점은 『연대기』 제1권 초반에서 기술된 권력 승계 과정에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프린키파투스의 비결은 그것이 권력의 수렴과 일인자의 독점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에 과거 공화정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프린키프스’ 티베리우스의 가장 혹은 위선의 정도에 따라서 체제 내의 안정이나 불확실성이 달라졌음을 『연대기』 첫 여섯 권은 보여준다. 그러나 타키투스가 티베리우스를 단정적으로 참주(tyrannus)라고 지목하는 대목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서술하는 위의 인용문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제국 로마가 참주살해(tyrannicidium)의 해를 맞게 되는 것은, 41년 가이우스가 살해될 때였다. 『연대기』 제6권 후반부에서 가이우스의 학정을 암시하는 대목¹⁷²⁾ 그리고 서문에서의 표현(1.1.2: Tiberii Gaique et Claudii ac Neronis res) 등은 티베리우스가 승계한 프린키파투스가 그의 치세 후반부 방임으로 말미암아 가이우스의 폭정으로 귀결되는 것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공화정 회복’ 이후 맞게 된 프린키파투스의 부작용과 자의성, 즉 나쁜 군주의 통치라는 위험요소를 읽을 수 있는 단서이다.

아우구스투스가 아닌, 또한 기원전 27년 ‘공화정의 회복’ 선언 이래 『업적록』 (*Res gestae*)에서 그려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아우구스투스의’ 프린키파투스가 아닌 티베리우스 치세, 특히 그가 권좌를 공식적으로 차지하게 되는 집권 초반에 대한 서사는, 타키투스가 일찍이 진단했던

172) cf. 『연대기』 6.47.1: “interim Romae futuris etiam post Tiberium caedibus semina iaciebantur”. 또한 6.48과 6.46.3에서 각각 아룬티우스와 티베리우스가 장차 가이우스 시대에 대해 예언조로 설명하는 대목도 참조.

“오래전부터 화합할 수 없었던” 두 개의 체제의 균열과 위태로운 결탁이 노출되었던 시기였다. 티베리우스 집권 초반의 불안정, 체제 유지와 언론 통제의 수단으로 남용되었던 대역죄 관련 존엄[훼손]에 관한 법(*lex maiestatis*)과 이를 굴종적으로 오용했던 전문 고발꾼들(*delatores*)에 대한 방임 등 티베리우스의 치세는 그 후반부로 갈수록 전제 군주 지배 체제의 면모를 보였다. 이 때문에 그의 불행했던 개인사¹⁷³⁾, 성격적 결함이나 장애¹⁷⁴⁾를 그의 통치 실패, 학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실상의 일인 통치자의 자의에 따라 운영될 위험요소를 가진 프린키퍼투스 자체의 속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대기』 제6권에서 다루지는 37년 서사를 그해의 마지막 주목할 만한 사건이나 한 해 전체를 갈무리하는 서술로 단지 않고, 3월 16일 티베리우스의 죽음을 알리는 이른바 부고(訃告) 기사로 끝맺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의 ‘연대기’ 서술 양식이 이 지점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컨대, 과거 연도별로 정무관을 선출하고 그에 따라 국가사와 정치 전반을 기술하던 공화정기의 역사서술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연대기』 초반 티베리우스의 프린키퍼투스

173) 전반적으로 이 점이 두드러지는 선행 연구는, Robin Seager의 것(*Tiberius* (2nd ed.). Malden, MA: Wiley-Blackwell, 2005. (1st ed. 1972))이 대표적이다.

174)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 Gregorio Maranon. *Tiberius: The Resentful Caesar*. New York: Duell, Sloan and Pearce, 1956이 있다. 보다 최근의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티베리우스의 성격에 대한 분석한 것은, Stephanie Romkey. “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and the Enigmatic Personality of Emperor Tiberius.” MA Thesis. Hamilton, Ontario: McMaster University, 2006이다. 그녀는 타키투스를 비롯해 문헌 자료들에 기록된 징후와 증상을 토대로 신경정신의학 임상학의 자문을 통해 티베리우스의 강박성 성격 장애(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를 분석하고자 했다. 미국정신의학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은 2013년 개정판 이후 DSM-5로 약칭되는데 이에 따르면, Romkey가 DSM-IV에 근거해 진단한 강박성 성격 장애는, C군 성격 장애 중 하나로 분류된다. Romkey의 논문 말미에 첨부된 Appendix A에는 티베리우스, 수에토니우스 등 티베리우스에 대한 기록을 담은 문헌들 중에서 강박성 성격 장애의 징후에 해당되는 요소들 별로 전거를 분류해 제시하고 있다.

스 권력 승계 서사와 수미일관하여 프린키파투스 시대의, 나아가 제정기의 역사서술은 이제 체제 자체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일인 통치자 프린킵스를 중심으로 그의 치세를 하나의 서술 단위로 삼아 구성될 것이다. 타키투스가 티베리우스의 길었던 치세를 다루면서 그 끝자락에서 결국에는 티베리우스의 ‘품행’(mores)에 대한 평가로 그의 통치 시기(tempora)를 요약하는 것은, 프린키파투스 체제가 사실상 통치자 개인의 성품과 정책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일인 지배 체제 시대를 다룬 역사서술의 성격 역시도 전기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 보이는 대목이다. 이하 IV장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Ⅳ. 『연대기』에서 티베리우스 치세 서술의 의미

1. 타키투스의 티베리우스 치세 서술

티베리우스는 자신이 이어 받은 프린키파투스를 23년에 가까운 세월에 걸쳐 결과적으로 존속시켰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후계자 선정과 권력 승계 문제가 황가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갈등과 음모, 그리고 외부자의 개입으로 인해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다는 점, 그로 인해 제고된 근위대장 세야누스에 대한 신임과 권력 할양 등 결국에는 프린키패스가 독점하고 전용해야만 했던 것들이 외부에 일부 위임되고 최고 통치자 본인은 수도 로마를 떠나 부재하며 원격 통치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 마지막 시기, 그러니까 26년부터 장기화된 티베리우스의 카프레아이(Capreae) 섬 은거 생활은 사실상 정상적인 프린키파투스와는 거리가 떨어진 결과를 낳게 되었다. 더욱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통치 양상은 아우구스투스의 프리키패스 체제와는 더욱 큰 괴리가 있었다. 결국 죽기 전까지 수도 로마로 한 걸음도 들여놓지 않은 통치자 티베리우스는, 도시 로마를 가진 통치 권력자였음에도 언제나 부재함으로써 로마 정가에 항상 불확실성을 키워놓았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로마 원로원의 예측과 굴종을 가속화하고 고착화한 주된 원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6년 이래 카프레아이 섬에서 사실상 은둔 생활을 해온 티베리우스는 37년 3월 16일 결국 로마로 돌아오지 못하고, 87세를 일기로 불귀의 객이 된다. 『연대기』 제6권 51장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죽음 이후 그의 생애를 되짚어 보는, 소위 ‘부고(訃告)’(ἐπιτάφιος) 기록인 셈이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순서 여부와는 별개로, 특정한 한 해의 서술 끝자락에 혹은 『연대기』 각 권의 마지막 대목을 어느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맺는 것은 타키투스의 역사서술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이다. 중요하거나 비중 있는 인물의 죽음 이후에 덧붙여지는 그의 생애에 초점을 맞춘

잘막한 기사(記事)는 주로 전기(傳記)에서 다루어지는 요소들(가령 genus, forma, mores 등)로 채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⁷⁵⁾

... sic Tiberius finivit octavo et septuagesimo aetatis anno.

51. 1. Pater ei Nero et utrimque origo gentis Claudiae, quamquam mater in Liviam et mox Iuliam familiam adoptionibus transierit. casus prima ab infantia ancipites; nam proscriptum patrem exsul secutus, ubi domum Augusti privignus introiit, multis aemulis conflictatus est, dum Marcellus et Agrippa, mox Gaius Luciusque Caesares viguere; etiam frater eius Drusus prosperiore civium amore erat. 2. sed maxime in lubrico egit accepta in matrimonium Iulia, impudicitiam uxoris tolerans aut declinans. dein Rhodo regressus vacuos principis penates duodecim annis, mox rei Romanae arbitrium tribus ferme et viginti obtinuit. 3. morum quoque tempora illi diversa: egregium uita famaue quoad privatus uel in imperiis sub Augusto fuit; occultum ac subdolum fingendis virtutibus donec Germanicus ac Drusus superfuere; idem inter bona malaque mixtus incolumi matre; intestabilis saevitia sed obtectis libidinibus dum Seianum dilexit timuitve: postremo in scelera simul ac dedecora prorupit postquam remoto pudore et metu suo tantum ingenio utebatur.¹⁷⁶⁾

…… §3. 그의 품행 역시 시기마다 달랐다. 그가 사인(私人)이었거나 아우구스투스 치하에서 권력을 갖고 있었을 때까지는 삶이나 평판 면에서 훌륭한 시기였다(-14년). 게르마니쿠스와 드루수스가 살아 있을 때까지는 덕성을 꾸며냄으로써 드러나지 않고 음흉한 시기였다(-19/23

175) Fornara는 고대 역사가들이 특정 인물, 특히 통치자에게 흥미를 느껴 역사 서술을 기획하는 경우에 대한 사례를 열거하는데, 타키투스의 경우에는 티베리우스를 거론한다. cf. Fornara (1983) 185-186.

176) 티베리우스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비교할 만한 병행 사료들은 이하와 같다. 수에토니우스, 「티베리우스」 73.1; 카시우스 디오, 『로마사』 58.28.5; 에우트로피우스, 『로마 사략(史略)』 7.11.3; 아우렐리우스 빅토르 (Aurelius Victor), 『약사(略史)』 3.1; 저자 미상 『적요(摘要)』 2.10; 오로시우스, 『반 이교도사』 7.4.1. 이 문헌사료들에 대해서는 이하 2절의 논의를 참조.

년). 또한 그는 모친이 무사한 시절에 선과 악 사이에 뒤섞여 있었다(-29년). 그가 세야누스를 아끼거나 두려워했던 때에는 사나움이 끔찍했지만 욕정은 감춰두고 있었다(-31년). 끝으로 수치심과 두려움이 제거되고 그가 다만 자신의 능력에만 의존하게 된 이후로 그는 죄악과 치욕 속으로 돌진해 들어갔다(-37년).

최근 A. J. Woodman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논쟁은,¹⁷⁷⁾ 3절 초반에 등장하는 “*morum quoque tempora illi diversa*”의 번역과 관련된 것으로 *Thesaurus linguae Latinae*에서 표제어 “*mos*”¹⁷⁸⁾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institutum consuetudine et indole firmatum*”으로,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될 경우의 유의어로 그리스어 *τρόπος*를 덧붙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 언급된 문제시 되는 대목은 *Oxford Latin Dictionary*의 경우, 5항의 뜻¹⁷⁹⁾을 참고하여 새기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 대목에서 *morum*을 번역자나 연구자들이 대체로 근현대어의 “character”와 관련된 어휘로 옮겨놓고 있는데,¹⁸⁰⁾ 이 경우 마지막에 *ingenium* 번역과 맞물려 해석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티베리우스의 생애를 총 다섯 시기로 나누어 간략히 정리하고 있는 이 대목에 대해서, 그가 다른 인물들로 인해 자신의 본성(*ingenium*)을 감추고 가리고 있다 그 인물들이 모두 제거된 뒤에야 비로소 위선(*dissimulatio*)의 가면을 벗고 본색을 드러냈다는 점을 타키투스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이었다.¹⁸¹⁾ 여기에는 고전고대 인물의 타고난 혹은 고정된 성격

177) cf. A. J. Woodman. ed. *The Annals of Tacitus: Books 5 and 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178) cf. 8.0.1522.36-1529.41; 퀸틸리아누스, 『연설가 교육』 6.2.8: “ἥθος, cuius nomine, ut ego quidem sentio, caret sermo Romanus: mores appellantur, atque inde pars quoque illa philosophiae ἡθικὴ moralis est dicta.”

179) *OLD* 5: “(usu. pl.) habitual conduct (of an individual or group), character, disposition, ways.”

180) cf. “caractère”(Wuilleumier 2003), “character”(Yardley 2008), “character”(Damon 2012).

181) 이 경우, 한 인물의 “character”가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Martin(ed. & tr. *Tacitus: Annals V & VI*. Warminster: Aris & Phillips, 2001)이나 Woodman(tr. *The Annals*.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이 바뀔 수 있는지¹⁸²⁾ 그 여부에 대한 논쟁도 함축되어 있는데,¹⁸³⁾ Woodman이 제기한 해법에 따라 타키투스가 강조했던 것은 티베리우스의 위선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혼자서 자신의 능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일인 통치자의 자기소외 과정이 압축적으로 표현돼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해석이 티베리우스와 그의 치세를 그린 타키투스의 서술의 성격을 입체적으로 규명해 줄 것이다. 다시 말해, 통치자로서의 결격 사유로 다만 티베리우스 개인의 품행의 악덕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로서의 티베리우스의 대처와 정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폐쇄적인 방향으로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말이다. 권력과 통치와 관련해 티베리우스가 조력자 내지는 일부분 위탁자로 삼을 만한 이들이 죽음과 배신 등으로 사라짐에 따라서, 결국 그의 치세 후반에는 모든 권력이 그에게 수렴하게 되는데, 역설적이게도 그는 그러한 과정에서도 수도 로마에 부재하게 된다. 이 부재하는 일인 통치 권력은, 과거 공화정에서 사실상 인민의 의지와 권력의 수탁 기관인 로마 원로원을 불안에 빠뜨리게 되는데 그로 인해 강화되는 것은 프린킵스와 원로원 사이의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근위대장과 프린킵스의 측근 세력으로 부상한 황실 내관, 해방노예 등이었다. 이는 세야누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가이우스가 티베리우스를 승계하게 되는 과정에서 보다 여실히 드러나며 이후 『연대기』에서 이들 프린킵스 측근 세력은 그들 자신과 프린킵스 권력의 전유(專有)와 전횡의 빌미가 된다.

한편, 이 다섯 시기가 고전기 비극에서 권장했던 5막 구성¹⁸⁴⁾에 상응

Company, 2004)의 번역처럼, “morum”을 “behaviour”로 옮기면 일차적인 쟁점은 사라지는 듯하다. 이는 앞에서 살펴 본 사전류나 몇 차례에 걸쳐 Woodman 자신이 제시한 근거들에 비추어 타당한 해석으로 보인다. 다만, Martin은 전통적인 해석을 고수했다.

182) 박광순 (2005)은 “그의 성격도 또한 운명과 함께 변했다. …… 그 자신의 본성에만 따르게 되고 나서부터는……”로 옮기고 있다. 손태창 (2017)은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cf. Christopher Gill. “The Question of Character-Development: Plutarch and Tacitus.” *The Classical Quarterly* 33, no. 2 (1983): 469-487.

183) 관련된 논쟁과 Woodman의 최종적인 입장은, Woodman (2017)의 해당 주석과 302-315 참조.

184) 호라티우스, 「시학」 189-190: “Neue minor neu sit quinto productior

한다고 지적인 Woodman의 해석 또한 『연대기』 첫 여섯 권을 재검토하는 데 참고할 만한 요소가 된다. 시기 별로 그에 해당하는 연대에 따라 작품 구조를 나누면 이하와 같다.

- 1) 서기 14년 아우구스투스 사망까지: 제1권 2 - 5장
- 2) 서기 19년/23년 게르마니쿠스/드루수스 사망까지: 제1권 6장 - 제3권 3장/제4권 17장
- 3) 서기 29년 리비아 사망까지: 제4권 18장 - 제5권 단편5장
- 4) 서기 31년 세야누스 사망까지: 제5권 단편5 - 단편11장
- 5) 서기 37년 티베리우스 사망까지: 제6권 전체

서술의 분량이나 비중 등을 감안해 보면, 구성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도식적 해석을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연대기』 제1-6권의 서사 구성(emplotment)과 관련해 ‘비극적’¹⁸⁵⁾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듯하다. 티베리우스의 죽음으로 잠정적으로 와해된 공포와 위기가 결코 세계 내의 화해와 평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말이다. 타키투스가 티베리우스의 치세 서술을 마치면서 덧붙였던 것처럼, 일인 통치자의 악덕으로 인해 전제정으로 쇠락할 가능성이 높은 군주정이라는 정치체제는 결국 가이우스의 전제적 폭정을 낳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티베리우스가 세야누스의 축출 이전까지 보여준 일종의 정치적 실험들은 시행착오를 거쳐 클라우디우스 치세에 로마 제국의 관료제 정비에 이르는 길을

actu / fabula, quae posci uult et spectanda reponi”(작품이 인기를 끌고 자주 상연되자면 5막보다 짧아서도 안 되고 길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말 번역은 천병희 [2002]에서 인용한 것이다) Woodman(ed. *The Annals of Tacitus: Book 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12)은 여전히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기한다.

- 185) 역사가가 역사서술에 임할 때, 즉 역사적 사건(event)을 역사적 사실(fact)로 구성할 때 근본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구성 양식은 로맨스, 희극, 비극, 풍자라고 주장한 헤이든 화이트 식의 다른 ‘도식’에 따른다면 ‘비극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헤이든 화이트, 『메타역사』, (천형균 옮김, 2013), 22-23, 29-30과 안병직 (2004) 41-42 참조.

예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¹⁸⁶⁾

권력의 협조자(adiutor)나 동료(socius)를 의식하고 동반 통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던 일인 통치자(princeps) 티베리우스의 시도에서 공화정 혹은 공화주의의 유산을 읽을 수 있다면,¹⁸⁷⁾ 결과적으로 그의 생각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셈이다. 아우구스투스 이래, 그리고 타키투스의 분석대로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 이후 실질적으로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 더 이롭고 중요해진 터에,¹⁸⁸⁾ 자신의 기도가 실패하리란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더라도, 혹은 뒤늦게 깨닫게 되었더라도 티베리우스가 맞게 된 말년은 상당히 피폐해졌을 것으로 보인다.¹⁸⁹⁾ 아우구스투스가 임종 얼마 전 자신의 삶을 희극 공연에 빗대었다는 기록¹⁹⁰⁾에 비추어 보자면, 티베리우스의 생애와 그 시대가 유난히도 더 그늘져 보였을 것이다.¹⁹¹⁾

그런데 타키투스를 “절대주의의 해설자이자 비판자”¹⁹²⁾라고 평가하거나, 그의 역사서를 공화주의자의 입장에서 읽게 되면 타키투스 적과 (Tacitismo rosso), 반대로 절대왕정을 지지하고 순응해야 할 근거를 찾아 읽게 된 독자들은 타키투스 흑과 (Tacitismo nero)¹⁹³⁾로 분류될 수도

186) cf. Robin Seager. *Tiberius* (2nd ed.). Malden, MA: Wiley-Blackwell, 2005 (1st ed. 1972), 209-210.

187) 이와는 달리, 티베리우스 권력 체제의 계승과 관련된 정쟁에 주목한다면 그의 치세 전반을 “황계계승권 경쟁”의 구도 하에서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김상엽 (2013) 200-201 참조.

188) cf. 『역사』 1.1.1: “postquam bellatum apud Actium atque omnem potentiam ad unum conferri pacis interfuit”.

189) cf. 노(老) 플리니우스, 『자연사』 28.34: “Tiberium Caesarem, tristissimum, ut constat, hominum”. 반면에 동일한 저자가, 자신의 작품을 헌정하는 이를 칭하는 대목에(*ibid.* praef. 1) 이와는 대조적인 표현이 나온다. 그가 “iucundissime Imperator”라고 부르는 이는 티투스 황제이다.

190) cf. 수에토니우스, 「아우구스투스」 99.1. 또한, 본고 88쪽과 각주 148 참조

191) 또 하나 덧붙일 수 있는 전거가 있다. 수에토니우스, 「티베리우스」 70.3: “Maxime tamen curavit notitiam historiae fabularis usque ad ineptias atque derisum”.

192) cf. 이종숙, 「르네상스 영국에서의 Tacitus와 타키투스주의」, 『서양고전학연구』 9 (1995): 101-132, 특히 109-112; P. Burke. “Tacitism.” in *Tacitus*. ed. by T. A. Dorey, London: Routledge, 1969, 149 - 171.

있었던 16-18세기 유럽에서의 영향사를 참조하여, 타키투스의 역사서술에서 두 가지 상반된 정치적 경향이나 이념을 읽어내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가 그려낸 티베리우스의 통치기에도 ‘적과 흑’이라는 수식어를 더해 봄 직할 것이다. 아우구스투스의 유훈을 토대로 현상유지(status quo) 정책을 기조로, 게르마니쿠스나 드루수스 등에게 통치 권력을 일부 할양하여 공화정기의 정무 구조의 성격을 유지하고자 한 점, 원로원에 상당 부분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 점 등에서 티베리우스의 통치 전반기에는 공화정의 후예가 보기에 납득할 만한 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점은 앞에서 주목한 바 있는,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체제를 티베리우스가 승계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드러난 바 있다.

반면에 이후 티베리우스의 개인사적 불행과 그로 인한 타인에 대한 불신, 원로원 의원들에 대한 실망, 측근들의 사망과 배신 등이 그를 점차 고립시키고 급기야는 통치 권력의 중심지인 로마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이 로마 정국에 불안, 나아가 공포를 야기했고 이는 일인 통치자의 권력 행사가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게 되었다. 말년에 이르러 홀로 오롯이 자기 자신의 능력에만 의지하게 된 통치자 티베리우스는, 이후 황제 치하의 로마 제국에서 몇 차례 다시 등장하게 될 폭군(tyrannus)의 예형(豫型, prefiguration)¹⁹⁴⁾으로 남게 되었다. 앞에서 그 해석 가능성에 대해 논했던 바가 타당하다면, 타키투스의 보이지 않는 호소가 겨냥하고자 한 바가 여기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를 토대로 『연대기』 제6권 51장을 읽을 때, 여기에 더해 연설문에 대한 고전수사학의 구조 분석에 따라 이 대목을 뗏음말로 치환해 읽게 되면 조금 더 과감한 해석이 가능할 듯하다. 오늘날 문헌 전승 그대로 타키투스가 『연대기』의 첫 여섯 권, 다시 말해 아우구스투스 사후 첫 프린킵스에 대한 기록을 ‘끝맺고자’ 했다면¹⁹⁵⁾ 이 대목은 말하자면 일종

193) 이 용어들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20년대 Giuseppe Toffanin으로 알려져 있다. 이종숙 (1995) 각주 5), Burke (1969) 참조.

194) 시대적으로는 그러하지만, 타키투스의 역사서 집필 순서에 따라서는 도미티아누스가 더 먼저 폭군으로 그려졌을 것이다. 티베리우스에게는 그러한 잔상이 남아 있거나 혹은 보다 전략적으로 다듬어진 모습이 씌워졌을지도 모른다.

의 결어(ἐπίλογος; peroratio/conclusio)¹⁹⁶⁾라고 볼 수 있다. 수사학 이론 체계 내에서 전통적으로 연설문의 결어는 전체 내용 요약(enumeratio), 청중의 의분이나 연민 북돋기(indignatio, conquestio)로 구성된다. 그러나 역사서술(res gestas scribere)에서 삼가야 할 요소로 불편부당성¹⁹⁷⁾을 상기한다면, 3절의 표현들은 일종의 목록처럼 시기마다 달라진 티베리우스의 ‘생애’에 대해 열거만 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맺음말로써 청중 혹은 독자에게 어떤 인상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래서 14년에서 37년까지의 ‘시대’를 요약하면서 동시에 비평하고자 한 의식이 담겨져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 그 단서는 “morum tempora”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원전 문헌이나 사전류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직접적으로 “morum”과 “tempora”가 한 의미 단위나 문장 단위에서 사용된 사례는 없었다.¹⁹⁸⁾ 어형을 바꾸어 검색했을 경우, *BTL Online*에서 확인한 “mores”와 “tempora”가 함께 사용된 용례들 중 상당수는 익히 알려진 키케로의 「카틸리나 규탄 제1연설」(*Oratio prima in Catilinam*)의 “o tempora, o mores!”와 관련된 전거들이다.¹⁹⁹⁾ 제정기에도 익히 알려지고 오남용되기도 해서 유명한 표현이었던²⁰⁰⁾ 키케로의 이 호소를 타키투스가 만약 의식적으로 변용해 이를

195) 제6권의 마지막 대목은 이 지점이 아니라 티베리우스의 장례식과 관련된 내용이었을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cf. Clifford Ando, “Tacitus, Annales VI: Beginning and End.” *Th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118, no. 2 (1997): 285-303.

196) 키케로, 『연설가에 대하여』 1.98-109 (enumeratio, indignatio, conquestio); 『헤렌니우스에게 바친 수사학』 2.47-50 (enumeratio, amplificatio, commiseratio) 참조.

197) cf. 『연대기』 1.1.3: “inde consilium mihi pauca de Augusto et extrema tradere, mox Tiberii principatum et cetera, sine ira et studio, quorum causas procul habeo.” 또한, 키케로, 『연설가에 대하여』 2.62, 김기훈 (2016) 145-146 참조.

198) 단 하나의 예외가 Manilius의 *Astronomica* 2.831, 833의 사례인데 이 경우에는 두 단어가 직접적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다.

199) 전체 33의 개소 중에서 후대의 문법서적들을 포함해 유의미한 거의 모든 사례가 키케로의 표현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된다. *BTL Online* (<https://www.degruyter.com/view/db/btl>) (최종접속: 2018년 10월 23일).

200) 퀸틸리아누스, 『연설가 교육』 9.2.26에서는 이를 감정 고조(simulatio)의

테면 암호처럼 숨어 두었다면, 앞에서 언급했던 의분이나 연민의 감정을 독자에게 불러일으키고자 한 결어로서의 기능 역시도 이 51장 3절에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문헌 비교를 통해 조심스레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논의일 뿐이지만, ‘역사가’(auctor historicus) 타키투스가 자신을 여전히 ‘정치인’(auctor pragmaticus)²⁰¹⁾이라고 여겼다면 과감히 말했을 법한 한 시대에 대한 통탄이 감춰져 있는 듯하다. 만약 그러하다면, 역사가가 ‘과감히’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키케로의 조언 역시도 어느 정도 충족시킨 셈이다.²⁰²⁾ 그리고 티베리우스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던지게 되는 시대에 대한 통탄은 티베리우스 치세, 그 후반기에 이르러 로마는 온전한 군주정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어찌면 그 과감히 말해야 할 진실이었는지도 모른다. 또한 그것은 티베리우스가 아우구스투스 사후 프린킵스 통치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다짐했던 바를 상기시키는데, 결국 그는 프린킵스와 자유가 불안정하게나마 공존하던 시대를 종국에는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런 까닭에 이 대목에서는 아우구스투스가 수립한 체제 유지에 실패한 티베리우스의 위선(dissimulatio) 못지않게, 눈에 띄지 않도록 한 시대의 서술 전체를 마감질한 역사가 타키투스의 위장(dissimulatio

사례 중 하나로 호소(exclamatio)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다. 키케로는 동일한 표현을, 『베레스 고발』 (*In Verrem*). 2.4.56, 『자택에 대하여』 (*de sua Domo*) 137, 『데이오타루스 왕 변론』 (*Pro rege Deiotaro*) 31 등에서 사용한 바 있으며, Andrew R. Dyck(ed. Cicero: *Catilinari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의 해당 대목 주석에 따르면, 제정기 수사학자들에 의해서도 자주 인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가령, 세네카(Seneca Rhetor), 「모의정책연설」 (*Suasoria*) 6.3). 마르티알리스는 이 문구를 남용했던 자신의 한 지인을 풍자하기도 했다(9.70ff.).

201) cf. 『연대기』 3.30.2: “Sallustius, rerum Romanarum florentissimus **auctor**”; 살루스티우스, 『카틸리나 전쟁』 3.1-2: “[1.] pulchrum est bene facere rei publicae, etiam bene dicere haud absurdum est; vel pace vel bello clarum fieri licet; et qui fecere, et qui facta aliorum scripsere, multi laudantur. [2.] ac mihi quidem, tametsi haudquaquam par gloria sequitur **scriptorem et auctorem rerum**, tamen in primis arduum videtur **res gestas scribere**”. 또한, 김기훈 (2016) 157-158 참조.

202) cf. 키케로, 『연설가에 대하여』 2.62: “Nam quis nescit primam esse historiae legem, ne quid falsi dicere audeat? Deinde ne quid veri non audeat?” 또한, 김기훈 (2016) 145, 162 참조.

artis)²⁰³⁾을 읽어내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만일 타키투스가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in utrumque partem dicere)고 평가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는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neutrum) 서술한 셈이다.

또 하나 상기해야 할 점은 고대 역사서술 특유의 문법, 그리고 이와 관련된 타키투스 자신의 서술 원칙이다. 그는 저술 여러 곳에서 저술 시점의 시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가가 지켜야 할 원칙과 기존의 역사가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다. 과거의 역사가들은 언변과 과감함을 통해 기록을 남겼지만²⁰⁴⁾ 로마가 일인지하에 들게 되면서부터는 그러한 자유(libertas)는 아침과 증오로 인해 불가능하거나 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다. 더욱이 그가 살아온 생애는 끔찍한 내전과 폭정의 시기들이었고²⁰⁵⁾, 당대의 폭군 도미티아누스 치하에서 그는 장인을 잃기도 했다.²⁰⁶⁾ 그럼에도 그는 ‘살아남은 자’들 중 하나였고 성공한 정치인이기도 했다.²⁰⁷⁾ 도미티아누스가 시해되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서 맞게 된 희망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된 즈음 그럼에도 그에 대한 단언은 삼가야 했던 시기에²⁰⁸⁾ 한결 험난한 역사서술의 길로 그는 접어들었다. 편견이나 당

203) 키케로, 『착상에 대하여』 1.98 참조. 결어의 요약(enumeratio)을 논의하는 이 대목에서 Achard (2002)는 dissimulatio artis를 상기시키고 있다.

204) 『역사』 1.1.1: “Initium mihi operis Servius Galba iterum Titus Vinus consules erunt. nam post conditam urbem octingentos et viginti prioris aevi annos multi auctores rettulerunt, dum res populi Romani memorabantur pari eloquentia ac libertate: postquam bellatum apud Actium atque omnem potentiam ad unum conferri pacis interfuit, magna illa ingenia cessere”.

205) 『역사』 1.1.2 이하 참조.

206) 도미티아누스에 의해 아그리콜라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에 대해서는, 『아그리콜라』 41 이하 참조.

207) cf. 『역사』 1.1.3: “dignitatem nostram a Vespasiano inchoatam, a Tito auctam, a Domitiano longius provectam non abnuerim”. 또한 그는 97년 보궐 콘술(consul suffectus)이었는데 그 전해에 도미티아누스가 살해되기 전 이미 내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8) 고경주 (2014) 192-193 참조. cf. 『아그리콜라』 3.1: “Nunc demum redit animus; et quamquam primo statim beatissimi saeculi ortu Nerva Caesar res olim dissociabiles miscuerit, principatum ac libertatem, augeatque cotidie felicitatem temporum Nerva Traianus, nec spem modo ac votum

파심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진실을 과감히 말해야 하는 그에게 필설(筆設)의 원동력이 된 것은 연설가/정치가로서의 능력과 경험 그리고 명성이었다.²⁰⁹⁾ 그리고 그의 저술들이 어느 시점부터 소실되기 전까지 그는 고대 로마를 대표하는 역사가로서 명성을 누렸으니, 거기에는 이와 같은 혼란한 시절을 살아내면서 얻게 된 정치적 안목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타키투스를 homo pragmaticus²¹⁰⁾라 평할 수 있을 듯하다. 그리고 그가 『연대기』 저술을 기획하고 그 최초의 서술 대상으로 삼은 제1권 초반의 프린킵스 권력 체제 이양의 정치사는, 티베리우스 치세의 시작과 끝을 이해하는 데 단초가 되었다. 이처럼 타키투스의 서술 전반에서, 특히 『연대기』에서도 로마 공화정으로의 회귀라든지, 프린킵스 체제 자체의 변혁에 대한 지지라든지 어떤 적극적인 주장을 읽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양극단의 독해가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의 역사서술이 지니는 가치이자 생명력으로 새길 수 있을 듯하다. 그런 까닭에 타키투스의 역사서들이 재발굴된 르네상스 시대 이후 이른바 ‘타키투스주의’(Tacitism)라 일컬어지는 그 수용사나 영향사가 주목되는데 16세기 이래로 타키투스는, 그리고 특히 『연대기』 초반부의 역사서술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주요 정치 사상가들에게 관심 받는 정치사 고전으로 자리매김했다.

제한된 의미에서의 타키투스주의(Tacitism)라는 용어²¹¹⁾는 마키아벨리

securitas publica, sed ipsius voti fiduciam ac robur adsumpserit, natura tamen infirmitatis humanae tardiora sunt remedia quam mala”; 『연대기』 1.1.1: “Urbem Romam a principio reges habuere; **libertatem et consulum** L. Brutus instituit”

209) 플리니우스, 『서한집』 2.11와 9.23 참조.

210) cf. 키케로, 『아티쿠스에게 보낸 편지』 (*Epistulae ad Atticum*) 2.20.1: “quia volgo **pragmatici homines** omnibus historiis, praeceptis, versibus denique cavere iubent et vetant credere”(cf. D. R. Shackleton Bailey. ed. *Cicero's Letters to Atticus. vol.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ad loc.* “men of the world”); OLD 1: “experienced in affairs, worldly-wise”, 『연대기』 4.34: “Titus Livius, eloquentiae ac fidei praeclarus in primis, Cn. Pompeium tantis laudibus tulit ut Pompeianum eum Augustus appellaret”.

211) 이하 이 타키투스 수용사 논의의 골자는, Sven Günter, Florian Battistella,

(Niccolò Machiavelli, 1469-1527)의 사상을 타키투스풍이라는 허울로 가려 덮는 경향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전한다. 사실, 『군주론』(*Il Principe*, 1532)을 비롯해 그의 저술들이 1559년 교황 바오로 4세에 의해 『금서목록』(*Index Librorum Prohibitorum*)에 오른 이래로 마키아벨리라는 이름이 상당히 터부시되었기 때문이다.²¹²⁾ 한편, 『군주론』은 마키아벨리 사후에 공식 출판된 것으로 전하지만, 1513년경에 이미 *De Principatibus*라는 제목으로 초기 판본이 통용되었다는 설이 사실이라면 마키아벨리는 『연대기』의 첫 여섯 권을 최초의 『군주론』 집필 전에 접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아그리콜라』와 『연대기』 초반을 제외한 타키투스의 저술들의 첫 인쇄본(editio princeps)은 1470년경에 간행되었고, 1515년에 이르러서야 이들 나머지 작품들도 출간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주론』의 상당 부분은 로마 통치자들에 대한 타키투스 역사서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타키투스주의”는 1600년경 이래로 ‘후기 인문주의’(Late Humanism)의 맥락에서 광범위하게 타키투스와 그의 저술을 수용한 경향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 두 가지 상반된 경향은, 16세기 이래로 전 유럽에 걸친 종교 분열과 대립 과정에서 재편된 군주 지배 체제에 대한 대응 방식의 차이였다. 당대 인문주의자들의 정치적 과제는, 일종의 절대 군주 체제 내에서 살아가는 혹은 살아내는 방식의 모색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눈여겨 본 것은 일인 지배자가 존재하지 않던 공화정 시절의 로마를 기록으로 남긴 키케로나 리비우스 같은 이들이 아니라 군

Claudine Walther. “Tacitus., Annales” in *Brill’s New Pauly Supplements I-5: The Reception of Classical Literature*. ed. by Christine Walde. Leiden: E. J. Brill, 2012, 450-457 참조.

212) 이후 교황청 금서성성(禁書聖省, Sacra Congregatio Indicis, 1571-1917)의 주관 하에 여러 차례 금서 목록에 저명한 작가와 저술들이 추가되었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16세기 이전 금서 목록은 삭제되었지만 그럼에도 교회에서 흡사 단죄된 것처럼 간주되었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 이후 1966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이러한 금서 지정 관행은 중단되었다. cf. Max Lenard. “On the Origin, Development and Demise of the *Index Librorum Prohibitorum*.” *Journal of Access Services* 3, no. 4 (2006): 51 - 63.

주정 하에서 살아가면서 프린켑스(princeps)라 일컬어지는 일인 통치자를 주된 서술 대상으로 삼았던 타키투스였고, 특히 『연대기』는 그들에게 중요한 전거가 되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마키아벨리 추종자에서 반(反) 마키아벨리주의자에 이르기까지, 가톨릭교도에서 개신교도에 이르기까지, 공화주의자에서 군주정 지지자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은 당시의 모든 정치적 입장에 따라 타키투스의 저술들이 지니는 다층다양한 국면들을 인용하고 권위로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군주정 지지자 타키투스 흑파(tacitismo nero)와 공화정과 타키투스 적파(tacitismo rosso)라는 구별에도 불구하고 양 진영의 공통된 하나의 중요 관심사는 『연대기』 첫 여섯 권에 대한 해석에 있었고,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적절한 군주정을 설계하느냐의 문제에 놓여 있었다.

정치 논고를 통해 친(親) 마키아벨리 성향을 보인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의 경우에는 타키투스를 군주제나 가톨릭교회의 수권을 옹호하는 데 권위자로 전용했고,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장 보댕(Jean Bodin, 1530 - 1596)은 이들 이탈리아 지식인들에 앞서 타키투스를 절대군주정(absolutism)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삼았다. 그와는 달리, 무레투스(Muretus)라는 라틴어 이름으로 잘 알려진 드 뫼레(Marc-Antoine de Muret, 1526-1585)는 『연대기』를 근거로 군주들의 위선에 대한 비판을 가함으로써 소위 타키투스 흑파의 논의를 공격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선에서 타키투스의 『연대기』를 읽으려 한 경향을 17세기 이래 영국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극작가 벤 존슨(Ben Jonson, 1572-1637)이다. 원제목이 *Sejanus His Fall*인 『세야누스』는 벤 존슨이 타키투스의 『연대기』를 비롯해, 수에토니우스와 카시우스 디오와 같은 티베리우스 치세를 기록한 문헌사료들의 기록을 토대로 쓴 역사극이다. 이 작품은 1603년 극단 King's Men에 의해 글로브 극장(Globe Theatre)에서 초연되었는데, 아마도 이 공연에서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 - 1616)가 배우로서 티베리우스 역할을 맡아 무대에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공식 무대(public stage) 상연에 대한 평은 그리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²¹³⁾ 1605년 출간본에 “독

자에게 드리는 글”에서 존슨은 이 무대 상연 당시 대본을 누군가와 함께 쓴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a second pen”이라는 익명으로 언급된 이 협력자(co-author, collaborator)가 극작가 조지 채프먼(George Chapman c.1559 - 1634)²¹⁴⁾이나 셰익스피어²¹⁵⁾일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어느 쪽도 확실한 문헌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초기 공연 당시에 적어도 셰익스피어가 직접 티베리우스로 분하여 상연을 준비하며 상당 부분 극작의 완성에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었을 것이다. 비록 흥행이나 인기 면에서 『세야누스』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또 다른 작품 『카틸리나』(*Catiline His Conspiracy*, 1611)와 더불어 이 작품은 벤 존슨 자신이 천명한 “줄거리의 진실성”(truth of argument)²¹⁶⁾을 고전 작품들과 역사 기록에서 확보하고자 한 역사극으로 평가된다.

또한, 소위 Jacobean Era라 불리는 제임스 1세(재위 1603-1625) 치세 동안의 전제정에 대한 반감으로서 당시 영국 내에 감돌던 타키투스주의 현상의 한 사례로 『세야누스』를 해석하는 경향도 있다.²¹⁷⁾ 그리고 이 작품으로 인해 존슨이 추밀원(Privy Council)에 반역 혐의로 소환되었다가 자신의 작품이 당대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다만 호고(好古)적인 활동의 산물이라는 점을 변론하면서 방면되었다는 점²¹⁸⁾은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세야누스』의 수기본 본문 외곽에는

213) 『세야누스』, “독자에게 드리는 글”(To the Readers): “Lastly I would inform you, that this book, in all numbers, is not the same with that which was acted on the public stage, wherein **a second pen** had good share ...” cf. Jonas A. Barish. ed. *Ben Jonson's Sejanu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5.

214) cf. Barish (1965) note *ad loc.*

215) cf. Anne Barton. *Ben Jonson: Dramati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93-94.

216) 『세야누스』, “독자에게 드리는 글”: “In the meantime if in **truth of argument**, dignity of persons, gravity and hight of elocution, fullness and frequency of sentence, I have discharged the other offices of a tragic writer,” Barish는 이를 “fidelity to history”로 새기고 있다.

217) cf. Ko, Chanmi. “English Tacitism and Ben Jonson's *Sejanus his Fall*.” *Medieval and Early Modern English Studies* (『중세르네상스영문학』) 22-1 (2014): 95-119.

218) cf. Ko (2014) 115-116.

벤 존슨이 뼈곡하게 채워 넣은 고전작가들과 작품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이는 고전에 해박했던 그의 소양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접근 가능했던 각종 사료와 문헌들을 토대로 작품 전체를 보다 치밀하게 축조하려 했던 노력에 대한 방증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 『세야누스』는 타키투스에 대한 16세기 이후 유럽 지식인들의 독법이 달랐던 것처럼 다양한 해석을 낳았는데,²¹⁹⁾ 이 작품과 등장인물 티베리우스를 “가부장적 전통에서의 이상적 군주상에 대한 희화화”²²⁰⁾로 읽게 되면 벤 존슨은 반대로 타키투스 흑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예컨대, 『세야누스』가 『연대기』 제4권 이하를 주로 참조하거나 변안하여 저술되었음을 감안하면, 티베리우스가 제위 양도의 뜻을 밝히는 대목은 그 사례로 읽힐 만하다.

Tiberius. The Burden is too heavy I sustain
On my unwilling shoulders, and I pray
It may be taken off, and reconferred
Upon the consuls, or some other Roman,
More able and more worthy.

[티베리우스:] 내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거운 짐이오,
바라지도 않은 내 두 어깨에는 말이오. 그러니 내 청컨대
벗어버렸으면 싶소. 그리고 그 짐이 다시
콘술들이나 어떤 다른 더 능력 있고
더 합당한 로마인에게 얹어졌으면 싶소.

219) cf. K. W. Evans. “*Sejanus* and the Ideal Prince.”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00-1900* 11, no. 2 (1971): 249-264. Evans가 『세야누스』에 대한 피상적인(superficial) 분석이라고 열거하는 사례들은, “인간 욕구의 허망함”, “권력에 대한 정치적 수완의 승리”, “응당한 통치자를 갖게 마련인 타락한 사회상”, “참주정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개개인의 덕이 지니는 무력함”, “권력에 대한 일종의 무도덕한 투쟁으로 구성된 극단적인 정치 현실” 등이 다. 그럼에도 그는 이러한 해석들이 가능하게끔 짜인 극작임을 부인하지는 않되, 이 작품이 제임스 1세 치하의 압제적 군주정과 의회정치의 현실을 드러내 보이면서 가부장적 전통에서의 이상적 군주상을 역설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220) Evans (1971) 261.

(벤 존슨, 『세야누스』 3막 113-117행)²²¹⁾

반면에, 18세기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혁명 즈음의 타키투스의 『연대기』는 공화주의자들의 애독서로 널리 읽혔는데, 여기에는 토머스 고든(Thomas Gordon, 1684-1750)이라는 영국의 번역가이자 저술가가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왕당파(Tory)였던 알렉산더 포프(Alexander Pope, 1688-1744)의 경우, 한 풍자사에서 토머스 고든의 타키투스 번역(1728)을 겨냥해, “한때 위대한 이라고 회자된 훌륭한 타키투스가 있었지만 / 지금 그는 자존심 센 휘그당원(Independent Whig)이네”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Independent Whig*는 1720-1721년에 존 트렌차드(John Trenchard, 1669-1723)와 함께 토머스 고든이 발간했던 주간지 이름이기도 하다. 또한 이 두 사람이 백여 편의 정치적인 단편을 수록해 간행한 『카토의 편지』(*Cato's Letters*, 1720-1723)라는 단행본은 미국 독립혁명 초기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²²²⁾ 토머스 고든의 타키투스와 살루스티우스 저술 번역²²³⁾을 비롯해 영국의 휘그당파의 공화정 사상은 고전고대 로마 공화정에 뿌리를 둔 것으로 초기 북미 대륙의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에게도 영향을 끼쳤다.²²⁴⁾ 18세기 후반 미합중국 식민지와 독립 초반 주요 주와 지식인들의 도서관과 서재에 타키투스의 저서, 특히 토머스 고든의 번역본이 두루

221) cf. 『연대기』 4.9.1: “magno ea fletu et mox precationibus faustis audita, ac si modum orationi posuisset, misericordia sui gloriaque animos audientium impleverat: ad vana et totiens inrisa revolutus, **de reddenda re publica utque consules seu quis alius regimen susciperent**, vero quoque et honesto fidem dempsit”.

222) cf. Carl J. Richard. *The Founders and the Classics: Greece, Rome, and the American Enlighten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81.

223) cf. Bernard Bailyn. *The Ideological Origins of the American Revolution*.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1967, 43: “살루스티우스와 타키투스 저술의 번역자였던 토머스 고든의 손에서 타키투스는 잠재적으로 휘그당파의 대변인(apologist)이 되었다.”

224) cf. Gordon S. Wood. *The Creation of the American Republic, 1776-1787*.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5, 48-53.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²⁵⁾ 고든의 번역과 타키투스에 대한 논평은 타키투스를 자유와 덕의 든든한 옹호자처럼 여겨지게 했지만, 영국 본토에서는 에드워드 기번을 비롯해 당대 지식인들에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미국에서 더 인기를 누렸다. 예컨대, 현실 정치에 있는 동안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정계 은퇴 후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1826)과 존 애덤스(John Adams, 1735-1826)가 나눈 편지에서 그들의 유대감을 확인하게끔 한 역사가가 타키투스이기도 했다.²²⁶⁾ 타키투스는, 특히 고든의 번역을 통한 그의 역사서와 지적 유산은 미국 혁명기의 지식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평가된다.²²⁷⁾ 특히, 미합중국 건국 초기 강력한 중앙-연방 정부의 권한을 강조하면서 친영(親英) 진영에 서 있던 연방주의자들(Federalists)에 강력한 반기를 들었던 공화주의자 토머스 제퍼슨에게 타키투스는 그가 가장 아꼈던 고전 역사가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²²⁸⁾ 실제로 제퍼슨의 저술 가운데 생전에 출간된 『버지니아 논고』(*Notes on the State of Virginia*, 1785)는 타키투스의 “간결하고 핵심을 찌르는 서술”²²⁹⁾에 매료되었던 그가 영향 받은 타키투스의 문체와 서술 방식이 뚜렷한 것으로 평해진다.²³⁰⁾

225) cf. H. Trevor Colbourn. *The Lamp of Experience. Whig History and the Intellectual Origins of the American Revolution*.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5, Appendix II.

226) 우연의 일치이지만 두 사람 모두 1826년, 미합중국의 독립이 선포된 지 50년째 되던 날인 7월 4일에 세상을 떠났다.

227) cf. Herbert W. Benario. “Gordon’s Tacitus.” *The Classical Journal* 72, no. 2 (1976-1977): 107-114, 특히 112-114. 트렌차드와 고든이 함께 저술한 이 두 문헌에 대해서는, David L. Jacobson. ed. *The English Libertarian Heritage: From the Writings of John Trenchard and Thomas Gordon in The Independent Whig and Cato’s Letters*. Indianapolis: Bobbs-Merrill, 1965 참조.

228) cf. Mark Andrew Holowchak. *Thomas Jefferson: Moralism*. Jefferson, NC: McFarland & Company, 2017, 129-134.

229) cf. Holowchak (2017) 129-130.

230) cf. Holowchak (2017) 131-133. Holowchak는 특히 『버지니아 논고』 제 14문((問, Query) 법률에 관한 서술에서 그와 같은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평한다.

또한 미합중국의 제3대 대통령 임기(1801-1809)를 마치면서 공직 생활에서 은퇴한 지 약 10년이 지난 1818년 제퍼슨은, 조지 워싱턴 정부 국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재직 시절(1789-1793)이던 1791년 이래 자신의 대통령 임기 말인 1809년까지, 건국 초기 주요 정치인, 지식인들과 나눈 대화와 비망록을 3권의 책으로 엮어 펴냈다. 이 책은 그의 사후에 『기록물』(*Anas*)²³¹⁾이라는 제목으로 불렸는데, 북아메리카 대륙의 신생 국가가 대영 제국에서 갓 독립했던 시기의 정치 체제에 대한 정치가들의 고민과 갈등에 대해 읽을 수 있는 사료이자 타키투스 역사서술의 영향을 읽을 수 있는 근대 문헌으로도 평가된다.²³²⁾ 주(駐)프랑스 공사(1784-1789)이기도 했던 제퍼슨에게, 공화정과 군주정의 양상이 불안정하게 혼재된 듯 기술되었던 『연대기』 초반의 로마 제정 초의 역사는 혁명의 과도기 속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았을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타키투스의 영향이 어느 정도로 작용했을지 그 구체적인 분석은 후속 연구자들의 몫이 되겠지만, 절대군주제로부터 정치체제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던 제퍼슨을 비롯한 18-19세기 사상가들에게 『연대기』와 티베리우스 체제는 상당한 흥미를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들에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티베리우스는 대체로 전제군주 내지는 폭군으로 인지되곤 했지만,²³³⁾ 프랑스의 한 사상가는 그를 시대 상황을 거스를 수 없

231) s.v. “ana, suffix and n.” in *OED*, B.1: “a collection of the memorable sayings or table-talk of any one.”

232) cf. Matthew E. Crow. “History, Politics, and the Self: Jefferson’s “Anas” and Autobiography.” in *A Companion to Thomas Jefferson*. ed. by Francis D. Cogliano. Malden, MA: Wiley-Blackwell, 2012, 477-490, 특히 479-484. Crow가 “-ana”라는 접미사가 라틴어 *annales*에서 비롯한 것임을 지적하는 대목(479)도 주목된다.

233) 정계 은퇴 후 몬티첼로(Monticello)에서 지내며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 있던 제퍼슨은, 1820년 연방 내의 노예주(slave state)와 자유주(free state)의 균형 문제와 관련해 미주리(Missouri) 주의 연방 가입 문제에 대해 남부와 북부 정치인들 사이의 갈등 등 정치 현안에 대해 알려진 존 홀스(John Holms)라는 정치인에게 보낸 답장에서 이 문제로 인해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We have the wolf by the ears, and we can neither hold him, nor safely let him go)는 표현을 쓴 바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자주 쓰던 관용구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수에토니우스, 「티베리우스」 25: “cunctandi causa erat metus undique imminentium discriminum,

있던 인물로 평가했다.²³⁴⁾

강이 천천히, 소리도 없이 그것을 가로막고 서 있는 제방을 침식하다가 마침내 한순간에 그것을 붕괴시키고 그것에 의해 생명을 이어가고 있던 농지를 뒤덮어 버리듯,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시대에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활동하던 주권(la puissance souveraine)이 티베리우스 치하에서는 난폭하게 상황을 뒤집어 버렸다.

(몽테스키외, 『로마인의 흥망성쇠 원인론』 14장 ‘티베리우스’ 서두)²³⁵⁾

인용문을 참고하자면, 아우구스투스 치세에 눈에 띄지 않게 점차 만수위에 이르러 오던 일인 통치자의 지배 권력이 티베리우스 치하에서 비유컨대 범람을 통해 국가 로마 전체를 잠식해 들게 되었던 셈이다. 몽테스키외의 이와 같은 비유와 분석은 『연대기』 제6권 51장을 되돌아보게 한다. 특히, 타키투스가 티베리우스의 생애 가운데 맨 마지막 시기에 대해 서술한 “postremo in scelera simul ac dedecora prorupit²³⁶⁾ postquam remoto pudore et metu suo tantum ingenio utebatur”라는 문장에서 중국에는 장애물이 제거되어 범람하게 되는 비유와 그 심상을 읽을 수 있다면 몽테스키외의 티베리우스 치세에 대한 정상 참작도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 물론, 타키투스가 『연대기』를 저술하면서 이미 초반에 아우구스투스 치세에 대해 국가 체제가 바뀐 것이라고 서술하고는 있지

ut saepe lupum se auribus tenere diceret”. 이 편지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다. 토머스 제퍼슨, 『토머스 제퍼슨: 독립선언문』, 차태서 옮김, 서울: 프레스비안북, 2010, 165-167 참조. 또한 1820년 노예주 문제가 미주리 협정(Missouri Compromise)으로 인해 일단락된 사정에 대해서는, 정경희, 『토머스 제퍼슨』, 서울: 선인, 2011, 220-221 참조.

234) cf. Sven Günter et al. (2012) 455.

235) cf. Montesquieu, *Considérations sur les causes de la grandeur des Romains et de leur décadence* (1734). 우리말 번역은, 몽테스키외, 『로마인의 흥망성쇠 원인론』, 박광순 옮김, 서울: 범우사, 2007 참조.

236) cf. OLD 2a: “(of things, esp. liquids, vapours, etc.) to burst or gush forth” 또한, 『연대기』 5.3.1에서도 이와 유사한 심상을 읽을 수 있다. “ceterum ex eo praerupta iam et urgens dominatio” 참조.

만(1.4.1: verso civitatis statu), 그의 사후 권력 중추의 공백 이래 티베리우스의 승계 과정까지를 불안정한 공모와 결탁, 나아가 가장(假裝)의 정치가 펼쳐지는 시기로 타키투스는 기술한 바 있다. 다소 유예되긴 했지만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 체제를 이어 받는 역할을 잠정적으로 수행해냈다. 그러나 결국, 조력자를 통해서든 공모자를 통해서든 혹은 권력 양도의 의사를 표명하면서든 티베리우스 체제는 일인 지배 전제 군주정이라는 범람을 예고하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앞의 논의처럼 『연대기』 제6권 51장의 논의에서 티베리우스 대신 국가 로마와 그 시대사를 대입해 읽을 수 있다면, 살루스티우스를 비롯해 로마 역사가들이 제3차 대(對) 카르타고 전쟁(기원전 149-146)을 제국 로마가 쇠락하게 되는 분수령으로 삼았던 것과 대비해 보고자 하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²³⁷⁾ 그러나 로마 공화정을 버티게 하고 또한 로마 사회를 내적으로 굳건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로 외적에 대한 두려움(metus hostilis)을 지목했던 살루스티우스와는 달리, 타키투스는 티베리우스의 통치기 요약을 통해 프린키퍼투스 체제의 이룰테면 범람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마도 그가 한 쌍으로 묶어 서술하고자 한 듯한 『연대기』 제6권 이후 가이우스 치세 서술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다.²³⁸⁾

237) cf. 根本 和子(Nemoto Wako), 「タキトゥスの「年代記」(4.1)とサルルス ティ우스の「カティリーナの陰謀」」, 『西洋古典學研究』 45 (1997): 98-107, 특히 106-107.

238) 『연대기』 1.1.2: “Tiberii Gaique et Claudii ac Neronis res ...”

2. 초기 제정사 서술로서 『연대기』가 지니는 가치

100년 9월초 당시 자신의 보궐 콘술 취임에 부쳐 상당히 긴 연설을 통해 플리니우스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현재 전해오는 문헌 그대로를 실제 연설을 가정하고 실연하게 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이 연설문 『찬사』(讚辭, *Panegyricus*)²³⁹⁾는 플리니우스가 연설 이후 보완하여 출판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확정 짓기 어렵긴 하지만, 연설문 내에 연도 추정의 단서가 되는 정보에 비추어 101년 경 트라야누스 치세 초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해 4선 콘술직에 오른 트라야누스는 다키아 전쟁을 치르기 위해 로마를 떠났고 전선에서 거둔 성공으로 인해 다키쿠스(Dacicus) 별호를 수여받고 102년 겨울에 개선식을 치르며 다시 로마에 입성했다. 그리고 103년 5선 콘술 임기에 접어들면서 원로원과의 관계를 한층 더 개선했고 이로 말미암아 대내외 정치 모두에 있어서 사실상 안정된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리고 트라야누스는 사실상 내정 및 군사 정책 전반에 관한 프린킵스의 권한을 더욱 강화한 것을 상징하는 칭호 “최선의 프린킵스”(Optimus Princeps)로 불리게 되었다. 이 표현은 이미 플리니우스에 의해 적어도 98년 이래 여러 차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²⁴⁰⁾ 101년부터 비공식적이긴 하더라도 쓰이기 시작해 114년에 원로원이 다시 한 번 칭호를 의결하기까지 주화에 새겨지는 등 상당히 널리 통용되었던 것 같다. 공화정 말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수여 받고 그러했듯이, 대내외적으로 제국의 성세를 구가하게 만든 통치자 트라야누스에게는 자신의 체제와 치세를 선전하기에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별칭(agnomen)이었을 것이다.²⁴¹⁾ 실

239) cf. 고경주, 「소 플리니우스와 프린킵스 정치 인식: 『찬가』(*Panegyricus*)를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 50 (2013): 133 - 160. 이 연설문에 대한 우리말 번역은 아직 없지만, 적어도 제목과 관련해 운문이나 노래를 연상시키는 찬‘가’(歌)라는 번역보다는 찬사(讚辭)라고 옮기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가령, 전자의 경우 핀다로스의 작품들을 포괄할 수 있는 운문 범주일 것이다.

240) 『서한집』 10.1.2, 『찬사』 2.7과 88.4; 에우트로피우스, 『로마 사략』 8.5와 13.4; Edward Gibbon. *The History of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1776), ch. 3 등 참조.

제로 그는 몇 세기가 지난 후 아우구스투스와 함께 제국 로마를 가장 훌륭히 다스린 황제로 나란히 거론되기도 했다.²⁴²⁾

나중에 출간된 플리니우스의 『찬사』를 트라야누스가 실제로 읽었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²⁴³⁾ 플리니우스가 아마도 주로 109년 이후 비튀니아-폰투스 총독으로서 트라야누스와 나눈 편지들(『서한집』 제10권)²⁴⁴⁾을 통해 미루어 보건대 제국 관료인 그에게 이 황제가 상당한 호의와 관심을 보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공식적으로 출판된 연설문과 서한집이 이 황제의 통치 정책에 실제로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역사는 플리니우스가 바랐던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2세기 초의 로마의 평화를 구가하게 한 이 황제에게 대단히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플리니우스는 “최선의 황제”(optimus imperator)에 대한 시민의 충정 어린 의무는, 바로 그와는 다른 통치자들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찬사』 55.2). 그가 트라야누스에게 이 점과 관련해, 감사의 뜻을 밝히는 것은 과거 그릇된 황제들에 대해서 포폄함으로써 황제에게 간언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난날 전횡을 일삼던 이들에 대한 맞갖은 비판을 제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재의 황제 역시도 무결하지 않다는 방증이 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덧붙인다.

5. Quare ego, Caesar, muneribus tuis omnibus comparo, multis antepono, quod licet nobis et in praeteritum de malis imperatoribus quotidie vindicari, et futuros sub exemplo praemonere, nullum locum,

241) cf. Julian Bennett, *Trajan: Optimus Princeps*. New York: Routledge, 1997, 108ff.

242) 하이켈하임 (1999) 686과 에우트로피우스, 『로마 사략』 8.5.3: “Felicior Augusto, Melior Traiano”.

243) cf. Betty Radice, “Pliny and the *Panegyricus*.” *Greece & Rome* 15, no. 2 (1968): 166-172.

244) cf. 이지은, 「소 플리니우스 『서한집』 제10권 속 황제 트라야누스의 이미지: 서신 1-14를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 55-1 (2016): 239 - 261, 고경주, 「속주 총독과 로마제국의 속주 행정: 소 플리니우스의 『서한집』 제10권을 중심으로」, 『서양고대사연구』 53 (2018): 137-182.

nullum esse tempus, quo funestorum principum manes a posterorum exsecrationibus conquiescant. 6. Quo constantius, Patres Conscripti, et dolores nostros et gaudia proferamus: laetemur his, quibus fruimur; ingemiscamus illis, quae patiebamur. Simul utrumque faciendum est sub bono principe. Hoc secreta nostra, hoc sermones, hoc ipsae gratiarum actiones agant; meminerintque, sic maxime laudari incolumem imperatorem, si priores secus meriti reprehendantur. Nam quum de malo principe posteri tacent, manifestum est, eadem facere praesentem.

§5. 그런 까닭에 저는, 카이사르시여! 당신이 베푸신 다른 모든 선사와 견주고 있고, 많은 것들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이것이 저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과거 나쁜 황제들에 대해서는 매일 웅정하는 것, 또한 본보기 하에 미래의 황제들에게 미리 조언하는 것입니다. 즉, 재앙을 가져다 준 프린킵스들의 낫이 후세인들의 저주로부터 편히 쉴 만한 어떤 곳도, 어떤 시간도 없다는 점입니다. §6. 보다 흔들림 없이, 존경하는 원로원 의원 여러분!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기쁨을 공개합시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을 즐거워합시다. 우리가 견디어내곤 했던 것들은 한탄합시다. 동시에 그 두 가지 일이 좋은 프린킵스 치하에서 행해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사적인 담소가,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 놓고 나누는 대화가, 이것을 [우리의] 감사 표명(gratiarum actiones)이 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기억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특히 황제는 온전하다고 찬사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이전의 황제들이 당치 않은 이들로써 비난을 받는다면 말합니다. 사실, 나쁜 프린킵스에 대해 후세인들이 침묵할 때, 명백한 것은, 그와 똑같은 것을 그 현재의 황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리니우스, 『찬사』 55.5-6)

타키투스가 『아그리콜라』와 『역사』의 서문에서 표명했던 것처럼, 새롭게 들어선 네르바-트라야누스 황가가 어느 정도 언론의 자유를 허락했는지 아주 분명하지는 않지만 플리니우스의 발언은 과거사 조명과 청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약이 견혀졌던 분위기를 보여준다. 그리고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법적으로는 도미티아누스가 이미 기록말살형으로

단죄된 터라 적어도 그의 통치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을 덜 수 있었을 것이다. 트라야누스가 원로원의 지위나 정치적 운신의 폭을 어느 정도로 보장해 주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원로원과 황제 간의 관계는 도미티아누스 치세에 대해 공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과거 제정 초기의 사례에 더 가까이 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에 플리니우스 역시도 새 황제의 귀감을 아우구스투스에게서 찾으려 했던 것 같고, 당대는 물론 후세에도 이 두 황제를 훌륭한 통치자의 전범으로 평가하는 것이 관례처럼 된 것 같다. 결과적으로 트라야누스는 플리니우스의 평가와 바람처럼 역사 상 가장 훌륭한 황제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다.

Etenim, ut nomine AUGUSTI admonemur eius, cui primum dicatum est, ita haec OPTIMI appellatio nunquam memoriae hominum sine te recurret, quotiesque posteri nostri OPTIMUM aliquem vocare cogentur, toties recordabuntur, quis meruerit vocari.

그리고 사실, 그것이 처음 한정된 “아우구스투스”라는 명칭으로 우리가 그에 대해 상기하게 되듯이, 그렇게 “최선자”라는 칭호는 당신 없이는 사람들의 기억에 떠오르지 않을 것이며, 우리 후손들이 다른 이를 “최선자”라고 불러야만 하게 될 때마다, 어떤 이가 그렇게 불려도 될 만한지 그때마다 그들은 회고하게 될 것입니다.

(플리니우스, 『찬사』 88.10)

물론, 플리니우스의 연설문, 그것도 대체로 정치적인 수사가 가득하다고 평가받는 문헌을 근거로 당대 원로원 의원들의 지지와 정치적 화행(話行)이 실제로 이 황제의 정책이나 원로원과의 관계 등을 개선하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선불리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트라야누스 치세가 보여준 대내외적 안정과 평화를 오로지 황제 일인의 역량과 자질 덕분으로만 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그는 통치기 전반에 걸쳐 다키아, 파르티아 등 전선에 친정(親征)을 나서기도 했고 그러한 동안의 로마의 내정과 국내 문제는 원로원과 황실 관료 등을 통해 원격으

로 관리해야 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제국의 경계를 확장하고 제국 로마를 순탄하게 경영해 나간²⁴⁵⁾ 그에게서 프린키퍼투스 초기 아우구스투스와 그가 이룩한 로마의 모습을 상기하는 이들이 많았다.

huius tantum memoriae delatum est, ut usque ad nostram aetatem non aliter in senatu principibus adclametur, nisi "Felicior Augusto, melior Traiano". Adeo in eo gloria bonitatis obtinuit, ut vel adsentantibus vel vere laudantibus occasionem magnificentissimi praestet exempli.

그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우구스투스보다 더 유복하게, 트라야누스보다 더 훌륭하게”가 아니라면 원로원과 프린키퍼스들에게서 달리 환호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그에게서 영광은 이 정도의 훌륭함을 가졌기에, 아첨하는 이들에게진 진정으로 찬사를 보내는 이들에게진, 성대하기 그지없는 본보기의 기회를 가져다 줄 정도입니다.

(에우트로피우스, 『로마 사략(史略)』 제8권 5.3)

역사가 타키투스가 『역사』를 집필하면서, 그 끄적했던 15년의 압정에 다가오는 즈음 느끼고 있었을 정서 역시도 이와 유사했을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그가 기록한, 환난의 해 69년 이래 플라비우스 황가 치세 말까지의 역사는 앞에서 플리니우스가 강조하고 있듯이 여러 나쁜 통치자들에 대한 사례를 담고 있는 저술로서 당대의 통치자 그리고 상위 지배계층에게 읽혔을 것이다. 말하자면, 반복되지 않아야 할 프린키퍼스 통치체제의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새 시대를 살아가고 열어나가는 이들에게 던지는 일종의 조용한 호소였다. 플리니우스는 물론,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콘술 선출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명하기 위해 자신에게 그것을 허여한 황제 트라야누스의 행적과 위상을 찬양하는 데 상당한 노력과 분량을 예의 찬사 연설문에서 할애했다. 찬사는 주로 그의 가까운 과거 그리고 당대에 관한 것이지만, 그것이 한결 더 돋보이는 것은 그 이전에 로마의

245) 하이켈하임 (1999) 685-688 참조.

나쁜 통치자들, 특히 도미티아누스를 비판함으로써이다.

타키투스가 도미티아누스의 시해 이후, 또한 그의 기록말살형 이후에 『아그리콜라』를 통해 비로소 지난날의 체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 54년 10월 13일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죽음을 ‘기념’하기라도 하듯이 그해 말 세네카(L. Annaeus Seneca)는 『등신(等神)격화』(*Apocolocyntosis*)²⁴⁶⁾라는 풍자서를 통해 클라우디우스의 품행, 치세 동안 저지른 만행과 전횡을 신랄하게 그려냈다. 이미 공식적으로 신격화되어 신군(divus)이라는 칭호를 받았음에도 클라우디우스에 대한 세네카의 비판 수위는 상당하다. 특히나, 이 저술 서문에서 역사서술을 빙자한 기법으로 독자의 환심을 사고 동시에 서술 자체의 신뢰도를 높이려 한 점이 눈에 띈다.²⁴⁷⁾ 요지는, “복되기 그지없는 세기의 시작인 새 해에”(sc. 54년 10월 13일 이후, 『등신격화』 1.1: *anno novo, initio saeculi felicissimi*) 지난날 참주처럼 굴었던 클라우디우스의 치세와 행적이 천상의 신들의 재판에서 단죄되어 결국 그가 저승으로(*ad inferos*) 내려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점이 흥미롭다.²⁴⁸⁾ 이 풍자서는 새로이 통치자로 등극한 네로로 하여금 올바른 통치 정책을 구축하는데, 동일한 저자의 『관용론』(*De clementia*, 55-56년)과 함께 일정 정도 기여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평가된다.²⁴⁹⁾ 후자가 이론적, 철학적으로 통치자의 관용의 중요성과 필요에 대해 논술한 것이라면, 전자는 그 반대로 극단적인 반면교사 구실을 한다. 하지만 네로 통치 초기의 세네카의 이와 같은 노력과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런데 바로 직전 통치자

246) ‘신격화’를 뜻하는 apotheosis를 풍자한 말로 원래의 뜻을 살리자면 ‘호박화’가 되겠지만, 음성적인 유사성을 살리자면 ‘등신격화’가 보다 더 적절해 보인다.

247) 세네카, 『등신격화』 1.1.1-4 참조. 여기에서 세네카는 실명을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리비우스 게미니우스(Livius Gemini)라는 이의 증언과 목격담을 권위로 삼아 그 어떤 언짢은 바(offensa)도 호의를 사고자 하는 바(gratia)도 드러내지 않고서 서술하리라고 단언한다.

248) 세네카, 『등신격화』 10.1-11.6 참조.

249) cf. P. T. Eden, ed. *Seneca: Apocolocynto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12-13.

에 대한 상당히 과감한 정치 풍자가 가능했을 만큼 네로의 지배 체제가 시작되던 즈음 세네카가 가지고 있던 권위와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했음은 주목할 만하다.²⁵⁰⁾

한편, 또 다른 드문 성세(*rara temporum felicitate*)²⁵¹⁾를 맞아 그 직전에 겪고 견뎌내야 했던 학정의 역사에 대해 비로소 입을 뗄 수 있었던 타키투스는 세네카와는 달리 풍자가 아닌 역사서술을 이전 시절에 대한 비판 수단으로 삼았다. 그런 까닭에 타키투스가 애초의 계획대로 동시대에 대한 증언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한 약속을 사실상 철회한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해 발언하지 못하는 그의 정치적 입지나 당시 정국이 세네카의 경우와는 달라서였을 것이다. 반면에, 세네카가 『관용론』을 통해 새 프린켑스에게 이를테면 통치자의 덕목과 정책에 대해 논설한 것에 상응하는 것은 플리니우스의 『찬사』였던 셈이다. 콘술 취임에 대한 감사 표명(*gratiarum actio*) 연설이라는 점에서 정치수사가 상당한 편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 연설에는 트라야누스 집권 초기에 거는 기대와 그가 해주기를 바라는 통치에 대한 염원이 담겨져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연설은 상당히 화행(話行)적 성격을 지닌다. 그렇게 플리니우스의 연설은 간접적으로는 다시 한 번 도미티아누스의 잘못된 통치를 비판하는 동시에, 트라야누스의 통치가 그와는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촉구하는 듯하다. 그런 까닭에 플리니우스의 연설문 내에 언급된 과거사는 그것 자체가 역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새 황제의 선정(善政)을 설득하기 위해 수사학적으로는 일종의 예증(*paradeigma*)으로 활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타키투스의 『역사』 역시 일차적으로는, 제대로 된 의식이 돌아온 이래 끝내 불안한 기대감을 안고²⁵²⁾ 새 시대에 이르기까지 거쳐 와야 했던 암울한 굴종의 시대에 대한 기록과 당장의 성세에 대한 증언²⁵³⁾을 담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후자의 경

250) 『연대기』 13.2.1 참조.

251) 『역사』 1.1.4.

252) cf. 『아그리콜라』 3.1: “nunc demum redit animus; et quamquam ...”

253) cf. 『아그리콜라』 3.3: “memoriam prioris servitutis ac testimonium praesentium bonorum”.

우 어느 정도로 역사서에 타키투스가 당대의 정치 현실을 기록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역사서술의 애초의 취지는 플리니우스가 『찬사』에서 보여준 모습과 유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사』 서문에서 감지되는 분위기에 비추어 보면, 네르바-트라야누스 치세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그리고 많은 분량으로 ‘증언’하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다. 타키투스가 이 첫 번째 과거사 기록물의 연한을 아마도 96년으로 삼고, 당대사 내지는 동시대사를 다루고자 한 계획과 약속을 철회하게 된 배경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트라야누스 치세 어느 즈음에 혹은 하드리아누스 치세 초기에 정치적인 분위기가 달라진 상황을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역사』 서문의 서술 시점이 언제인지 그 판단 여부에 따라 해석이 다소 엇갈릴 수 있는데, 우선 저술이 완료된 대목들이 일정 권 단위 별로 출간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 『역사』는 『연설가들에 대한 대화』와 마찬가지로 100년대 초반에 공간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플리니우스의 『찬사』와 비슷한 시점에 공개되어, 그 즈음 도미티아누스 치세 청산의 분위기 속에 마무리된 역사서를 통해 새 시대를 조명하고자 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역사』 저술 초기에 비교적 이른 시점에 타키투스가 당대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했던 이전의 결심을 유보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이다. 이에 대한 답을 아마도 『연설가들에 대한 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을 듯한데, 네로의 폭정 이후 맞게 된 제국 내부에서 로마인들 서로가 껴야 했던 전란 그 이후에 새롭게 들어선 플라비우스 황가 체제 초기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²⁵⁴⁾ 표현의 자유, 원로원의 정치적 위상에 대해서는 그리 낙관적인 모습을 이 대화편이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이 대화편의 설정 배경이 베스파시아누스 치세 6년째라면,²⁵⁵⁾ 이에 상응해 네르바-트라야누스 치세가 시작된 이래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난 즈음 타키투스는 『역사』 저

254) cf. 『역사』 1.50.4: “et ambigua de Vespasiano fama, solusque omnium ante se principum in melius mutatus est”.

255) cf. 『연설가들에 대한 대화』 17.3: “ac sextam iam felicitis huius principatus stationem qua Vespasianus rem publicam fovet”.

술에 한창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타키투스가 새 프린킵스 치하에서 느낀 정치적 분위기가 『연설가들에 대한 대화』에서와 유사한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당대사를 직접 다루는 데 큰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 계획은, 잠정적으로 그의 노년으로 미루어두었을지도 모른다. 역설적이게도, 그가 “원하는 바를 느끼고 느끼는 바를 말할 수 있는”(『역사』 1.1.4) 그런 시절이라고 표명하고 있었을지라도 말이다. 그러한 부담이 역사서술의 대상을 비교적 초기부터 제한시켰다면, 아마도 타키투스는 『역사』를 저술해 가는 중에 이미 『연대기』 혹은 후속작에 대해 구상했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역사서술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결심이 확고했다면 말이다. 아울러, 역사서술을 통해 정치 현안과 관련된 그 무엇인가를 역설하고 싶었다면 그것에 적절한 소재를 찾아야 했을 것이고 어쩌면 최선의 프린킵스라고 지칭되기 시작했던 당시 황제의 범형인 아우구스투스 시대를 다루는 것도 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그는 아우구스투스 사후부터의 역사를 후속작에서 다루게 되었다.

혹은, 다른 가정도 가능하다. 타키투스가 『역사』 서문을 쓰게 된 것이 비교적 늦은 시점이었거나, 저술을 온전히 마친 후에 이 역사서를 공개했었다면 그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비교적 트라야누스 치세 후반부 내지는 하드리아누스의 정치적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던 즈음까지도 고려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당대사를 다루고자 한 바를 미루게 된 계기는 이러한 정치 지형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아우구스투스와 비견되던 트라야누스와는 달리, 이후 성품이나 정책 면에서 그와는 다른 면모를 보인 하드리아누스에 대한 인상과 전망이 타키투스로 하여금 『연대기』 집필로 돌아서게 만든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예컨대, 트라야누스의 황비였던 플로티나(Plotina)가 하드리아누스의 황위 계승에 막후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든지, 하드리아누스가 제위를 잇고 나서는 원로원과 아주 친밀한 관계는 유지하지 않고 대외적으로도 현상 유지 정책으로 일관했다든지, 그의 치세는 타키투스가 『연대기』에서 다룬 티베리우스 치세와 견주어 볼 만한 특징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연대기』 저술 시점과 관련해 작품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연대인 116년²⁵⁶⁾은, 타키투스가 하드리아누스 치세에 보다 가까운 시점에 이 후속작을 집필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그가 어느 시점까지 살아남아 『연대기』 저술을 마칠 수 있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연대기』 저술이 완료되는 즈음에는 하드리아누스 치세가 안정화에 접어들 때였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기적으로 『역사』는 트라야누스 치세 연간에, 『연대기』는 주로 하드리아누스 통치기 초에 저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역사서술이 지닌 정치적 함의, 화행적 기능에 대해서 상기한다면, 『역사』가 프린켑스 트라야누스 체제의 반면교사로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 『연대기』는 [아우구스투스-]트라야누스 이후의 프린키파투스 통치자를 향한 비유컨대 복화술(複話術)²⁵⁷⁾로 쓰인 정치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²⁵⁸⁾ 그리고 하드리아누스 치세에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이 황제에게 호소하고자 한 다른 종류의 한 역사서도 주목할 만하다.

로물루스 이래 아우구스투스에 이르기까지 약 700년에 걸친 역사 속의 주요 전쟁들을, 주로 리비우스의 역사서에서 채집하여 두 권의 적요(摘要) 형태의 역사서로 남긴 플로루스(L. Annaeus Florus)의 『전쟁사 적요』(*Epitome*)²⁵⁹⁾는 타키투스의 역사서들이 다루지 않은 시대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역사서 제목이 시사하듯이, 장구한 시간에 걸쳐 일어난 전쟁이 주요 소재이며 총 2권의 저술은 각각의 전쟁들을 다루는 장절로 구분되어 있다. 이 저술의 서문에는 플로루스가 로마인의 역사와 제국의 성공을 기정사실로 하여, 마치 덕과 운의 여신이 전 세계로 그 권

256) 『연대기』 2.61.2 참조.

257) 이 용어는 Mayfield의 글에서 착안해 적용한 것이다. cf. DS Mayfield. "Rhetorical Ventriloquism in Application." in *History and Drama: The Pan-European Tradition*. eds. by Joachim Küpper, Jan Mosch and Elena Penskaya. Berlin: De Gruyter, 2019, 160-192.

258) Mellor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타키투스를 읽었으리라고 확신한다. cf. Mellor (1993) 101, n. 57;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1.14 참조.

259) "*Epitome de Tito Livio bellorum omnium annorum DCC libri duo*". cf. Paul Jal ed. & tr. *Florus: Oeuvres*. (2 vols.) Paris: Les Belles Lettres, 1967.

력과 통치를 넓혀간 이 으뜸가는 민족(princeps populus)의 역사에 있어서 경쟁이라도 한 것 같으며 그 놀라운 역사를 기술하고자 하는 포부를 밝힌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이전 로마의 약 500년 역사를 각각 유아기(infantia), 청년기(adolescencia)로 비유한 뒤, 이 최초의 프린킵스 치하에서 전 세계를 평정한 로마 인민에게는 제국의 젊음(iuventus)과 성숙함(maturitas) 같은 것이 있었다고 플로루스는 덧붙인다. 끝으로 그는 당대에 이르기까지의 200년에 대해서 서술하며, 사람의 생애 주기에 빗대어 표현한 로마의 역사 전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a Caesare Augusto in saeculum nostrum haud multo minus anniducendi, quibus inertia Caesarum quasi consenuit atque decoxit, nisi quod sub Traiano principe movit lacertos et praeter spem omnium senectus imperii quasi reddita iuventute reviruit.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우리 시대에 이르는 200년에 많이 모자라지 않는 했수인데, 이 시기에 [sc. 로마 인민은] 카이사르들의 무력함으로 인해 마치 늙어버렸고 나아가 다 타버린 듯하니, 트라야누스 프린킵스 치하에서 지체를 움직였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제국의 노년이 마치 젊음이 다시 주어진 듯이 다시 기력을 되찾았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플로루스, 『전쟁사 적요』 서문 8)

전쟁은 전통적으로 역사서의 주요 서술 대상이었고,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영웅 서사시가 노래한 주된 소재이기도 했다. 제국 로마의 역사는 크고 작은 전쟁을 통해 지중해 세계 전역의 거의 유일한 패권자로 남게 되는 것이었다. 플로루스가 자신의 역사서술을 기획한 것은 일종의 기념비적 의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재를 오직 전쟁에 국한하고, 각각의 중요한 전쟁들을 독립된 서술 단위로 삼은 것은 전략적이기도 하고 또한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플로루스의 역사서는 타키투스의 『연대기』가 그러하듯이 연대나 시간에 따른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며, 특히 전쟁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국

가 내정에 대한 서술에 분량이나 시간을 굳이 들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그것이 도시 로마가 창건되던 머나먼 과거로부터 시작해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이르기까지만 서술 대상으로 삼는 것이기에, 저술 당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판이나 검열로부터도 한결 자유로웠을 것이다. 논조 역시도, 전쟁의 승리로 계수되어온 장구한 로마 인민과 제국의 역사에 대한 서술이기에 타키투스가 그 대상으로 삼은 ‘프린키파투스’의 역사와는 사뭇 다르다. 그런 점에서 플로루스의 전쟁사는 그가 역사서를 집필하던 당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거의 없어 보이고, 실제로 구체적인 전쟁 서술 속에서 당대의 사건이나 시대상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다만, 거의 유일하게 그 저술 연대와 관련해서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서문의 마지막 단락인데, 트라야누스 치세에 대해서 ‘전쟁’과 제국의 확장에 대해 암시하는 표현이 우선 주목된다. 그리고 ‘노년’(senectus)에 이르렀다고 비유하는 당시의 로마 제국에 지속적으로 활기를 불어넣는 일이 필요하고 플로루스는 서문에서 은연중에 호소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읽을 수 있는 이 역사가의 가치판단은, 인용문에서 강조해두었듯이 트라야누스 이전의 황제들이 전쟁, 영토 확장의 측면에서는 모두가 무기력했다는 서술에서이다.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티베리우스 이래로 트라야누스에 이르는 제국 로마의 통치자들의 시대에는 그가 서술 대상으로 삼을 만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트라야누스 치세의 일 또한 과거형으로 서술되어 있기에, 만일 그가 하드리아누스 치세에 이 역사서를 쓰고 있었다면 당대의 실정에 대해서도 암암리에 비판적 서술을 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저술 기준에서는, 타키투스가 전체 30권의 역사서를 남긴²⁶⁰⁾ 시대

260) 타키투스의 역사서 전체가 총 30권이었다고 추정되는 것은 성 히에로니무스의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히에로니무스, 『「즈카르야서」 주석』, 3.14: “Cornelius Tacitus, qui post Augustum usque ad mortem Domitiani vitas Caesarum triginta voluminibus exaravit.” 그런데 30권의 역사서를 historiae가 아닌 vitae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Historia Augusta*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로마 황제들(117-284년)에 대한 전기적 역사서의 제목 역시도 변화를 시사하는데, 시대사가 아닌 황제들의 생애에 초점을 맞춘 역사서술 양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Fornara (1983) 186 참조.

에 특별히 놀랍거나 기록해 두어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은 셈이다. 그런 점에서 플로루스의 전쟁사는 1세기 프린킵스 통치 체제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침묵을 통해 프린킵스 초기에 대한 평가 내지는 입장을 남기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그는 당대사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위대한 전쟁을 통해 로마 제국의 위용을 자랑했던 오랜 역사에 대한 기록을 통해 현상유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던 당대에 대해 얼마간 축구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반면에, 전쟁사가인 플로루스에게 쓸 만한 소재가 없었던 시대를 타키투스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을 등진 이래부터의 일들을 기록으로 남겼다. 때로는 길고도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들의 연속이라고 타키투스 자신이 자인하는 적도 있었지만, 그가 남긴 『연대기』는 “카이사르들의 무력함”(inertia Caesarum)²⁶¹⁾이 지배해온 시대의 정치사였고, 눈에 띄지 않는 전쟁은 없이 평화로웠지만—적어도 69년만 제외한다면—그 평화로운 시절 자유를 거둬서 깨뜨리고 불안하게 만든 프린킵스의 잔혹함(saevitia principis)이 반복적으로 발발하던 국가 로마(res Romana), 도시 로마(urbs Roma)의 역사였다. 타키투스가 『연대기』의 시점(始點, ἀρχή)으로 삼았던, 이 무기력하고 나태한 프린킵스 치세에 대해 훗날 로마 제국의 궁정 역사가 중 한 사람은 이렇게 기록했다.

Tiberius ingenti socordia imperium gessit, gravi crudelitate, scelestā avaritia, turpi libidine. nam nusquam ipse pugnavit, bella per legatos gessit suos. 2. quosdam reges ad se per blanditias evocatos numquam remisit, in quibus Archelaum Cappadocem, cuius etiam regnum in provinciae formam redegit et maximam civitatem appellari nomine suo iussit, quae nunc Caesarea dicitur, cum Mazaca antea vocaretur. 3. hic tertio et vicesimo imperii anno, aetatis septuagesimo octavo, ingenti omnium gaudio mortuus est in Campania.

261) 타키투스가 인간사에 대해 회의적인 감회를 드러낸 바 있는 『아그리콜라』 3.1에서 “inertiae dulcedo”라는 표현을 상기시키는 대목이기도 하다.

티베리우스는 굉장한 나태함으로써 제국을 통치했는데, 심각한 잔인함, 죄악에 물든 탐욕, 추한 욕정을 지닌 이였습니다. 사실 그는 어디에서도 직접 전투를 하지는 않았고 전쟁은 부관들을 통해서 치렀습니다. §2. 어떤 왕들을 교사해 불러들였다가 결코 되돌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카파도키아 인 아르켈라오스가 있었는데, 그는 이 사람의 왕국까지도 속주의 형태로 정비했고 그 가장 큰 도시를 자신의 이름을 따라 불리도록 명했는데, 그것은 지금 카이사레아라 불리며 이전에는 마자카라 불리던 곳입니다. §3. 그는 제위 23년 되던 해에, 78세를 일기로 모든 이들의 커다란 기쁨 속에 캄파니아에서 죽었습니다.

(에우트로피우스, 『로마 사략(史略)』 제7권 11.1-3)²⁶²⁾

4세기 후반의 황제 발렌스(Valens, 재위 364-378년)의 궁정에서 고위 사관²⁶³⁾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역사가 에우트로피우스(Eutropius)가 기록한 티베리우스의 23년 통치기는 아주 간략하게만 기록되어 있다. 우선, 마치 그의 통치 수단 혹은 방식이 나태함(socordia)이었다는 듯이 기술된 첫 문장에는 잔인함, 탐욕, 욕정 등 주로 전기(傳記)에서 품행의 악덕에 해당하는 개념들이 덧붙여져 있다. 이어지는 대목은 전쟁과 대외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사실”(nam)이라는 표현은 이 나태함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다 할 전투나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없고, 티베리우스가 직접 전장에 나선 일이 없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²⁶⁴⁾ 17년 카파도키아 속주 편입에 관한 짤막한 기록만을, 그것도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인 듯이 덧붙여 남기면서 악덕으로 가득했던 티베리우스가 로마가 아닌 캄파니아에서 만인이 기뻐하는 중에 사망했다는 기사로 티베리우스 치세 서술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티베리우스가 이후 에우트로피우스의 서

262) 이하, Carlo Santini, ed. *Eutropii Breviarium ab urbe condita*. Leipzig: B. G. Teubner, 1979 참조.

263) 발렌스 황제에게 바친 헌사에서 그가 적시하고 있는 자신의 직함의 라틴어 표기는 “v[ir]. c[larissimus]. magister memoriae”이다.

264) 대조적으로 『로마 사략』에서 하드리아누스의 치세를 서술하는 데에 이와 유사하지만 정반대의 기록을 읽을 수 있다. cf. 8.7.1: “pacem tamen omni imperii sui tempore habuit, semel tantum per praesidem dimicavit”.

술에 두 번 더 등장한다는 점이다.

Successit ei C. Caesar, cognomento Caligula, Drusi, privigni Augusti, et ipsius Tiberii nepos, sceleratissimus ac funestissimus et qui etiam Tiberii dedecora purgaverit.

그를 계승한 것은 가이우스 카이사르로, 칼리굴라라는 별호를 지닌 이로서 아우구스투스의 의붓아들 드루수스의 아들이며 바로 티베리우스의 손자인데, 죄악에 물든 것이나 통탄할 만한 것에 있어서 최악인 이로서 티베리우스의 치욕스런 짓들과도 닮은 이였습니다.

(에우트로피우스, 『로마 사략(史略)』 제7권 12.1)

Domitianus mox accepit imperium, frater ipsius iunior, Neroni aut Caligulae aut Tiberio similior quam patri vel fratri suo. Primis tamen annis moderatus in imperio fuit, mox ad ingentia vitia progressus libidinis, iracundiae, crudelitatis, avaritiae tantum in se odii concitavit, ut merita et patris et fratris aboleret.

그 다음으로 그(sc. 티투스)의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제위를 받아들였는데, 그는 자신의 부친이나 형보다 네로나 칼리굴라 혹은 티베리우스를 더 닮은 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제위에 있던 첫 몇 년에 걸쳐서는 적절 한 모습을 보였고, 그러고는 막대한 악덕들로 나아가서, 아주 큰 정욕, 분노, 잔인함, 탐욕, 증오를 자신에게로 불러일으켰기에, 부친과 형의 업적을 없애버릴 지경이였습니다.

(에우트로피우스, 『로마 사략(史略)』 제7권 23.1)

초기 제정 로마의 역사 중, 이른바 폭군의 지배기로 일컬어지는 가이우스나 네로, 도미티아누스의 통치를 기술하면서 에우트로피우스는 이들의 원형(原型)인 듯이 티베리우스를 재차 언급하는데, 그럼에도 이 역사가가 티베리우스에 관해 기록한 정보는 극히 빈약해 보인다. 물론, 에우트로피우스가 역사서를 저술한 것은 타키투스처럼 1세기의 프린킵스 지배 체제 당시 통치자와 원로원, 그리고 지배 계층의 정치사를 세세하게 기술하고자 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우선, 이 제정 후반기 사가는 지위

에 있어서 궁정에서 역사 문헌을 담당하는 일종의 황실 관료였고 그가 자신의 간략한 역사서를 저술한 동기 역시도 그와 같은 공식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 타키투스와 같은 원로원 의원을 지낸 역사가들과는 달리 이제 역사서는 황제의 요청에 따라 저술되기도 하고 그에게 헌정되기 위해 집필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 저술 동기 역시, 과거사를 읽음으로써 독자인 황제가 제국 통치에 귀감이 될 만한 훌륭한 일들을 익히는 것이었다. 물론, 그러하기 전에 훌륭한 황제는 이미 통치에 필요한 덕목(providentia)을 갖추고 있을 테지만 말이다.

Res Romanas ex voluntate mansuetudinis tuae ab urbe condita ad nostram memoriam, quae in negotiis vel bellicis vel civilibus eminebant, per ordinem temporum brevi narratione collegi, strictim additis etiam his, quae in principum vita egregia extiterunt, ut tranquillitatis tuae possit mens divina laetari prius se inlustrium virorum facta in administrando imperio secutam, quam cognosceret lectione.

폐하의 너그러운 뜻에 따라 도시 창건 이래로 우리의 기억에 이르기까지, 전쟁이나 민정과 관련되어 특별했던 로마의 역사를 시간 순서에 따라 짚막한 서술로 저는 수합했습니다. 그리고 간소하게 황제들의 생애 중 두드러졌던 일들을 더해두기도 했습니다. 이는 폐하의 고요한 성정을 지닌 신적인 정신이, 읽어 알기도 전에 제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훌륭한 이들의 행적을 따르고 있었음에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입니다.

(에우트로피우스, 『로마 사략(史略)』 서문)

이와 함께 아울러 눈여겨 볼만한 요약본 형태의 역사 문헌은, 테오도시우스(Theodosius, 재위 379-395년) 치세의 역사가 아우렐리우스 빅토르(Sex. Aurelius Victor)의 저술로 알려진 『약사(略史)』(*Historiae Abbreviatae*)와 4세기말 익명의 저자가 남긴 『황제들에 대하여: 적요(摘要)』(*Epitome de Caesaribus*, 이하 『적요』로 약칭)²⁶⁵⁾이다. 전자

²⁶⁵⁾ 이하, Franz Pichlmayr, ed. *Sexti Aurelii Victoris Liber de Caesaribus* /

의 경우, 『황제들에 대한 책』 (*Liber de Caesaribus*)이라고도 불리는데 아우구스투스 이래 콘스탄티우스 2세(Constantius II, 재위 317-361)까지의 제정사를 각 황제들의 치세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도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되는 제정의 역사를 테오도시우스 때에 이르기까지 담고 있는데,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고 전승 상 아우렐리우스 빅토르의 역사서를 요약한 책으로 전하지만 아마도 그 이전의 여타 제정사 사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두 문헌 모두 서술 시점(始點)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의 지배 체제 성립의 성격을 기술하는 데에는 큰 차이를 보여준다.

anno urbis septingentesimo fere vicesimoque, duobus etiam, mos Romae incessit uni prorsus parendi.

도시의 역사 거의 722년째 되던 해, 로마에서는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는 관습이 시작됐다.

(아우렐리우스 빅토르, 『약사』 1.1)

anno urbis conditae septingentesimo vicesimo secundo, ab exactis vero regibus quadringentesimo octogesimoque, mos Romae repetitus uni prorsus parendi, pro rege imperatori vel sanctiori nomine Augusto appellato.

도시 창건 이래 722년째 되던, 반면에 왕들이 축출된 것으로부터는 480년 되던 해 로마에서는, 왕 대신에 황제 혹은 보다 신성한 이름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로 불리는 한 사람에 대해 전적으로 복종하는 관습이 부활했다.

(『적요』 1.1)

이어지는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서술에서도 이 두 역사서는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데, 아우렐리우스 빅토르가 이 첫 황제의 업적과 관용, 가정사 외에는 유복했던(felix) 운명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는 반면, 『적요』의 경우 그 서술 분량 면에서도 전자의 4-5배 정도로 많고 대내외

Epitome de Caesaribus. Leipzig: B. G. Teubner, 1911 참조.

적인 업적뿐만 아니라 품행, 인간관계 등과 관련해서는 탁월한 면 못지 않게 흠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안들을 거론하며 기록하고 있다. 특히, 아우구스투스의 죽음 이후에 대한 서술에서는 상당히 과감한 관점에 따른 기술이 주목된다.

Nam praeter id, quod antea Patrem patriae dixerat, templa tam Romae quam per urbes celeberrimas ei consecravit, cunctis vulgo iactantibus: "Utinam aut non nasceretur aut non moreretur!" 29.

Alterum pessimi incepti, exitus praeclari alterum. Nam et in adipiscendo principatu oppressor libertatis est habitus et in gerendo cives sic amavit, ut tridui frumento in horreis quondam viso statuisset veneno mori, si e provinciis classes interea non venirent.

사실, 이전에 국부라고 불렸었던 것 외에, 아주 유명한 도시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그에게 원로원은 신전을 봉헌했으니, 모든 이들이 흔히 이렇게 비아냥대는 중에 그러했다.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니면 죽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29. 한편으로는 최악의 시작이었으며, 눈부신 최후가 다른 한편이었다. 사실, 그는 프린키파투스를 달성해내는 데 있어서 자유의 억압자로 여겨졌으며, 또한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시민들을 아주 사랑했기에, 사흘 치 식량만 곡물창고에 있는 것을 보게 되자 만일 속주들로부터 함선들이 그 사이에 오지 않으면 독약으로 죽으리라고 결심할 정도였다.

(『적요』 1.28-29)

아우구스투스의 프린키파투스 성립 과정에서 그가 “자유”의 압제자”(oppressor libertatis)라고 여겨졌다고 이 역사서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최초에는 좋지 못한 시작이었지만, 그 끝은 훌륭했다는 점 역시도 그와 관련되어 주목할 만한 평가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서술이 가능했던 것은, 『적요』의 저자가 첫 문장에서부터 프린키파투스의 성격이 군주정이었음을 직설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그가 군주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과감함(libertas dicendi)을 이후 서술에서 일관되게 이끌어 가는지는 이

문헌에 대한 보다 면밀한 독해를 바탕으로 해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²⁶⁶⁾ 아무튼, 이 익명의 저자는 다른 제정사 저자들과는 달리 비교적 독특한 입장에서 통치 체제로서의 프린키퍼투스에 대해 저술의 첫 대목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타키투스의 역사서에서는 읽어내기 힘든, 각각의 프린키퍼스 치세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이나 간추림(*summa seu breviarium*)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포폄(褒貶)을 기록에 담고 있다는 것이 이 적요(摘要) 혹은 약사(略史) 형태의 역사서들의 특징이라 눈여겨 볼만하다. 그것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저술 당시와는 아주 먼 과거의 일이기에 비판의 부담이 한결 덜하다는 점일 것이다. 한편, 『적요』 2장에서 보고하는 티베리우스 체제에 대해서는 여타 다른 사료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가장하거나 위선적인 모습과 품행에 대한 서술,²⁶⁷⁾ 그로 인해 초래된 원로원과의 갈등²⁶⁸⁾ 등에 대해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가 88세까지 살았다는 보고가 부정확한 것 외에 대외정책이나 전쟁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 역시도 큰 틀에서 다른 전승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출생과 과음으로 인해 얻게 된 별명(*Caldius Biberius Mero*)에 대한 첫 서술 이후 티베리우스에 대한 긍정적인 기술이 눈길을 끈다.

satis prudens in armis satisque fortunatus ante sumptum imperium
sub Augusto fuit, ut non immerito reipublicae dominatus ei

266) 이것은 소위, *Enmannsche Kaisergeschichte*라고 일컬어지는 소실된 4세기 황제들의 역사를 담은 문헌에 대한 이해와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cf. Jörg A. Schlumberger, *Die Epitome de Caesaribus. Untersuchungen zur heidnischen Geschichtsschreibung des 4. Jahrhunderts n. Chr.*, Munich: C.H. Beck, 1974.

267) 『적요』 2.4: “simulans ea se velle quae nollet; his quasi infensus, quibus consultum cupiebat, his vero, quos oderat, quasi benivulus apparens”.

268) 『적요』 2.6-7: “denique delatum a patribus principatum (quod quidem astu fecerat) fecte abnuere, quid singuli dicerent vel sentirent, atrociter explorans: quae res bonos quosque pessumdedit. [7.] Aestimantes enim ex animo eum longa oratione imperialis molestiae magnitudinem declinare, cum sententias ad eius voluntatem promunt, incidere exitia postrema”.

committeretur. 4 inerat ei scientia litterarum multa. eloquio clarior, 무예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현명했고, 제권을 얻기 전 아우구스투스 치하에서는 충분히 운이 좋았기에, 국가의 지배권이 그에게 맡겨지는 것이 부당하지 않을 정도였다. §4. 그에게는 상당한 학식이 있었다. 달변으로 한결 유명하긴 했다.

(『적요』 2.3-4)

한편 아우렐리우스 빅토르의 『약사』에서는, 앞에서 타키투스의 『연대기』를 통해서 확인했던 그의 성정과 품행에 대한 내용, 위선과 가장으로 초래된 치세 후반기의 과국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몇몇 대목에서는 어휘 사용 면에서 타키투스의 서술과 상당히 유사한 면모를 보여준다.

ubi, quae metuebantur, satis tuta animadvertit, imperium complexus est, cuius nomen astu abnuebat: **subdolus et occultior**, hisque saepe simulando infensus, quae maxime cuperet, et insidiosae deditus, quae odio erant; **ingenio** ad repentina longe acriore; bonis initiis deinde perniciosus, quaesitissimis in omnem fere aetatem sexumque libidinibus, atque atrocius puniens insontes noxios, suos pariter externosque.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들이 충분히 안전한 상태임을 알게 되자 제권을 포섭했는데, 그 명칭은 교묘히 거부하려 했다. 그는 교활하고 한결 의문스러웠고, 가장 바라던 것들은 자주 가장함으로써 그것들로 인해 언짢아했고, 그리고 미움의 대상이었던 것들은 간교하게 헌신하면서 그러했다. 갑작스런 것들에 단연 더 매서운 본성을 지닌 편이었고, 시작은 훌륭했음에도 그런 연후에는 위험천만한 이로서, 거의 모든 연령대와 성(性)에 대한 정욕이 아주 집요했고, 더욱이 무고한 이들과 해끼치는 이들을, 자국민이건 외국인이건 마찬가지로 처벌함으로써 더욱 잔혹해졌다.

(아우렐리우스 빅토르, 『약사』 2.1)

그밖에 다른 사료들과 견주어 특별히 추가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들

은, 티베리우스가 은밀한 추대를 위해 카프레아이 섬에서 은둔 생활을 했다는 것, 근위대 주둔지(praefectura praetorio)가 로마 인근에(apud urbem) 상설된 것이 티베리우스 치세였다는 서술이다(2.4). 이처럼, 타키투스 이후의 역사서들은 대개 통사(通史)의 형태로 도시 로마의 창건 이래로, 혹은 프린키파투스 성립 이후의 황제들의 역사를 각각의 시대와 통치자들의 치세를 단위 별로 간추려 기술한다. 대체로 전임 역사가들의 사료에 기반하여, 필요에 따른 요소들을 선별하여 역사가 저마다의 기준에 따라 요약하는 형태인데, 이와 같은 전기(傳記) 형태의 황제사 서술은 개개의 황제의 품행, 군사-정치적 업적과 생애에 대한 기술에 치중해 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프린키파투스 초기의 역사서술에서 아우구스투스의 업적과 생애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는 반면, 이 체제를 최초로 계승했던 티베리우스의 치세에 대한 기록은 빈약한 편이다. 전임 통치자와의 비교로 인해, 후속되는 제정 초기 폭군들과의 유사함 때문에 티베리우스의 통치기에 내리는 고대 후기의 역사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야박해 보인다. 반면에, 이와는 달리 티베리우스와 그 치세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는 한 역사가의 기록은 이색적이다.

반면에 티베리우스 본인은 자신의 재위 기간의 상당 부분에 걸쳐, 대단하고 진중한 절제(modestia)로써 국가를 관리했기에, 어떤 총독들(praesides)이 속주들에게 증세해야 한다고 설득하고자 하자 이렇게 서한을 썼다. “훌륭한 목자의 일은 가축의 털을 깎는 것이지 가축을 벗기는 게 아니다.”²⁶⁹⁾

§5. 그러나 주 그리스도께서 수난을 받으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당신 제자들을 가르침을 위해 해산시켜 보내신 후에, 팔라이스티나 속주의 총독(praesides)이었던 필라투스(Pilatus)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왔고 원로원에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에 대해 그리고 이어졌던 훌륭한 일들에 대해, 그리스도 당신을 통해 드러나게 이루어졌었던 것들에 대해, 혹은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들에 대해, 그리고 앞 다투어 많은 수의 사람들의 믿음이 커지면서 신이 믿

269) 수에토니우스, 「티베리우스」 32.

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보고했다. §6. 티베리우스는 많은 지지를 얻은 투표를 통해 원로원에 그리스도가 신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안건을 제출했다. 원로원은 의분으로 인해 흥분하여, 왜 관습에 따라 자신들에게 먼저 보고되지 않아서 승배를 승인하는 데 있어서 그 자신이 먼저 결정하게 되었냐며, 그리스도의 봉헌을 거부했고 포고로써 그리스도인들을 도시(sc. 로마)에서 추방해야만 한다고 결정했다. 특히 티베리우스의 근위대장 세야누스도 종교를 승인하는 데 대해 아주 고집스럽게 반론을 펼쳤기에 그러했다. §7. 그럼에도 티베리우스는 포고로써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한 이들을 죽음으로 위협했다. 그래서 점차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의 저 굉장히 찬사 받은 절제(modestia)는, 반론을 펼치는 원로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작아졌다.

(오로시우스, 『반(反) 이교도사(史)』 7.4.4-7)270)

5세기 초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De Civitate Dei*)을 저술하던 중에 일종의 호교론적 교회사 저술을 그에게서 의뢰받은 오로시우스(Paulus Orosius)는, 여타 역사가들과는 달리 티베리우스의 절제(modestia)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며, 속주 정책과 관련되어 티베리우스가 말했다고 전하는 유명한 표현을 그 사례로 자신의 교회사 서술에 담고 있다. 다소 길게 발췌한 상기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오로시우스에게도 역시나 티베리우스 치세에 변곡점이 있었는데, 그 인물로 세야누스를 지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이유가 티베리우스의 뜻을 거슬러 세야누스가 그리스도교 승인에 반대했다는 점 때문이라는 서술이 흥미롭다. 이 교회사가는 전반적으로 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긍정적으로 기술해 온 역사서술 전통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평가절하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교도들의 관점에서 ‘기념비적’으로 혹은 ‘골동품적’으로 서술된 역사를 재기술하면서 그리스도교의 도래와 우수함을 논하기 위해 저술된 『반 이교도사』는 전반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보다도 더 강경하거나 덜 관용적인 기록들을 남기고 있다고 평해진다. 타키투스를 비롯해 앞에서 살펴본 역사가들의 기록에서 읽히는 잔인한 황제들에 대한

270) cf. Marie-Pierre Arnaud-Lindet. ed. & tr. *Orose: Histoires contre les païens*. (3 vols.) Paris: Les Belles Lettres, 1991.

반감은, 오로시우스의 교회사 기술에도 아우구스투스 이후 콘스탄티누스 이전까지의 대부분에 걸쳐 관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호의적으로 기술되는 시대가 아우구스투스의 평화(Pax Augusta) 시대로, 이 시기에 다름 아닌 예수의 탄생과 그리스도교의 도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⁷¹⁾ 티베리우스의 치세에 대한 기술 역시 전반적으로 호의적인데, 오로시우스에게 티베리우스의 통치기는 그리스도의 구속(救贖)이 이루어진 치세였으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시대(tempora Christiana)를 시작케 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오로시우스의 ‘응징’의 이교도사 서술에서, 티베리우스의 치세는 절제(modestia)가 지배적이던 초기에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가 비롯한 잔혹한 통치 후반으로 급격하게 변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티베리우스는 그리스도교에 호의적이었던 데 반해, 이것을 반대했던 이가 세야누스로서 그의 최악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오로시우스의 지적이다. 티베리우스 통치기에 초래한 술한 죽음의 원흉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반대자 세야누스라는 것이다(7.4.8-10). 이와 같은 그리스도교 역사서술이나 신정론(神正論) 전통에서 티베리우스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우호적이다.²⁷²⁾

그리스도교 교회사에서의 평가를 예외로 한다면, 티베리우스가 세습 군주로서 전제정의 빌미를 만든 최초의 통치자라는 평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그리 호의적인 평을 받지 못한 티베리우스의 지배 체제는 거의 23년 간 대내외적인 큰 유혈 사태 없이 성공적으로 유지되었고 후계자에게 계승되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치세 자체는, 통치자

271) cf. Garry W. Trompf. *Early Christian Historiography: Narratives of Retribution*. New York: Continuum, 2000, 296-298.

272) cf. 단테 알리기에리, 『신곡』, 「천국」 6.85-87: “diventa in apparenza poco e scuro, / se in mano al terzo Cesare si mira / con occhio chiaro e con affetto puro” ([또 다음에 한 일이] 셋째 카이사르의 손아귀에 들어 있음을 / 밝은 눈 맑은 감정으로 본다면 / 겉으로는 작고 희미하게 되어 버리나니) (번역은, 『신곡 (하)』 최민순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1987에서 인용). 「천국」 제6곡에서 로마 제국의 역사를 들려주는 유스티니아누스가 여기서 언급하는 셋째 카이사르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잇는 티베리우스를 지칭한다. 인용문에 이어지는 대목에 그리스도 이전 세계에 대한 응징의 역사를 맡은 것이 바로 티베리우스라는 설명이 덧붙여진다.

본인에게는 그리 순조롭지 못한 시절이었다 하더라도 로마 제국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프린킵스 일인 통치 체제, 즉 프린킵아투스²⁷³⁾의 무난한 연착륙을 가능케 한 셈이다. 선거 제도와 관직 및 속주총독 등 행정 제도의 점진적인 개편,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원로원과의 협치, 원로원의 약화로 인해 구축된 프린킵스의 결정권 강화와 근위대를 비롯한 황실 측근 세력의 득세 등 훗날 이 로마 제국의 지배 체제가 버텨낼 수 있는 정치 제도의 변화는 티베리우스 치세에 공고해졌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 이 체제는 티베리우스가 창안해낸 것도 변질시킨 것도 아니었다. 왕정기 이래 ‘다시’ 로마가 일인지하 체제가 된 것은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그는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와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을 원치 않았고 결과적으로 그는 왕도 참주도 아닌 ‘제일시민’(princeps)으로서 삶이라는 소극을 훌륭히 수행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이 불안정한 체제를 최초로 ‘세습’하게 된 이가 떠맡게 된 정치적 ‘역할’(persona) 역시 말 그대로 최초의 것이었다.

타키투스가 『연대기』 초반 이 아우구스투스의 프린킵스 체제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목에서 읽을 수 있는 긴장은 사실상의 군주정이, 있는 그대로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과거 공화정의 유산과 위태롭게 결탁해 있는 모습에서 기인한다. 티베리우스와 원로원 간의 갈등과 위선이 보여주는 이 초기 양상은 프린킵아투스의 이 두 주요 정치 주체가 혼재할 수 있는 여지를 점차 지워간다. 타키투스의 기록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 프린킵아투스 초기에 나타나는 지나친 굴종과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은 공화정적 자유의 잔재,²⁷³⁾ 티베리우스의 개인적 흠결과 일인 지배자의 타성 등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우구스투스가 서거한 직후, 그간 정치 주체들 간에 위태로운 가장(假裝)과 허울 속에 지탱해 온 프린킵아투스는 권력 ‘세습’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시험에 들었다. 결과적으로 원로원이 패했고 프린킵스는 사실상의 일인 지배자로서의 특징을 외면화해 간다. 『연대기』 첫 여섯 권에서 그려진 티베리우스와 원로원이 그러했고, 결과적으로 체제 말에 암시된 것처럼 그 이후 가이

273) cf. 『연대기』 1.74.1: “manebant etiam tum vestigia morientis libertatis”.

우스를 통해 프린키파투스라는 체제는 결국 그 내밀한 면모를 드러내 보이게 되고, 이후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치세의 역사를 통해 그와 같은 과정은 반복될 것이었다.²⁷⁴⁾

이처럼 타키투스가 저술한 것은 이상 국가에 대한 체제론도 도덕철학 이론서도 아닌 역사서였다. 그가 기록으로 남긴 것은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의 청사진이 아니라 실패와 참상으로 점철되곤 했던 실제 정치사를 담은 일종의 음화(陰畫, negative film)였다. 비유컨대, 그가 보여준 로마 제정기 초의 역사는 초기부터 자신이 살아남은 1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반복된 ‘이카루스의 비행’이었다. 그러나 타키투스가 역사서술을 통해서 감행하고자 한 것은 이 실패한 이들에 대한 응징에 그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제 새로이 맞게 된 체제의 일인 통치자와 그의 치하에서 살아가는 지배 계층에게 타키투스의 역사서는 경종인 동시에, 지난 과오를 경계하고 삼감으로써 내일을 도모하고자 한 일종의 ‘징비록(懲毖錄)’이었던 셈이다.²⁷⁵⁾

아울러, 급격한 정치체제 교체가 아닌 ‘공화정의 회복’이라는 명분하에 성립해 공화정의 명목과 제도적 유산을 안고 점차 군주정으로 변모해 가는 제정 초기의 역사를, 아우구스투스를 비롯해 그의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황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원로원과 공화정을 무력화해 가는지에 주목해 『연대기』의 기록을 통해 읽을 수 있다. 특히, 과거의 공식적인 제

274) cf. 세네카, 『관용론』 (*De Clementia*) 1.1.6: “nemo enim potest personam diu ferre”.

275) cf. Byonghyon Choi, tr. *The Book of Corrections: Reflections on the National Crisi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1592-1598*.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1-2. 『징비록(懲毖錄)』 영역 서문에서 역자는 통상적으로 “War Memoirs”로 번역되는 것을 유성룡의 서문에서 인용된 『시경(詩經)』 「소비(小毖)」 편 “予其懲而毖後患”에 근거해 “The Book of Corrections”로 옮긴다고 밝히고 있는데, 실증적 탐구(inquiry)를 중요시하는 서양 역사서술과는 달리 동양의 역사서술은 도덕적, 교훈적 함축을 가진다고 부연 설명한다. 그러나 서양의 고대 역사서술 역시 정치적이고 교훈적인 오랜 전통 위에 서 있었다. 예컨대, 헤로도토스 이래로 폴뤼비오스의 정치사를 비롯한 헬레니즘 시기까지의 도덕론으로서의 역사서술 전통에 대해서는, Lisa Irene Hau, *Moral History from Herodotus to Diodorus Siculu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6 참조.

도와 명분을 크게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아우구스투스의 유훈을 고수하고자 하는 모습, 눈에 띄는 커다란 개혁은 지양하되 체제 변화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시도²⁷⁶⁾ 등 티베리우스의 행정가로서의 정치적 수완은 초기 프린키퍼투스를 연장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혹은 유발하고자 했던 것 역시 티베리우스 체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티베리우스의 개인적인 성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인민 대중과의 접촉을 피하려 하거나 소문이나 풍문을 통해 정국을 운영하되, 법적, 제도적 근거 하에 정보망, 제위에 대한 보호수단(가령, *delatores*나 *lex maiestatis*, *praetoriae cohortes*)을 강화하고자 한 것 등 티베리우스의 정책 전반은 군주정적 체제로의 변화를 가능케 한 행보였다. 또한, 티베리우스 체제 하에서는 속주 문제, 대외 전선(戰線) 등 주로 장거리 외교 소통과 관련된 문제들 역시 그의 치세 말기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큰 문제없이 관리되었다. 이는, 비록 26년 이래 그가 로마에 부재하기는 했지만 서한이나 칙서(*epistula*, *codicilli*) 등의 문서, 교지를 통한 원격 통치 역시도 비교적 원활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1세기 제국 로마는 점진적으로 일인 통치자 프린키퍼스를 구심점으로 방사형의 권력 구조를 구축해 갔다. 글자 그대로 티베리우스는 신군(神君)도 성군(聖君)도 아니었지만 전적으로 폭군(暴君)이나 암군(暗君)이라고 평하는 것은 평면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그는 신군의 아들이었고 무려 23년 동안 커다란 내외의 환(內憂外患) 없는 아우구스투스의 평화 체제(*Pax Augusta*)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의 치세, 그의 품행이 달라지면서 국가 체제 역시도 변화를 맞게 되었다. 국가 권력은 황제와 근위대, 황실 측근을 중심으로, 이제 로마는 명실상부 일인 통치정(*unicus principatus*)²⁷⁷⁾으로 경화되어 가고,

276) cf. 『연대기』 2.30.3: “*callidus et novi iuris repertor Tiberius*”. 국역본은 이를, “새로운 법안을 고안해 내는 데 뛰어나고 세상 물정에 밝은 티베리우스”라고 옮기고 있는데, “*iuris repertor*”는 엄밀히 말해 법안이 아니라, ‘법적 정당성’이나 ‘정당화 근거’를 고안하는 데 능숙했다는 의미로 새기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77) cf. 단테 알리기에리, 『제정론』 (*De Monarchia*) 1.2.2: “*est ergo temporalis Monarchia, quam dicunt ‘imperium’, unicus principatus et super*

그의 사후 약 4년에 걸쳐 그것의 부작용, 극단적인 폐단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가이우스 폐위 후 원로원과 지배층이 선택한 것은 공화정으로의 복귀도 원로원 중심의 과두체제 수립도 아니었다. 제국 로마의 1세기 소위 폭군의 몰락 즈음에 이를 때마다 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선택한 것은 매번 연로한 과도적 인물²⁷⁸⁾이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시 권력은 일인 지배의 강력한 군주정으로 회귀되거나 과도한 폭정으로 인해 원로원의 자유와 입지는 줄어들었다. 불완전하게 혼합정체의 외형과 명분 속에 유지되어 온 아우구스투스의 치세는, 적어도 이 프린키파투스과 자유가 공존하[는 것처럼 보였]던 시대였다. 그러나 그의 사후, 그것을 가능케 한 유일무이한 통치자 사후에 로마는 더 이상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없었다.²⁷⁹⁾ 강력한 일인 통치정은 효율적인 행정과 권력 구조 덕분에 제국에 평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통치 권력의 일원화는 점차 과거 공화정의 자유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타키투스의 『연대기』 속 티베리우스 치세 서술은, 아우구스투스 체제 이후의 이 ‘부서진 세계’의 역사를 담고 있다.

결과적으로 폭정(暴政)은 위정자 본인에게 좋지 못한 결말을 초래하는 경우가 다반사이지만, 마키아벨리식으로 두려움과 공포, 불확실성을 통한 지배²⁸⁰⁾는 단독 통치자와 그를 비롯한 소수의 통치 집단 내부에게는 상

omnes in tempore vel in hiis et super hiis que tempore mensurantur”.

278) 제위에 오른 해를 기준으로, 클라우디우스, 갈바, 네르바의 나이는 각각 51세, 71세, 66세였다.

279) Wirszubski는 “Principatus et Libertas”라는 마지막 장(章)에서 타키투스와 플리니우스의 문헌 분석을 통해, 과거 공화정기의 체제와 법률이 보전해 주던 정치적 자유는 프린키파투스라는 전제적 지배 체제 하에서는 확보될 수 없음을 이끌어낸다. 이제 자유는 너그러운 부모 슬하에서 아이들에게 허용되는 그런 정도로, 원로원 의원에게는 정치적 위신(dignitas)을 지킬 수 있는 선에서 허락된, 그래서 이제는 권리(right)가 아닌 일인 지배자의 선사(gift)로 전락했다고 그는 이 마지막 장을 끝맺는다. cf. Wirszubski (1950) 160-171.

280) 수에토니우스, 「티베리우스」 59.2: “oderint, dum probent”; 「가이우스」 30.1: “oderint, dum metuant” 참조. Hugh Lindsay(ed. *Suetonius: Tiberius*. Bristol: Bristol Classical Press, 1995)는 해당 대목 주석에서 후자의 경우 공화정기 술라 시대에 저술된 아트레우스(Atreus)와 관련된 극작의 한 대목으로 설명하면서 티베리우스와 술라를 결부시키는 표현으로 해석한다. 반면, Robert Kaster는 “oderint, dum metuant”를 아키우스(L. Accius, 기원전

당히 편리한 혹은 안위를 위해 불가피한 통치 방식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통치의 일종의 비밀주의²⁸¹⁾는 『연대기』 초반, 티베리우스가 아우구스투스 체제를 승계하는 데까지 한 달여 지속된 과도기에서도 관찰된다. 아우구스투스 서거 이후 정무관들과 원로원 그리고 로마 인민 전체가 일제히 보여준, 적어도 표면적인 복종의 면모는 이 프린키파투스라는 지배 체제의 일면을 노출한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티베리우스—를 비롯한 그의 측근 수뇌부—가 결정하고 대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제국의 통수권자나 다름없었지만 표면적으로는 공화정기의 위정자처럼 처신했던 점 역시도 주목된다. 프린키프스 아우구스투스의 권위(auctoritas)와 공화정기의 제도 그리고 과거 지배층 간의 ‘협치’, 이로 인해 누릴 수 있었던 로마의 평화는 이 탁월한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가졌던 정치 지도자로 인해 가능했고 표면적으로 제국 로마의 유구한 역사는 여전히 이어졌다. 그러나 프린키프스 지배 체제, 즉 프린키파투스는 법적, 제도적 정비와 정당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불완전한 공모와 결탁이었다. 요컨대, 아우구스투스 서거 직후에 노출된, 티베리우스가 행사[했지만 그러지 않은 척]한 프린키프스의 제왕적 권위 그리고 표면적으로 준수하고자 한 [혼합정으로서의 프린키파투스가 가지고 있던] 공화정적 절차는 반대로 로마 공화정과 제정 로마 사이의 불연속성을 보여주었다. 본고 III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대기』에서 티베리우스의 제위 사양 기사는 이 긴장감과 간극을 읽을 수 있게 한다.

170-86) 극작의 단편으로 분류하는데, 이를 이미 키케로가 인용한 바 있다 (「반(反) 필리포스: 안토니우스 규탄 제1연설」(*Oratio Philippica prima*) 34. cf. John Ramsey. ed. *Cicero: Philippics I-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ad loc.*). 소위 ‘공포정치’와도 관련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또한,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제17장 “잔혹함과 자비에 대하여, 그리고 사랑받는 것이 두려움을 주는 것보다 더 나은가 혹은 그 반대인가” (곽차섭 옮김, 서울: 도서출판 길, 2015) 참조.

281) 궁정의 권력 독점과 그로 인한 언론의 자유 제한이 초래하는 폐단을 극복하고자 한 16, 17세기 영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타키투스가 널리 읽혔던 것은, 휘그파, 공화주의자들이 시민적 자유(civic liberty)에 고민하며 그 자신들의 현실을 이 역사가의 저술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켄틴 스키너, 『켄틴 스키너의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 조승래 옮김, 서울: 푸른역사, 2007, 140-143 참조.

태생은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사회학, 정치학 등의 영역에도 응용, 확장 적용되고 있지만,²⁸²⁾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²⁸³⁾을 프린키파투스 초기사 해석에도 적용할 수 있을 듯하다. 법정화폐법(Legal tender laws)이 부재하는 사회에서, 구매자는 동일한 액면가(명목가치)로 교환되는 화폐 중 재질금속의 순도(소재가치)가 높은 화폐, 즉 양화(良貨, good money)보다는 질이 떨어지는 악화(惡貨, bad money)를 지불 수단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유통 화폐에 대해서 실정법으로 규제하지 않는 한, 시장에서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는 것이 소위 ‘그레샴의 법칙’의 골자이다. 여기에 비추어 보자면, 법률로서 프린킵스-황제의 정치적 권력이 규정되지 않아 그 지위가 안정되지 못했고, 약화된 정치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명목상으로는 원로원 또한 건재했기에 프린키파투스 초기가 내적 모순을 안고 있었다는 지적은 온당할 것이다.²⁸⁴⁾ 아우구스투스의 프린킵스 체제는, 말하자면 제국 내부의 전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결성된 일종의 비상대책위원회(Emergency committee)가 장기화된 것²⁸⁵⁾인데, 이 체제가 일단락된 이후 티베리우스의 권력 승계는 법적, 제도적 정당화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아우구스투스처럼, 비유컨대 순도 높은 좋은 프린킵스가 되는 것은 프린키파투스를 차지하고 있는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들이는 노력 대비 이익이 작은 선택지일지도 모른다. 법적 근거 없이 공화정기 제도의 허울 아래 유지되어 온 아우구스투스 비상(非常) 체제와 그의 서거

282) cf. Rocío Albert, Francisco Cabrillo. “Gresham’s Law in Politics: Why are Politicians not the Most Remarkable Men for Probity and Punctuality?” *Europ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1, no. 2 (2006): 99-112.

283) 엘리자베스 치세 초 토머스 그레샴(Sir Thomas Gresham, 1519-1579)의 화폐 개혁과 통화 조절 정책에 대해서는, 도인환, 「화폐와 신용의 관점에서 본 『헨리 4세』」, *Shakespeare Review* 50-3 (2014): 447-472, 특히 450 참조.

284) 안희돈,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의 임페리움(大權)에 관한 법(A.D. 69)」, 『역사교육』 54 (1993): 113-152, 특히 134-135 참조.

285) cf. 『연대기』 1.1.1: “Urbem Romam a principio reges habuere; libertatem et consulatum L. Brutus instituit. ... qui (sc. Augustus) cuncta discordiis civilibus fessa nomine principis sub imperium accepit”.

(excessus Augusti) 이후의 프린키파투스 역시, 군주정이 참주정으로 타락하기 쉬운, 그래서 나쁜 통치자를 배태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정치 체제라는 점을 드러내 보였다.

약 23년에 걸친 티베리우스 체제의 악화는, 그리고 그 이후 69년까지 폭군들이 거듭 등장한 제정 로마 초기는 비유컨대 “나쁜 프린킵스가 좋은 프린킵스를 구축(驅逐)”한 역사가 반복된 셈이다. 그런 점에서, 69년 베스파시아누스²⁸⁶⁾의 대권에 관한 법(Lex de imperio Vespasiani) 제정이, “아욱토리타스에 의해 행사되어 오던 황제의 권한이 본 법과 같이 법률로서 규정된 사실은 원수정의 정치 발전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²⁸⁷⁾이라는 평가와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 오던 원로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왕조의 시작과 함께 그 협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²⁸⁸⁾이라는 해석은 타당해 보인다. 아우구스투스의 죽음 이후 이 시기까지를 서술한 타키투스의 『연대기』 전체는 “나쁜 프린킵스가 좋은 프린킵스를 구축”했던 제정 로마 초기의 기록을 담고 있는 정치사이다. 그리고 가장 훌륭했던 프린킵스 아우구스투스 치하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프린키파투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티베리우스 통치기였다. 그의 치세의 공과(功過)를 나누자면, 프린킵스 체제의 병폐가 터져 나오는 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유예하며 체제의 안정과 제국의 평화를 유지했다는 점²⁸⁹⁾이 공로 중 하나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이후 카이사르들의 무기

286) 현존하는 타키투스의 문헌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베스파시아누스만이 좋은 cf. 『역사』 1.50.4: “... solusque [sc. Vespasianus] omnium ante se principum in melius mutatus est”.

287) 안희돈 (1993) 124.

288) 안희돈 (1993) 152. 또한 “아우구스투스 원수정의 전통을 잇고 새로운 지지 기반으로서 원로원과 제휴하고자 하는 베스파시아누스의 의도”와 “손상된 원로원의 위신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안희돈 1993, 150)라고 해석한 점 역시도 일리 있는 해석으로 보인다.

289) Barbara Levick의 연구서 *Tiberius the Politician*(2nd ed., New York: Routledge, 2003. (1st ed. 1976))의 논의는 앞에서 언급한 티베리우스 치세 초기 일면 공화정적이거나 과도기적이었던 정치 체제에 주목한 것이다.

한 무능함(*inertia*/in+ars+ia)²⁹⁰)이나 나태함(*socordia*/se+cord+ia)²⁹¹)으로 점철된 과거의 ‘가지 않아야 할 길’을—또한 자신이 살아남았던 그 역사를— 되짚어 보며, 훌륭한 통치술(ars imperandi)과 열성(cor)을 갖춘 최선의 프린킵스에 대해 역사서술이라는 복화술을 통해 기대한 것이 타키투스의 정치사(*πραγματικὴ ἱστορία*)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290) cf. 플로루스, 『전쟁사 적요』 서문 8.

291) cf. 에우트로피우스, 『로마 사략(史略)』 7.11.1

V. 결론

타키투스의 『연대기』는 그의 전체 역사서술 기획과 구도 안에서 특이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서술 시점(時點)으로 보면, 『역사』보다 나중에 저술되었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작품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루고 있는 역사적 시간을 감안하면 『역사』의 전편(前篇, prequel)으로 기획된 것이다. 특히, 『연대기』 제1-6권은 타키투스의 역사서 전체가 다루고 있는 시대를 시간 순서에 따라 읽게 되면 맨 앞에 놓이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 특이한 저술 순서와 『연대기』 서문 그리고 제1권 초반에서 티베리우스 치세를 서술하기 이전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타키투스의 논의에 주목해 그가 14-96년까지의 초기 제정사를 저술하게 된 의도와 의의를 해명하고자 했다. 요컨대, 타키투스는 대내외적인 ‘로마의 평화’(Pax Romana)를 다시 새로이 맞게 된 시절, 정치적 자유가 프린키파투스 이전의 그것처럼 보장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연설가-정치가로서가 아닌 필설가로서 현실정치에 참여하고자 했다. 타키투스가 체화한 수사학 교육과 고대 역사서술 전통은, 과거사 서술을 통해 “우리 시대”(aetas nostra)에 끊임없이 경종을 울리고자 한 그의 필치를 낳았다.

타키투스는 도미티아누스의 폭정 이후 맞게 된 새 시대, 즉 자신이 살아가고 있던 동시대를 그 서술 대상으로 삼고자 했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그가 애초의 저술 계획과는 달리 정치 현실과의 ‘거리두기’에 대한 필요성을 의식하게 된 것은, 1세기 초 『역사』를 비롯해 본격적인 저술 활동 중일 때였다. 이로 인해 그에게는 역사서술 표현의 차원에서도 한층 더 치밀한 서술 전략이 필요했는데 『연대기』 저술은 그 대상과 서술 양식 면에서 이를 충족시킬 만한 대안이었다. 타키투스에게 더욱더 필요했던 혹은 주어지지 않았던 표현의 자유(libertas/παρρησία)에 대한 의식은 『연설가들에 대한 대화』에서 그 실마리를 읽을 수 있다. 이 대화편의 중심인물인 마테르누스가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한 정치-연설가의 소임을 포기하고 연설의 대안으로 시작(詩作)을 택하려 했던 것처럼, 타키투스 역시도 가까운 과거의 시대사를 기록으로 남기려 했고

더 나아가 자신이 살아가고 있던 동시대사에 대해서도 필설(筆設)을 통해 발언하고자 했다. 역사서술은, 특히 상대적으로 더 멀리 떨어진 과거에 대한 역사서술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타키투스에게 필요했던 그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더 오랜 과거로 돌아가 옛날 일을 다루는 옛 방식의 역사서술을 택했던 것은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한 전략이라고 평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타키투스의 『연대기』는 옛 시대의 것을 옛 시대의 자유에 따라²⁹²⁾ 말할 수 있게 한 표현 수단이자 매체였고, 웅색해진 공화정기의 자유가 굴종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일인 통치 권력의 ‘세습’ 문제가 불거진 아우구스투스 서거 이후의 시대는 프린키퍼투스라는 통치 체제의 균열상을 시사할 수 있는 적절한 소재가 되어 주었다. 『연대기』의 구성과 서술 양식은 특히 그 초반부에서 프린키퍼투스라는 체제의 불안정과 함께 공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역사서술이 일정 정도 보장한 언설의 자유 범위 내에서 타키투스는 프린키퍼투스가 태생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었던 병폐와 폐단을 찾아 거슬러 올라갔다. 『연대기』에 기록된 티베리우스는 결과적으로 향후 제국 로마의 이름난 폭군들의 예형(豫型)처럼 읽히기 쉽지만, 타키투스의 본질적인 통찰은 프린키퍼투스라는 불완전한 ‘혼합’ 정체가 본질적으로 반(反) 자유적이며 일인 통치자의 재량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암시하는 데 있다. 표면적으로 평화와 안녕을, 그리고 공화정의 회복을 가져온 아우구스투스 프린키퍼스 체제는 티베리우스 치세 동안 점차 일인 지배 체제로 가시화된다. 타키투스의 『연대기』 제1-6권에서 이러한 과정은, 티베리우스 한 사람에게 투영되어 있다. 그런 까닭에 티베리우스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 일색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타키투스의 서술 구도와 양식을 감안해 좀 더 밀착해 『연대기』 제1-6권을 읽게 되면 보다 근본적으로는 프린키퍼투스가 안고 있던 구조적 불안정성, 아우구스투스 체제의 불완전함이 드러난다. 이미 “오래전부터 화합할 수 없었

292) cf. 『연설가들에 대한 대화』 27.3: “cum de antiquis loquaris, utere antiqua libertate”. 본고 48쪽과 각주 97) 참조.

던 프린키파투스과 정치적 자유”(『아그리콜라』 3.1)를 네르바-트라야누스의 프린키프스 체제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었다. 티베리우스 체제는 그 불안한 정치적 제후를 약 23년에 걸쳐 ‘현명하게는²⁹³⁾ 아니었을지라도 지나치게’(non prudenter sed satis superque)²⁹⁴⁾ 유지하려 했다.²⁹⁵⁾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새로이 구축(構築)된 체제를 무려 23년 동안 잘 지켜냈지만²⁹⁶⁾ 결과적으로 이 가장(假裝)의 협치 체제가 전제 군주정으로 변이해 가는 것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그런 까닭에 훗날 『연대기』에서의 티베리우스는 그 이후 실제로 나쁜 군주가 들어설 수 있는 빌미를 만든 예시인 동시에, 2세기 초 새로 들어선 프린키프스 지배 체제가 잘못 나아가게 되면 답습하게 될 반면교사의 인물로 타키투스는 기록했다.

네로 치세를 맞으며 그의 스승이요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세네카가

293) cf. 『연대기』 3.69.5: quanto rarior apud Tiberium popularitas tanto laetioribus animis accepta. atque ille prudens moderandi, si propria ira non impelleretur. (“티베리우스에게는 인기에 연연하고자 하는 바가 드물수록 그만큼 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은 받아들여졌다. 더욱이 그는 절제하는 데에는 현명했는데, 사사로운 분노로 인해 충동 받지 않을 때라면 그러했다.”)

294) cf. William Shakespeare. *Othello*, Act 5 Scene 2, v. 344: “one that loved not wisely, but too well”. 인용은, *The Arden Shakespeare Complete Works* (eds. Richard Proudfoot, Ann Thompson, David Scott Kastan. London: Thomson Learning, 1998)에서 E. A. J. Honigmann의 *Othello* 편집본에 따랐다.

295) 소위 “신중왕”이라는 별호를 가진, 에스파냐 최전성기의 국왕 펠리페 2세 (Felipe II el Prudente, 1527 - 1598, 재위 1556-1598)는 부왕이었던 신성로마제국 황제 카를 5세(재위 1530-1556)에게서 권력을 물려받아 제국을 별호 그대로 신중하게 운영했던 것으로 평해진다. 흥미롭게도 16세기의 당대 유럽 지식인들은 티베리우스와 신중왕 펠리페 2세를 견주어 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한다. cf. Ronald Syme. “History or Biography. The Case of Tiberius Caesar.” *Historia: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23, no. 4 (1974): 481-496, 특히 495-496. 펠리페 2세가 부왕의 국왕 좌를 계승하면서 맞게 된 제국 에스파냐의 형제, 이 국왕의 전반적으로 신중하고 현상유지에 가까운 정책에 대해서는, 페르낭 브로델, 『지중해: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 II-1, 집단적 운명과 전체적 움직임 上』, 남종국, 윤은주 옮김, 서울: 까치, 2017, 405-410 참조.

296) 동아시아의 제왕학에서 익히 회자되는 “창업이 수성난(創業易守成難)”이라는 표현을 상기하자면, 티베리우스가 떠맡아야 했던 체제 유지와 지속적인 안정과 정당화가 상당히 어려운 통치자의 과업임을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오궁(吳兢) 『정관정요(貞觀政要)』, 권1 「군도편(君道篇)」(김원중 옮김, 서울: 휴머니스트, 2016) 참조.

두 갈래 목소리로 조언하며 새 통치자를 훌륭한 지도자로 만드는 데 있어서 실패했던 지점에서,²⁹⁷⁾ 타키투스는 실패한 황제들에 대한 역사서술을 통해 그리고 동시에 플리니우스는 새 통치자에 대한 감사와 ‘찬사’를 통해 ‘최선의 프린킵스’의 시대에 대한 기대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출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들의 문필 활동이, 타키투스의 역사서술이 트라야누스-하드리아누스 치세를 비롯해 동시대 통치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연대기』와 『역사』 이후의 시대는 타키투스의 우려와는 달리 이른바 오현제 시대(96-180년)로 이어진다. 이처럼 역사서술이라는 복화술(複話術)을 통해 타키투스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그와는 달리 “우리 시대”의 새 통치자들이 지향해야 했던 오늘과 내일의 체제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아우구스투스의 죽음 이후 이 시기까지를 서술한 타키투스의 역사서 전체는 “나쁜 프린킵스가 좋은 프린킵스를 구축(驅逐)”했던 제정 로마 초기의 정치사를 필설(筆設)로 기록한 저술이다. 『연대기』 첫 여섯 권에서 다루어진 티베리우스 통치기의 역사는, 가장 훌륭했던 프린킵스 아우구스투스 치하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프린킵스와 투스라는 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악화되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소위 “타키투스주의”(Tacitism)라 일컬어지는, 16세기 이래 타키투스와 그의 역사서 수용사에서 일군의 정치 사상가들이 특히 『연대기』 초반에 주목했던 것은 법제화되기 이전의 프린킵스 통치와 권력의 실상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대기』는 그런 점에서 프린킵스와 투스의 정치사(πραγματική ιστορία)이며, 부득불 동시대사 서술을 포기하고 연설이 아닌 필설로써 새 프린킵스 체제에 대해 시사한 간접적인 방식의 정치-연설이다.

297) 세네카의 『관용에 대하여』와 『등신격화』에 대한 논의는 본고 IV장 2절 참조.

참 고 문 헌

• 원전 편집본 및 주석, 번역

1. 타키투스

- Ash, Rhiannon. ed. *Tacitus: Annals Book XV*.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 Borzsák, István. ed. *Cornelii Taciti libri qui supersunt, Tom. I, P. 1: Annales libri I-VI*. Stuttgart: B. G. Teubner, 1992.
- Fisher, Charles D. ed. *Tacitus: Annales I-VI, XI-XV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07.
- _____. ed. *Tacitus: Historiae I-V*.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11.
- Heubner, Heinrich. ed. *P. Cornelius Tacitus, Tom. II, Fasc. 1: Historiarum libri*. Stuttgart: B. G. Teubner, 1974.
- Heubner, Heinrich. ed. *P. Cornelius Tacitus, Tom. I: Annales*. Stuttgart: B. G. Teubner, 1983.
- Koestermann, Erich. ed. *Cornelii Taciti libri qui supersunt, Tom. II, Fasc.. 2: Germania, Agricola, Dialogus de oratoribus*. Leipzig: B. G. Teubner, 1970.
- Ogilvie, R. M. and Michael Winterbottom. eds. *Tacitus: Opera Minor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 Wellesley, Kenneth. ed. *Cornelii Taciti libri qui supersunt, Tom. I, P. 2: Annales libri XI-XVI*. Leipzig: B. G. Teubner, 1986.
- _____. ed. *Cornelii Taciti libri qui supersunt, Tom. II, P. 1: Historiarum libri*. Leipzig: B. G. Teubner, 1989.
- Anderson, John G. C. ed. *Tacitus: Germania*. Oxford: Clarendon Press, 1938.
- Benario, Herbert W. ed. & tr. *Tacitus: Germany*. Warminster: Aris & Phillips, 1999.
- Furneaux, Henry. ed. *The Annals of Tacitus*. (2 vo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896.
- Goodyear, F. R. D. ed. *The Annals of Tacitus, Vol. I (Annals 1.1-54)*.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2.
- _____. ed. *The Annals of Tacitus, Vol. II (Annals 1.55-81 and Annals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Malloch, S. J. ed. *The Annals of Tacitus: Book 1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 Martin, Ronald. ed. & tr. *Tacitus: Annals V & VI*. Warminster: Aris & Phillips, 2001.
- Martin, Ronald and A. J. Woodman. eds. *Tacitus: Annals Book IV*.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Mayer, Roland. ed. *Tacitus: Dialogus de oratorib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Miller, N. P. ed. *Tacitus: Annals Book I*. London: Methuen, 1959.
- Ogilvie, R. M. and I. A. Richmond. eds. *Tacitus: Agricol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 Shotter, David C. A. ed. & tr. *Tacitus: Annals IV*. Warminster: Aris & Phillips, 1989.
- Wuilleumier, Pierre. ed. & tr. *Tacite: Annales, Livre I-III* (2nd ed.). Paris: Les Belles Lettres, 1974 (1st ed. 1923)
- _____. ed. & tr. *Tacite: Annales, Livre IV-VI* (3rd ed.). Paris: Les Belles Lettres, 2003 (1st ed. 1975)
- Woodman, A. J. and Ronald Martin. eds. *The Annals of Tacitus: Book 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Woodman, A. J., with C. S. Kraus. ed. *Tacitus: Agricol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 Woodman, A. J. ed. *The Annals of Tacitus: Books 5 and 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 Woodman, A. J. ed. *The Annals of Tacitus: Book 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 Benario, Herbert W. tr. *Agricola, Germany, and Dialogue on Orators*.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mpany, 2006.
- Birley, Anthony R. tr. *Tacitus: Agricola and German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Ceva, Bianca. tr. *Tacito: Annali*. Milano: Biblioteca Univ. Rizzoli, 1981.

- _____. tr. *Vita di Agricola-La Germania*. Milano: Biblioteca Univ. Rizzoli, 1990.
- Damon, Cynthia. tr. *Tacitus: Annals*. New York: Penguin Classics, 2013.
- Dessi, Felice. tr. *Dialogo sull'oratoria*. Milano: Biblioteca Univ. Rizzoli, 1996.
- _____. tr. *Storie*. Milano: Biblioteca Univ. Rizzoli, 1998.
- Hutton M. and W. Peterson. eds. & trs. *Tacitus: Agricola. Germania. Dialogus* (Revised by R. M. Ogilvie, E. H. Warmington and M. Winterbottom).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1914, 1st ed.)
- Levene, D. S. and W. H. Fyfe. trs. *Tacitus: The Histor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Moore, Clifford H. ed. & tr. *Tacitus: Histories, Books I-III*.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1.
- _____. ed. & tr. *Tacitus: Histories, Books IV-V, Annals, Books I-III*.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1.
- Jackson, John. ed. & tr. *Tacitus: Annals, Books 4-6, 11-12*.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7.
- _____. ed. & tr. *Tacitus: Annals, Books 13-1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7.
- Rives, James B. ed. & tr. *Tacitus: Germania*. London: Clarendon Press, 1999.
- Rives, James. and Harold Mattingly. trs. *Agricola and Germania*. New York: Penguin Classics, 2010.
- Wellesley, Kenneth and Rhiannon Ash. trs. *Tacitus: The Histories*. New York: Penguin Classics, 2009.
- Woodman, A. J. tr. *The Annals*.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mpany, 2004.
- Yardley, J. C. tr. *Tacitus: The Anna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타키투스, 『게르마니아』, 이광숙 옮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_____, 『연대기』, 박광순 옮김, 서울: 범우사, 2005.
- _____, 『게르마니아』, 박광순 옮김, 서울: 범우사, 2006.
- _____, 『타키투스의 역사』, 김경현, 차전환 옮김, 서울: 한길사, 2011.
- _____, 『게르마니아』, 천병희 옮김, 고양: 도서출판 숲, 2012.

2. 고전고대 저술가 저작 편집본, 주석, 번역본

1) 그리스-로마 역사가 단편 선집

Cornell, Timothy J. ed. *The Fragments of the Roman Historians*. (3 vo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Fowler, Robert L. ed. *Early Greek Mythography, Vol. 1: Text and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_____ *Early Greek Mythography, Vol. 2: Comment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Jacoby, Felix. ed. *Die Fragmente der griechischen Historiker Vol. 1*. Leiden: E. J. Brill, 1995.

2) 주요 저자 별 해외 참고문헌 (라틴어 표기 알파벳 순)

- 아우구스투스(Augustus)

Cooley, Alison E. ed. & tr. *Res Gestae Divi Augusti: Text, Translation, and Comment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키케로(M. Tullius Cicero)

Achard, Guy. ed. & tr. *Cicéron: De l'Invention*. Paris: Les Belles Lettres, 1994.

Kumaniecki, Kazimierz. ed. *Marci Tulli Ciceronis scripta quae manserunt omnia, fasc. 3: De Oratore*. Leipzig: B.G. Teubner, 1969.

Powell, J. G. F. ed. *M. Tullius Ciceronis De Re publica, De Legibus, Cato Maior de Senectute, Laelius de Amicit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Shackleton Bailey, D. R. ed. *Cicero's Letters to Atticus. vol.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카시우스 디오(Cassius Dio)

Auberger, Janick. tr. *Dion Cassus: Histoire romaine. Livres 57 à 59: Tibère et Caligula*. Paris: Les Belles Lettres, 1995.

Boissevain, Ursul Philip. ed. *Cassii Dionis Cocceiani Historiae Romanae quae supersunt*. (3 vols. with Vol. 4 *Index Historicus* ed. by H. Smilda & Vol. 5 *Index Graecitatis* ed. by W. Nawijn) Berlin: Weidmann, 1895-1931.

Cary, Earnest. ed. & tr. *Dio's Roman history*. (9 vol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14-1927.

Murison, C. L. *Rebellion and Reconstruction: Galba to Domitian: An Historical Commentary on Cassius Dio's Roman History. Books 64 - 67 (A.D. 68 - 96)*. Atlanta: Scholars Press, 1999.

Rich, J. W. ed. *Cassius Dio: The Augustan Settlement (Roman History 53.1-55.9)*. Warminster: Aris & Phillips, 1990.

Scott-Kilvert, Ian. tr. *The Roman History: The Reign of Augustus*. New York: Penguin Classics, 1987.

Swan, Peter Michael. *The Augustan Succession: An Historical Commentary on Cassius Dio's Roman History Books 55-56 (9 B.C.-A.D. 1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에우트로피우스(Eutropius)

Bird, H. W. tr. *Eutropius: Breviarium*.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1984.

Santini, Carlo. ed. *Eutropii Breviarium ab urbe condita*. Leipzig: B. G. Teubner, 1979.

- 겔리우스(Aulus Gellius)

Rolfe, J. C. ed. & tr. *Gellius: Attic Nights*. (3 vol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27.

- 리비우스(Titus Livius)

Ogilvie, R. M. *A Commentary on Livy. Books 1-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_____. ed. *Titi Livi: Ab Urbe Condita, Vol. 1: Libri I - V*.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 오로시우스(Paulus Orosius)

Arnaud-Lindet, Marie-Pierre. ed. & tr. *Orose: Histoires (Contre les Païens)*. (3 vols.) Paris: Les Belles Lettres, 1990-1991.

Fear, Andrew T. tr. *Orosius: Seven Books of History against the Pagans*.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2010.

- 오비디우스(P. Ovidius Naso)

Hall, John Barrie. ed. *P. Ovidi Nasonis Tristia*. Stuttgart: De Gruyter, 1995.

- 노(老) 플리니우스(C. Plinius Secundus)

Mayhoff, Karl. ed. *C. Plini Secundi Naturalis Historiae libri XXXVII*. (6 vols.)
Leibzig: B. G. Teubner, 1875-1906.

- 소(少) 플리니우스(C. Plinius Caecilius Secundus)

Mynors, Roger. ed. *C. Plini Caecili Secundi Epistularum libri dece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_____. ed. *Panegyricus XII Panegyrici Latin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Radice, Betty. ed. & tr. *Pliny the Younger: Letters, Volume I: Books 1-7*.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_____. ed. & tr. *Pliny the Younger: Letters, Volume II: Books 8-10. /*
Panegyricu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Sherwin-White, A. N. *The Letters of Pliny: a Historical and Social Commentary*.
London: Clarendon Press, 1966.

- 폴뤼비오스(Πολύβιος; Polybius)

Paton, W. R. tr. *Polybius: The Histories*. (6 vols.) (Revised by F. W. Walbank and
Christian Habich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2012.
(1922-1927, 1st. ed.)

Walbank, F. W. *A Historical Commentary on Polybius*. (3 vo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7-1979.

- 퀸틸리아누스(M. Fabius Quintilianus)

Peterson, William. ed. *Quintilian: Institutionis Oratoriae Liber X*. Mundelein, IL:
Bolchazy-Carducci Publishers, 2005. (1891, 1st ed.)

Russell, Donald. ed. & tr. *Quintilian: The Orator's Education*. (5 vol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2006.

Winterbottom, Michael. ed. *M. Fabi Quintiliani Institutionis Oratoriae libri*
duodecim. (2 vo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 살루스티우스(C. Sallustius Crispus)

- Ramsey, J. T. ed. *Sallust's Bellum Catilina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ed. & tr. *Sallust: Fragments of the Histories / Letters to Caesa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Reynolds, L. D. ed. *C. Sallusti Crispi Catilina, Iugurtha, Historiarum Fragmenta Selecta, Appendix Sallustian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소(少) 세네카(L. Annaeus Seneca)

- Eden, P. T. ed. *Seneca: Apocolocynto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Malaspina, Ermanno. ed. *L. Annaei Senecae De Clementia*. Leibzig: De Gruyter, 2016.
Roncali, Renata. ed. *L. Annaei Senecae Apocolocyntosis*. Leipzig: B.G. Teubner, 1990.

- 수에토니우스(C. Suetonius Tranquillus)

- Lindsay, Hugh. ed. *Suetonius: Tiberius*. Bristol: Bristol Classical Press, 1995.
Kaster, Robert A. ed. *C. Suetoni Tranquilli De uita Caesarum libri VIII et De grammaticis et rhetoribus lib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 벨레이우스 파테르쿨루스(Velleius Paterculus)

- Shipley, Frederick W. ed. & tr. *Velleius Paterculus: Compendium of Roman History / Res Gestae Divi Augusti*.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24.
Woodman, A. J. ed. *Velleius Paterculus: The Tiberian Narrative (2.94-13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베르길리우스(P. Vergilius Maro)

- Conte, Gian Biagio. ed. *P. Vergilius Maro: Aeneis*. Berlin: De Gruyter, 2005.

- 아우렐리우스 빅토르(Aurelius Victor)

- Bird, H. W. tr. *Aurelius Victor: De Caesaribus*.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1994.
Pichlmayr, Franz. ed. *Sexti Aurelii Victoris Liber de Caesaribus / Epitome de*

Caesaribus. Leipzig: B. G. Teubner, 1911.

3) 국역본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천병희 옮김, 고양: 도서출판 숲, 2005.
-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 천병희 옮김, 고양: 도서출판 숲, 2007.
- 세네카, 『세네카의 대화』, 김남우, 이선주, 임성진 옮김, 서울: 까치, 2016.
- 수에토니우스, 『로마의 문법학자들』, 안재원 주해, 서울: 한길사, 2013.
-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시학』, 천병희 옮김, 고양: 도서출판 숲, 2017.
- 키케로, 『수사학』, 안재원 편역, 서울: 도서출판 길, 2006.
- _____, 『국가론』, 김창성 옮김, 서울: 한길사, 2007.
- _____, 『법률론』, 성염 옮김, 서울: 한길사, 2007.
- _____, 『설득의 정치』, 김남우 외 옮김, 서울: 민음사, 2015.
- 투퀴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천병희 옮김, 고양: 도서출판 숲, 2011.
- 페리클레스 외, 『그리스의 위대한 연설』, 김현 외 옮김, 서울: 민음사, 2015.
- 호메로스, 『오뒷세이아』, 천병희 옮김, 고양: 도서출판 숲, 2006.
- _____, 『일리아스』, 천병희 옮김, 고양: 도서출판 숲, 2007.
- 호라티우스, 『시학』, 김남우 옮김, 서울: 민음사, 2019.
- 헤로도토스, 『역사』, 천병희 옮김, 고양: 도서출판 숲, 2009.
- _____, 『역사』, 김봉철 옮김, 서울: 도서출판 길, 2016.

● 2차 문헌

- 고경주, 「위인 아그리콜라와 폭군 도미티아누스」, 『서양고전학연구』 53 (2014): 167-197.
- _____, 「타키투스(Tacitus)의 『대화편』(*Dialogus de Oratoribus*) - 웅변술 쇠퇴론 속에 담긴 제정 전기 한 엘리트의 과거와 당대 인식」, 『서양고대사연구』 42 (2015): 107-144.
- _____, 「로마 제정 초기의 웅변술 쇠퇴 담론」, 『서양고대사연구』 46 (2016): 137-174.
- _____, 「공화정에서 제정으로의 체제 전환에 대한 타키투스(Tacitus)의 인

- 식」, 『서양사론』 136 (2018): 9-34.
- _____, 「속주 총독과 로마제국의 속주 행정: 소 플리니우스의 『서한집』 제 10권을 중심으로」, 『서양고대사연구』 53 (2018): 137 - 182.
- Ko, Chanmi. “English Tacitism and Ben Jonson’s *Sejanus his Fall*.” *Medieval and Early Modern English Studies* (『중세르네상스영문학』) 22-1 (2014): 95-119.
- 김경현, 「Tacitus의 저술에서 자유(libertas)의 이념」, 『서양고대사연구』 15 (2004): 103-135.
- _____, 「헤로도토스를 위한 변명」, 『서양고전학연구』 24 (2005): 265-302.
- _____, 「루키아노스의 <역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고대의 역사서술과 수사학」, 『서양고대사연구』 19 (2006): 231-289.
- _____, 「그리스 역사(서술)의 기원」, 『서양고전학연구』 25 (2006): 29-58.
- _____, 「pragmatike historia와 tyche - 폴리비오스의 역사이론과 서술의 실제」, 『한국사학사학보』 20 (2009): 109-147.
- _____, 「역사학 고전 다시읽기: 폴리비오스의 『역사』 - “세계사”와 “국사적 역사”」, 『서양사론』 108 (2011): 232-252.
- 김기봉, 『히스토리아, 쿠오바디스』, 과주: 서해문집, 2016.
- 김기훈, 「살루스티우스의 『카틸리나 전쟁』 서문에 드러난 準정치활동으로서의 역사서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_____, 「로마공화정 말기의 역사서술과 수사학」, 『서양고전학연구』 55-1 (2016): 137-175.
- 김덕수, 「“로마혁명”에서 신흥 엘리트의 등장과 역할: 아그리파와 마이케나스를 중심으로」, 『서양사론』 78 (2003): 33-59.
- _____, 「아우구스투스의 프린키퍼투스 체제에서 후계자 문제」, 『서양고대사연구』 20 (2007): 113-145.
- _____, 「퀸틸리아누스의 교육사상의 역사적 의의 - 『연설가교육론』 (Institutio Oratoria) 1권 1~3장을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14-2 (2012): 1-31.
- _____, 『아우구스투스의 원수정』, 서울: 도서출판 길, 2013.
- _____, 「기원전 3-1세기 로마의 헬레니즘 수용과 ‘로마화’: 테렌티우스에서 베르길리우스까지」, 『지중해지역연구』 58-1 (2016): 61-83.
- _____, 「‘소통’의 장에서 ‘규탄’의 장이 된 로마원로원」, 『서양고대사연구』 52 (2018): 41-73.
- 김상엽, 「아우구스투스의 죽음과 티베리우스의 즉위에 끼친 리비아의 영향

- 력」, 『서양고대사연구』 28 (2011): 237-258.
- _____,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 프린키파투스의 성격 - 티베리우스 시대 정치 풍토를 중심으로」, 『서양고대사연구』 36 (2013): 183-207.
- Kim, Weol-Hoi. and Kim, Kihoon. “*Pax Romana* and *Pax Sinica*: Some Historical Aspects.” *Horizons* 7, no. 2 (2016) 161-178.
- 김창성, 「폴리비오스의 발전관과 혼합정체 국가들」, 『서양고대사연구』 26 (2010): 225-250.
- 도인환, 「화폐와 신용의 관점에서 본 『헨리 4세』」, *Shakespeare Review* 50-3 (2014): 447-472
- 손태창,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타키투스의 서술」, 『지중해지역연구』 19-4 (2017): 47-71.
- 안병직, 「픽션으로서의 역사 - 헤이든 화이트의 역사론」, 『인문논총』 51 (2004): 35-75.
- 안재원, 「고대 로마의 이상적 연설가(orator perfectus)론」, 『서양고전학연구』 20 (2003): 119-140.
- _____, 「로마의 “역사(historia)” 활용 방식에 대하여」, 『역사교육』 149 (2019): 1-27.
- 안희돈,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의 임페리움(大權)에 관한 법(A.D. 69)」, 『역사교육』 54 (1993): 113-152.
- _____, 『네로황제 연구』, 서울: 다락방, 2004.
- _____, 「퀸틸리아누스의 교육사상의 정치적 함의: 이상적 연설가像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95 (2005): 217-242.
- _____, 「티베리우스 황제 집권 초기 왕조 지배 이념 강조의 정치적 배경」, 『역사교육』 108 (2008): 159-185.
- 양승태, 『리시아스와 안티스테네스』,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 윤진, 「헤카타이오스(Hekataios)와 헤로도토스(Herodotos)」, 『대구사학』 75 (2004): 265-291.
- 이두희, 「역사가들의 전쟁기술에 나타난 ‘비극적 역사(Tragic History)’ 문체 -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할리카르나소스의 디오니시오스를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 37 (2009): 47-76.
- _____, 「고대 역사 기술과 내러티브」, 『인간·환경·미래』 4 (2010): 47-67.
- _____,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기에 나타난 ‘비극적 역사’ 문체」, 『Canon&Culture』 5-1 (2011): 237-267.
- 이상신, 『서양사학사』 (재판), 서울: 신서원, 1997.

- 이종숙, 「르네상스 영국에서의 Tacitus와 타키투스주의」, 『서양고전학연구』 9 (1995): 101-132.
- 이지은, 「소 플리니우스 『서한집』 제10권 속 황제 트라야누스의 이미지: 서신 1-14를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 55-1 (2016): 239 - 261.
- 이윤철, 「《이중 논변》 ; 궤론주의의 원형적 가능성」, 『철학논총』 96 (2019): 365-406.
- 장시은, 「투퀴디데스의 『역사』에서의 연설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 정경희, 『토머스 제퍼슨』, 서울: 선인.
- 조신광, 「살루스트와 투키디데스의 比較 - 歷史的 概念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7 (1983): 225-249.
- _____, 「살루스트와 투키디데스의 比較(II) - <카틸리나 戰記>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8 (1984): 281-327.
- 차영길, 「폴리비우스의 역사해석 - 『역사』 6권의 ‘아나키클로시스’(ανακύκλωσις)를 중심으로」, 『서양고대사연구』 51 (2018): 99-129.
- 차전환, 「서기 69년의 네 황제들에 대한 타키투스의 평가 - 타키투스의 「역사」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39 (2004): 91-124.
- _____, 「서평: 고전 다시 읽기; 코르넬리우스 타키투스, 『역사』 1-5권 (Cornelius Tacitus, *Historiae* (Oxford, 1911) 서기 69년의 내전에 대한 신랄한 고발)」, 『서양사론』 92 (2007): 401-412.
- _____, 「역사학 고전 다시읽기: 로마 제정 초기 타키투스의 역사서술」, 『서양사론』 110 (2011): 352-377.
- _____, 「팍스 로마나: 평화의 선전」, 『사총』 88 (2016): 121-146.
-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편, 『아우구스투스 연구: 로마제국 초대 황제, 그의 시대와 업적』, 서울: 책과함께, 2016.
- 허승일, 「폴리비우스의 混合政體論과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改革」, 『역사학보』 119 (1988): 47-89.
- _____, 『증보 로마공화정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_____, 『다시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 허승일 외, 『인물로 보는 서양 고대사』, 서울: 도서출판 길, 2006.
- 조 굴디, 데이비드 아미티지, 『역사학 선언』, 안두환 옮김,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8.
- 월러 뉴웰, 『폭군 이야기: 시대를 움직인 뒤틀린 정의』, 우진하 옮김, 서울: 예

- 문아카이브, 2017.
- 단테 알리기에리, 『신곡』 (전 2권), 최민순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1987.
- _____, 『제정론』, 성염 옮김, 파주: 경세원, 2009.
- 페르낭 브로델, 『지중해: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 II-1, 집단적 운명과 전체적 움직임 上』, 남종국, 윤은주 옮김, 서울: 까치, 2017.
- 토머스 제퍼슨, 『토머스 제퍼슨: 독립선언문』, 차태서 옮김, 서울: 프레시안북, 2010.
-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광차섭 옮김, 서울: 도서출판 길, 2015.
- 몽테스키외, 『로마인의 흥망성쇠 원인론』, 박광순 옮김, 서울: 범우사, 2007.
- 켄팅 스키너, 『켄팅 스키너의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 조승래 옮김, 서울: 푸른역사, 2007.
- 로버트 스테이지, 주디스 코핀, 『새로운 서양 문명의 역사 상(上): 문명의 기원에서 종교개혁까지』 박상익 옮김, 서울: 소나무, 2014.
- 오궁(吳兢) 『정관정요(貞觀政要)』, 김원중 옮김, 서울: 휴머니스트, 2016.
- H. 포터 애벗, 『서사학 강의』, 우찬제 외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0.
- 크리스토퍼 B. 크랩스, 『가장 위험한 책: 로마 제국부터 나치 독일까지 『게르마니아』 오독의 역사』, 이시은 옮김, 서울: 민음인, 2012.
- 노스롭 프라이, 『비평의 해부』, 임철규 옮김, 서울: 한길사, 2000.
- 프리츠 하이켈하임, 『로마사』 김덕수 옮김, 고양: 현대지성사, 1999.
- 헤이든 화이트, 『메타 역사』 (전 2권), 천형균 옮김, 서울: 지만지, 2013.
- Aalders, G. J. D. "Cassius Dio and the Greek World." *Mnemosyne* 39 (1986): 282-304.
- Albert, Rocio. and Francisco Cabrillo. "Gresham's Law in Politics: Why are Politicians not the Most Remarkable Men for Probity and Punctuality?" *Europ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1, no. 2 (2006): 99-112.
- Allen Jr., Walter. "The Political Atmosphere of the Reign of Tiberius."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72 (1941): 1-25.
- Allison, June W. "Thesis and Antithesis." in *Encyclopedia of Rhetoric*. ed. by Thomas O. Slo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Ando, Clifford. "Tacitus, Annales VI: Beginning and End." *Th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118, no. 2 (1997): 285-303.
- Ash, Rhiannon. *Tacitus*. London: Bristol Classical Press, 2006
- _____. ed. *Oxford Readings in Tacitu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Bailyn, Bernard. *The Ideological Origins of the American Revolution*.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1967.
- Barish, Jonas A. ed. *Ben Jonson's Sejanu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5.
- Barton, Anne. *Ben Jonson: Dramati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Benario, Herbert W. "The End of Sallustius Crispus." *The Classical Journal* 57, no. 7 (1962): 321-322.
- _____. "Tacitus and the Principate." *The Classical Journal* 60, no. 3 (1964): 97-106.
- _____. "Recent Work on Tacitus (1954-63)." *The Classical World* 58, no. 3 (1964): 69-83.
- _____. "Recent Work on Tacitus (1964-68)." *The Classical World* 63, no. 8 (1970): 253-267.
- _____. "Imperium and Capaces Imperii in Tacitus." *Th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93, no. 1 (1972): 14-26.
- _____. "Gordon's Tacitus." *The Classical Journal* 72, no. 2 (1976-1977): 107-114.
- _____. "Recent Work on Tacitus 1969-1973." *The Classical World* 71, no. 1 (1977): 1-32.
- _____. "Recent Work on Tacitus 1974-1983." *The Classical World* 80, no. 2 (1986): 73-80, 83-90, 93-104, 107-116, 119-147.
- _____. "Recent Work on Tacitus: 1984-1993." *The Classical World* 89, no. 2 (1995): 89-162.
- _____. "Recent Work on Tacitus: 1994-2003." *The Classical World* 98, no. 3 (2005): 251-336.
- Bennett, Julian. *Trajan: Optimus Princeps*. New York: Routledge, 1997.
- Birley, Anthony R. "The Life and Death of Cornelius Tacitus." *Historia: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42, no. 2 (2000): 230-247.
- de Blois, L. "Review: Dio's Vocabulary, *Aspects du vocabulaire politique et institutionnel de Dion Cassius* by M.-L. Freyburger-Galland." *The Classical Review*, New Series 49, no. 1 (1999): 36-37.
- Boesche, Roger. "The Politics of Pretence: Tacitus and the Political Theory of

- Despotism.”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8, no. 2 (1987): 189-210.
- Bowman, Alan, Edward Champlin and Andrew Lintott, eds.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Vol. 10: The Augustan Empire, 43 BC-AD 69*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Bruère, Richard T. “Tacitus and Pliny's Panegyricus.” *Classical Philology* 49, no. 3 (1954): 161-179.
- Burden-Strevens, Christopher William. “Cassius Dio's Speeches and the Collapse of the Roman Republic.” Ph.D. Dissertation. Glasgow: University of Glasgow, 2015.
- Champlin, Edward. “Tiberius the Wise.” *Historia: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57, no. 4 (2008): 408-425.
- Chiappetta, Michael. “Historiography and Roman Education.” *History of Education Journal* 4, no. 4 (1953): 149-156.
- Choi, Byonghyon. tr. *The Book of Corrections: Reflections on the National Crisi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1592-1598*.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lassen, C. J. “Tacitus: Historian between Republic and Principate.” *Mnemosyne*, Fourth Series 41 (1988): 93-116.
- Colbourn, H. Trevor. *The Lamp of Experience. Whig History and the Intellectual Origins of the American Revolution*.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5
- Connolly, Joy. *The State of Speech: Rhetoric and Political Thought in Ancient Rom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 Conte, Gian Biagio. *Latin Literature*, tr. by J. B. Solodow,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 Cook, S. A., F. E. Adcock and M. P. Charlesworth, eds.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Vol. 10: The Augustan Empire, 44 B.C.-A.D. 70* (1st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4.
- Crow, Matthew E. “History, Politics, and the Self: Jefferson's “Anas” and Autobiography.” in *A Companion to Thomas Jefferson*. ed. by Francis D. Cogliano. Malden, MA: Wiley-Blackwell, 2012, 477-490.
- Cummings, Michael S. “Observations on the Development and Code of Pre-elegiac Paraklausithuron.” Ph.D. Dissertation. Ottawa: Ottawa University, 1997.
- Dunkle, J. Roger. “The Rhetorical Tyrant in Roman Historiography: Sallust, Livy

- and Tacitus.” *The Classical World* 65, no. 1 (1971): 12-20.
- _____. “The Greek Tyrant and Roman Political Invective of the Late Republic”,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98 (1967): 151-171.
- Earl, Donald C. *Political Thought of Sall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1.
- _____. “Prologue-form in Ancient Historiography.” *Aufstieg und Niedergang der römischen Welt I 2*. Berlin: De Gruyter (1972): 842-856.
- Evans, K. W. “*Sejanus* and the Ideal Prince.”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00-1900* 11, no. 2 (1971): 249-264.
- Evans, Richard J. “Review of *Tiberius the Politician* by Barbara Levick.” *Mnemosyne*, Fourth Series 56 (2003): 124-126.
- Fantham, Elaine. *Roman Literary Culture: From Plautus to Macrobius* (2nd ed.).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3.
- Feldherr, Andrew.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the Roman Histori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Fornara, Charles W. *The Nature of History in Ancient Greece and Rom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 Freyburger-Galland, M.-L. *Aspects du vocabulaire politique et institutionnel de Dion Cassius*. Paris: De Boccard, 1997.
- Frier, Bruce Woodward. *Libri Annales Pontificum Maximorum: The Origins of the Annalistic Tradition*.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9 (2nd ed.).
- von Fritz, Kurt. “Tacitus, Agricola, Domitian, and the Problem of the Principate.” *Classical Philology* 52, no. 2 (1957): 73-97.
- Garnsey, Peter, Dominic Rathbone and Alan K. Bowman, eds.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Vol. 11: The High Empire, A.D. 70-19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Gibbard, Peter. “Ben Jonson’s *Sejanus* and the Middle Way of Annals 1-6.”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00-1900* 56, no. 2 (2016): 307-325.
- Gill, Christopher. “The Question of Character-Development: Plutarch and Tacitus.” *The Classical Quarterly* 33, no. 2 (1983): 469-487.
- Gilmartin, Kristine. “Tacitean Evidence for Tacitean Style.” *The Classical Journal* 69, no. 3 (1974): 216-222.

- Ginsburg, Judith. *Tradition and Theme in the Annals of Tacitu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 Goldberg, Sander M. "Appreciating Aper: The Defence of Modernity in Tacitus' *Dialogus de oratoribus*." *The Classical Quarterly* 49, no. 1 (1999): 224-237.
- Grafton, Anthony, Glenn W. Most, Salvatore Settis. eds. *The Classical Trad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 Hands, A. R. "Postremo Suo Tantum Ingenio Utebatur." *The Classical Quarterly* 24, no. 02 (1974): 312-317.
- Hau, Lisa Irene. *Moral History from Herodotus to Diodorus Siculu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6.
- Hinks, R. P. "A Portrait of Tiberius." *The Journal of Roman Studies* 23 (1933): 34-35.
- Holowchak, Mark Andrew. *Thomas Jefferson: Moralism*. Jefferson, NC: McFarland & Company, 2017.
- Horsfall, Nicholas. "Some Problems of Titulature in Roman Literary History."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of the University of London* 28 (1981): 103-114.
- Houston, George W. "Tiberius on Capri." *Greece & Rome* 32, no. 2 (1985): 179-196.
- _____. "Tiberius and the Libraries: Public Book Collections and Library Buildings in the Early Roman Empire." *Libraries & the Cultural Record* 43, no. 3 (2008): 247-269.
- Jacobson, David L. ed. *The English Libertarian Heritage: From the Writings of John Trenchard and Thomas Gordon in The Independent Whig and Cato's Letters*. Indianapolis: Bobbs-Merrill, 1965.
- Janson, Tore. *Latin Prose Prefaces: Studies In Literary Conventions*. Stockholm: Almqvist & Wiksell, 1964.
- de Jong, Irene J. F. *Narratology and Classics: A Practical Guid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Kapust, Daniel. *Republicanism, Rhetoric, and Roman Political Thought: Sallust, Livy and Tacit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Kehoe, Dennis. "Tacitus and Sallustius Crispus." *The Classical Journal* 80, no. 3 (1985): 247-254.

- Keitel, Elizabeth. "Tacitus on the Deaths of Tiberius and Claudius." *Hermes* 109, no. 2 (1981): 206-214.
- Keller, Vera. "Mining Tacitus - Secrets of Empire, Nature and Art in the Reason of State." *The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45, no. 2 (Special Issue: States of Secrecy) (2012): 189-212.
- Kennedy, George A. *The Art of Rhetoric in the Roman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2.
- Kenney, E. J. and W. V. Clausen,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lassical Literature Vol. 2: Latin Litera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Kirby, John. "Greek Rhetoric." in *Encyclopedia of Rhetoric and Composition: Communication from Ancient Times to the Information Age*. ed. by Theresa Enos. New York: Taylor & Francis, 1996.
- Kragelund, Patrick. "Tacitus, Dio, and the "Sophist" Maternus." *Historia: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61, no. 4 (2012): 495-506.
- Krebs, Christopher B. "The Buried Tradition of Programmatic Titulature among Republican Historians: Polybius' *Ἱστορίαι*, Asellio's *Res Gestae*, and Sisenana's Redefinition of *Historia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136, no. 3 (2015): 503-524.
- Kraus, Christina S. and A. J. Woodman. *Latin Historia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Landfester, Manfred. ed. *Brill's New Pauly: Supplements I - 2, Dictionary of Greek and Latin Authors and Texts*. Leiden: E. J. Brill, 2009
- Lenard, Max. "On the Origin, Development and Demise of the Index Librorum Prohibitorum." *Journal of Access Services* 3, no. 4 (2006): 51-63.
- Levene, D. S. "Tacitus' "Dialogus" as Literary History."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134, no. 1 (2004): 157-200.
- Levick, Barbara. "Imperial Control of the Elections under the Early Principate: Commendatio, Suffragatio, and "Nominatio"." *Historia: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16, no. 2 (1967): 207-230.
- _____. "The Beginning of Tiberius' Career." *The Classical Quarterly* 21, no. 2 (1971): 478-486.
- _____. "Tiberius' Retirement to Rhodes in 6 B.C." *Latomus* 31 (1972): 779-813.

- _____. *Tiberius the Politician* (2nd ed.). New York: Routledge, 2003. (1st ed. 1976)
- Luce, T. "Ancient Views on the Causes of Bias in Historical Writing." *Classical Philology* 84, no. 1 (1989): 16-31.
- Luce, T. J. and A. J. Woodman, eds. *Tacitus and the Tacitean Trad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Maranon, Gregorio. *Tiberius: The Resentful Caesar*. New York: Duell, Sloan and Pearce, 1956.
- Marincola, John. *Authority & Tradition in Ancient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Marincola, John. ed. *A Companion to Greek and Roman Historiography*. Malden, MA: Wiley-Blackwell, 2011.
- Marsh, Frank Burr. "Roman Parties in the Reign of Tiberius."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31, no. 2 (1926): 233-250.
- Martin, Ronald. *Tacitus*. Bristol: Bristol Classical Press, 1998.
- Mayfield, DS. "Rhetorical Ventriloquism in Application." in *History and Drama: The Pan-European Tradition*. eds. by Joachim Küpper, Jan Mosch and Elena Penskaya. Berlin: De Gruyter, 2019, 160-192.
- McDonald, A. H. "Theme and Style in Roman Historiography." *The Journal of Roman Studies* 65 (1975): 1-10.
- McDougall, J. I. "Tacitus and the Portrayal of the Elder Agrippina." *Echos du monde classique: Classical News and Views* 25, no. 3 (1981) 104-108.
- McHugh, Mary R. "Ferox Femina: Agrippina Maior In Tacitus's *Annales*." *Helios* 39, no. 1 (2012): 73-96.
- Mehl, Andreas. *Roman Historiography: An Introduction to its Basic Aspects and Development*, tr. by Hans-Friedrich Mueller, Malden, MA: Wiley-Blackwell, 2011.
- _____. "Review: Tacitus Mythistoricus (*Tacitus Reviewed* by A. J. Woodman)." *The Classical Review New Series* 50, no. 1 (2000): 83-85.
- _____. *Tacitus' Anna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Mierow, Charles Christopher. "Tacitus the Biographer." *Classical Philology* 34, no. 1 (1939): 36-44.
- _____. "Tacitus Speaks" *Studies in Philology* 38, no. 4 (1941): 553-570.

- Millar, F. G. B. *A Study of Cassius Dio*.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 Miller, N. P. "Tiberius Speaks: An Examination of the Utterances Ascribed to Him in the *Annals* of Tacitus." *Th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89, no. 1 (1968): 1-19.
- Momigliano, Arnaldo. "Ancient History and the Antiquarian."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s* 13, no. 3/4 (1950): 285-315.
- _____. *The Classical Foundations of Modern Historiograph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 Morello, Ruth. "A Correspondence Course in Tyranny: The Cruentae Litterae of Tiberius." *Arethusa* 39, no. 2 (2006): 331-354.
- Moss, Gerald C. "The Mentality and Personality of the Julio-Claudian Emperors." *Medical History* 7, no. 2 (1963): 165 - 175.
- Ober, Josiah. "Tiberius and the Political Testament of Augustus." *Historia: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31, no. 3 (1982): 306-328.
- O'Gorman, Ellen. "On Not Writing about Augustus: Tacitus' "Annals" Book I." *Materiali e discussioni per l'analisi dei testi classici* 35 (1995): 91-114.
- _____. *Irony and Misreading in the Annals of Tacit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Pagán, Victoria E. ed. *A Companion to Tacitus*. Malden, MA: Wiley-Blackwell, 2012.
- Parmeggiani, Giovanni. ed. *Between Thucydides and Polybius: The Golden Age of Greek Historiography*. Washington: Center for Hellenic Studies, 2014.
- Percival, John. "Tacitus and the Principate." *Greece & Rome* 27, no. 2 (1980): 119-133.
- Pitcher, Luke. *Writing Ancient History. An Introduction to Classical Historiography*. London and New York: I.B. Tauris, 2009.
- Potter, David S. *Literary Texts and The Roman Historians*. New York: Routledge, 1999.
- Proudfoot, Richard., Ann Thompson, David Scott Kastan. eds. *The Arden Shakespeare Complete Works*. London: Thomson Learning, 1998.
- Radice, Betty. "Pliny and the Panegyricus." *Greece & Rome* 15, no. 2 (1968): 166-172.
- Reynolds, Leighton D. and N. G. Wilson eds. *Texts and Transmission. A Survey of the Latin Class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Richard, Carl J. *The Founders and the Classics: Greece, Rome, and the American Enlighten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81.
- Rogers, Robert Samuel. "The Case of Cremutius Cordus."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96 (1965): 351-359.
- Romkey, Stephanie. "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and the Enigmatic Personality of Emperor Tiberius." MA Thesis. Hamilton, Ontario: McMaster University, 2006.
- Rosenblitt, Alison. "Rome and North Korea: Totalitarian Questions." *Greece & Rome* 59, no. 2 (2012): 202-213.
- Ryberg, Inez Scott. "Tacitus' Art of Innuendo."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73 (1942): 383-404.
- Scullard, H. H. *From Gracchi to Nero* (2nd ed.). New York: Routledge, 1982.
- Seager, Robin. *Tiberius* (2nd ed.). Malden, MA: Wiley-Blackwell, 2005. (1st ed. 1972)
- Shackleton Bailey, D. R. "L. S. J. and Cicero's Letters." *The Classical Quarterly* 12, no. 1 (1962): 159-165.
- Shotter, David C. A. *Tiberius Caesar*. New York: Routledge, 2004. (1st ed. 1992)
- Spielberg, Lydia. "Language, *Stasis* and the Role of the Historian in Thucydides, Sallust and Tacitus."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138, no. 2 (2017): 331-373.
- Strunk, Thomas E. "Saving the Life of a Foolish Poet: Tacitus on Marcus Lepidus, Thrasea Paetus, and Political Action under the Principate." *Syllecta Classica* 21 (2010): 119-139.
- Sullivan, Donald. "Innuendo and the "Weighted Alternative" in Tacitus." *The Classical Journal* 71, no. 4 (1976): 312-326.
- Syme, Ronald. *The Roman Revolu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39.
- _____. "Marcus Lepidus, *Capax Imperii*." *The Journal of Roman Studies* 45, no. 1, 2 (1955): 22-33.
- _____. *Tacitus*. (2 vo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 _____. "Obituaries in Tacitus." *Th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79, no. 1 (1958): 18-31.
- _____. *Sallus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4.
- _____. *Ten Studies of Tacitu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 _____. "History or Biography. The Case of Tiberius Caesar." *Historia*:

-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23, no. 4 (1974): 481-496.
- Tarrant, R. J. and Michael Winterbottom. "Tacitus." in *Texts and Transmission. A Survey of the Latin Classics*. eds. by Leighton D. Reynolds and N. G. Wils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406-411.
- Trompf, G. W. *Early Christian History: Narratives of Retributive Justice*. London: Continuum, 2000.
- Vielberg, Meinolf. "Ingenium und Mores: Beobachtungen zur historischen Begriffsbildung an Tac. "Ann." 6,51,3." *Mnemosyne*, Fourth Series 49, fasc. 4 (1996): 452-456.
- Wellesley, K. "The Dies Imperii of Tiberius." *The Journal of Roman Studies* 57, no. 1 (1967): 23-30.
- Wharton, David B. "Tacitus' Tiberius: The State of the Evidence for the Emperor's Ipsissima Verba in the *Annals*." *Th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118, no. 1 (1997): 119-125.
- Whitehead, D. "Tacitus and the Loaded Alternative." *Latomus* 38 (1979): 474-495.
- Whitehouse, John. "The Prefaces of Sallust and the Historiography of Disillusionment." *Iris* 23 (2010): 2-9.
- Wirszubski, Chaim. *Libertas as a Political Idea at Rome during the Late Republic and Early Princip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0.
- Wiseman, Timothy P. *Clio's Cosmetics: Three Studies in Greco-Roman Literature*. Leicester: Leicester University Press, 1979.
- Wood, Gordon S. *The Creation of the American Republic, 1776-1787*.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5
- Woodman, A. J. *Rhetoric in Classical Historiography: Four Studies*. London and Sydney: Croom Helm, 1988.
- _____. "Tacitus' Obituary of Tiberius." *The Classical Quarterly* 39, no. 1 (1989): 197-205.
- _____. *Tacitus Review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_____. *From Poetry to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Woodman, A. J.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Tacit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Abstract

A Study on Tacitus' Narrative of the Principate: Focusing on the Tradition of the Roman Historiography

Kihoon Kim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lassical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nnals* of Cornelius Tacitus has a distinctive status in his *opera omnia*. For although it is the last work of Tacitus, it functions as the prequel narrative of the *Histories* in relation to historical time. Therefore, Books 1-6 of the *Annals* is the first to read according to the priority of years from 14-96 CE. Based on this singularity, the present dissertation tries to clarify Tacitus' purpose and the significance of writing the history of the early principate, focusing on the preface and the foremost narrative of the *Annals*. In short, Tacitus found a way forward in the political reality, not as a politician-orator but as a historian-writer. For it was the age in which the political freedom was not as secure as it was before the principate, although at that time, the *Pax Romana* had been reestablished. To write history was a possible alternative for him, because Roman historiography had been refined by the political history tradition and rhetorical improvement, since 1st century BCE. His erudite writing style and his historical works, which are still didactic to "our age" (*aetas nostra*), were the fruits from the rhetoric education and the Roman

historiography tradition.

The first work of Tacitus, the *Agricola* is not only the biography of his father-in-law for the posterity in the form of a eulogy, but also a kind of the *apologia pro vita sua* of the historian himself who survived the tyranny of Domitian. In the preface, Tacitus notes that the principate and the freedom (*principatus ac libertas*) were “irreconcilable from long ago” (3.1: *res olim dissociabiles*). From this, we may assume his paradoxical sentiments, hope for his own contemporary situation, and pessimistic perspective on history. Such an attitude is not irrelevant since his plan to write a contemporary history was actually abandoned, though he had previously promised to do so. This study traces the course of the decision to write the *Annals* as a history of his own time, by analyzing his life and career through the Flavian dynasty in historical documents. And it argues that the writing of history is a reasonable means for Tacitus to secure freedom by distancing himself from realpolitik.

Writing the *Annals* was the effective means for Tacitus with the regard to his historiographic style and was of timely importance. His consciousness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libertas*; *παρρησία*) which Tacitus did not enjoy or lacked, also appears in the *Dialogue about the Orators* (*Dialogus de oratoribus*). As the protagonist in the work, Maternus chose writing drama as an alternative for political activity. Likewise, Tacitus also decided to write about the past, instead of writing of his own time. Writing of relatively more distant past events permitted him somewhat more freedom, in both content and form. The *Annals* was the means and the media for him to reiterate the old ideas with the old freedom. The history after the death of Augustus, in particular, was an appropriate subject to reveal the actual state of the principate, because the freedom of the Roman Republic began to transform into servitude and the heritage issues of monarchical power emerged in that period. The present dissertation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the structure and the style of the *Annals* in its early phase, in terms of style, in relation to how the instability of the principate resonates with Tacitus' writing style.

Seeking the cause of a necessary by-product and ills in the principate, Tacitus traverses its early history, as it were, from a safe distance which historiography ensures. Princeps Tiberius, in Books 1-6 of the *Annals*, is usually interpreted as a prefiguration of tyrants in Imperial Rome. But the insight of Tacitus shows that the principate relies on a 'mixed' constitution which was essentially anti-liberal and arbitrary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the sole ruler. Tacitus also notices that the monarchical system was gradually consolidated under Tiberius. Such the structural instability of the principate, the imperfections of Augustus' constitution are highlighted in the *Annals*. Tiberius in the *Annals*, after the age of the 'restored republic' (*res publica restituta*) realized by Augustus, had persisted for almost 23 years. But he could not prevent the state, which had apparently maintained dissimulative cooperation between its republican heritage and sole ruler, from transforming itself into a monarchy. As such, he set the precedent for bad principes, and the counterexample for the new principes in the 2nd century CE.

After the period of Tacitus' *Annals* and *Histories*, the age of the Five Good Emperors (96-180 CE) followed. These historical works are the political history of the Roman Empire in the 1st century CE, in which "the bad emperor drove out the good." Tacitismo, so to say, the interpretation of Tacitus that has followed since 16th century, was a movement in which famous political thinkers tried to read the reality of power under a monarchical ruler before the advent of constitutional legislation, especially in the early part of the *Annals*. It is a political history (πραγματική ιστορία) which describes the "broken world" depending on the imperfect collusion and dissimulation of the Romans since the death of Augustus (*ab excessu*

divi Augusti). As a kind of the ventriloquism, the *Annals* also reflects the transition of the ruling system and anticipates the change in historiographic style.

Keywords : Cornelius Tacitus, *Annals (Annales)*, principate (principatus), Roman Empire, Tiberius Caesar, Roman Historiography, Tacitism
Student Number : 2012-30032